

大韓帝國 軍事教範集 ③

戰術學教程(下)

金元權 編譯

國防軍史研究所

본 저작물은 정부예산으로 발간하였으므로 기관(부대)
자산으로 영구보존하시기 바라며, 보관이 불가능할 경우
당 연구소로 회송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總目次

- ▶ 上 卷——
- 第 1 篇 用 兵
 - 第 2 篇 戰 術 學
 - 第 3 篇 各兵科의 戰術
 - 第 4 篇 諸兵科의 聯合
 - 第 5 篇 命令 및 報告
 - 第 6 篇 搜索勤務
- ▶ 下 卷——
- 第 7 篇 警戒勤務
 - 第 8 篇 行 軍
 - 第 9 篇 駐 屯
 - 第10篇 戰 鬪
 - 第11篇 局 地 戰
 - 第12篇 特別行動

下卷 目次

第7篇 警戒勤務	1
第1章 總 論	3
第2章 行軍警戒	4
第1節 通 則	4
第2節 前進移動時 警戒勤務	5
第3節 敵の側方行軍時 警戒勤務	13
第4節 退却時 警戒勤務	16
第5節 側 枝 隊	20
第3章 駐屯時 警戒(前哨)	21
第1節 前哨の通則	21
第2節 混成前哨	26
第3節 獨立歩兵の 前哨	44
第4節 獨立騎兵の 前哨	45
第8篇 行 軍	47
第1章 總 論	49

第2章 行軍速度에 관한 素質	51
第1節 諸兵科部隊의 行軍速度	51
第2節 休 息	53
第3節 道 路	54
第4節 天 候	55
第5節 士氣 및 體力	56
第6節 行軍縱隊의 大小	56
第7節 行軍軍紀	57
第8節 出發準備	59
第9節 出發時刻	60
第10節 集 合	61
第3章 各兵科部隊의 行軍隊形	62
第1節 通 則	62
第2節 行軍序列	66
第3節 行軍種類	68
第4章 鐵道輸送	72
第5章 船舶輸送	74
第1節 敵이 없는 地域에서 上陸	75

第2節 敵이 있는 地域에서 上陸(敵前上陸)	76
第9篇 駐 屯	79
第1章 要 領	81
第2章 舍 營	83
第1節 舍營의 種類	83
第2節 宿營命令	84
第3節 舍營의 勤務員	85
第4節 舍營의 設置	89
第5節 警急集合場所	91
第6節 警 報	92
第3章 露 營	93
第1節 露營의 設置	93
第2節 露營의 勤務員	95
第3節 警報 및 出發	97
第4章 村落露營	98

第10篇 戰 鬪	101
第1章 總 論	103
第1節 戰鬪의 要旨 및 目的	103
第2節 戰鬪의 勝敗	104
第2章 戰鬪의 攻守(攻擊 및 防禦)	105
第3章 攻擊의 要領	107
第1節 攻擊地點의 選定	107
第2節 攻擊의 諸方法	108
第3節 攻擊部隊의 運用方法	112
第4節 攻擊配置 및 追擊	113
第4章 防禦의 要領	116
第1節 防禦陣地의 要件	117
第2節 待機陣地	120
第3節 防禦配置 및 退却	121
第4節 逆 襲	124
第5章 戰鬪의 經過	125
第1節 戰鬪開始(緒戰)	126

第2節 戰鬪實行(酣戰)	126
第3節 決 戰	127
第4節 退却과 追擊	127
第6章 戰鬪指揮의 要領	128
第11篇 局 地 戰	131
第1章 總 論	133
第2章 高地戰鬪	134
第1節 總 論	134
第2節 攻 擊	134
第3節 防 禦	134
第3章 溪谷戰鬪	135
第1節 總 論	135
第2節 攻 擊	136
第3節 防 禦	136
第4章 森林 및 民間人 居住地의 戰鬪	137
第1節 森林戰鬪	137

第2節 民間人 居住地 戰鬪	140
第5章 隘路戰鬪	145
第1節 總 論	145
第2節 隘路의 攻守	146
第3節 山 岳 戰	151
第6章 河川戰鬪	156
第1節 總 論	156
第2節 攻 擊	156
第3節 防 禦	156
第12篇 特別行動	159
第1章 總 論	161
第2章 奇 襲	162
第1節 定 義	162
第2節 掩 擊	162
第3節 伏 兵	163
第3章 背後 交通路의 掩護, 破壞 및 閉鎖	165
第1節 掩 護	165

第2節 破壞 및 閉鎖	166
第4章 戰場에서 工事의 掩護	168
第5章 輜重의 護衛 및 攻擊	169
第1節 護 衛	169
第2節 攻 擊	172
第6章 徵 發	174
第7章 別 動 隊	176

■ 譯者後記

第 7 篇

警戒勤務

第1章

.....

總 論

적의 근방에서는 행군이나 주둔의 구별이 없이 경계부대를 파견하는 요지를 앞의 제6편에서 기술하였거니와, 이 경계부대의 임무는 군 전체를 위하여 불의의 적습을 방지하고 본대로 하여금 전투를 준비할 시간을 얻게 하는데 있다.

경계부대의 병력은 본대가 전투준비를 정비하는 것이 점점 어려워짐에 따라 더욱 그 규모가 커져야 하지만, 이 부대는 본대에 비하여 힘이 더 들고 본대의 병력을 줄이게 되는 점에 주의해야 하며, 통상 실제로 소요되는 병력을 초과하지 않아야 한다는 원칙을 확실히 지켜야 한다.

적의 예상접근로뿐만 아니라 접근이 가능한 모든 방향에도 경계부대를 파견하여야 하고, 이 부대들은 상호간에 그리고 본대와의 연락을 유지하면서 적군이 잠입하지 못하게 하여야 한다. 다만 그 주력은 통상 가장 위태로운 방향에 위치하는 것이 중요하다.

만일 개활지에 있는 본대가 적 포탄의 피해를 받지 않도록 하려면, 경계부대는 본대로부터 거리가 3,000m 이상인 지역을 경계하여야 하지만, 그 거리가 지나치면 고립되어 적에게 격파당할 염려가 있으므로 많은 병력이 필요하고 또한 적군이 아군의 경계부대를 우회하여 본대와 이를 차단할 위험이 있음을 고려하여야 한다.

경계의 강도는 시기와 지형 등에 따라 차이가 있으나, 경계부대는 통상 적에 접근하면서 점점 소규모 단위로 구분하여 각 부대는 축차적으로 후방부대의 안녕을 유지하고 또한 전투준비의 여유를 주어야 하며, 후방부대는 전방부대를 지원하는 것이 원칙이다.

第2章

.....

行軍警戒

第1節 通 則

1. 警戒部隊의 編組

제병연합의 소부대로서 적과 충돌 우려가 적을 때는 기병만을 가지고 행군경계부대를 편조하는 경우가 있으며, 대개 이와 같은 부대는 적과 충돌하여도 신속하게 전투전개를 할 수 있기 때문에 지구전을 사용하여 본대의 전개를 엄호하기보다 오히려 신속하게 수색을 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할 수 있다.

포병 1개 중대 정도만을 보유한 연합지대(聯合枝隊)에 있어서는, 이를 분할하여 1, 2문의 화포를 경계부대에 부가하지 않고 본대에 배치하여야 하며, 이와 같은 지대는 장경(長經)이 길지 않기 때문에 전투개시에 임하여는 포병을 전방에 신속하게 진출시켜야 하며, 포병의 전술단위를 분할하는 것은 크게 불리하다.

제병연합의 대부대에서는 적어도 보병과 기병으로써 행군경계 부대를 편성하고 필요시는 포병경계부대(전위, 측위 또는 후위의 본대)에 부속시켜야 한다. 적을 추격할 전위와 적 앞에서 퇴각할 후위에 있어서는 포병의 대부분 때로는 전체를 전위나 후위에 부가하는 것이 유리하다.

이밖에 오히려 필요시 공병을 경계부대에 부가하고, 또한 하천이 많은 지역을 행군하는데는 소가교종렬(小架橋縱列)을 공병과 함께 전위에 부가하여야 하지만, 퇴각시에는 공병 및 소가교종렬은 제일 선두(혹은 1일 행군시간 이상)에서 나아가게 한다. 대부대에서 필요시는 위생부대의 절반을 경계부대에 부가한다.

2. 行軍警戒兵力

행군경계병력은 아군의 목적과 적정, 지형 그리고 행군중대의 대소에 따라 가변적이나, 모든 부대 보병의 약 1/6 내지 1/3의 범위내에서 가급적 전제부대를 사용하는 것이 원칙이다.

第2節 前進移動時 警戒勤務

1. 前 衛

가. 任務, 兵力 및 編組

(1) 임 무

전진할 때의 전위는 경계부대의 일반적 임무, 즉 적의 상황을

6 第7篇 警戒勤務

수집하고 또한 적의 급습을 방지하여 본대에 전투준비의 여유를 주는 외에 오히려 특별임무를 지는데, 그 임무는 요로(要路)상의 장애(적의 병력이나 물건)를 제거하여 전진로를 개척하여 본대의 행군이 지연되지 않도록 함으로써 본대의 목적(신속히 전진하여 모처에 도달)에 부응하는 것이다.

그리고 전위부대장은 본대의 계속적인 이동을 위하여 적의 소부대 등은 고려함이 없이 과감하게 전진하여야 한다.

(2) 병력 및 편조

전진 이동시에 전위보병의 규모를 예로 들면, 다음 도표에서 보는 바와 같다.

구 분	전 위 보 병 규 모	비 고
사 단	보병 1개 연대	
보병여단	보병 1 내지 2개 대대	
보병연대	보병 1개 대대	
보병 2개 대대	보병 2개 중대	
보병대대	보병 1개 중대 또는 3개 소대	
보병 2개 중대	보병 1 내지 2개 소대	
보병중대	보병 1개 소대	

제병연합부대에서는 이상의 도표에서 열거한 바와같이 전위보병에 소요의 타병과부대를 부가하며, 그 편조는 상권 지대편성요령(제4편 제3장 제2절)을 표준으로 하여야 한다.

나. 區 分

전위는 전위본대와 전병(前兵)으로 대별하고 통상 전위기병을

가세시킨다.

(1) 전위본대

전위본대는 전위의 전투임무를 담당하기 위하여 전위보병의 대부분과 포병으로써 편성하여야 한다.

전위본대와 본대와의 거리는 오직 행군중대의 대소에 관계가 있으며, 이는 행군이 막혀서 중지될 염려가 없도록 하며 또한 본대가 전투전개에 필요한 시간과 장소를 획득하도록 멀어야 한다는 것과 동시에 본대가 시기를 놓치지 않고 전투에 돌입할 수 있도록 적당한 거리로부터 멀리 떨어지지 않아야 한다. 따라서 이와 같은 상반된 2개의 요구조건을 헤아려서 그 거리를 행군중대의 길이에 따라 적당하도록 정하여야 한다.

그밖에, 이 거리는 아군의 목적, 적과의 거리 그리고 지형에 따라 다소는 참작을 하여야 한다. 즉, 적군이 멀리 떨어져 있거나 지형이 개활지인 경우에는 그 거리를 멀리 하여야 하고 공격을 위하여는 앞으로 나아가며, 적군에 근접하든지 지형이 음폐 또는 단절된 경우에는 단축하여야 한다.

(2) 전 병

전병(前兵)은 전위본대의 전방에 위치하여 직접 경계임무를 담당하며, 전위보병의 1/4 내지 1/3 그리고 필요한 기병과 공병으로써 편조한다.

전병과 전위본대와의 거리는 전병이 적과 충돌할 시기에 전위본대로 하여금 전투전개 여유를 얻을 수 있게 하는데서부터 계산이 되기 때문에 전위본대의 병력규모를 고려하여 통상 400m 내

지 800m 정도이고, 소규모 전위의 경우 이 거리는 전위본대가 적의 유효사격에 의한 급습을 받지 않을 정도로 제한한다.

전병을 확대하여 경계를 더욱 확실히 하기 위하여 1개 부대를 파견할 때는 보병 1개 부대(중대 또는 소대)를 전방 300m 내지 400m 지점에 파견하며 이를 전병지대(前兵支隊)라고 부른다.

전병이나 전병지대는 다시 전병으로부터 300m 내지 400m 지점에 보병인 첨병(尖兵)을 내보내고 이 첨병의 전방에 오직 기병인 첨병을 또한 내보내는 경우가 있으며, 모두가 전병이나 전병지대 책임자의 직할로 소속된다.

(3) 보병첨병

보병첨병(步兵尖兵)은 약간의 저항력을 갖추어 전병의 지원을 받지 않으면서 광범위하게 수색임무를 수행하기 때문에, 그 병력 규모는 1개 분대 이상이며 장교가 지휘한다.

점차 개활지로 접어들면서, 첨병은 필요시 척후만을 파견하지만 촌락과 음폐된 지역에서는 산개자세로 행군을 많이 하므로 전병과는 확실히 연락을 유지한다.

삼림이 아주 무성하든가, 농무가 가리거나, 행군중대가 크든가 그리고 적에 아주 근접하였을 때 같은 경우에는 그 병력이 증가되어 1개 소대에 이르기도 한다.

(4) 기병첨병

기병첨병(騎兵尖兵)은 4기(騎) 내지 6기를 장교가 지휘하고 기타 1기 혹은 2기를 배후연락에 충당하여, 도로변의 높은 곳에 올라 근방을 정찰한 후에 빠른 속도로 전진함으로써 머문 동안의

지체시간을 회복하여야 한다.

기병침병은 거동이 이와 같으므로 보병의 전방에서 전진할 때 이격거리의 기준을 결정할 수는 없다. 이 이격거리는 적과의 거리, 전방 지형의 음폐 여부, 전망이 편리한 지점의 획득, 상황에 따른 신속한 수색활동의 요구 정도 등에 따라 변화될 수 있으며, 어떠한 경우에도 후방에 있는 부대와와의 연락유지가 중요하다.

(5) 결 론

전위가 적 방향으로 향하여 점차로 작은 규모의 제대로 구분하는 이유는, 앞에서 가는 부대는 축차적으로 후속부대를 엄호하는데 있으며, 전진행동에서는 작은 부대가 큰 부대의 진퇴에 따라야 하고 큰 부대는 작은 부대와와의 연락을 유지하여야 한다. 다만, 보병과 기병의 침병에 한하여는 큰 부대로 연락을 취하도록 하는데, 이는 침병이 최전선에서 적군에게 주의하는 비중이 크므로 규모가 작고 행동이 가볍고 민첩한 까닭에 조금이라도 후환의 책임이 약해지면 경솔하게 나아가 후속부대와와의 연락이 아주 끊길 염려가 있으므로 어느 정도의 자유를 제한하여 이러한 폐단을 예방하기 위함이다.

몇 개의 행군중대가 평행한 도로를 전진함에 있어서는 각 전위는 척후로 중대간의 지역을 수색하고 서로 통보하도록 하는 것이 중요하다.

미약한 전위에 있어서는 전병을 생략하여 보병 및 기병의 침병으로 바로 전위본대의 전방에서 행군하도록 할 수 있다. 또한 작은 부대, 가령 1개 소대가 행군할 때 같으면 적어도 1개 분대로써 침병을 편성하여 전위의 임무를 담당하게 한다.

나. 前衛의 戰法¹⁾

(1) 패주하는 적을 주격시

이는 전위가 가장 현저한 공을 세울 기회이면서 동시에 가장 어려운 행동시기이다. 이때에는 조금도 적이 휴식할 여유가 없도록 하는데 온갖 노력을 하여야 한다.

기병과 포병은 주요한 임무를 담당할 수 있기 때문에 가능한 한 많이 사용하며, 만일 상황이 허락하면 이 양개 병과는 보병보다 먼저 전진하고 보병은 이를 급히 수행하며 적군이 저항시에는 공격하여야 한다. 보병이 공격하는 동안 기병은 적을 우회하고 포병은 요란사격을 실시하는데, 적의 후위진지가 매우 굳세고 강해서 공격이 유리하지 않을 때는 신속하게 우회하여 그 배후 도로를 위협하여야 하며, 본대의 지원을 기다리는 경우는 오직 그 전투력이 적에 미치지 못할 때로 한한다.

(2) 열세한 적과 조우시

전위가 아주 약한 적과 조우하면 맹렬하고 과감하게 공격하여야 하며, 주저하여 본대의 행군이 중지되는 것 등은 결코 안된다.

(3) 진지에 머물고 있는 우세한 적과 조우시

이때의 전위는 전투에 편리한 지역과 포병진지로 적합한 지역을 점령하고 전투를 위하여 지탱함으로써, 본대의 진출과 전개를 엄호하고 또 전투에 필요한 지역과 시간의 여유를 얻을 수 있게 한다. 독자적인 능력으로 전투다운 교전을 하여 본대가 합류하기

1) 이 항은 3번째가 아니고 2번째 항이므로 수정하였다.

전에 적을 격파하는 등의 일은 불가하며, 다만 시기에 따라 과감하게 병력 전부를 전개할 경우는 있다.

(4) 우세한 적의 공격을 받을 때

전위가 우세한 적의 공격을 받을 때는 일시적으로 방어진지에 의탁함으로써 지형의 이점을 차지하고 강인하게 대적하여 본대의 도착을 기다려야 한다. 이 진지는 본대의 소망에 따라 혹은 공격하고 혹은 방어하는데 적응할 필요가 있다.

(5) 대등한 전투력을 가진 적의 전진에 조우시

이 경우에는 전개의 속도에 따라 이익이 점차로 커지기 때문에 더 이상의 진출은 생략할 때가 이따금 있다.

(6) 결 론

이상에서 보면, 전위의 전투방법은 아군의 목적, 특히 적의 규모 그리고 상황에 따라 달라진다. 그러므로 전위가 한 번 적과 만나면 가급적 신속하게 적군의 규모와 상황을 살펴서 알아야 하며, 전위를 선도하는 기병은 전위가 적과 충돌하기 전에 먼저 적의 상황을 보고할 책임이 있으나 그 보고가 항상 확실하고 완전한 것만은 아니다.

또한 본대나 전위는 모두 이러한 기병을 보유하고 있지 않으므로 전위부대장은 적 전선의 폭, 병력의 배치, 화포의 수량 그리고 기타 보거나 들은 모든 것을 참조하여 신속하고 정당하게 적상황을 판단하여야 한다. 그러나 이러한 어려운 일이 음폐, 단절된 지역에서는 더욱 심하므로 능히 이 어려움을 극복하는데는 예리한

안력(眼力)을 필요로 하기 때문에 평소에 마땅히 이러한 능력을 양성, 연마하여야 한다.

2. 側 衛

행군시 경계를 위하여 전위의 각 제대는 척후를 전진로의 측방에 내보내야 하며, 특히 측위는 정면을 폭넓게 경계할 경우에만 설치하고 당시의 형세에 따라 전병, 전위본대 또는 본대로부터 파견된다. 다만, 본대로부터 파견될 때는 전위는 측면을 자력으로 엄호하여야 한다.

전투를 예상하지 않고 오직 수색을 주로 하며 경계에 임할 측위는 기병만으로도 충분하지만, 이와같이 않은 형세에서는 보병과 기병의 양개 병력으로써 편성하고 그 규모는 전위보다 작으며, 여기에 포병을 부가하는 것은 측위의 위력을 최대로 발휘할 때로 한정한다.

일반적으로 측위는 가능한 한 본대의 전진로와 평행하는 도로를 취하여 본대에 준하여 행군함으로써 소속부대를 엄호하고 자체경계를 위하여는 척후와 일부병력을 파견한다. 그외에 측위는 한곳에 머물러 임무를 다하는 경우가 있으나 그 방법은 다음 절(엄호 제2방법)에서 기술한다.

3. 後 衛

전진이동시에는 후방이 적습을 받을 염려가 거의 없기 때문에, 후위는 경계를 위하기보다 오히려 군기유지를 위한 중요한 일이

많다. 그러나 적의 기병부대나 별동부대 등이 출몰할 때 혹은 토착민이 적의를 가지고 있어 아군의 배후가 불안할 때는 경계를 주안으로 하여 설치하여야 하며 병력 및 편조는 완전히 배후의 위험 정도에 관계된다.

第3節 敵의 側方行軍時 警戒勤務

1. 側 衛

가. 任 務

적의 측방으로 행군시는 적을 아군의 측면에 끼고 행군하는 것으로, 본대는 이 적을 피하면서 가능한 한 빨리 목적지에 도달하지 않으면 안된다. 이때에 본대가 적의 측방으로 나아가는 것을 비밀로 하고, 적습이 있을 때는 이를 저지하여 본대로 하여금 안전하게 목적지에 도달하게 하는 것이 측위의 특별임무이다.

이 임무는 전진이동시 전위의 임무보다 매우 어려우며 우세한 적군이 접근할 때에는 더욱 그러하다. 대개 전위는 본대의 직접 지원이 있지만, 측위에게는 이 지원이 불가능하여 그 형세가 고립된 형세인 것이다.

나. 兵力, 編組 및 掩護方法

(1) 병력 및 편조

측위의 병력은 적어도 전진이동시 전위의 병력규모와 같아야 하고, 편조도 또한 기병과 포병이 많이 필요한데, 이는 기병이

신속하게 적을 발견하고 포병이 이를 원거리에 고착시키기 위함이다.

(2) 엄호방법

측위는 당시의 형세에 따라 본대와 나란히 행군하거나(제1방법), 적당한 진지를 점령하고(제2방법) 혹은 공격하는 척하여 적을 진지에 고착시킴(제3방법)으로써 본대가 적의 측방으로 행군하는 것을 엄호한다.

㉔ 제1방법(병진하여 엄호한다) : 측위는 본대의 전진로에 병행하는 도로를 취하여 전진하는 전위와 동일하게 적방향에 대하여 병력을 침병과 측병으로 구분하여 척후로써 경계하며 또한 전위 및 본대와의 연락을 유지하는 것이 중요하다.

이 엄호방법은 본대의 행군을 지연시키지 않으며 또한 측위의 피로가 크지 않은 이점이 있으나 또한 다음과 같은 불리한 점이 종종 있다.

- 측위는 행군중에 측면을 적과 마주하기 때문에 위험이 크고 또한 적습을 받을 때는 지형이 아군에게 불리할지라도 바로 그곳에 전개하여 전투할 수밖에 없다.
- 측방에서 전진하면서 적을 경계하는 것은 주둔하여 경계하는 것보다 매우 곤란하다.
- 본대의 행군중대 가운데 측위와 머리를 가지런히 하면서 행군하는 부대 외는 확실히 엄호할 수 없다.
- 측방의 모든 부대가 적절하게 간격을 취하면서 행군할 병행로(竝行路)가 있는 경우는 매우 드물다.

이상의 기술에서 보면, 병진엄호의 제1방법은 적과 멀리 떨어져 있을 때만 적용할 수 있으며, 기병으로 편성된 측위는 통상 이 방법을 선택한다.

㉞ 제2방법(주둔하여 엄호한다) : 이 방법은 통상 적의 근방을 행군할 때에 사용하며, 지세가 점령하기에 편리하면 특히 적용하기 좋은 방법이다.

측위진지가 본대의 전진로로부터 멀리 떨어지면 근접한 것보다 오랫동안 본대의 행군을 엄호할 수 있으나, 너무 멀리 떨어지게 되면 적군이 측위와 본대의 사이에 침입할 우려가 있다.

㉟ 제3방법(공격하는 척하여 엄호한다) : 매우 위험하기 때문에, 이 방법을 사용하는 경우는 우세한 적군이 아군의 측방에 아주 가까이 있어 다른 엄호방법을 선택할 수 없을 때에 한한다.

이상의 3가지 방법 중 어떤 방법을 사용할 것인가는 완전히 지형과 적의 상황 그리고 아군의 목적 여하에 따라 결정한다.

측위가 본대와 나란히 나아갈 때는 행군방향이나 배후를 모두 경계하고, 주둔할 때는 적이 아직 접근하지 않았을 경우는 대기 자세로 있으며, 공격하는 척할 때는 전투방법에 따라야 한다.

모든 경우, 적의 유효사거리내에서 그 측방을 행군하게 되므로 본대는 지형의 엄호에 의지하는 것을 주안으로 할 수밖에 없다.

2. 前 衛

적의 측방을 행군할 때의 전위는 전진이동시와 같이 긴요하지

는 않으나 결코 두지 않을 수도 없다. 전진이 변하여 측진(側進)이 될 때는 전위를 측위로 바꾸고 새로이 전위를 편성하는 것이 필요하다.

이러한 전위의 임무는 오직 전진로를 정찰하여 장애를 제거하거나 도로를 보수하는데 있으므로 많은 적군에 대한 우려가 적을 때는 가급적 적은 병력으로 편성하며, 바로 기병에 공병부대를 부가하는 것 등이다.

3. 後 衛

적의 측방을 행군시에는 휴대품과 치중은 통상 적과 반대의 측방으로 이동하여야 하기 때문에 측위의 경계가 잘 미칠 때는 후위를 설치하지 않을 수 있으나, 적의 기병 등이 아군의 측위를 우회하여 본대의 배후를 위협할 염려가 있을 때와 흔히 휴대품 등이 본대의 행군중대에 잇달아 갈 때(단, 이때는 밀접하게 잇달아 갈 것이 요구된다.)에는 보병부대에 약간의 기병을 부가하여 후위가 되게 하여야 한다.

第4節 退却時 警戒勤務

1. 後 衛

가. 任 務

퇴각시 후위의 특별임무가 전진이동시 전위의 임무와 다른 것은 자명하다.

전진이동시의 근본취지는 나아가서 전투를 추구하는데 있으나, 퇴각시에는 적의 예봉을 피하여 물러나는 것이기 때문에 후위는 이미 무익한 위험을 무릅쓰지 않고 가능한 한 전투를 피하여 본대가 신속하게 적과 멀리 떨어지게 하기 위하여 존재하는 것이다.

후위가 부득이 교전하게 될 때는, 대개 우세한 적에 대하여도 강인하게 저항함으로써 최대의 공헌을 할 수 있도록 지휘하여야 하고, 전투를 오래 지속하면 본대와 더욱 멀리 떨어져 기맥(氣脈)이 끊겨 그 전투는 조만간에 중지될 수밖에 없으므로, 보병의 근접전투 등은 가급적 피하는 것이 중요하다.

또한 퇴각시에는 부대의 사기가 스스로 위축되는 등의 이유가 있기 때문에 후위의 임무는 매우 어려우며, 그 정도는 적에 가깝고 심하게 압박(逼迫)당하거나 적군이 강대함에 따라 더욱 증가하고, 패전 후의 퇴각은 실패의 정도에 따라 더욱 어려움이 커지게 된다.

후위는 전위보다도 기병과 포병이 많이 필요하며, 이 기병으로써 접촉을 유지하거나, 적의 전진을 머뭇거리게 만들거나, 아군의 측후방에 진출하려는 적을 저지하고 또한 포병으로써 적을 원거리로부터 전개하도록 하는 일이 가장 중요하다.

나. 兵力, 編組 및 區分

(1) 병력 및 편조

후위는 독립적으로 곤란한 임무를 담당하기 때문에, 그 병력은 전위보다 강력(통상 보병의 약 1/3 내지 1/4)하게 하고 가능한

한 새로운 정예병력이어야 한다.

그밖에 진지를 견고하게 하고 혹은 장애물을 설치하기 위하여 공병을 부가하는 것도 필요하다.

(2) 구 분

후위는 후위본대와 후병(後兵)으로 구분되고, 통상 후위기병을 부가하며 배치하는 전위와 비교하면 전후의 차이만 있다. 다만, 각 부서의 병력은 적과 대응시에 지나치게 미약하지 않아야 한다.

다. 後衛의 戰鬪方法

후위는 적이 급히 추격하여 육박하던가 혹은 본대에 퇴각할 여유를 주기 위하여 전투를 하지 않을 수 없을 경우에는 다음의 원칙에 따라 행동하여야 한다.

개활지로 방어에 적합하지 않은 지역은 전투대형을 유지하면서 가급적 신속하게 통과하여야 한다.

방어에 유리한 지역(애로, 고지, 촌락과 수풀가 등)에 도착하면 점거하여 적에게 전개를 강요하고 또한 손해를 줌으로써 시간의 여유를 얻도록 한다. 만일, 적이 본격적으로 공격을 감행하기 위하여 전진하거나 우회할 때는 신속하게 후방진지로 퇴각하여 장애물을 설치하고(교량을 파괴하고 애로를 폐쇄하는 등) 가능한 적의 전진을 방해하여야 한다.

후위진지는 당시의 형세에 따라 본대와 후위의 부대장 혹은 기타 장교가 행군중대에 앞서서 정찰하여야 한다. 양호한 후위진지는 차폐된 퇴로와 정면을 구비하여 전면은 적의 접근이 곤란하게 하고 또한 측면은 통행이 불가한 지역에 의탁하여 적이 멀리 우

회하지 않으면 침공해 올 수 없게 하는 것이 중요하다.

후위의 전투는 대개 수세적이지만 적에게 육박하여 전투에서 벗어나고자 할 때는 맹렬하고 과감하게 역습을 하여야 할 경우가 많으나, 이러한 행동은 매우 위험하다는 것을 명심하여야 한다.

적군이 계속 전진하여 급박하게 된 때도 후위는 일부병력을 도로변의 음폐지역에 매복시켰다가 급습을 하는 것이 유리하다.

후위는 사기가 저상하게 되는 외로운 부대이나 사기를 왕성하게 만들어 우세한 적군을 감당할 수 있는 일이 가능하므로 후위 부대장은 담력, 결단력, 기교 그리고 지혜를 갖추어 전투를 지휘하고 현상황에서 전력을 다 기울여도 전군(全軍)을 위한 희생이 된다는 것을 의심하거나 주저하지 말아야 한다.

2. 側 衛

퇴각시 우세한 적군이 별도로 멀리 후위를 우회하여 본대에 접근할 염려가 있으므로, 특히 1개부대를 파견하여 측면을 경계하는 일이 많으며 그 방법은 전진이동시의 측위와 동일하다.

3. 前 衛

퇴각시 전위의 임무는 오직 퇴로의 이용을 자유롭게 하는데 있기 때문에, 병력은 통상 공병부대(간혹 승차)에 약간의 기병을 붙이면 충분하지만 안전지대가 아닌 지역을 퇴각할 때에는 모든 병과부대로써 편성하지 않으면 안된다.

第5節 側枝隊

측지대가 본대의 측방을 엄호하는 것(전진, 퇴각과 측방진출의 여하에 관계한다.)은 측위와 동일하며, 다른 점은 대략 다음과 같다.

- 측위가 본대와 이격되는 정도가 제한되며 연락을 밀접하게 하는 것은 전위나 후위가 본대와의 관계에서와 동일하다. 그러나 측지대는 달라서 통상 본대와 멀리 이격됨에 따라 연락이 엄밀할 수 없다. 이 측지대(하권에서 상술한다.)란 명칭으로 독립적인 임무를 수행하는 책임자의 권한은 측위 책임자의 권한에 비할 수가 없이 큰 것이다.
- 측위는 1개 부대가 수일간 연속하여 임무를 수행하는 경우가 거의 없으나, 측지대의 경우는 이와 반대이다.
- 측위는 주둔 및 전투시에는 본대에 복귀할 경우가 많으나, 측지대는 대개 독립하여 주둔하고 전투시는 자력으로 1개 방면의 적을 담당하거나 특이한 전투임무를 수행한다. 특이한 임무란 본대가 나아가 적을 공격하고자 할 때는 적의 측면 또는 측배(側背)를 위협하고 본대가 물러나서 1개 진지를 지키고자 할 때는 그 측방의 요지를 점령하는 것 등이다.

第3章

.....

駐屯時 警戒(前哨)

第1節 前哨의 通則

1. 任 務

전초의 임무는 적 상황을 수색하고 휴식하는 부대를 경계하며, 그 부대로 하여금 모든 경우에 전투 혹은 행군을 준비할 여유를 가지게 하는데 있다.

대체로 전초가 임무수행상 가장 삼가야 할 것은 전투를 시도하지 않는데 있으며, 대개 무익한 소규모전투는 전군(全軍)의 정숙을 방해하고 또 이 전투는 결국 전초가 저항할 수 없는 대규모전투를 야기하기에 이르게 한다. 그러나 전초는 적습에 대하여 항상 완전한 전투준비를 갖추고 전력을 다하여 항전하여야 하며 또 각급장교는 자신을 희생하여 본대를 엄호하는 책임을 다할 것을 명심하여야 한다.

2. 編組, 兵力 및 前哨陣地

가. 編組 및 兵力

전향의 전초 임무 가운데 적 상황의 수색은 기병의 주임무이

며, 일시적인 여유를 얻기 위한 항전은 보병의 주임무이다.

그러므로 이 2개 병과를 연합하고 장단점을 보완하여 수색경계에 서로 대비하는 것이 통칙이며 혼성전초라고 부른다.

여러 병과가 연합한 부대에서는 공병을 부가하는 경우가 있으나, 야전에서는 오히려 포병을 부가하는데 이는 전초선 앞의 주요한 부분(교량 혹은 기타 애로)에 대한 사격이 필요할 때 혹은 전초진지에서 강력한 저항을 할 때 등과 같은 드문 경우에서 뿐이며, 이 경우에서도 포병은 미리 사격을 규정하지 않았으면 야간에는 사용하지 않고 통상 전위본대(주둔시 이를 설치하지 않았으면 본대)로 물러난다.

이상의 요지에 따라 보병과 기병을 혼성한 전초로써 주둔시 경계를 하는 것이 통상적인 방법이다. 그러나 경우에 따라 보병이나 기병을 단독으로 전초에 충당할 수 있으며, 이 경우에 대하여서는 후술한다.

전초의 병력은 위협의 정도, 아군의 규모, 지형의 난이도, 본대와와의 거리 그리고 본대가 전투를 준비하는데 필요한 시간 등에 관련시켜 결정한다.

그러나 대부대의 전위(후위)는 흔히 그 병력의 1/2 내지 1/4을 전초에 충당하여 전위(후위)의 다른 일부, 즉 전위(후위)본대가 전초본대의 후방에서 숙영하도록 하는 것이 통상이다.

소부대에서는 대개 전위의 병력을 모두 전초에 충당하기 때문에 전위본대가 전초본대로 바뀌게 되면서 전위부대장은 전초부대장의 임무를 수행한다. 만일 그 병력이 또한 미약할 때는 전초본대를 생략한다. 전초를 가급적 적은 병력으로써 충족하려는 때는 전초진지의 선정이 타당하여야 한다.

나. 前哨陣地

전초진지는 적은 병력을 가지고 경계할 수 있는 장소가 가장 양호하다. 즉, 적군은 아군이 점령하고 있는 애로를 통과하지 않으면 쳐들어올 수 없고 또한 아군은 전방지역을 관측하기에 자유로운 곳 등이다.

전초진지는 능히 본대를 엄호하기 위하여 방어에 적절한 몇 개의 요지를 준비하여, 진지의 내부를 가능한 한 적의 관측으로부터 차폐시키고 전초의 각 부대가 상호 지원하는 것이 요구된다. 양익은 안쪽에 활의 모양을 만들어 측면과 함께 방어지역이나 도보이동이 곤란한 지면에 의탁함으로써 경계를 확실하게 하는 것이 중요하다.

3. 前哨의 配置

가. 前哨의 配置方法

전초의 배치방법에도 역시 일정한 법칙을 세울 수는 없으나, 대개 그 배치는 후에 상세히 기술하는 바와같이 행군 후(행군 후의 전초), 전투준비의 대형(전투의 전초) 그리고 적에 근접한 1개 지역에 장기간 주둔(장기간 주둔시 대적하는 전초)함에 따라 변화한다.

어떠한 경우에서도 전초배치의 주안이 되는 바는 신속하게 적의 접근을 탐지하고 또 적습시에는 후방부대의 준비를 엄호하기 위하여 이를 저지하는데 있다.

따라서 전초부대장은 먼저 전초의 저항선을 선정하여 이 선을 훌륭히 이용할 만한 전초병력을 배치하는 것이 중요하며, 이 저

항선은 전초중대 소재지의 부근을 관통하여야 하고 지형에 따라 소초선(小哨線)에 선정하는 경우는 있어도 보초선에 선정하는 경우는 드물다. 즉, 보초선의 지형이 저항하기에 매우 유리하고 그 내부에 충분히 지킬 수 있는 지형이 없을 때에 한하여야 한다.

전초의 경계지역이 넓어서 1개 전초부대장이 지휘할 수 없거나 지형이 음폐되고 단절되어 교통이 불편할 때는 지역에 따라 전초를 구분하고 각 지역에 전초부대장을 배치하는 것이 기본이다.

전위(후위)부대장은 행군중에 늦어도 주둔명령을 받는 것과 동시에 본대와 함께 전위본대의 숙영지, 급양의 종류 그리고 전위에 대한 조치를 취한다. 명령을 받은 때는 통상 도상(圖上)에서 전위명령을 하달하며, 이러한 명령을 하달하는데는 다음과 같은 두 가지 방법이 있다.

제1방법은, 신속하게 경계선을 설치하기 위하여 전초부대장에게 목하(目下) 긴요한 사항만을 지시하여 조치하도록 한 연후에 일반적으로 관계되는 사항을 포함하여 명령을 하달하는 것이다.

제2방법은, 처음부터 제반사항을 포함한 명령을 하달하는 것이다. 이 제2방법에서는 부대의 휴식과 경계의 설치를 지연시키는 불리한 점이 있어도 최초부터 완전한 명령을 하달하는 이점이 있으며, 완전한 전위명령에 기재하는 사항은 대개 다음과 같다.

- ① 적 상황의 개요(경계에 관련하여 부하가 꼭 알아야 할 사항에 한한다.)
- ② 아군의 목적과 본대 및 전위본대의 숙영지
- ③ 전초부대장 및 그 지휘에 속한 모든 부대(전초부대장의 임무 및 그 실시에 필요한 특별 지시사항, 가령 전초가 적습

을 받을 때 취할 조치와 특히 고수할 지역 및 감시를 가장 엄하게 해야 할 지점 등)

이밖에 통상 다음과 같은 사항들도 명령한다.

- ④ 전위본대의 숙영법
 - 사영(舍營) 및 야영부대장의 임명과 전위의 경급대집합 장소(필요시에 한한다.)
 - 당시의 상황에 따라 전위본대로부터 차출할 경계병과 그 임무 그리고 차출할 부대
- ⑤ 급양방법(이 지시가 가능할 때)
- ⑥ 전위부대장의 위치(居處)와 다시 명령을 수령할 자를 차출할 시각

나. 前哨部隊長

전초부대장은 전위명령에 기초하여 통상 지도에 의존하여 가능한 한 행군중에 전초명령을 하달하며, 전위부대 전체로써 전초를 편성할 때는 전위명령을 하달하지 않고 전초명령만을 하달한다. 다만, 당시의 상황이 허용하면 명령하달에 앞서 실제 지형을 대략 살펴보는 것이 편리하다. 전초명령으로 지시할 사항은 대개 다음과 같다.

- ① 전위명령에 기재하는 사항의 제1항에 준할 것
- ② 전위명령에 기재하는 사항의 제2항에 준할 것
- ③ 전초기병 경계선의 개요 및 이 기병이 엄히 경계할 도로, 야간이 되면 전초본대로 물러날 기병이 따라야 할 규정 그리고 기병의 야간 임무

- ④ 전초중대가 경계할 지역의 구역 및 개략적인 위치, 전령기병의 할당 및 보병부대에 배분할 기병부대, 필요시 사초(査哨)²⁾를 설치할 도로 그리고 적습을 받을 때에 취할 조치
- ⑤ 전초본대의 숙영 및 이를 필요로 할 때 바로 전초본대로부터 차출할 경계병의 지정, 필요시 전투준비의 완급정도 및 도로 폐쇄 등과 같은 특별 조치
- ⑥ 전초부대장의 위치

第2節 混成前哨

1. 通 則

혼성전초는 크게 구분하여 전초본대, 전초중대 그리고 전초기병의 세 가지로 나눈다.

전초본대 및 전초중대는 약간의 저항력을 필요로 하기 때문에 보병으로 충당하고, 전초기병은 주간에는 보병보다 최전선에서 사용하여 적과 접촉을 유지하고 또 상황에 따라 멀리 전방에 있는 지점을 점령한다.

상세히 기술하면, 전초본대는 전초중대를 내보내고 전초중대는 주야간을 막론하고 소초나 독립하사초를 내보내며 혹은 모두 내보내서 경계를 수행한다. 필요시는 전초본대(혹은 전위본대)도 또한 그 전방과 측방에 소초 혹은 독립하사초를 내보내며, 독립하사초는 보초를 내보내어 경계를 수행한다.

2) 사초(査哨) : 보초선을 감시하기 위하여 일정한 지역에 세운 보초를 말한다.

2. 前哨本隊

(세부사항은 야외요무령 제114항 및 제115항 참조)

전초본대는 전초중대의 후방증원부대이면서 전초의 총예비이기 때문에 전초병력의 대부분으로써 충당하는 것이 필요하며, 그 위치는 통상 주요도로의 근방이고 항전에 적합한 요지의 후방(급수에 봉착하여도 기회를 잃지 않고 이 지점을 점령할 수 있는 범위에 한한다.)이어야 한다.

전초본대는 전초부대장의 직할부대이므로 전초부대장은 통상 이곳에 위치하게 되며, 이곳에서 전초 전체를 시종 감독하며 모든 보고를 접수처리하고 또 명령을 하달하는데 편리하다.

전초본대가 취할 전투준비의 완급은 일반적인 형세와 적의 상황에 따라 정해진다.

전초본대는 정숙과 군기를 유지하기 위하여 군기위병을 준비하고 필요에 따라 외곽경계를 위한 위병을 준비한다.

전초본대와 후방부대와의 거리는 일정하지 않으나 지형상의 이점이 없으면 대략 1,000m 내지 1,200m를 표준으로 하여야 한다.

3. 前哨中隊

(세부사항은 야외요무령 제116항 내지 제122항 참조)

가. 通 則

전초중대는 주요한 경계선을 설치하고 적을 저지함으로써 후방부대로 하여금 전투준비시간을 얻도록 하는 임무를 담당하며, 또한 전초기병을 최초로 증원하는 후방부대가 된다.

적습시에 전초중대는 소초 및 독립하사초를 증원하고 수용하여 적군이 가령 우세하고 공격이 맹렬하여도 별명이 없으면 가능한 오래 저지하여 전초본대가 전투준비를 갖추어 여유를 얻도록 하지 않으면 안된다.

전초중대와 전초본대와의 거리도 일정하지 않으나 지형상의 이점이 없으면 대략 600m를 표준으로 하여야 한다.

전초중대의 병력수는 지형과 도로상태에 따라 달라지며, 통상 주요 도로상과 근처에 최소한으로 1개의 전초중대를 배치하는 것이다.

전초중대가 경계를 위하여 취하는 방법은 중대장의 재량권 안에 있으며 또 적습시 항상 중대가 전투준비에 결함이 없도록 하기 위하여는 몸을 바쳐 그 책임을 다하여야 한다.

나. 小哨, 獨立下士哨, 기타 모든 哨兵

(세부사항은 야외요무령 제123항 내지 140항 참조)

(1) 소 초

대개 소초는 매우 긴요한 도로 및 요지의 경계를 담당하고, 보초와 하사초를 내보내어 적습시 증원하여 최초로 적에 저항한다. 병력은 가능한 한 1개 소대 또는 반개 소대이며 사관(혹은 하사로서 적임자)으로써 책임자를 임명한다.

소초와 전초중대와의 거리도 일정하지 않으나 지형의 이점이 없으면 대략 300m 내지 600m를 표준으로 하여야 한다.

혼성전초는 주간에는 전초중대의 전방에 전초기병을 배치할 때 보병소초를 생략하고 지형이 음폐되고 또 적군과 근접하여 잠입

우려가 있을 때는 보병과 기병의 소초를 병용하며, 야간에는 오직 보병소초만을 운용한다.

보병소초에 기병의 일부를 부가하는 경우에 기병은 척후의 임무를 담당하고, 보병은 초병 및 전투 임무를 담당하는 것이 통상이다.

소초의 위치는 다음의 각항에 적합하게 선택하여 정하는 것이 요구된다.

- 적에 대하여 음폐된 지점
- 적의 방향으로 통하는 도로의 근방
- 보초선의 중앙 후면 또 향전에 적절하든가 긴요한 지점의 후방

(2) 독립하사초

독립하사초는 소초의 연락 및 측면의 경계를 보완하고 때로는 소초를 대신하며, 복초교대병 외에도 척후를 위한 약간의 병력으로 편성한다.

대개 작은 소초라고 하겠으며, 그 행동은 소초와 동일한 원칙에 따르고 때로는 멀리 보초선 전방으로 나아가 기병을 증원하고 또 야간에 적의 행동을 감시하는 등의 경우에는 병력의 점진적인 증가가 요구된다.

(3) 하사초

보초선상에서 특히 긴요하든가 위태로운 지점, 노출된 측면, 소초로부터 멀리 떨어진 지역(보초를 세울 때는 교대에 많은 시간을 요하는 경우 등) 그리고 사초(査哨)에 하사초를 운용한다.

하사초는 통상 6명으로써 편성하고 하사 혹은 상등병을 책임자로 임명하고, 보초 외의 잔여병력은 근방의 차폐물에서 휴식하며 상황에 따라 필요한 방향을 수시로 순찰하기 위하여 병사를 2, 3명 증가하는 경우도 있다.

(4) 보 초

제1선의 보초는 대개 복초로서 1명은 정지하여 관측하고 다른 1명은 눈과 다리의 힘으로 인접보초와 연락하며, 또한 수시로 근방의 음폐지역과 단절된 지역을 수색한다. 단, 노출된 상태로 보초선상을 배회하는 등의 행위는 적군이 아군의 위치를 탐지하는 매개체로서 도움이 되기 때문에 피하는 것이 중요하다.

소초로부터 교대할 복초는 소초와의 거리를 300m 내지 400m로 하는 것이 통상적인 방법으로, 이 거리 이상이 될 때는 보초의 교대에 많은 시간을 요하고 또 지원하는 시기가 늦어질 우려가 있으며, 가까울 때는 적군이 아군의 보초를 구축하고 곧바로 초소³⁾에 침입할 우려가 있다.

보초를 배치함에 있어서는 특히 다음의 조건들을 주의하여야 한다.

- 도로 : 적의 방향으로 통하는 도로, 교량 기타 애로를 감시할 것. 단, 이와 같은 주요한 곳은 야간에 적어도 복초로써 점령할 필요가 많다.
- 자신의 위치 : 대체로 보초는 멀리 모든 방향, 특히 적 방향의 전망이 가능하고 또 가급적 적의 관측으로부터 차폐될 것

3) 초소 : 원문에는 ‘초병’으로 되어 있으나, 전후 문맥으로 보아 초소로 수정하였다.

○ 측방연락 : 보초 상호간의 연락이 용이할 것. 단, 적과 근접하여 오래 한 곳에 주둔하여 잘 연결된 보초선을 형성할 필요가 있을 때를 제외하고는 반드시 그 선을 연속시킬 필요가 없고, 적 방향으로 통하는 도로를 경계함으로써 충분하며 그 간격 등은 필요에 따라 척후의 규정에 의하여 감시할 것.

○ 후방연락 : 보초는 항상 그 소속초소와 확실히 연락할 것

보초에게는 일반 및 특별수칙(特別守則)⁴⁾이 있다. 일반수칙은 어떠한 경우에도 두루 통하는 수칙으로 대략 다음과 같다.

보초는 무단히 적 방향을 감시하여 의심스러운 징후에 매우 주의하고 적 상황을 탐지하면 신속히 보고하며 위급할 때는 사격을 함으로써 경보를 하여야 한다. 명령이 아니면 웅크리거나 엎드려 총을 손에서 놓으면 안되고 또 상관의 와도 오직 그동안에 대하여 자세를 바로하고 답변할 뿐이며 경례를 할 필요가 없는데, 이는 감시를 중지하지 않도록 하기 위함이다.

주간보초선에 출입이 허용되는 인원은 아군의 장교, 밀집부대, 척후 그리고 전령 등이다. 그밖의 인원(상대편의 군대에 파견되는 사자와 투항자를 포함한다.)은 모두 사초(査哨)가 있는 초소에 이르도록 하며, 만일 곧바로 사초의 방향으로 가지 않고 보초선을 통과하려는 자와 명령하는 대로 따르지 않는 자⁵⁾에게는 사격을 가하여야 한다.

4) 수칙(守則) : 원문에는 관칙(官則)으로 되어 있으나, 전후 문맥으로 보아 수칙으로 수정하였다.

5) 원문에는 '從후者'로 되어 있으나, 전후 문맥으로 보아 '從하지 않는者'로 수정하여 번역하였다.

어떤 사람을 불문하고 야간보초에 접근하는 자가 있으면 총을 끌어당겨 서서 수하를 하여야 하며, 만일 두 번 수하하여도 서지 않으면 사격하여야 하고 기타 조치사항은 주간과 다른 바가 없다.

특별수칙은 당시의 위치와 상황에 관련된 것으로 소초장이 직접 주고 보초(下番)는 교대시 인수하는 병사(上番)에게 전달하여 알려주며, 이 수칙은 다음의 조항들과 관계가 있다.

- 보초는 전방⁶⁾에 나아가 다음 사항을 숙지하여야 한다.
 - － 감시할 지역 및 적 상황
 - － 전방⁷⁾에 있는 아군 병력의 위치(전방⁸⁾의 기병 및 독립사초 등이 있을 때)
 - － 눈에 보이는 촌락, 하천, 사당(祠堂) 그리고 불당(佛堂) 등의 명칭 및 도로의 방향
- 측방에 관한 것은 다음과 같다.
 - － 인접 보초의 위치와 그 일련번호 그리고 사초의 위치
 - － 저명한 지형지물의 명칭
- 자기자신에 관한 것은 다음과 같다.
 - － 그 보초의 일련번호와 행동의 특별규정
- 후방에 관한 것은 다음과 같다.
 - － 소속초소의 위치 및 그 위치에 이르는 지름길

보초는 2시간마다 교대하지만 고정적인 것이 아니고 소초장이 적절하게 규정할 수 있다. 보초교대조의 하사 혹은 상등병은 보

6) 전방(前方) : 원문에는 전신(前身)으로 되어 있으나, 전후 문맥으로 보아 전방으로 수정하였다.

7) 각주의 전향과 동일하다.

8) 각주의 전향과 동일하다.

초가 수칙을 확실히 전달하고 알리는가 여부를 감독하여야 한다.

대체로 초병의 교대는 가능한 한 차폐되고 또 정숙함을 요한다.

(5) 사 조

사초(査哨)라는 것은 초병선을 통행하는 인원을 조사하기 위하여 특별히 지정하여 도로상에 파견하는 하사초(혹은 독립하사초가 겸한다.)를 말한다. 아군의 소속이 확실한 자에 한하여 통행시키며, 통행이 허락되지 않는 자는 호위병을 딸려 소속초소에 보내고 적군이 파견하는 사자(선내에 들어올 때는 복장을 벗기고 묶는다.) 및 투항자를 조치하는 것도 동일하나, 결코 담화를 하면 안된다.

(6) 총전조

밀집부대를 가진 초소에는 직접경계를 위하여 총전단초(銃前單哨, 엄폐지역 등에서는 복초)를 설치하며, 위치는 주간에는 전방 및 인접의 초병과 시호통신으로 연락이 되어 사태변화의 통보에 쉽게 접할 수 있는 곳이어야 한다.

지형이 매우 음폐된 경우에는 몇 개의 단초를 내보냄으로써 모든 방향을 경계하는 일이 흔히 있다.

(7) 전망초

전망초(展望哨)라는 것은 관측에 편리한 높은 곳(산꼭대기, 탑, 누각, 나무끝 그리고 지붕 꼭대기 등)에 배치하는 초병의 총칭이다.

이러한 초병의 배치가 가능할 때는 1개 보초로써 수개의 보초를 서는 것과 같은 효과가 있기 때문에 주간에는 가능한 한 배치하여 보초의 수고를 줄이는 것이 필요하다. 특히, 긴요한 초소에 서는 전초중대 또는 전초본대로부터 1명의 장교(매우 정교한 망원경과 지도를 휴대한다.)를 차출하여 담당하도록 하여야 한다.

전망초는 적과 근접하여 한 지역에 오래 주둔할 때와 요새 전방의 전초에서 특히 긴요하다. 전망초소의 아래쪽에는 통신병(가급적 기병)을 준비하여 놓는 것이 중요하다.

다. 斥候(야외요무령 제141항 내지 143항 참조)

초병은 대개 정지자세로 있어 시계 밖의 적을 발견할 수 없기 때문에 첩후를 풀어서 멀리 넓은 지역을 수색하지 않을 수 없다. 이를 위하여 야간에도 지형이 허용하는 한 기병첩후를 파견하는 것이 요구되지만, 보병에게 적절한 거리의 지역이나 지형이 기병의 행동에 불편하든지 또 피아의 보병이 밀접하게 접촉되는 경우에는 보병첩후를 사용하여야 한다. 다만, 아직 적을 발견하지 못하고 또 기병을 보유하지 못한 경우에는 대부분 보병첩후를 멀리 내보낸다.

일반적으로 첩후를 파견하는 도수가 점차 많아지면 수색이 더욱 밀접해지고 따라서 경계가 더욱 엄한 이점이 있으나 또한 담당하는 병사들의 피로감도 역시 증대하는 것을 고려하여야 한다.

첩후는 소요에 따라 모든 전초부대로부터 나가는 경우가 가장 많으며, 순찰 경로는 시기와 지형에 따라 규정하고 또 이러한 근무에 적당한 자를 정선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며 그 병력은 책임자를 포함하여 3명이다.

척후는, 주간에는 아군 초병의 관측가능지역 밖을 돌아다니며, 야간에는 오직 적방향으로 통하는 도로를 수색하여야 하고 도로 및 귀환시각은 임명자가 대략적으로만 정하고 결코 확정하여 그 행동을 속박하는 등의 일이 있어서는 안된다.

척후의 임무는 가급적 단순하여야 하며, 이는 척후를 당혹하지 않고 능히 임무를 다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함이다.

척후는 능히 지형을 모두 알아야 하는데, 지형에 대한 설명과 필요시 향도가 되기 위함이다. 귀로(歸路)는 가던 길과 다르게 함으로써 적에게 퇴로를 차단당할 피해를 없애고 멀리 수색하기 위함이며, 사격은 경보시 외에는 함부로 실시하지 않아야 한다.

라. 巡 察

순찰은 필요에 따라 모든 전초부대로부터 나가는 경우가 가장 많으므로, 어떠한 경우에도 그 임무는 수시로 보초선 안을 순시하고 보초의 근무상태를 감시하며 보초를 준비하지 않은 지역을 돌아다니며 살피고 겸하여 인접초소와 연락을 통하는데 있으며, 병력은 책임자를 포함하여 2명으로 편성한다.

순찰은 보초선의 지형이 서로 관측하기가 어려운 때나 야간 그리고 농무시에는 특히 긴요하다. 순찰은 보초교대시간 외에 실시하는 것이 적당하며, 교대시는 자연히 보초를 감시할 수 있기 때문이다.

순찰은 당시의 필요에 따라 장교나 하사로써 책임자가 되게 하고 감시, 순찰하여 점검할 필요도에 따라 횡수의 다소를 정한다.

4. 前哨騎兵(세함은 야외요무령 제147항 내지 163항 참조)

전초기병의 주요한 임무는 적군과의 접촉을 유지하는데 있으므로 적과의 거리가 아주 멀 때는 넓고 원거리 지역을 시찰하는 것이 중요하지만, 기병은 그 행동이 가볍고 민첩하기 때문에 보병처럼 일정한 배치 및 형상을 고수할 필요는 없다.⁹⁾

높고 평평한 지역에서는 병력을 집결하지만 음폐된 지역에서는 몇 개소로 분산하여야 하기 때문에 전초기병의 배치방법은 당시의 형세에 따라 다르다.

1개 혹은 수개의 공병(控兵)을 준비하여 1개 혹은 수개의 소초 또는 독립하사초를 내보내거나, 이 양개 초(哨)를 모두 내보내는 것은 모두 전초기병장의 권한내에 있다.

전초기병(행군 후에는 통상 전위기병이 되고 또 드물게는 수색기병의 일부 혹은 전부로 편성된다.)은 행군 후 이미 전선에 와 있기 때문에 적 상황 및 전방의 지형을 대략 알고 있으므로 주간에는 제1선에서 바로 경계를 담당하여 행군으로 피로해진 보병을 엄호하여 이들이 휴식과 식사를 하도록 하며, 이후에 야간근무를 위하여는 보병과 교대하고 전초본대로 물러나며 당시의 형세가 허용하면 근방의 촌락에서 숙영한다.

다만, 야간이나 적과 접촉을 유지하기 위하여 또 멀리 떨어진 요지에 대한 점령이 필요할 때는 기병의 일부를 전방에서 운용하여야 한다.

전초기병의 배치는 시기와 지형에 따라 전초중대의 전방에 공

9) 원문에는 ‘要케’로 되어 있으나, 전후 문맥으로 보아 ‘要하지 않게’로 수정하여 번역하였다.

병(控兵), 소초, 기초(騎哨) 등을 정연하게 구분하는 방법을 취하거나 공병을 설치하지 않고 바로 기병소초를 배치한다. 어떤 경우라도 전초기병은 배후의 보병부대와 계속 연락을 유지하여야 하며, 특히 소초와 독립하사초는 가장 가까운 보병부대에 직접 긴요한 통보를 하는 것이 중요하다.

전초기병장은 적군이 내습할 때 신속하게 보고하고, 후방부대로 하여금 이에 대응할 시간을 얻도록 하기 위하여는 몸을 바쳐 그 책임을 다하여야 한다.

가. 控 兵

공병은 보병부대에서 전초중대와 같은 것이며 위치는 상황에 따라 정해진다. 만일 전방 멀리 파견할 필요가 없을 때는 전초중대 중의 하나에 접하여 위치시키는 경우가 있으나, 직접경계를 담당하기 위하여는 도보의 총전단초(銃前單哨)를 준비하고 상황에 따라서는 1개 혹은 수개의 도보복초를 준비한다.

나. 騎兵小哨

기병소초는 대개 공병으로부터 원거리에 독립하여 위치할 필요가 있을 때 설치한다. 장교의 지휘하에 병력은 대략 1개 소대이며, 위치는 울타리 안에는 불가하고 대개 모든 방향으로의 진출이 용이하며 행동이 자유로운 것이 바람직하다. 적방향의 지역은, 특히 평평함을 요하고(이 개활지는 때때로 기병의 사계가 된다.) 경계구역은 시기와 지형에 따라 변화하기 때문에 일정하지 않으나 그 너비는 2,000m 이하가 통상이다.

이밖에 소초를 자체경계하기 위하여는 총전초를 준비하여야

한다.

소초장은 적습시 신속하게 보고하고 후방부대가, 특히 보병부대로 대응할 여유를 얻도록 하는 일에는 몸을 바쳐 그 책임을 다하여야 한다.

다. 獨立下士哨

이 초병은 모든 보병부대를 위해 기술한 원칙에 따르고, 행동은 다음에 제시하는 하사초와 대략 동일하다. 다만, 상황에 따라서는 멀리 척후를 파견하는 경우가 있다.

라. 下士哨

하사초(하사 1명과 병사 3명 이상)는 통상 모두 말에서 내리고 2명이 감시임무를 담당한다.(승마 혹은 하마할 경우는 뒤에 기술한다.) 이 초소¹⁰⁾의 병력운용은 대개 보병부대에서와 동일하다.

마. 査哨

사초도 역시 하사초와 독립하사초를 편성하는 것이 보병부대와 같으며, 기병부대가 이를 설치하는 경우는 전초명령 중에 설치할 도로를 지시할 경우이며 또한 통상 주간에 한한다.

바. 騎哨

기초는 2명 내지 3명으로 편성하며, 2명일 때는 함께 말위에 있어야 하고 3명일 때는 상황(마상에서의 감시가 편리할 때, 즉

10) 초소 : 원문에는 ‘초병’으로 되어 있으나, 전후 문맥으로 보아 초소로 수정하였다.

경작물 너머로 멀리 관망할 때 등은 제외한다.)에 따라 하마하여 2명은 편리한 지점에 위치하여 감시하고 나머지 1명은 그들 2명의 말을 보살핀다. 다만, 복기초(複騎哨) 혹은 삼기초(三騎哨)를 운용할 경우는 소초장의 재량에 맡긴다.

기초 상호간의 간격과 소초의 거리는 시기와 지형에 따라 변화할 수 있기 때문에 일률적으로 정할 수 없으나, 기초는 소초의 전방 대략 1,000m 지점에 위치를 잡고 각 기초간의 간격은 약 800m를 초과하지 않아야 한다. 기초의 일반수칙과 특별수칙은 대략 보병부대에서와 동일하다.

사.斥 候

전방의 지역이 음폐가 심해짐에 따라 더욱 주의를 배가하여 척후를 운용하는 것이 중요하다. 이와 같은 때는 척후를 전방에 오래 체류시키는 경우가 있는데, 이는 감시를 중단하지 않으면서 말을 피로하지 않게 하는 이점이 있다.

소초로부터 파견되는 척후의 임무는, 적과 가까이 접촉할 때에는 통상 적의 전초까지 다다르며 이보다 더 깊이 들어가 수색하는 일은 전초기병장과 전초부대장 혹은 상급지휘관이 지정할 때에 한한다. 다만, 특이한 징후를 발견할 경우에는 소초장의 재량으로 명령할 수 있다.

기병은 그 형세 여하에 무관하게 야간이나 척후에 따라 적과의 접촉을 유지하는 것이 중요하다. 이와같이 할 때는 점차로 많은 병력의 척후(장교 또는 하사)를 전선의 초소 밖으로 파견하여 일정한 지점에 주둔하도록 하지 않고 적의 행동에 쫓아서 나아가게 하는 것이 유리하다.

아. 巡 察

보병부대에서와 동일하다.

5. 前哨의 戰鬥行動

가. 騎 兵

전초의 가장 바깥 선상에 있는 기병은 통상 적의 기병과 대치하기 때문에 적의 보병보다는 기병의 급습을 피할 수 없으며, 적의 병과 여하에 관계하지 않고 되도록 오래 저지하다가 최후의 시기에 이르면 가급적 후방부대의 전투정면을 피하여 퇴각하여야 한다. 단, 이때에도 적과의 접촉은 결코 단절되면 안된다.

나. 步 兵

보병의 선상이나 인접 소초에서 총성이 나면, 소초장은 곧바로 하사가 지휘하는 척후(통상의 척후보다 인원이 많을 것이 요구된다.)를 그 지점에 파견하는데, 이는 사안을 탐구하고 또 침입하는 적을 한동안 저지하도록 하여 소초장이 스스로 처치할 여유를 얻기 위함이다.

이러할 경우 소초장은 스스로 신속하게 사정을 확인하여 적군이 아주 적을 때는 소초의 병력으로써 격퇴하고 즉각 보고하여야 한다. 대개 이러한 보고를 소홀히 하면 전초중대 및 전초본대는 무익한 전투준비를 할 염려가 있으므로, 이때 특히 척후를 내보내어 적을 추적하도록 하고, 이후에 상황을 확인하는 것이 중요하다.

오직 감시를 위하여 설치하는 소초가 우세한 적에 대응할 때는

단시간에 재빨리 사격하여 적으로 하여금 병력을 전개하지 않을 수 없도록 한 후에 신속하게 전초중대로 퇴각하여야 하며, 적습이 너무 예상밖이거나 전초중대에 전투준비를 할 시간을 줄 필요가 있을 경우에만 과감하게 항전하여야 한다.

만일, 보고가 지연될 염려가 있을 때는 급격한 일제사격을 하여 경보하여야 한다.

소초장이 위치를 고수할 임무를 가지고 있을 때는 형세 여하에 관계하지 않고 계속 그 지점에 있으면서 전초중대의 증원을 기다려야 하며, 야간에는 특히 총검의 사용을 소홀히 하면 안된다.

전초선상에서 경보가 있을 때는 모든 전초부대는 바로 전투준비를 하여야 한다.

적습시 전초부대장은 항상 지구전을 하여야 하며, 만일 본대가 전투에 응하고자 하면 그간에 준비를 갖추고 전진하여 전초저항선에 이르러야 한다.

또한 전투 초기 전초의 후퇴는 아군의 사기를 잃게 하고 본대의 진출은 사기를 진작하게 하는 것이므로, 본대는 전초진지를 전투진지로 하는 경우가 많으며 전초가 물러나서 본대에 합류하는 것은 지형과 상황이 요구할 때에 한한다.

6. 前哨의 交代 및 復歸

체류시 전초의 교대는 본대와 전위부대장이 지정하는 시각에 실시한다.

부대가 다시 전진하고자 할 때, 전초는 아직 그 위치에 있고 전초의 엄호하에 새로이 편성한 전병(前兵)을 진출하게 한 후에 복

귀시키는 것이 통상적인 방법이다. 그러나 아군이 적과의 거리가 멀 때와 아군부대의 규모가 작을 때는 척후의 엄호하에 전초를 철수하여 바로 행군경계부대가 되게 하는 일이 있다.

소초 및 독립하사초의 교대시각은 체류시에는 여명이어야 하며, 기타의 경우에는 당시의 상황에 따라 정하는데, 어떠한 경우에서도 교대는 적의 관측으로부터 은폐하여 정숙하게 시행하되, 간혹 특별한 경계방법을 사용하여야 한다.

7. 行軍後의 前哨

부대가 행군과 주둔을 반복할 때는,

첫째, 숙영지에 도착이 대개 지연되고 또한 인마는 피로하며, 다음날의 출발편을 고려하여야 하기 때문에 직접 전초를 배치하는 것은 부적합하다.

둘째, 이와 같은 경우에, 특히 야간에는 적의 대군은 실제로 도로를 따라 내습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적지에 통하는 도로를 특별히 수비하는 것으로 충분하므로 일련의 계속되는 전초선을 형성하여 설치하는 것은 불필요한 것이다. 뜻밖에 적군이 도로가 아닌 간격을 취하여 잠입하더라도 그 규모는 틀림없이 작기 때문에 전초의 정숙을 겨우 깨는데 지나지 못하고 결코 아군 본대에 위협을 미치지 못하는 못한다. 다만, 모든 전초는 항상 척후를 이용하여 연락을 유지하며 전초본대는 주도로상이나 그 부근의 요지를 점령하고, 대부대에서는 전위(후위)본대로 하여금 다시 후방에서 숙영하게 하는 것이 필요하다.

8. 戰鬪前의 隊形(戰鬪準備의 隊形)

적에게 근접하여 결전의 시기가 임박하든가 혹은 전투를 일몰로 인하여 중지하고 다음날 아침에 다시 계속하고자 할 때에는, 부대는 휴식의 자세에 있으면서도 즉각 전투준비를 보유하는 것이 필요하다. 이때에는 부대 전체가 순수한 전술상의 대형으로 전개하여 야영하고(전선에 있는 보병은 소대단위로 집결하여 총을 손에 쥐고 있으며, 100보 내지 200보 전방에 보초를 내보내며 증원부대와 예비대도 지정된 곳에 위치한다.) 특히, 적에 근접한 부대는 화투불을 금해야 한다.

전선의 거점 및 포병진지 등은 보병으로써 견고하게 수비하는 것이 중요하다.

야간에 정면의 앞에 나가는 척후의 수색구역은 통상 매우 협소하기 때문에 보병척후로써 충분한 경우가 많으므로 기병척후는 측방에 사용이 가능하다. 다만, 여명에 척후근무는 가장 중요한데, 적군이 야간에 그 진지나 배치를 변환하는지 여부 등을 실험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기 때문이다.

이상의 배치도 주둔시의 경계에 속하기 때문에 전초의 항목에서 열거하였으나, 그 대형은 완전히 전투준비의 필요에 따라 적절히 적응하는 것이다.

9. 長期駐屯中 對敵時의 前哨(要塞戰의 前哨)

1개 지역을 거점으로 하여 장기간 적과 대치할 때, 전초는 처음부터 적에 근접하고 또 시간이 지나면서 점점 공격방향으로 나

아감에 따라 더욱 접촉이 절박해지기 때문에 자주 총포의 피해를 입고 또 항상 급습의 충격을 받으므로 더욱 전투준비를 엄숙히 하지 않으면 안된다.

이러한 전초의 특색은 주위를 연결하는 일련의 초병선을 설치하고, 공격(방어) 정면에 향하여는 모든 전초부대가 서로 전후좌우로 밀접하게 하며 또한 암호를 위하여 충분히 그 지점에 공사를 시행하여 강력하게 저항하고 자유자재로 연락을 이루는데 있다.

전반적인 공격(방어)선은 지역에 따라 구분하고, 각 지역의 전초에는 그 지역을 방어하는 보병의 약 1/3을 거느리는 전초부대장이 있다.

상급지휘관은 야간에 상호 인식에 필요한 암호를 사전에 하달하여야 한다.

형세에 무방할 때는 전초는 배낭을 숙영했던 곳에 남겨두지만, 식량과 충분한 탄약을 항상 휴대하여야 한다.

전초선의 구분 등은 다른 전초와 동일한 요령에 따르고, 다만 전초기병의 효용은 피아가 점점 가까이 접촉함에 따라 더욱 감소하게 된다.

순수한 요새전에서의 전초에 관하여는 더 기술할 것이 많으나, 본 '전술학교정'이 야전을 주로 하기 때문에 나머지 사항은 모두 '야외요무령'에서 기술하도록 하였다.

第3節 獨立步兵의 前哨

적과 매우 근접하든가, 지형이 험난하든가 혹은 전초기병이 없는 등의 사유로 보병만으로 전초를 편성하고 오직 전령기병만 거

느릴 경우에도 앞의 ‘제2절 혼성전초’의 보병과 동일한 방법으로 업무를 할당하고 동일한 원칙에 따라 배치한다.

이러한 전초는 전초기병의 준비가 없기 때문에 주간부터 소초와 보초 등을 배치하여야 하며, 만일 전초중대에 충분한 전령기병을 보유할 때는 이들을 주야간에 척후로 충당하든가 또는 기병 약간명을 소초에 배치한다.

또한 단지 3, 4기(騎)를 전초본대에만 부가하고 나머지 기병을 가지고 척후에 충당하든가 하는 것은 오직 당시의 형세에 따라서 결정한다.

보병전초에 전령기병도 거느리지 않는 예외적인 경우에는 보병척후로써 협소한 범위내의 수색을 실시하여야 한다.

第4節 獨立騎兵의 前哨

기병은 아군을 멀리서 선도하고 또한 적의 이동을 추적하는 등으로 인하여 멀리 떨어질 때 취하는 경계는 앞서 기술한 전초기병에서의 방법을 적용하여야 하지만, 그 경계는 후방에 있는 부대를 위함이 아니고 오직 자체의 안전을 고려하는 것이 다르다.

이와 같이 독립기병부대에 있어서는 병력을 절약하기 위하여 가급적 적은 인원으로써 확실한 경계를 하여야 한다. 그러므로 가장 경계에 편리한 지역을 점령하고 점차로 멀리 척후를 파견하는 것이 유리하다.

따라서 전초진지로는 적군의 내습이 곤란한 지역(하천이나 논 등의 후방, 아군 기병의 행동을 방해하지 않는 곳)이 양호하다.

적 기병의 급습을 방지하기 위하여 도로상에 간단한 거부시설

을 하고 화력으로써 보강하면 가령 적의 기병이 우세하여도 저지가 가능하다. 다만, 이러한 거부시설은 아군의 통과를 방해하지 않도록 주의하여야 한다.

적지내의 촌락에 숙영할 때는 토착민의 저항심리를 진압하기 위하여 출입을 금지하거나 인질을 취하는 등의 특별한 조치를 하는 것이 필요하다.

기타 마땅히 취해야 할 행동의 세부 사항을 요약하면 첫째가 해당 부대장의 침착성과 용감성으로 대적하고, 기만전술에 대하여는 능히 시기에 적절히 대응할 수 있도록 하는데 있다.

第 8 篇

行 軍

第1章

.....

總 論

작전간에 부대를 크게 곤핍하게 만드는 것은 행군이며, 장기간의 전역(戰役)에서는 행군으로 생기는 인마의 감모(減耗)가 전투로 인하여 입는 손상보다도 오히려 많다.

그러므로 행군술(行軍術)은 바로 능히 부대를 사랑하고 아끼며 [인마의 급양과 위생에 주의하는 등, 이하 애석(愛惜)이라고 한다.] 그 힘을 배양해서 시기에 따라 탁월한 효용을 나타내는데 있다.

오직 부대가 시기를 잃지 않고 필요한 곳에 도착하여 전투준비를 가지런히 바로 하느냐 그렇지 못하느냐로 승패를 이미 결정하는 경우가 때때로 있다.

행군에서, 부대를 애석(愛惜)하는 것과 동시에 전투준비를 완전하게 하는 것은 매우 어려우며, 이 두 가지가 완전히 반대의 성질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적과 충돌할 염려가 없을 때는 전자(前者)에 주력하고 충돌의 염려가 있을 때는 후자(後者)에 주력한다.

애석을 주로 하는 것은 여차행군(旅次行軍)¹¹⁾을 말하는 것이고, 전투준비를 주로 하는 것은 전투행군(戰鬪行軍)을 말한다. 여차행군도 점차적으로 적에 접근하게 됨에 따라 서서히 전투행

11) 여차행군(旅次行軍) : 적군의 방해 행동이 예상되지 않는 상황하에 마치 여행하듯이 부대를 이동시키는 행위를 말한다.

군으로 이전하게 된다.

이상의 두 가지 행군에서 실시상의 차이가 나는 것은 다음과 같다.

【경 계】

여차행군에서 수색 및 경계군무는 필요하지 않으나, 전투행군에서는 이를 시행함으로써 부대의 노고가 커진다.

【편합(編合)】

여차행군에서는 각 병과부대의 행군속도를 제한하지 않고 각 병과부대별로 가급적 소부대 단위로 구분(행군상의 어려움과 막히는 것을 피하기 위함이다.)하고 가능한 한 양호한 도로를 취하여 행군한다. 가령 기병은 우회하는 도로라도 연질(軟質)의 도로를, 보병은 양호한 지름길을 그리고 포병은 견질(堅質)의 넓은 도로를 취하는 것과 같다.

전투행군에서는 전투준비에 어긋나는 제반 고려사항은 일체 버려야 한다. 이에 따라 각 행군종대는 가능한 한 대규모로 부대를 편성하고, 또 모든 병과부대를 연합함으로써 적과 충돌시 전술상 반드시 필요한 용도(각 병과부대를 필요한 순서의 전투대열에 가담하도록 하고 또 집결한 병력을 의도하는 시간과 장소에 사용하는 등)에 대응할 수 있도록 도로와 행군서열 및 출발을 규정하는 것이 중요하다.

【행정(行程)】

여차행군은 일일행정(日日行程)이 균일하지만, 전투행군은 그 행정이 제반상황에 따라 매일 심한 차이가 있어 노고와 안일함이 고르지 않다.

【행리(行李)】

여차행군에서는 모든 행리를 보병과 포병은 연대, 공병은 대대 단위로 집결하여 수행하도록 한다. 그러나 전투행군에서는 분할하여 전투에 필요한 것[소행리]은 그 부대와 함께 이동하도록 하고 기타[대행리]는 통상 충분한 거리를 취하여 본대의 후방에서 따라가거나(전진 이동시) 그 전방에서 이동하며(퇴각시) 혹은 위험하지 않은 한쪽 편에서 종대에 동행(적의 측방으로 행군시)하도록 한다.

두 가지 행군(여차 및 전투행군)의 성질이 이와 같으며, 다음에 기술하는 것은 오직 전투행군에 관한 사항뿐이다.

第2章

.....

行軍速度에 관한 素質

第1節 諸兵科部隊의 行軍速度

각 병과부대의 고유한 행군속도는 다음과 같다.

1. 步兵 및 砲兵部隊

보병부대의 행군속도는 통상 50분간에 약 4km이다. 소부대가 양호한 상황(병사들이 행군에 능숙하고 또한 좋은 기상상태와 도

로 등)에서 1km를 가는데는 10분간으로 충분하지만, 대부대는 동일한 상황에서 13분간을 필요로 한다. 그리고 砲兵部隊의 행군 속도는 보병부대에 준한다.

2. 騎兵部隊

기병부대가 보병부대와 함께 행군시는 보병부대의 속도에 준하지 않을 수 없으나, 이는 마필의 천성에 맞지 않아서 그 피로가 오히려 더 심하기 때문에 특별한 지장이 없으면 기병은 독립하여 행군하고 그 속도는 기병부대장으로 하여금 규정하도록 하여야 한다. 규정에는 다음의 사항을 고려하여야 한다.

기병부대가 만일 속보(速步)로만 원거리를 완주하도록 하면 마필이 곧바로 피로해져서 다시 사용하기 어렵게 되고, 상보(常步)로만 사용하면 마필의 천성에 맞지 않을 뿐만 아니라 말을 탄 병사도 권태로워 가지런하지 않은 자세를 취하여 결국 마필이 손상될 뿐만 아니라 숙영지에 도달할 시간을 낭비하고 마필의 휴식시간은 줄어들게 된다.

그러므로 상보와 속보를 교대로 사용하는 것이 원칙이지만, 그 비율은 도로상태와 마필의 강약 등에 따라 다르므로 일률적으로 정할 수 없다.

다만 경사지의 오르내리기 및 출발 직전과 도착 직전에는 상보를 취하여야 하고 또한 마필을 사랑하고 아껴야 함도 고려하면 속보 2km(약 10분간)마다 상보 1km(10분간)를 혼용하여야 하며, 이러한 방식을 따르면 50분간에 약 7km를 행군하게 된다.

第2節 休 息

부대가 출발 후 약간의 시간이 지난 후(가령 45분 후) 피복과 장구 등을 다시 추스르며 인사상 꼭 필요한 짧은 시간 동안 휴식을 실시한다.

기타 행군거리의 원근과 기상상태에 따라 1회 혹은 수회의 휴식을 함으로써 부대의 피로를 회복시킨다.

만일, 휴식이 1회일 때는 행군거리의 절반 이상을 경과한 후에 실시하고, 수회가 될 때에는 2시간마다 실시하는 것이 적당하다.

휴식이 단지 식사를 위한 경우[大休息]는 20분 내지 50분간이, 기타의 경우[小休息]는 약 10분 내지 20분간이 적당하며 여하간에 일정한 것은 아니다.

만일 시간적인 장애나 도로가 막힐 염려가 없을 때는 도로변에서 실시하여 신속하게 휴식으로 이행되도록 하여야 한다.

혹한이나 열풍일 때는 가로막힌 지역(수풀 속과 골짜기 혹은 산의 중턱)에서 휴식하고 혹서일 때는 그늘이 지고 근방에서 식수를 얻을 수 있는 곳에서 휴식하며, 기병과 야전포병은 시간과 당시의 상황에 방해가 없으면 통상 하마(下馬)하여 휴식하는 것이 적당하다.

전투행군에서는 촌락내의 애로상에서 별도로 휴식하는 것은 위험하기 때문에 이것을 통과한 후에 휴식하고, 다만 행리는 통과하기 전에 정지시켜야 한다. 상황에 따라서는 미리 기마장교(騎馬將校)를 파견하여 휴식장소를 정찰하도록 하여야 한다.

대부대에서는 전방부대는 후방부대의 출발 전에 이미 상당한

거리를 통과하였기 때문에 모든 부대가 동일한 시각에 휴식을 못하고, 후방부대들은 전방부대들이 이미 다시 출발하고 이어서 순차로 동일 지역에서 휴식하는데, 특히 여차행군에서 그러하다.

第3節 道 路

1. 總 論

행군은 통상 도로상에서만 하지 않을 수 없고 병단(兵團)을 이끌고 별판을 횡단하는 등은 전쟁터에서나 단거리에서만 실행하기 때문에 도로가 행군에 관계되는 일이 매우 많다는 것을 알아야 한다.

2. 種 質

도로의 성질이 유연하든가 진흙탕길인 경우는 발에 상처를 입을 염려는 적으나 인마의 이동과 차량의 회전이 모두 용이하지 못하여 행군이 지체되고, 이에 반하여 도로의 성질이 지나치게 견고한 경우(자갈길과 같다) 그리고 모래와 돌[砂礫]이 많은 경우도 발에 상처를 입을 염려가 있다. 특히, 신설한 사력도(砂礫道)는 이동과 회전이 모두 용이하지 못하여 후속부대를 지연시키게 된다.

이밖에, 동절기에 결빙으로 미끄러지기 쉬운 도로는 마필이 큰 곤란을 겪게 하므로, 결국 행군에서 바람직한 도로는 유연하지도 견고하지도 않아야 발에 상처를 입을 염려가 없고 행군의 신속함

도 가져오는 것이다.

3. 廣 狹

도로의 폭이 매우 넓으면 행군중대의 정면을 넓게 하고 열(列)과 오(伍)를 넓힐 수 있기 때문에 병사들의 피로를 줄이고 행군을 용이하고 신속하게 한다. 그러나 도로의 폭이 좁으면 이동이 매우 곤란하고 행군중대가 크게 연장되며, 특히 애로(隘路)의 부분(전후의 도로폭보다 좁은 곳)을 지나갈 때는 행군정면을 줄이지 않을 수 없어 이동이 지체되기 때문에 행군대형은 전체 행군경로의 폭이 가장 좁은 곳에 적용할 수 있는 정면을 유지하면서 시종 이동하여야 한다.

4. 傾 斜

행군하는 도로상에 오르고 내려가야 할 경사지가 점점 많아지고 그 경사도가 더욱 심해지면 이동속도는 더욱 줄어든다. 그러므로 산악지역은 평지에 비하여 2, 3배의 통과시간을 필요로 하며, 산악지역의 행군에서는 가능한 한 소규모부대로 몇 개의 행군중대를 편성하여야 한다.

第4節 天 候

폭풍, 폭우, 강설, 혹한과 혹서 등은 행군하는 병사들이 염려하는 바로서 혹서가 가장 큰 걱정거리이며, 특히 어려움을 느끼는

것은 도보로 이동하는 것이다.

이로 인하여 단시간에 많은 병사들을 잃을 수 있으므로 마땅히 크게 주의하여야 하고 가장 효과있는 예방법은 행군중에 지켜야 할 규정에 따라 적당히 물을 마시게 하는 것 등이다.

第5節 士氣 및 體力

사기가 왕성하고 체력이 강건한 부대는 능히 행군의 노고를 참을 수 있기 때문에 신속하게 원거리에 도달할 수 있다.

때때로 사기의 왕성함으로써 체력의 약점을 보완할 수 있으나, 흔히 체력의 강건함으로써 사기를 비로소 왕성하게 하는 것이다.

체력의 강약은 오직 피복, 장구 그리고 신발의 적부(適否)와 식량의 과다 및 품질과 함께 숙영방법의 여하에 달려 있다.

그러므로 진실로 부대장은 부하의 체력을 강건하게 하고 또 사기를 진작시키기 위하여는 항상 마음을 써야 하고, 만일 이를 소홀히 할 때는 바로 행군능력이 위축된다.

第6節 行軍縱隊의 大小

행군중대의 길이가 점점 커지면 행군속도가 더욱 느려져서 선두 및 후미의 출발시각의 차이가 증대하고 후미부대의 도착이 지연되며 또 후방부대가 갑작스런 정지나 급하게 정지하는 것은 행군중대가 클수록 더욱 심해진다. 그러므로 규모가 큰 부대는 도로가 허용하는 한 몇 개의 도로를 취하여 병진하는 것이 편리하다.

또한 행군중대가 작아짐에 따라 이동이 점차 용이하고 신속하기 때문에 당시의 형세가 허용되면 가급적 작은 행군중대로 몇 개의 도로로 행군하도록 하는 것이 유리하므로 행군에는 분진(分進)의 원칙이 있는 것이다. 그러나 전투간에는 항상 협공의 원칙을 고려하여야 한다.

第7節 行軍軍紀

행군군기는 일반군기보다 특이하여 행군력을 유지하고 또 증가시키며 기타 현재 병력의 감소를 예방하는데 가장 효력이 있으며, 그 기초는 대략 다음과 같다.

1. 個人의 正位置

각개 병사들은 항상 그 정위치가 있다. 1명의 병사도 허가없이 대열을 이탈하지 못하며, 제멋대로 물이 흐르는 곳이나 우물 등에 머물거나 민간인의 가옥에 들어가면 안된다.

2. 服 裝

각개 병사들은 제멋대로 복장을 어지러이 하지 않아야 되지만, 편리할 경우에는 이를 허락하여 시기를 놓치지 않고 전부대에 명령하여야 한다.

3. 行軍速度

행군중대 중 각 부대 선두의 행군속도는 부대장이 항상 규정하여 각 부대가 동일하게 한다.

4. 路幅의 利用

도로가 넓을 때는 항상 한쪽을 비워서 다른 부대가 통과하도록 제공하여야 하며, 좁은 도로에서도 단기(單騎)의 기병이 통과하는데 방해가 되지 않게 한다. 도로가 험악하거나 더위가 심할 때는 행군중대를 도로의 양측으로 나누어서 중앙을 비워두어야 한다.

5. 部隊間 距離

후방부대의 갑작스런 정지나 성급한 전진은 대오를 문란하게 하고 또 행군장정이 증가하기 때문에 이러한 폐해를 예방하고 또 행군중대 중에서 모래와 먼지가 빠져나가게 하며 대오의 신축을 쉽게 균일화함으로써, 모든 부대간에 일정한 거리를 유지하도록 한다.

즉, 보병중대와 공병중대는 후미로부터 8m, 보병대대 혹은 기병중대는 후미로부터 20m, 보병연대 혹은 포병중대는 후미로부터 30m, 포병대대는 후미로부터 40m 그리고 여단은 후미로부터 60m의 거리를 유지한다. 단, 끊기지 않고 이 거리를 지키며 폐절(廢絶)하거나 단축하는 등은 허용되지 않는다.

第8節 出發準備

대체로 행군에 관한 사항의 규정은 행군명령이며, 출발을 준비하는 것도 이 명령을 가지고 기준을 삼는다. 그러므로 미리 이튿날을 위하여 행군명령을 하달하는 경우에는 전일 또는 전야에 발령하여야 한다.

행군명령 중에 열거할 조항은 다음과 같다.

- ① 적 상황의 개요
- ② 아군의 목적(전에 발령한 이후에 변동사항이 없으면 생략할 수 있다.)
- ③ 수색기병에 관한 건
- ④ 전위의 출발시각과 지점(필요시 전초의 복귀에 관한 건)과 진로이며, 특히 수색할 지점과 방향
- ⑤ 측위에 관한 건
- ⑥ 본대의 집합장소, 시각 그리고 출발시각 혹은 본대가 전위를 수행할 때의 거리
- ⑦ 대행리(大行李)의 집합장소와 출발시각 혹은 본대의 거리
- ⑧ 치중제대의 출발시각 및 출발지
- ⑨ 행군간 지휘관의 위치

기타 필요하면 군대구분을 열거하여 알려주어야 한다.

보병대대 및 모든 병과부대로 편성한 작은 지대(枝隊)에서는 당일의 야간과 다음날에 관계되는 중요사항만 명령하고 기타는 다음날 집합 후 구두로써 하달하는 경우가 많다.

다만, 특별임무를 수행하는 부대장에게는 전날 야간에 임무를 지시하여 지도에 의거 미리 연구할 여유를 주어야 한다.

이와 같은 작은 지대에 일반적인 예비명령을 하달할 때 중요사항은 대개 다음과 같다.

- ① 항 및 ② 항은 앞의 행군명령 같은 항에 준한다.
 - ③ 전초의 철수에 관한 건
 - ④ 본대의 집합장소 및 시각
 - ⑤ 대행리에 관한 건
- 기타 군대구분 및 기병에 관한 예비명령 등이다.

第9節 出發時刻

출발시각은 행군중대의 대소와 부대의 노고 그리고 추위나 더위 등을 참작하고 또 별도로 전술상 고려하여 결정한다.

그러나 당시의 형세에 무방할 때는 최초 출발하는 병사라도 여명 이전에 출발시키면 안되고 또 승마하는 병사는 말을 깨끗이 닦아주고 먹이를 주기 위하여 기상한 후 2시간이 필요하기 때문에 별도로 여명 후(가능한 한 1시간 후)에 출발하도록 하여야 한다. 다만, 혹서기와 휴식을 고려하여 한낮의 행군을 피하고자 할 때에는 이를 고려할 필요가 없다.

또 행군중에는 신체의 피로가 심하기 때문에 회복을 위한 수면(통상 8시간)은 실로 인마에게 반드시 필요한 것이다.

그러나 늦게 출발하기 때문에 야간이 되어서야 투숙이 가능할 수밖에 없는 경우에는 경계와 투숙 그리고 배식에 불편함이 매우 많다. 따라서 출발이 너무 이르든가 너무 늦는 것은 모두 적절하

지가 얇으나, 익숙한 지역으로부터 여명 전에 출발하면 일몰 후
생소한 지역에 도착하는 것이 낫다고 하겠다.

第10節 集 合

전투행군을 위하여 부대를 집합하는 방법은 전술상의 고려와
부대의 대소로 인하여 일치하지 않으며 또 부대가 모두 한곳에
집합할 때는 상급지휘관이 모든 부대를 장악할 수 있고 때에 따
라 행군방향을 자유롭게 선택하며, 또 현지에서 친히 행군서열을
명령하는 이점이 있다. 그러나 대규모 부대에서는 행군서열을 따
르기 위하여 병력이 오랫동안 집합장소에 정지하게 되어 헛수고
를 면치 못하기 때문에, 대규모 부대가 이와 같은 집합방법을 사
용하는 것은 적에게 가장 근접한 경우에서만 실행한다.

당시의 형세가 무방하면 몇 개의 부대 단위로 집합장소를 정하
여 행군서열에 적절히 대응하게 하여야 한다. 가령 사단에 있어
서는 전위를 하나의 집단으로, 본대 선두의 연대 및 포병을 하나
의 집단으로, 그리고 잔여의 부대로써 또한 하나의 집단으로 편
성하여 각각 1개소의 집합장소를 정하는 것과 같다.

이 하나의 집단을 구성하는 부대에서는 행군종대가 되어 노상
에 집합하는 것도 무방하되, 다만 이때에는 특별히 행리(行李)의
집합은 부대의 행동을 방해하지 않게 하기 위하여 가급적 각 부
대가 숙영지를 떠난 뒤에 실시하여야 하고 퇴각시에는 행리를 본
대의 출발시각 몇 시간 전에 집합하여 출발하도록 하여야 한다.

지도에 의거하여 개략적인 집합장소의 위치를 명백하게 지시할
수 없을 때는 미리 현지를 표시하는 것이 필요하다.

第3章

.....

各兵科部隊의 行軍隊形

第1節 通 則

행군에서는 병사들의 피로를 덜어주기 위하여 열과 오를 벌리는 것이 필요하지만 또한 종대의 길이를 고려하지 않을 수 없으며, 길이가 점점 길어질 때는 전투전개에 요하는 시간도 따라서 길어진다.

행군대형은 도로폭에 준하게 하고 그 길이는 전투전개에 시간 소모가 적지 않음을 고려하여 걸어가 는 병사들은 4열 측면종대로, 기병은 2오나 4오의 종대로 그리고 포병은 포차종대로 행군대형을 이룬다.

대체로 1개 행군종대가 선두의 출발로부터 끝나는 시간을 계산하는데는, 1분간의 행군거리(가령 보병을 50분간에 4km를 이동하게 하는데는 1분간의 행군거리는 80m¹²⁾)로써 행군종대의 길이(가령 소행리를 휴대하지 않은 보병 1개 대대의 4열 측면종대의 길이는 400m)를 나누면 이와 같은 시간을 얻게 된다.(보병대대에서는 400/80)

다음은 오직 작전요무령에 기초한 병력이 충족된 모든 부대의 행군장경을 제시한 것이다.

12) 80m : 원문에는 10m로 되어 있으나, 계산상 80m이므로 수정하였다.

1. 步兵의 行軍隊形

보병 4열의 측면행진에서는 그 행군장경이 다음과 같다.

- 중 대 : 약 90m
- 대 대 : 약 400m
- 소행리 : 약 100m 합계 : 약 500m

고수(鼓手)와 나팔수의 위치는 대대장이 정하지만 그 가운데 1명은 대대 혹은 독립중대의 후미에서 행군하도록 하고 필요한 신호음의 취주를 담당한다.

행군중에는 하사와 결오(缺伍)의 병사 그리고 위생병 등도 대개 4명으로 1개 열을 만들어야 한다.

중대장은 행군중에 중대를 감찰하는데 적합한 위치에 있어야 하고, 소대장은 소대를 따라가지만 위치는 일정하지 않으며, 장교 1명은 중대의 후미에 위치하여 행군하여야 하고, 평보로써 행군할 때는 소대장과 하사 등은 모두 조전에서 정한 위치를 지키고 중대장은 그 선두에 있어야 한다.

만일, 보병연대의 행군장경을 알려면, 연대내 모든 대대의 행군장경을 합하고 여기에 각 대대간의 정해진 거리(20m)와 연대장 및 부관의 행렬 길이(약 10m)로써 하면 된다.

도로폭의 제한으로 행군중대의 정면을 3열, 2열 혹은 1열로 축소할 때는 길이에 따라 전개가 지연되는 불리한 점이 있으며, 이에 반하여 광활한 도로 혹은 벌판을 행군할 때는 정면을 더 넓힐 수 있으므로 행군장경을 더욱 줄여서 전개가 점점 더 빨라지는 이점이 있다.

2. 騎兵의 行軍隊形

기병의 행군대형은 2오 혹은 4오의 종대이며, 2오의 종대는 행군에는 편리하지만 행군장경이 길어지는 불리한 점이 있고, 이에 반하여 4오의 종대는 행군장경이 길지 않은 이점이 있으나 이 대형을 취할 만한 도로는 매우 드물다.

기병은 필요시 신속하게 전개하기 위하여 보병에서처럼 행군장경에 주의할 필요는 없다. 그러므로 2오종대로써 통상 행군대형을 만들며 중대의 행군장경은 190m이다.

중대장 및 소대장은 중대와 소대를 감독하기 편리한 곳에 위치하고 또 보병과 동일한 목적으로 고수와 나팔수 각 1명이 중대의 후미에서 행군하도록 하여야 한다.

3. 砲兵의 行軍隊形

포차중대에서 야포병중대의 행군장경은 다음과 같다.

- 전포대(포차대 : 약 150m, 제1단렬 : 약 100m) : 약 250m
- 제2단렬 : 약 160m
- 합계 : 약 410m

포차중대에서 산포병중대의 행군장경은 다음과 같다.

- 전포대(포차대 : 142m, 제1단렬 : 약 138m) : 약 280m
- 제2단렬 : 약 160m
- 합계 : 440m

중대장은 반드시 일정한 위치에 있을 필요가 없고 소대장도 명령이 있으면 소대 가운데 적절한 위치에서 행군하며, 포차장과 기타 모든 책임자들은 차와 말의 전후에서 행군하는 것이 적절하다.

중대장은 포수를 포의 앞이나 옆에서 행군하도록 하고 또 경계상 무방하면 중대 선두에 나아가 행군하도록 할 수 있으며, 중대의 후미에는 보병과 동일한 목적을 가진 고수와 나팔수 각 1명을 배치하여야 한다.

산포병이나 야포병의 구별이 없이 포병대대의 행군장경은 2개 중대의 행군장경에 중대간의 거리인 30m 그리고 대대본부 요원의 행렬 길이를 더한 것과 같다.

4. 其他部隊의 行軍隊形

가. 工 兵

보병과 동일하게 4열측면중대로 행군대형을 편성하고, 중대의 행군장경은 약 160m이다.

나. 小架橋縱列

도보 병사들은 4열로 승마한 병사들은 1열 혹은 2열로 견인마는 1열로 행군하며, 행군장경은 약 330m이다.

다. 衛生部隊

위생부대 및 담가대(擔架隊)는 1열로 도보 병사들은 4열로 군의관은 2열로 그리고 견인마는 1열로 행군하며, 행군장경은 약

250m이다.

第2節 行軍序列

군대구분으로써 행군부대를 구분하고, 행군서열로써 각 부대의 행군순서를 규정한다.

행군서열의 첫째 요지는 개전시 부대를 사용하는 차례에 적합하도록 하는데 있고, 이 서열은 경계부대에서는 경계부대장이 그리고 본대에서는 행군중대의 지휘관이 규정한다.

기병은 수색에 필수적인 병과이기 때문에 지형 및 시기가 허용하는 한 가급적 주력을 적에 대하여 가장 가까운 방향이나 위치에 사용하여야 한다.

포병은 전투개시에 필수 병과이기 때문에 적과 충돌의 우려가 있을 때는 가능한 한 적에 근접한 위치에서 행군하도록 하여야 하지만, 소규모 지대가 전진 이동시에는 행군중대의 후미에 위치하여도 무방하며 이는 전투개시의 경우 전방 진출에 소요되는 시간이 짧기 때문이다. 다만, 포병은 자체 방어능력이 없기 때문에 반드시 보병부대의 약간 후방에 위치하도록 하여 직접적인 적습을 예방하지만, 포병으로 인하여 보병의 단결을 파괴하면 안된다는 것도 고려하여야 한다.

본대의 선두에 있는 보병부대는 전위의 보병부대와 동급 단위의 부대로 편성하는 것이 중요하다.

전진 이동시에는 공병(또는 소가교중렬)이 통상 전위에 소속하여 통로의 개척 및 보수를 담당한다.

당시의 형세에 따라 행군서열 가운데 후자(後者)가 전자(前

者)를 초월하여 진출할 때는 전자는 후자를 위하여 통로를 확보할 의무가 있다.

대소의 행리를 분할할 경우에는, 이미 기술한 바와 같이 소행리는 소속부대를 수행하고 대행리는 통상 1개 행군중대에 이를 집결시켜 1개의 집단을 만들어 행군중대의 후방 약간 떨어진 거리(퇴각시에는 행군중대의 전방 원거리)에서 뒤따라가도록 한다.

대행리의 행군순서는 전투서열에 따라 가능한 한 변경하지 않는 것이 중요하며, 이는 명령의 번잡함을 피하고 또한 각개 병사들로 하여금 항상 그 위치 및 순서를 암기시킴으로써 출발시에 혼잡이 없게 하기 위함이다.

포병에서 제1단렬은 소속중대의 바로 후방에서 수행하고 제2단렬은 대대 단위로 집결하여 각 편조부대(전위 또는 본대 등)의 가장 후미에서 따르도록 한다. 다만, 특별한 형세시에는 제2단렬의 일부로써 제1단렬을 증강하는 경우도 있다.

소가교종렬을 전위에 부가하고 또 대가교종렬도 본대에 부가하는 것은 행군중대의 지휘관이 결정한다. 다만, 전혀 필요가 없을 때는 소가교종렬은 대행리에 통합하거나 양자를 모두 다 치중부대에 합류시킨다.

위생부대는 소요에 따라 전부를 본대의 바로 뒤에서 나아가게 하거나 그 절반을 전위에 부가한다.

치중, 탄약, 식량, 대가교종렬, 야전병원 그리고 마창(馬廠)은 통합하여 통상 2개 제대로 편성하며, 제1제대는 대행리로부터 그리고 제2제대는 제1제대로부터 적당한 거리를 취하여 수행하는데 사정에 따라 필요하면 엄호병을 부가한다.

부대장은 전진시에는 예하부대의 선두(퇴각시는 후미)에 위치하는 것이 통칙이다.

이상 기술한 바는 전진 이동을 위한 서열을 규정한 개요로서, 퇴각시에는 이 서열을 그대로 반대 방향으로 하는 것과 동일하다. 다만, 퇴각 행군시에는 대행리, 치중제대와 본대와의 거리는 전진시보다 크게 하고 또 적의 측방 행군시에는 대행리와 치중부대는 적으로부터 먼 측방에서 나란히 나아가게 하는 것이 다르다.

행군서열은 제반 시기에 적용할 수 있는 일정 불변한 것이 없으나, 그 표준을 제시하기 위하여 부도(附圖)로써 하며, 대개 이 서열을 깊이 연구할 때는 사단 이하 하급부대의 행군서열에 적용하는 것이 별로 어렵지 않아야 한다.

第3節 行軍種類¹³⁾

행군은 행군방향을 따라 전진행(前進行)과 퇴각행(退却行) 그리고 측적행(側敵行)의 세 종류로 구분하며, 그 해석은 글자의 뜻으로 충분하다.

이는 행군거리, 속도 그리고 지형과 행군방법의 차이에 따라 상행군(常行軍), 급행군(急行軍), 강행군(強行軍), 야간행군(夜間行軍), 산지행군(山地行軍) 그리고 수송행군(輸送行軍) 등의 여섯종류로 구분한다.

13) 제3절 : 이 절은 원문에 제4장으로 되어 있으나, 역자가 편의상 제3장의 1개 절로 편성하였다.

1. 常 行 軍

상행군은 부대의 대소, 기상의 적합성 여부와 도로상태에 따라 약 40리(里) 내지 70리¹⁴⁾로써 하루의 행군거리가 되게 하고 통상 4일째 되는 날을 휴식하는 날로 할당하여 위로하며, 또한 무기와 장비 그리고 피복을 정비하기 위함이다.

2. 急 行 軍

급행군은 상행군(常行軍)에 비하여 휴식하는 날이 없고 또한 하루의 행군거리도 증가하여 대략 30km 내지 45km에 이르게 하는 것이 다르다. 그러므로 상행군처럼 연일 계속하여 실시할 때는 체력의 소모를 감당하지 못하게 된다.

3. 強 行 軍

강행군은 어떤 거리를 매우 급속하게 행군할 때 사용하는 것으로, 하루의 행군거리를 정할 수 없으며 주야로 행군하여 목적하는 지점에 도착하여야 하는 것이다. 이 행군은 피로가 가장 심하기 때문에 가령 전장(戰場)과 겨우 1일이나 2일의 행군거리를 떨어져 있는 부대가 전투에 참여하고자 하든지 또는 어떤 지점까지 일시에 급속하게 퇴각이 필요한 경우에만 실시하고, 어떠한 경우에서든지 부대의 행군능력이 능히 감당할 수 있다는 것이 명

14) 70리 : 원문에는 ‘七十里半’으로 되어 있으나, 역자가 ‘半’을 삭제하였다.

백하지 못하면 한갓 병력이 손실된다는 것을 잊어서는 안된다. 이 행군에서는 몇 번의 휴식을 실시하여 이 사이에 식사와 가축에 사료(飼料)를 먹이고 때에 따라서 수면을 취하도록 한다.

4. 急行軍과 強行軍에 관한 注意

소부대로서 행리나 치중 등을 갖추지 않은 경우에는 행군이 가장 용이하므로, 급행군이나 강행군에서는 가능한 한 행군종대를 몇 개 단위로 구분하여 각 집단간에 크게 거리를 유지하고 행리와 치중 등은 가장 필요한 것만 수행하도록 하며 또 이것이 가능하지 못하면 각개 병사들의 배낭은 별도로 운반하고(보병 1개 중대의 배낭을 운반하는데는 말이 약 30두가 필요하다.) 또 식량을 증가하여야 한다.

5. 夜間行軍

이 행군은 주간의 심한 더위를 피할 목적으로 실시하는 외에는 모두 전술상의 요구에 따른다.

야간행군은 체력의 회복에 필요한 수면의 결여와 야간이기 때문에 행군이 곤란(암흑과 수마(睡魔)로 인하여 정신적, 시각적인 착오가 발생하고, 특히 노면상의 작은 요철(凹凸)에도 쉽게 넘어지고 머뭇거리게 된다.)하여 피로가 심하게 된다.

특히, 대오(隊伍)의 문란과 행군의 지체 그리고 거리의 신장 등으로 인하여 행군종대는 수시로 단절되어 정돈이 안되고 후속 부대가 이어지지 않으며 또 길을 잃기 쉬운 폐해가 있어, 이를 예

방하겠다는 심적인 준비가 아무리 깊어도 도저히 주간의 행군처럼은 불가능한 것이다.

그러므로 야간행군은 가급적 피할 것이며, 실행하여야 할 때는 각 부대장은 용의주도하지 않으면 안된다. 전술상의 필요에 따라 반드시 실행할 경우는 다음과 같다.

- 부대가 실패한 후 적과의 접촉에서 벗어나고자 할 때와 우세한 적의 공격을 피하고자 할 때
- 여명에 적을 공격하고자 하거나 전투에 참여하기 위하여 야간에 어느 거리를 행군할 때, 만약 하룻밤의 절반만 야간행군을 할 경우에는 차라리 새벽에 가까운 반야〔後半夜〕를 이용하는 것이 유리(정신과 기운의 상쾌함을 느끼는 이점)하다.

6. 山地行軍

산지는 도로가 협소하고 또 험준하기 때문에 극히 좁고 긴 행군대형을 취하지 않을 수 없다.(노폭이 1.5m 이하가 될 때는 인마가 모두 1렬이 아니면 행군이 불가능하다.)

또한 야포병은 매우 잡다한 일이 있어, 각 인마 및 각 부대의 행군속도를 고르게 맞추지 못하기 때문에 상호 거리는 자연히 커지지 않을 수 없게 된다.

이와 같은 이유들로 산지에서 행군중대의 길이는 평지에서 보다 매우 증대하고 따라서 대단위의 행군중대를 사용하는 것은 곤란하다.

7. 輸送行軍

철도와 선박 혹은 차량으로 병력을 이동시키는 것을 수송행군이라고 한다.

차량수송은 보병이나 공병의 일부를 기병과 동행하게 하는 등의 경우에서만 사용하며, 이 방법에 의거하면 1개 중대를 수송하는데 2마리가 끄는 마차 25량을 필요로 하는데, 이는 유럽에서 실험한 바이프로 우리나라에서도 어려울 것이 없다.

철도 및 선박의 수송은 우리나라에서 자주 사용하는 것이나, 이러한 종류의 행군은 다른 종류의 행군과는 크게 다르기 때문에 별도의 장(章：제4장 및 제5장)으로 분류하여 기술한다.

第4章

.....

鐵道輸送

최근에 철도는 한 국가의 무력의 요소가 되어 철도의 이용 이래로 전쟁이 일변하여 이동의 신속함에 따라 전쟁 능력이 강성하기에 이르게 되었다.

일반적으로 철도는 유사시에 재향(在鄉) 병력(예비, 후비 및 휴가 귀대 병력 등)의 소집을 신속하게 하고 이동할 부대를 신속하게 멀리 떨어진 집결지역에 보내며, 실어 보내는데 소요되는 시간은 철도선로가 많을수록 더욱 단축된다.

우리나라의 철도는 점차로 증가할지라도 궤도는 대개 단선(單線)으로 되어 있고 또한 협궤와 차량의 수는 현재 충분하지 못하며, 기관차의 동력이 낮고 경사지에 어려움이 크며 환상(環狀)은 대단히 적다. 따라서 군사상으로 완전한 지경에 도달하게 되면 행군거리가 가깝지 않을 경우 유리한 점이 있다.

철도에 의한 유리한 점은 인마의 피로나 감소가 없고 병기나 피복 등의 손실이 없으며 또 신속하게 목적지에 도착할 수 있다는 것이다. 다만, 철도에 의지하면 인마가 도보행군의 노동(勞動)에 습관이 되지 못하는 불리점을 벗어날 수 없다.

그밖에 철도는 출정군(出征軍)에게 인마, 재료 및 식량 등을 추진보급하고 또 출정군으로부터 부상자, 환자, 포로 및 전리품 등을 송환하는데 편리하고 빠르기 때문에, 철도는 주요한 병참선이 되며 실로 용병의 생명선인 것이다.

도보부대는 타병과부대에 비하면 필요한 공간이 최소일 뿐만 아니라 승하차도 용이하고 신속하다. 타병과부대에 있어서는 승하차를 위하여 특별히 사닥다리나 판자(板子)가 필요하고 또 많은 시간이 소요되기 때문에 멀지 않은 거리에서 철도수송과 도보행군을 혼용할 때는 도보병력은 승차하도록 하고 타병과부대는 도보로 가게 하거나 말을 타고 가게 하여야 한다.

전투를 직접적인 목적으로 하여 전장(戰場)이나 그 부근에 있는 철도의 이용은 넓은 진지(하천, 산맥) 및 해안의 방어나 요새전 그리고 증원병의 파견 또는 신속한 퇴각 등 최소한 경우에만 실시한다. 그밖에는 모두 야외요무령 제12편 제1장을 참조한다.

第5章

.....

船舶輸送

우리나라는 3면이 바다로 둘러싸여 있어 해외로 출병하려면 반드시 선박에 의지해야 할 것이고 또 서해와 남해에는 도서(島嶼)가 많고 원근이 하나같지가 않으므로 선박수송에 대하여 전심(專心)으로 연구해야 할 것이다.

부대의 해상운송은 해군의 선박이나 징발된 선박 혹은 고용된 선박에 의거 실시하는 것이며, 적습의 우려가 있는 지역을 항해할 때는 특별히 군함으로써 호위한다.

상륙에 있어서는 최초로 긴요하게 사용할 자재를 최후에 탑재하여야 하고, 또 탑재할 때에 부대 및 물품에 부속된 물건은 동시에 탑재하도록 주의를 기울여야 한다. 가령 기병에는 반드시 안장(鞍裝)을, 만마(挽馬)에는 만구(挽具)를 부가하며 기타 모든 물품에는 그 부속품을 첨가하여야 하는 것이다.

같은 종류의 물품들은 몇 개의 선박에 나누어 적재하여야 하는데, 이는 조난이나 기타 사태변화시에 이러한 물품이 모두 손실되는 일이 없도록 하기 위함이다.

그밖에는 야외요무령 제12편에서 기술하고 이하는 오직 적 지역에 적군의 유무에 따른 상륙방법만을 대략적으로 제시한다.

第1節 敵이 없는 地域에서 上陸

각 병과부대의 상륙 순서는 상륙 이후의 기도하는 바에 따르며, 본선과 잔교(棧橋)가 접촉할 수 있으면 상륙하기에 지극히 편리하다.

각 부대장은 부하보다 먼저 상륙하여 부대가 정돈할 지역을 선정하며, 이를 위하여는 후속부대의 정돈에 소요되는 여지와 함께 해안으로부터 멀리 떨어지는 일에 주의하여야 한다.

포병의 상륙은 포를 조작하는 병력[砲軍]과 전차(前車) 그리고 마필을 먼저 상륙하도록 하고 다음으로 탄약차와 예비품 차량이 뒤를 따르게 하여야 한다.

상륙시 마필을 실을 전용선(端船)이 부족할 때는 마필의 특성을 이용하여 해엄치게 하지만, 이 방법은 마필의 위생상 폐해가 있기 때문에 부득이한 때만 사용하여야 한다.

상륙에 소요되는 시간은 본선으로부터 해안에 이르는 거리, 기상상태, 전용선의 다소 그리고 해변의 상황 등에 관련이 있다.

상륙을 위하여 고려할 중요한 사항은 해수의 깊이, 해안의 상황, 조류와 바람 및 강우 등이다.

대형 운송선의 항해에는 깊이가 3심(尋 : 1심은 6척)을 필요로 하고 닻을 내리는데는 적어도 4심을 필요로 하며, 닻을 내릴 지점은 가능한 한 해안에 접근되도록 하여야 한다.

상륙해안은 가능한 한 연장하여 정박하는 선박이 각자 자유로이 선회하게 하는 것이 요구되며, 선체 길이의 3배 간격을 가지도록 하여야 한다.

만일 해안의 상황에 따라 운송선을 2개 내지 3개 집단으로 구분하여 정박하지 않을 수 없을 때는 각 선단의 혼잡을 피하기에 적당한 거리를 가지는 것이 중요하다.

바닥이 넓적한 배〔扁底船〕와 거룻배〔艇船〕는 수심이 50cm 내지 60cm의 곳까지 나아갈 수 있고, 잔교의 공사는 뱃사공에게 맡기고 공병은 보조를 하는 것이 편리하고 당연하다.

第2節 敵이 있는 地域에서 上陸(敵前上陸)

이 상륙은 곤란하므로, 적의 준비가 없는 지점을 선정하여 상륙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지만, 대체로 상륙할 지점은 해안상에 자연적인 제한이 있고 적군이 사전에 수비하고 있는 것은 어쩔 수 없는 것이다.

그러므로 적지에 상륙하는데는 적의 의표를 찌르지 않으면 큰 피해를 입을 뿐만 아니라 오히려 상륙 의지를 달성하지 못하게 된다.

그리하여 적의 의표를 찌르는데는 짙은 안개와 같은 기상을 이용하든지 기타 한낮에 해안의 어떤 지점에 선박을 집결시켜 적군을 견제하고 미리 선정한 상륙지점을 향하여 야간에 은밀히 향진하여 가능한 한 신속하게 많은 병력을 상륙시키는 것이 요구된다.

그러나 만일 적의 함대가 준비되어 있어 아군의 항로를 압박할 때는 먼저 좌절하지 않을 수 없다. 가령 적 함대의 준비가 없다 하여도 적은 해안의 망루(望樓)와 감시초소 그리고 전신(電信) 등에 의거 아군의 거동을 일찍부터 감지하고 아군에 앞서 상륙지

점에 병력을 집결하는 일이 있는데, 이것이 바로 적전 상륙이 곤란하다고 하는 까닭이다.

상륙을 강행하는 경우에는 호위함정은 맹렬한 포격으로써 아군의 상륙을 준비하고 또 지원하지 않으면 안된다.

이러한 포격의 힘에 따라 모든 부대가 신속하게 작은 배를 타고 상륙하며, 이를 위하여 육전대[해병대]가 먼저 상륙하여 요지를 점령하고 다음 그 엄호에 따라 육군이 상륙하며, 다시 육군의 엄호부대를 차출하여 육전대 대신 본대의 상륙을 엄호하도록 한다. 따라서 상륙해안에는 적당한 엄호진지가 있는 것이 중요하며, 이후의 행동은 일반적인 전투방법에 따른다.

상륙지점은 적의 유무에 관계없이 완전히 일시적인 상륙에 사용하는데 그치며, 간혹 육군의 근거지가 되는 경우가 있으나 그 여하(如何)는 오직 전략상 관계이기 때문에 여기에서는 기술하지 않는다.

第 9 篇

駐 屯

第 1 章

.....

要 領

야전에서 부대의 숙영방법은 사영(舍營), 노영(露營) 그리고 촌락노영(村落露營)의 세가지 종류로 대별한다.

【사 영】

사영은 전투준비가 용이하지 못하지만 비바람을 막아주고 소요 품목을 보충 조달하고 장구와 피복을 수리하는데 편리하기 때문에, 휴식면에서는 사영의 아주 열악한 수준도 노영의 아주 양호한 수준이 되므로 실제로 전술상 방해되는 일이 없으면 사영은 숙영의 가장 좋은 방법이다.

사영은 숙영시간의 장단에 따라 다시 행군사영(대개 하룻밤을 위한 경우)과 주류사영(駐留舍營: 수일간을 위한 경우)으로 구분한다.

【노 영】

노영〔野營〕은 완전히 전술상 요구에 호응하여 배치하여야 하고 또 전투준비가 가장 확실하나 부대는 비바람에 노출됨으로써, 휴식면에서는 폐해가 심하여 오랫동안 이 숙영방법을 사용할 때는 부대가 피로하여 질병이 생기고 병력이 심하게 감소되기에 이른다. 그러므로 적과의 접촉으로 전술상 고려할 필요가 있을 때나

벽지(僻地)로서 사영할 촌락이 모자라고 다른 방법이 없을 때만 이 방법으로 하여야 한다.

【촌락노영】

촌락노영은 부대의 일부는 사영하고 나머지 일부는 부근의 지역에서 노영하는 것으로, 전투준비에 관련해서는 거의 노영과 동일하여도 휴식면에서는 노영에 비하여 크게 낫다.

이 숙영방법은 적에 근접하여서나 몇 개의 부대를 조밀하게 집결할 필요가 있거나 또는 인가가 부족하여 모두 사영을 못하는 등의 경우에만 사용한다.

대체로 부대의 숙영방법은 당시의 형세에 따르는 것으로, 즉 적과 멀리 떨어져 있으면 간단한 행군사영을 하고, 혹은 대부대가 서로 밀집하여 촌락노영을 함으로써 주위를 경계하며, 혹은 전투의 전후에는 점령지에 노영을 하는 등 그 방법이 여러 가지이다.

요새전이나 기타 장기간 주둔하면서 대적하는 경우, 전투준비와 휴식을 함께 충분히 준비해야 할 때는 천막을 사용하거나 조잡하게 만든 막사(마른 나무판자나 풀과 같은 종류로 급조하는 것)를 설치하여 비바람을 극복하는데 제공하므로 막영(幕營) 혹은 창영(廠營)이라고 말하며 노영을 위한 규정된 원칙에 따른다.

第2章 舍 營

第1節 舍營의 種類

사영은 숙영지의 광협과 전투준비의 완급에 따라 다시 광사영(廣舍營), 협사영(狹舍營) 그리고 경급사영(警急舍營)의 3종류로 구분한다.

1. 廣 舍 營

적과 접촉할 우려가 조금도 없을 때는 인마를 휴식시키고 공급만을 고려하기 때문에 이 방법이 긴요하다. 이를 위하여 부대로 하여금 가능한 한 넓은 지역에서 여유를 가지고 사영하며, 적과 멀리 떨어져 있을 때의 주류사영에서는 특히 그러하므로 이와 같은 사영을 총칭하여 광사영이라고 한다.

2. 狹 舍 營

적과 가까이 접촉하고 있을 때는 전술상 고려를 주로 하고 협소한 지역에 많은 병력을 집결함으로써 전투준비에 완벽을 기하려고 하며, 이를 협사영이라고 한다.

3. 緊急舍營

이 사영은 가장 엄하게 전투준비를 하여야 할 때 사용하는 것으로, 거의 협사영과 유사하지만 오직 다른 바는 소대와 중대 등의 건제부대를 적당한 건축물, 즉 학교나 절 그리고 농가 등에 집결하고 모든 병력은 복장을 갖추고 있는 것이다.

보병은 총과 배낭을 신변에 두고 기병은 안장을 내리지 않으며 포병은 끌고 갈 장비[輓具]를 풀지 않고, 각 가옥에는 등불을 키고 초병을 세운다.

한 촌락 안에는 경급사영에 적당한 가옥이 매우 부족하기 때문에 이 사영만 사용하는 경우는 드물고 협사영과 혼용하는 것이 통상이며 그리하여 경급사영의 병력이 협사영의 안전을 보호하게 된다.

第2節 宿營命令

일반적으로 숙영에 관한 업무를 규정하는 것은 숙영명령으로써 기준을 삼으며, 이 명령은 가급적 행군중에 하달하여 숙영준비를 할 수 있는 여유를 가지게 하고 각 부대가 휴식으로 전환시는 무익하게 머물러 서 있는 일이 없게 하는 것이 중요하다.

이 명령에 기재할 조항은 대개 다음과 같다.

- 적 상황(필요시)
- 목적 개요(필요시)
- 경계부대(수색기병과 전위 혹은 전초와 측위 등이 필요하면 분향한다.)의 위치와 임무(경계할 지역과 특히 수색할 방향

혹은 지점 및 점령할 지역)

- 본대의 숙영방법 및 숙영지, 돌발 상황시 집결장소와 사영 또는 노영부대장의 임명과 시행할 공사 등
- 급양종류〔관현이 징발하는 급양 또는 창고 및 종렬급양에 있어서는 겸하여 군량과 마초(馬草)를 분배할 지점 및 시각을 지시하고, 부대가 징발하는 급양에서는 징발구역을 지시한다.〕
- 치중부대의 숙영지
- 지휘관의 소재지 및 익일에 관계되는 명령의 하달시각

이상의 명령 외에 치중부대에는 특별명령을 하달한다.

第3節 舍營의 勤務員

여기에서 사영의 근무원이라 함은 사영지휘관(舍營指揮官), 사영일직장교(舍營日直將校), 부대일직장교/하사(部隊日直將校/下士), 순찰장교(巡察將校), 군기위병(軍紀衛兵) 그리고 외위병(外衛兵)을 말한다.

1. 舍營指揮官

상급지휘관으로부터 별도로 사영지휘관이 임명되지 않았을 때는 각 사영지에서 상급의 고참장교가 바로 사영지휘관이 되어야 한다.

장관(將官) 및 연대장은 차하급자로 사영지휘관을 임명할 권한이 있다.

사영지휘관은 각 병과부대의 사영을 할당하고 기타 내외의 경계근무 방법 및 전투준비의 정도를 규정할 책임이 있다.

2. 舍營日直將校

각 사영지역에 일직장교 1명(통상 정위, 대부대에서는 영관장교)을 세우며, 그는 사영지휘관에게 보고하고 사영 내외의 경계근무에 대하여 지시를 받아야 한다.

이 장교는 군기위병 및 외위병의 책임자로서 초병을 배치하고 수칙을 부여하며 또 주야로 감시할 책임이 있다.

3. 部隊日直將校/下士

보병, 기병, 포병 및 공병대대는 각각 장교(부참위) 1명을 그리고 각 독립중대나 일부 부대는 각각 하사 1명을 부대일직으로 세운다.

이 일직장교 및 하사는 명령을 받으면 바로 사영일직장교에게 보고하고 사영내의 경계근무에 들어가서 필요한 명령을 받고 사영구역내의 정숙 및 군기에 주의하며 또한 해당 부대장 및 사영지휘관의 명령사항을 실시한다.

4. 巡察將校

순찰장교는 상황에 따라 지정되는 부대로부터 차출된 자로서, 그 인원은 당시의 필요에 의거 다르며, 임무는 내외의 경계근무

에 관하여 사영일직장교를 보좌하는데 있다.

(주의 : 1개 숙영지에 병력이 적은 1개 부대만 숙영할 때는 별도로 사영의 근무원을 두지 않고 평상시 부대의 내무생활을 겸해서 시행하도록 한다.)

5. 軍紀衛兵

군기위병의 임무는 각 사영지역의 정숙 및 군기를 유지하는데 있으며, 인원은 초소의 수(軍旗, 部隊長, 砲廠 및 行李 등)에 따라 정하고 나팔수 1명을 부가한다.

각 병과부대가 섞여서 한 지역에 사영할 때는 1개 군기위병을 설치한다. 인원은 보병을 위주로 하고 타병과부대로부터 각자의 초병을 이용하여 차출되는 인원을 더하고, 승마병도 이 근무를 수행하는 자는 도보로 하며 또한 마구간지기〔厰衛兵〕는 부대별로 설치한다.

행군사영에서는 군기위병의 인원을 가급적 적게 하지만 특별히 군기상의 고려가 중요하여 초병을 세울 위치가 많은지 혹은 지역 주민의 거동이 의심스러울 때는 군기위병의 인원을 증강하고 또 필요시 그 수를 증가하여야 한다.

경계시 별명이 없으면 군기위병은 부대가 남겨놓은 재료를 감시하고 혹은 부대가 갑자기 출발할 때는 그 재료의 운반 준비가 된 후에 비로소 부대를 따라가야 한다.(이 항은 노영에도 적용한다.)

6. 外 衛 兵

외위병은 사영지의 직접 엄호를 담당하는 자로, 가령 전초의 엄호가 있어도 이를 설치하는 것이 필요하며, 이 위병의 임무는 다음과 같다.

- 적의 급습을 경계하고 또한 저지하는 것
- 전초 및 인접한 사영지역과 연락을 유지하는 것
- 허가없이 사영지역 밖으로 나가는 자를 제지하고 또한 의심스러운 사람이 사영지 안으로 들어오는 것을 제지하는 것

이 위병은 통상 사영지역의 출구나 지형 등을 고려하여 간혹 더 멀리 배치하기도 하며, 인원은 사영지역 위험의 대소에 따라 모든 방면의 출구 또는 주변의 모든 지점을 수비하여야 할 것인가 오직 전투에 대비한 방면의 모든 출구와 이 방면의 주요한 출구만 수비하느냐에 따라 다르다.

외위병은 소초의 요령에 따라 가장 주요한 지점의 근방에 자리 잡고 앞에서 제시한 모든 지점에 하사초와 복초를 파견하고 또한 하사초와 복초를 그 근방에 있는 부대로부터 차출하게 함으로써 충분하다.

여러 병과부대가 혼합된 사영에 있어서도 외위병은 도보병력으로부터 차출하지만, 척후와 통신을 위하여 기병 약간명을 부가하는 경우가 있는데 모두가 전초근무의 규칙을 따라야 하기 때문에 만일 기병으로 위병에 충당시는 통상 말을 탄 채로 복무한다.

경보시에는 다시 명령을 하달하기까지 그 위치를 고수하고 또 사수하여 적을 격퇴하는 것이 중요하다.(이 항은 노영에도 적용

한다.)

(주의 : 소부대에서는 군기위병으로 외위병을 겸하는 것이 가능하고 또 외위병의 능력이 적습을 지탱하지 못할 때는 보병의 1개 부대—중대 혹은 소대—로 경급사영과 노영을 편성함으로써, 특히 전투준비를 보유하게 하여 외위병의 후방증원이 가능하도록 하여야 한다. 장기간 주둔할 사영에서는 모든 근무를 위수지역에 있는 것과 같이 규정한다.)

第4節 舍營의 設置

사영의 설치는 통상 설영대(設營隊)가 담당하며, 인원은 각 부대 각 부처로부터 차출하는바, 선임자와 소요의 병력으로 편성하며 부대의 대소에 따라 다르다.

사영은 당시의 형세가 허용하는 한 미리 준비하여야 하며, 그 준비의 허실은 휴식의 편리 여부를 크게 좌우한다. 이런 까닭에 편성을 한정하여 설영대를 먼저 출발하도록 하고 필요시 보병부대는 물론 승마장교를 먼저 출발하도록 하며 지방의 관리와 협의하여 준비에 종사하게 하여야 한다. 이상은 여차행군이나 적과 멀리 떨어져 있는 경우에 적용한다.

적에 근접하든지 혹은 지역주민이 적의를 가지고 있을 때는 설영대는 전위의 후방에서 행군하여 엄호를 받아야 한다. 대체로 이와 같은 경우나 기타 시간 여유가 없고 미리 준비를 하지 못하는 경우에는 그 조치를 간략하게 하는 것이 요구되며, 이때에는 통상 지도상에서 구획선(사거리, 하천 등)에 따라 신속하게 각 부대의 사영지구를 지정하고, 각 부대는 다시 작은 거리와 가옥

에 따라 각각 소단위부대에 배분한다.(도로와 사거리 등은 명백하게 하나의 사영구역에 포함시키고 2개 구역으로 나누지 말 것이다.)

사영지구를 정하는데는 부대의 건제를 무리하게 나누지 않으며 또 적과 근접할 때는 사영 전체의 형상을 전투배치에 부응하게끔 횡으로부터 종으로 유연하게 배치하여야 하며, 횡으로 넓게 배치할 때는 집합의 경우 측면행진을 하지 않을 수 없는 불리한 점이 있다. 그러므로 사영지구는 가능한 한 정방형에 가까운 것이 제일 적당하다.

적군과 멀리 떨어진 때는 부대의 집결은 주요하지 않기 때문에 전시행군에서도 사영의 중심으로 행군장경에 적응하도록 하고 군대구분과 행군서열에 따라 각 부대에 사영을 배분함으로써 다음 날 아침 행군을 시작할 때는 피차 무리한 왕래가 없고 간편하게 행군종대를 편성한 것과 같아 가장 적절하다고 하겠다. 이 방법을 사용하면 모든 부대가 가옥에 숙영할 수 있어 행군로 밖에서 분산하여 숙영하는 불편을 면하게 된다.

각 가옥에 모든 병력을 배치하는 비율은 오직 전황과 관련이 있다. 즉, 엄격한 전투준비를 요하지 않을 때(광사영)는 보병이 숙영할 촌락 중에 많은 마필을 보유한 병과부대를 배치하여 마구간을 충분히 사용하게 하는 것이 편리하다.(촌락에서는 평균 1개 가옥에 인원 3명과 말 3필을 계산하고, 시가지에서는 1개 가옥 평균인원을 증가시키고 마필의 수를 줄인다.)

이에 반하여 엄격한 전투준비를 요할 때(협사영, 경급사영 그리고 후에 열거할 촌락노영)는 강력한 보병부대를 최전선의 촌락에 배치하고, 기병과 포병은 촌락의 후방인 위험이 적은 지역에

배치하여야 한다.

즉, 수색이나 경계근무에 사용하지 않는 기병부대는 보병의 측후방에, 포병은 가능한 한 주도로의 측방에서 적 방향의 반대편 촌락의 한쪽에 사영하도록 하여야 한다.

어떠한 경우에서도 포병은 독립하여 사영하도록 하는 일이 없게 보병과 함께 하든지 또는 보병의 엄호를 받도록 하는 것이 원칙이다.

각급부대의 본부(사령부)가 적습의 우려가 있는 장소에서 사영하는 것은 불가하며, 모든 명령의 하달 및 보고의 접수 또는 발송에 많은 시간을 소비하지 않기 위하여 가급적 사영지의 중앙이 되면서 도로의 교차지점에 자리를 잡는 것이 통칙이다.(각급부대의 본부를 1개 처소 또는 근처에 위치시킬 수 있을 때는 가장 편리하다.)

또한 항상 전신 및 도로교통의 편리를 고려하여야 하고, 각급부대의 본부 및 사영부대장의 위치는 주간에는 기(旗) 또는 나뭇단〔束藁〕으로, 야간에는 등화를 사용하여 식별에 편리하도록 하여야 한다.

第5節 緊急集合場所

경급집합장소는 부대경보시 신속하게 병력을 정돈하는 지역을 말한다.

각 부대(보병, 기병 및 공병대대 그리고 독립부대)는 각각 경급집합장소를 보유하며, 만일 대대가 분산하여 2개 촌락에 사영할 것 같으면 각 촌락에 정렬할 장소를 정하고 이곳에 먼저 병력

을 정돈한 후 대대의 경급집합장소에 나아가는 것이 편리하다.

보병과 공병부대의 경급집합장소는 통상 사영지의 전면과 측방에 정하고, 기병과 포병부대의 경급집합장소는 후방에 정하는 것이 편리하다. 다만, 포병부대는 통상 후방에 위치하는 창(廠)이 있으므로써 충분하다.

대개 이와 같이 하면 기병과 포병부대는 전투준비를 하는데 가장 신속하게 보병부대의 암호를 받을 수 있다.

이밖에 경급집합장소를 선정하는데는, 특히 이곳에 도래할 때 각 소규모부대들이 서로 방해됨이 없고 또한 대략 그 부대의 점령할 예정위치와 경급대집합장소(후술한다)에 신속하게 도착하는 일에 주의할 것이며, 이를 위하여 각 부대가 취할 도로를 지시하여 두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

상황에 따라 1개 지역이나 몇 개 지역에 사영하는 모든 병력을 1개 지점에 집결하기 위하여 또 연대와 여단 그리고 사단 등에 집결하기 위하여 경급집합장소에 집결하고, 각급부대는 별명을 기다리지 않고 바로 경급대집합장소로 나아간다.

第6節 警 報

경보시, 상급 고참장교 혹은 사영부대장은 비상나팔을 불게 하며, 만일 갑작스러운 적습이 있을 때 주저하면 커다란 위험에 빠지므로 각 위병 및 장교는 몸을 바쳐 책임지고 신속하게 신호나팔을 불게 할 의무를 진다. 또한 1개 지구마다 신속하게 정비하기 위하여 각 부대가 신호를 사용하지 않고 은밀하게 경보를 하는 경우가 있다.

경보가 있을 때는 보병 및 공병의 각 부대는 무장을 완료하고 신속하게 경급집합장소에 집결하든지 혹은 각 부대가 미리 지시된 지점을 신속하게 수비한다.

기병부대도 별명이 없으면 무장하고 승마하여 경급집합장소에 집결하며, 포병부대는 구분에 따라 신속하게 포창(砲廠)과 마구간에 집결하여 수레에 말을 붙들어 매거나 짐을 실어 무장을 정비한다.

행리 등은 경보를 발령하는 사영부대장의 특별한 규정에 따르는 것이다.

적군이 사영지내에 빠르게 침습하여 경급집합장소에 도착할 수 없는 부대 또는 병력은 각자 현재의 위치에서 서로 협력하여 방어하여야 한다.

第3章

.....

露 營

第1節 露營의 設置

일반적으로 노영지역을 선정하는데는 병력과 한 지역에 한정시키게 하는 제한사항이 아주 적어야 하며 지형에 적응하도록 하는 편이 매우 유익한 것이다.

이에 반하여 같은 노영지역에 집합하는 병력이 많아짐에 따라

지형에 적응시켜야 할 염려는 오히려 감소하는 것이다.

그러므로 대병력이 한 지역에 노영할 경우에는 각 부대 노영의 경계를 명백하게 획정하여 토지의 적부, 음폐와 엄폐 그리고 풍향 등을 구태여 염려할 것이 없고, 노영의 설비, 즉 총선(銃線)과 휴식 및 숙박장소와 취사장 그리고 변소 등의 위치를 갖추어야 한다.(야외요무령의 노영하는 그림 참조)

일반적으로 전투준비는 반드시 많은 병력을 동일 노영지역에 집결하는 것으로써 확실하다고 할 수 없으며, 대개는 불의의 적습(특히 야간에)을 받는 경우에 부대를 정돈하는 어려움은 병력이 많을수록 더욱 심한 것이다.

따라서 대부대는 형세가 허용하면 몇 개의 단위로 구분하여 노영하도록 하는 것이 편리하며, 이를 구분하는데는 경계병(전위 등)을 제외하고는 모두 전투서열에 준하여야 하고 다만 포병이 독립하여 노영하는 것은 매우 위험하기 때문에 항상 타병과부대와 연합하도록 하여야 한다.

만일 대부대를 1개 지역에 노영시킬 때는 지면이 허용되는 한 충분한 간격(최소의 간격은 보병연대의 각 대대간에 10m, 보병연대간과 포병중대간 또는 각 병과부대간 20m)을 확보함으로써 노영지역내의 정숙 및 야간식별을 용이하게 하여야 하고, 지형상으로 길게 노영을 설치하고자 할 때는 변소를 고려하여 충분히 거리를 가지거나 측방에 설치하여야 한다.

노영준비도 숙영명령으로써 기준한다. 그러나 노영에 있어서는 사영준비처럼 번잡하지 않고 통상 노영부대장이 먼저 가서 노영에 필요한 사항을 고려하여 정찰 선정함으로써 충분하며 반드시 설영대를 먼저 출발시킬 필요가 없다.

第2節 露營의 勤務員

노영의 근무원에는 노영지휘관(露營指揮官), 노영일직장교(露營日直將校), 부대일직장교/하사(部隊日直將校/下士) 그리고 순찰장교(巡察將校)가 있다.

1. 露營指揮官

각 노영지역에서 상급 고참장교는 바로 노영지휘관이 되는 것이 통칙이며, 별도로 차하급자를 임명하는 것은 드문 경우이다.

노영지휘관은 가장 식별하기 쉬운 곳에 숙영(고급사령부는 근방에 사영하여야 한다.)하여 모든 위병과 전령 등이 그 위치를 알기 편하게 하여야 한다.

이 담당관(노영지휘관)은 노영지역 외곽의 경계방법과 소요에 따라 노영의 폐쇄방법(호를 파고 교량을 파괴하며 쓸모없는 도로를 폐쇄하는 등)을 규정하고 각 부대의 노영지역을 배분하며 그리고 노영에 필요한 특별규정(식수 및 말에게 물을 먹이는 곳을 장소별 혹은 시간에 따라 각 부대에 할당하는 등)을 만든다.

노영부대장은 가능한 한 일찍 병사들을 휴식하도록 하고 비바람을 가려주는 보조방법(엄폐 및 취사에 사용할 나무와 떨감 등의 조달)을 실행함에 있어 기율(紀律)에 어긋나지 않고 또 신속하게 성취하여 책임을 다한다.

2. 露營日直將校

노영지휘관을 보좌하기 위하여 노영일직장교 1명을 두고(규모가 큰 노영지역에서는 영관장교), 그 임무는 ‘사영일직장교’에서 기술한 바와 동일하다.

3. 部隊日直將校/下士

보병, 기병, 포병 및 공병대대로부터 부참위(副參尉) 1명씩과 독립중대 혹은 탄약중렬 그리고 치중차의 노영지역내에 있는 부대로부터 각각 하사 1명으로써 부대일직을 편성하고, 즉시 노영일직장교에게 보고하고 부대 내외의 경계근무에 관하여 주요한 명령을 접수하여 부대장에게 신고하고, 부대장의 보조로서 명령 및 기타 부대장이 규정하는 사항을 시행하고 군기위병을 배치하여 수칙을 부여하고 또한 주야로 감시하는 책임을 담당한다.

4. 巡察將校

순찰장교는 필요시에만 두고, 임무는 ‘사영’의 순찰장교와 동일하다.

5. 軍紀衛兵

사영에서와 거의 동일한 목적으로 항상 설치하며, 이를 위하여 각 부대(보병, 기병 및 공병대대와 포병중대)로부터 부대장의 명령으로 소요의 병력을 파견하고, 그 병력은 소요의 초소의 수(軍

旗와 부대장 및 차량 등)에 따라 다르다. 경보시의 조치는 ‘사영’에서와 차이가 없다.

6. 外 衛 兵

외위병은 적과 근접하여, 특히 경계를 엄하게 할 때 설치하는 것으로 상황에 따라 외부로 통하는 도로를 폐쇄하며, 이 위병은 사영 외위병의 규칙을 통용(通用)하여야 한다.

第3節 警報 및 出發

경보가 있을 때, 보병은 각자 신속하게 배낭을 메고 총가(銃架)의 곁으로 가야 하며, 다만 명령이 없으면 총을 풀어 놓으면 안된다.

기병은 신속하게 말에 안장을 갖추고 무장하여 승마하고 중대의 집합장소에 집결하여야 한다.

포병(제1, 제2단렬 등)은 안장을 갖추고 배낭을 메고 다시 명령이 없어도 야포병은 수레에 말을 매고 산포병은 짐을 싣고 말을 매어야 한다.

대체로 행리를 싣는 수레의 말은 장비를 갖추어 수레를 끌 준비를 하여야 한다.

출발시각은 미리 명령하는 것이 통례로, 이 경우에는 출발시각 15분전에 화기(火氣)를 모두 제거하고 위병(적에게 대응할 꼭 필요한 경계병은 제외한다.)은 각각 원대복귀하며 부대는 출발준비를 한다.

第4章

.....

村落露營

각 병과부대로써 편성된 대부대가 촌락노영을 할 때는 각 부대를 서로 인접한 촌락에 분산배치하는데, 그 방법은 사영의 원칙에 따른다.

각 부대가 어떤 부서를 가옥내에 숙박하게 하고 어떤 부서를 마당과 부근의 전답 혹은 별판에 노영하게 할 것인가는 그 부대의 편의에 맡겨야 하나, 어떠한 경우에서든지 도로에는 결코 노영하게 하면 안된다.

일반적으로 촌락내에 숙영하는 부대는 경계방법과 내부의 근무는 사영에 준하여 규정하고, 가까운 촌락밖에서 노영하는 부대는 노영에서 정한 방법을 따라야 한다.

촌락노영은 많은 병력의 집합에 걸리는 시간(가옥내에 있는 부대의 사영방법에 의하여 다소의 차이가 있다.)이 매우 근소한 이점이 있으나 또한 비슷한 피해를 면하지 못하기 때문에 노영지휘관은 가능한 한 이 피해를 예방하는데 주의하여야 한다.

폐해라는 것은 어두울 때 촌락내에 협사영을 형성하면 부대의 혼란, 병사들이 멋대로 주민들의 물품을 도용하거나, 식수의 어려움 그리고 기타 많은 병력의 집중으로부터 오는 일상적인 혼잡 등이다.

각 병과부대로써 편성된 대부대가 혼란이 생기지 않으면서 촌

락노영을 하고자 할 때, 각 병과부대는 촌락에 들어가기 전에 숙영에 필요한 모든 것을 규정하여야 하기 때문에 당시의 상황이 가능하면 노영지휘관은 각 병과부대의 장교를 인솔하고 먼저 숙영지에 급행하여 각 병과부대로 하여금 지체없이 숙영에 투입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第 10 篇

戰 鬪

第1章

.....

總 論

第1節 戰鬥의 要旨 및 目的

전투는 전쟁의 군사목적을 달성하는 직접수단이며, 그 목적은 적을 압도 섬멸하는데 있다.

이러한 전투의 일반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전군(全軍)이나 대부대가 결전에 참여할 때는 바로 본전(本戰)이 된다.

그러나 하나의 전쟁중에 매번 전투에서 반드시 이와같지는 않고 본전의 전후 혹은 본전 중에서 수색과 경계, 엄호(포병, 가교, 전장공사, 치중과 징발 등의 엄호) 및 기타 양동작전과 같은 전투상 특별한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경우가 많을 때는 이를 담당할 부대는 그 목적에 부응하여 도전하고 회피하기도 하며, 공격하고 방어하기도 하는데 그 근본 성격이 본전은 아니고 지속전(持續戰)에 속한다.

다만, 해당부대가 전투의 일반목적을 함께 달성할 경우에는 진정한 결전을 이루지만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비록 패전의 위험에 빠질지라도 항상 그 특별 목적을 달성하는데 주안을 두어야 한다.

결전은 공격전투와 매우 밀접한 관계가 있으나 방어전투에 있어서도 또한 결전을 감행하지 않을 수 없는데, 바로 호기를 포착

하여 역습으로써 적을 격파하고자 하는 것이다.

지속전의 목적은 결전에 있지 않고 수세에 속하지만 때때로 공세를 취하게 되는데, 가령 적정을 정찰하든지 혹은 적으로 하여금 행동을 취하도록 하거나 기타 고착시키고자 할 경우 등이다.

第2節 戰鬪의 勝敗

적을 모두 섬멸하든지 안하든지 간에 압도하여 이후의 투지를 끊어 버릴 때는 전투의 승리가 아군에게 있으며 이는 능히 전투의 일반목적을 달성하고 전쟁의 국면을 끝내기에도 충분하지만, 한번의 전투로써 이와 같은 전승(全勝)을 만드는 것은 지극히 어렵고 대개는 몇 번의 전승(戰勝)을 쌓은 후에야 가능하다.

전투의 승패는 오직 병력의 다과와 지형의 난이, 부대의 정예와 지휘의 숙달 정도, 기상과 시간의 적절성 여부 그리고 기타 불의의 임기응변 여하에 관계된다.

피아의 병력 비례는 전투의 승패에 영향을 크게 주기 때문에 결전의 지역에는 많은 병력을 준비하는 것이 전투지휘의 요결이 된다.

지형은 쌍방간에 어느 하나가 전승을 거두는데 용이하게 하고 다른 상대방을 곤란하게 하는 것이다.

기상 중에, 특히 짙은 안개는 공격이나 방위에 득실을 초래하며 또한 전투를 개시하는 시각의 늦거나 빠름도 승리의 완결 여부를 결정하는 것이다.

적을 능히 제압하고 승리를 얻을 수 있는 것은 첫째로 정예한 부대와 훌륭한 지휘에 달려 있는데, 고래로 훌륭한 장수(將帥)는

정병을 가지고 우세한 적군에 대하여 능히 승리한 예가 적지 않은 것이다.

전투중에는 불의의 상황변화가 많은데, 이러한 변화에 처한 것을 호기로 받아들여 승리로 이끌 수 있으려면 기민함과 과감한 행동 그리고 대담한 용기에 의하지 않으면 불가능하다.

따라서 이를 미루어 보면, 전투의 승패가 작게는 부대의 안위와 존망에, 크게는 국가의 성쇠와 영육에 관계되기 때문에 전쟁의 현상이 어떻게 다분화되던 하나의 큰 전승에 성공할 수 있도록 귀착시켜야 한다.

第2章

.....

戰鬪의 攻守(攻擊 및 防禦)

전투 초기에는 공수의 구별이 명백하지만, 전투가 경과하는 기간에는 이것이 서로 뒤바뀌게 된다.

공격의 주된 이점은 다음과 같다.

- 공자(攻者)는 스스로 전투를 원하는 것이기 때문에 사기가 크게 진작되는데 공격의 신속함과 적의 의표를 찌르는 것 그리고 아군 세력의 맹렬함에 따라 더욱 그렇게 된다.
- 공자는 양동작전에 의하여 적의 병력을 분할하고 아군이 바라는 지역과 시각에 아군이 바라는 바 병력을 가지고 본공

(本攻)을 시행하면 소위 선제의 이점을 차지한다.

- 결정적인 승리를 거두는 것은 공격에 의하지 않고는 불가능하다.

방어의 주된 이점은 다음과 같다.

- 방자(防者)는 지형을 이용하고 또 공사를 실시하여 아군의 화력을 발휘하고 적의 화력을 차폐할 수 있다.
- 방자는 정지하고 있기 때문에 피로가 적고, 화력은 이동하는 공자보다 우세하고 탄약의 보충이 용이하다.
- 방자는 전장의 지형을 상세히 알아서 미리 적에 대응할 모든 준비를 할 수 있다.

이를 보전대, 방자는 자연적이거나 인공적인 험하고 좁은 지역에 의탁하여 뜻대로 총포를 이용하고 자신은 편하면서 상대방의 수고로움을 기다리며 적은 수로써 많은 수를 막기는 하지만, 진취적 기상이 풍부하며 또한 선제의 기세를 떨치는 것은 오로지 공자에게만 있다. 이것이 바로 공자의 이점은 무형적이고 방자의 이점은 유형적으로 존재하는 까닭이며, 결정적인 승리를 거두고자 하는 방어일 경우에는 조만간 방어에서 공격으로 전환하지 않으면 불가능한 것이다.

그러나 공격과 방어의 양개 전투의 득실여하에 영향을 미치는 것은 일반상황과 기도(企圖), 특히 지형에 관계가 있기 때문에 반드시 그 이해를 논의하여 결정할 수 없으며 오직 병력이 우세한 자와 적보다 먼저 그 병력을 집결하는 자는 공세를 취하고 상황이 그러하지 않은 자 및 증원 오기를 기다리는 자는 수세를 취

하며 지형을 이용하여 그 불리한 점을 보충하여야 한다.

분리된 적군에 대하여는 아군의 병력이 비록 적의 전력보다 열세하더라도 아군은 1개 방향에 우세를 확보함으로써 적을 각 개 단위로 공격하여 승리를 얻을 수 있다. 다만, 적군의 1개 부대가 전투중에 다른 부대가 증원할 수 없게 분리 이격된 경우를 말한다.

지휘관의 천성도 공격이나 방어이냐를 선정하는데 크게 관계가 있으며, 만일 당시의 형세가 공격과 방어의 양개 전투중에 모두 가능할 경우에는 반드시 공격하여야 하며 이것이 확실하게 지켜야 할 원칙이다.

第3章

.....

攻撃의 要領

第1節 攻撃地點의 選定

공격지점을 선정함에 있어서는 대체적으로 다음과 같은 요지를 따라야 한다.

- 공격지점은 적의 관측 및 화력을 차폐하면서 접근하여야 하며, 이는 적의 의표를 찌르고 또한 아군 병력의 손상을 줄이는 것이다.

- 공격지점은 많은 병력을 집결하기 위하여 모든 방향으로부터 접근하는데 편리하여야 하기 때문에 적진의 돌출부 및 양익지점은 자연히 공격지점이 된다.
- 진지의 박약한 부분(지형 및 배치가 결여된 지점)도 매우 이용하기 쉬운 공격지점이다. 다만, 이에 대하여는 능히 포화의 효력을 명백하게 확보하는 것이 요구된다.
- 공격지점은 적 예비대의 위치로부터 멀리 떨어져야 하기 때문에 예비대가 없는 측면은 유리한 공격지점이 되는 경우가 많다.
- 진지의 요지요부인 각면의 부위는 적진 전부를 점령하는데 관계되므로 특히 유리한 공격지점이 되는 경우가 많다.

기타 적군의 성질, 종류, 관습과 규모 등을 추측하고 생각하지 않으면 안되기 때문에, 공격지점을 선정함에 있어서는 제반 상태를 적절히 판단하고 취사선택을 잘하여 그 방법을 그르치지 않음은 오직 지휘관의 능력에 달려 있는 것이다.

第2節 攻撃의 諸方法

공격방법은 다음과 같다.

1. 正面攻撃

이 공격은 적의 정면에 대하여 실시하기 때문에 부대의 집결이 가능하고 지휘가 용이한 방자는 그 정면의 화력을 동원하여 아군

에 집중할 수 있으며, 아군은 이에 대하여 사격의 우세를 기대하기가 어렵다.

또한 적의 퇴로를 위협할 수는 없으나 아군의 퇴로도 안전하다.

2. 側面攻撃

이 공격은 적의 측면, 즉 취약한 부분에 대한 공격이기 때문에 아군의 피해가 적을 뿐만 아니라 그 공격에 공헌함에 있어서는 적의 퇴로를 위협할 수 있다. 다만, 이 공격은 아군의 퇴로 또한 위태롭게 한다.

적군이 신속하게 아군의 측면공격 기도를 알아차리면 이 공격 방면에 대하여 정면을 전환하여 진지를 이전하도록 하는 이점은 있으나 아군이 기도하였던 측면공격은 마침내 정면공격으로 변하게 된다. 그러므로 측면공격을 훌륭하게 하는데는 적의 의표를 찌르는 것이 아니면 불가능하다.

3. 結 論

이상에서 기술한 바에 따르면, 두 종류의 공격이 모두 장단점이 있기 때문에 한 가지의 공격방법만을 사용하는 것은 현재는 드문 일이고, 이 두 가지 방법을 병용하여 장단점을 보완하지 않으면 안된다.

다만, 두 가지 방법 가운데 무엇이 주공이 되고 무엇이 조공이 되는지는 당시의 상황과 지형 등에 따라 한결같지 않으나 다음에 가장 많이 사용하는 경우를 개략적으로 제시한다.

가. 正面助攻을 並用하는 側面主攻

이 경우에서 정면조공의 목적은 적군 중의 예비대를 견제하는데 있으므로 지구전으로 충분하다고도 하겠으나 보통의 경우에 결사적으로 행동하지 않을 수 없다. 다만 이 공격은 아울러 아군의 퇴로를 엄호할 수 있다.

측면주공의 목적은 결전을 실행하는데 있으며, 이 공격은 혹은 사격의 우세로써 혹은 적의 퇴로를 위협함으로써 달성되는데 그 효력은 적군이 배후를 고려하는 정도가 심할수록 더욱 커지는 것이다.

전황에 따라 조공이 도리어 주공이 되어 주공으로서 기여하든지, 또는 마주하고 있는 적군이 퇴각을 시작할 때는 조공도 결전을 위한 공격으로 바꾸기도 한다.

나. 包 圍

포위는 측면공격의 결과로서, 즉 적의 측익을 통해 나아가 에워싸서 공격하는데 있다. 보병조전에 이른바 “공격의 성과를 얻기 위하여 우세한 사격을 실시하는데는 포위행동에 따름으로써 가장 용이하다”라 함도 포위의 유리한 이유를 아는데 충분한 내용이다.

양측면의 공격, 즉 좌우 양익으로 확장하여 실시하는 포위는 아군의 병력이 적보다 월등하게 우세한 경우에만 할 수 있으며 우세하지 못하면 중앙이 스스로 굴복하여 돌파당할 우려가 있다.

대체로 이와 같은 포위는 조우전에서 여러 도로를 이용하여 모든 부대가 전장으로 향하여 전진하는 때에 발생하는 것으로, 보병조전에 “포위를 행하는데는 모든 방향으로 접근하는 것이 필요

하다”가 바로 이를 말하는 것이다.

이러한 공격을 간단없이 계속하면 마침내 울타리 모양을 이루어 적을 압박하여 그 전멸을 보기에 이르는 것이다.

다. 迂 廻

우회를 실시할 경우 상급지휘관의 장악하에서 벗어난 1개 독립 부대가 적의 측배에서 행동하지 않을 수 없으며, 그 목적하는 바는 적을 공격하기보다는 퇴로를 위협하여 적으로 하여금 후방을 대비할 염려를 포함하여 결국에는 진지를 포기하지 않을 수 없게 만드는데 있다.

그러나 일반적으로 우회를 실시하는 것은 아군의 병력이 적보다 우세하다고 믿을 때나 아군의 퇴각에 위급하거나 곤란함이 없고 적의 퇴로를 위협할 수 있을 때가 아니면 그 목적을 달성하기가 어렵다.

1개 소부대의 병력을 가지고 실시하는 우회의 목적은 적의 퇴로를 위협하여 아군의 주공을 용이하게 하는데 있으나, 이와 같은 우회를 수행하는 부대는 아군의 주력과 떨어져 각개격파를 당할 염려가 있기 때문에 이를 실행하는 경우는 매우 드물며 대개는 산악전 등에서나 실시한다.

라. 突 破

적의 전선을 꿰뚫고 들어가 일을 성취할 때는 적의 병력을 분리절단하여 지휘의 통일을 방해하고 분리된 부대를 각개격파하는 이점이 있다. 그러나 이 공격을 함에는 적군이 길게 연장된 전투정면을 가지고 있을 때가 아니면 성취하기 어렵고, 또 공자는 측

면을 포위당하는 위험에 직면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강력한 예비대를 보유하지 않으면 안된다.

第3節 攻撃部隊의 運用方法

공격을 훌륭하게 실행하는 길은 공격지점의 선정 및 병력의 운용방법을 적절히 하는데 있다. 주공에 우선권을 두어야 하기 때문에 조공병력은 적의 역습을 저지하여야 할 경우를 고려하여 병력을 절감하지 않으면 안되고, 또 돌격을 감행하거나 상황의 변화에 대비하기 위하여 예비대를 보유하는 것도 매우 중요하다. 이러한 고려가 있어야만 공격병력은 최대한 건제를 유지할 수 있으며, 대략 다음의 표에서 보이는 비율에 준하여 부대구분을 하여야 한다.

부 대 구 분	부 대 규 모
주 공 부 대	보병부대 병력의 1/2
조 공 부 대	최대한 보병부대 병력의 1/4
예 비 대	최소한 보병부대 병력의 1/4

포병은 주공을 대비하고 기병은 통상 일익에 위치하여 적의 측면을 향하여 운용하며 또 멀리 아군의 양측방 지역을 수색 및 경계하여야 한다.

포위공격에는 통상 전위로 정면을 공격하도록 하고 본대는 가능한 한 적의 관측으로부터 차폐하여 전진하고 적의 측방에 대하여 바로 공격을 시행한다.

정면공격에는 먼저 일부병력을 적의 측익으로 진출하도록 하고 주력은 전위와 하나가 되어 정면으로 공격을 시행하는 것이 기본이다.

第4節 攻撃配置 및 追擊

1. 攻撃配置

공격배치는 조우전 혹은 이미 방어배치를 한 적진을 공격하는데 따라 저절로 구별이 된다.

조우전에서 전투개시는 전위의 임무이기 때문에 전위는 본대로 하여금 전개할 시간과 장소를 확보하도록 하지 않으면 안되며, 이를 위하여 소속포병의 사용이 가장 긴요하다.

전위부대장은 전군(全軍)의 일부만을 통솔할 뿐이기 때문에 시기를 분별하지 못하고 경솔히 행동하면 전군의 작전을 방해함은 물론, 본대가 도착하기 전에 격파당하는 위태로운 지경에 봉착하기 때문에 전위가 독자적으로 공격을 감행할 경우는 얻는 이익이 잃는 불리함을 보상할 여지가 있을 경우에 한하여야 하는데, 그와 같은 경우는 대략 다음과 같다.

- 전위가 패주하는 적을 추격할 때와 매우 약한 적과 조우할 때(제7편 제2장 제2절 1항의 전위의 전법 참조)
- 전위가 적보다 앞서서 애로를 점령할 때
- 전위가 애로 안에서 적에게 충돌하고 맹렬히 전진하여 신속하게 상대방의 출구에 도달하고자 할 때나 긴요한 지점을 용이하게 탈취하고자 할 때

이로 미루어 볼 때, 조우전에서는 전개명령 및 전투명령을 가능한 한 동시에 발령함이 긴요하기 때문에 상급지휘관은 아군과 적군과의 충돌이 확인되면 즉시 전방으로 신속하게 달려가는 것이 중요하다.

기병은 적의 정면에 연하여 신속하게 수색을 실시하고, 특히 측면으로 기동하여 전진중에 있는 적의 종대를 파악하는데 힘써야 한다.

포병은 신속하게 이동하여 먼저 사격을 개시하고 가능한 한 선제의 이점을 차지하여 적을 압도하고 공격실행의 편의를 꾀하여야 하며, 이때 전위보병은 결전을 위한 공격을 피하고 포병만을 엄호하여야 한다.

상급지휘관은 이미 공격방법을 결정하면 전개중에 있는 부대에 대하여 신속하게 임무를 부여하는 것이 중요하다.(부관 등의 중간요원으로 하여금 명령을 전달할 때는 오류를 초래하기 쉬우므로 가능한 한 직접 명령하는 것이 중요하다.)

각 부대에 여러 가지 임무를 포함하여 합동으로 공격명령을 부여하는 것이 조우전에서는 매우 드물고 통상 축차로 획득하는 보고에 의거하여 축차로 각 부대에 명령을 부여하지 않으면 안 된다.

보병의 본격적인 공격은 아군포병의 사격 우세로써 적의 포병을 압도하고 또 아군이 공격할 지점에 대한 준비사격을 실시한 후에 실시한다.

이 목적을 달성하고자 하는데는 가능한 한 포병을 집중운용하지 않으면 안되고 또 기병은 전투개시 후 대개는 측면에서 행동하거나 예비대에 편입한다.

방어배치를 한 적진을 공격할 경우 상급지휘관은 최초부터 공격을 충분히 계획하여야 하는데 적군이 지형의 이점을 크게 활용할 수 있으면 더욱 그러하므로, 이를 위하여 전투전에 본대의 전개를 명령하고 이 사이에 전방부대로 하여금 적에게 가까운 진지를 점령하여 적의 상황을 관측하고 아군의 행동을 엄호하도록 한 연후에 합동공격명령을 하달한다.

이 명령에 포함할 주요사항은 다음과 같다.

- 적 상황
- 아군의 일반상황 및 목적의 개요
- 포병의 위치 및 사격목표
- 조공 및 주공을 담당할 부대(도로와 공격목표)
- 기병의 행동(통상 양익에서)
- 총예비대의 편성과 거리 혹은 위치
- 공사와 위생부대의 개설 및 야전병원의 유무, 기타 탄약수레 및 탄약중대에 관한 사항
- 대형 보급품에 관한 사항
- 지휘관의 위치

적에게 접근하기 위하여 암야(暗夜)를 이용할 때는 여명 이전에 선정된 진지로 전진하며 여명을 기하여 보병과 포병으로 사격을 개시하여야 한다.

2. 追 撃

제1차 추격은 통상 사격으로써 실시하며, 이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보병은 탈취한 진지에서 사격하고 포병은 신속한 기동으로 즉시 진지에 도착하여 똑같이 사격으로써 추격하여 적으로 하여금 정지하거나 집결할 여유가 없게 하는 것이 요구되며, 많은 부대로써 전진하면서 추격하는 것은 제2차에 속한다.

전승을 얻은 후에 처음부터 전진하면서 추격하는 것은 적군이 패전으로 궤멸되어 다시는 저항이 불가능할 때에만 실행할 수 있으며, 이와 같은 경우에는 포로 및 각종 자재는 모두 승자에 귀속이 가능하되, 이러한 종류의 추격은 다음의 이유로 실행할 기회가 드물다.

- 야음 : 대체로 전투는 흔히 연장되어 야간에 이르기 때문에 패자는 야음을 이용하여 추격을 피하려고 한다.
- 전투의 피로 : 승자도 또한 격렬한 전투 후에는 피로가 커서 추격할 예기가 거의 없다.

전장에서의 추격 후에는, 특히 기병으로써 적군과 접촉하도록 하여 그 상황을 파악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第 4 章

.....

防禦의 要領

전수방어(專守防禦)는 원래 1개 지역을 고수하는데 지나지 못하며 결코 적을 섬멸할 수 없고 또 전투시 중요한 선제의 이점이

적군에게만 있으므로 아군의 사기는 떨어질 수밖에 없다.

따라서 후위와 엄호부대 등의 전투에는 부득이 이 방법을 사용하되 기타의 경우에는 항상 공세방어(攻勢防禦)를 반드시 사용하여야 한다.

공세방어라는 것은 전투상 혹은 지형상으로 일시적인 방어자세를 취하고 기회를 보아 공격으로 전환하는 것을 말한다.

방어력의 강약은 오직 진지의 양부(良否) 및 제병력의 배치 여하에 관계된다.

第1節 防禦陣地의 要件

전수방어시에는 진지의 전방과 측면에 아군의 유효사거리내에 장애물 등이 있어 적군의 접근을 못하게 하지만, 공세방어에 있어서는 반격시를 고려하여야 되며 그러한 곳을 ‘공격지(攻擊地)’라고 말한다.

공격지는 ‘방어지’(방어지구를 말한다)로부터 실시하는 사격에 의한 엄호가 필요하며, 공격지에 유리한 위치는 통상 방어지의 양측에 있는 것이 적당하다.

전투상 방어에 적당한 진지의 요건은 대략 다음과 같다.

【진지의 일반적인 위치로서의 요건】

사계를 보유한 고지이며 또 그 위치는 적군이 반드시 공격하지 않으면 안되고 또한 접근시에는 큰 손해를 입을 곳이어야 한다.

【진지의 정면으로서의 요건】

정면의 폭은 병력의 규모에 알맞아야 하고 양익은 뒤편으로 굴

곡되어 갈고리 모양을 이루어야 하며, 또 방어의 지탱점(독립된 언덕과 작은 수풀 등)과 양호한 포병진지가 있고, 특히 공세방어에는 시기에 따라 전진하는데 지장이 없어야 된다.

【진지 전방의 요건】

적 방향으로서는 완경사를 이루면서 아군진지의 감제를 받고 또 충분한 사계가 있어야 한다.

【진지의 측면 및 측방지역의 요건】

전수방어에서의 측면은 통과하기 어려운 곳에 의탁하는 것이 가장 양호하나, 공세방어에서는 공세이전에 편리하고 또 넓은 사계가 갖추어진 포병진지가 있을 수 있는 지역이다. 측방지역도 적군의 접근이 곤란하거나(전수방어시) 혹은 충분한 사계가 있는(공세방어시) 지역이다.

【진지의 내부로서의 요건】

적의 관측 및 화력을 차폐할 수 있고 또 방어의 지탱점이 있어 행동이 자유스럽고 교통이 편리하여 각 부서의 병력이 서로 지원하며 예비대는 시기를 놓치지 않고 교전할 것이 요구되므로 진지를 차단하는 장애물이 있으면 매우 불리하다.

【진지의 우방지역으로서의 요건】

안전한 퇴로 및 적당한 수용진지가 있어야 하며, 다만 퇴로는 진지 중앙의 뒤로 정면에 대하여 직각인 것이 가장 유리하고 수용진지는 전장과의 거리가 멀지 않고 퇴로를 질러가는 것보다 그 측방에 있는 것이 가장 저항력이 있어 능히 퇴각을 엄호할 수 있어 유리하다. 또한 수용진지도 양호한 퇴로가 있지 않으면 안된

다. 일반적으로 후방지역에 애로가 있으면 위험하여 아군이 실패할 경우에는 궤멸되는 대혼란에 빠지고 이에 반하여 파상지역(波狀地域)이나 나무가 듽성듬성 있는 숲이나 통로가 개척된 삼림 등은 퇴각에 매우 편리하고 용이한 것이다.

방어진지의 요건은 이상과 같으나, 항상 이러한 요건을 완비한 진지를 선정하는 것은 쉽지 않으므로 충분하지는 못한 진지로써 만족할 수밖에 없는 경우가 때때로 있다. 그러므로 부대의 배치 방법에 따라 진지의 불량한 결점을 보완하여 그 가치를 증대시킬 필요가 있다.

방자는 적군의 진로를 점거하여 진지를 점령하여야 하지만 경우에 따라서는 적이 취할 도로의 측방에 진지를 평행으로 점령하기도 하는데 소위 측면진지가 바로 그것이다. 이러한 진지에서 적이 반드시 취할 행군경로를 아군의 유효사거리내에 둘 수 있을 경우 방자는 화력으로써 직접 적의 행군을 방해할 수 있고, 이와 상반된 경우 행군이 계속되면 방자는 나아가 그 측면이나 배후의 교통로를 위협할 수 있다. 이와 같이 하면 방자는 다음과 같은 이점을 얻을 수 있다.

- 적군으로 하여금 그 측방이나 배후를 고려하게 함으로써 부득이하게 아군의 진지를 공격하지 않으면 안되게 만든다.
- 적군이 이를 공격하는데는 그 방향을 전환하여 측면에 전개하지 않을 수 없는 곤란한 일이 발생하게 만든다.
- 적군은 가령 승리한다 하여도 행군이 지연되고 또 행군목표를 치우치게 하는 이점이 있다.

그러나 이와 같은 측면진지는 다음과 같은 요구를 충족하지 않으면 안된다.

- 측면이 특히 적과 근접하게 되면 통과가 불가능한 장애물로써 보호하도록 하든지 견고한 지탱점과 유리한 포병진지가 반드시 있어야 한다. 측면이 이와 같을 때는 공자가 정면으로 아군의 측면을 쉽게 공격하여 함락하지 못한다.
- 아군의 퇴로는 측면진지와 직각으로 교차하여야 한다.
- 출격이 용이하여야 한다.(특히 적의 배후에 대하여)

第2節 待機陣地

방어시에는 선제의 이점이 적에게 전적으로 있기 때문에 적이 여하한 방법으로써 공격할 것인지 예측이 불가능하므로 방자는 적에 대하여 언제든지 저항할 수 있도록 준비하지 않으면 안된다.

그러므로 적의 공격방향이 아직 확실하지 못하여 아군의 준비방법을 결정할 수 없을 때는 먼저 대기진지를 점령하여 병력을 집결하고 필요한 인원(가령 감시병)만을 전방에 배치하여야 한다.

기병은 가능한 한 멀리 나아가 적이 올 방향을 수색하여 적 상황을 신속하게 파악할 수 있어야 한다.

포병은 적의 행군방향과 장차 위치할 포병진지를 고려하여 점령하여야 하지만, 진지가 적군의 행동 여하에 관계없이 일정불변하다고 판단되면 최초부터 그 진지를 점령하고 방렬진지 후방에서 차폐하여 시기를 기다린다. 일반적으로 포병진지는 소요에 따라 1개 방면 혹은 수개 방면에 대하여 공사를 시행함으로써 견고

하게 하여야 한다.

주요한 지탱점은 최초부터 보병으로써 점령하여야 하고 병력이 너무 많지 않게 그리고 이 지역을 점령할 부대와 동일한 단위라야 한다.

보병의 주력은 예정된 방어진지의 배후에 위치하며 가능한 한 교통이 편리한 도로의 부근이라야 한다.

공병은 소요에 따라 진지구축에 종사하며, 대개 이러한 공사는 당시의 보병과 포병화기에 대하여 현저한 가치가 있어 실제로 이러한 공사는 반드시 시행하여야 하는 것이다. 그러나 너무 일찍 공사를 시행할 때는 지휘 및 제반행동에 장애가 될 우려가 있음을 고려하여야 한다.

보병과 포병도 소요의 기구(器具)가 있기 때문에 능력껏 스스로 공사를 실시하여야 한다.

第3節 防禦配置 및 退却

방어진지의 배치는 적의 공격방향이 명확해진 후에 실시하며, 그 진지는 이미 상권에서 기술한 바와 같이 통상 몇 개의 지구로 분할하고 각 지구는 지형에 따라 자연스럽게 넓거나 좁은 차이가 생기지만 가능한 한 견제부대로써 방어하고 방어진지 가운데 주요한 부분과 도로는 명백하게 1개 지구에 포함시키도록 하는데 주의한다.

방어병력 특히 보병은 대개 2개 부분으로 나누는데, 즉 각 지구의 항거병력(이하 甲이라고 한다)과 후방, 측방 또는 측익의 후방에서의 총예비대(이하 乙이라고 한다)이다. 갑은 순수한 방

어를 담당하는 부대로서 지구 단위로 증원부대와 예비대를 보유하고, 을은 항거병력을 지원하여 공세이전하며 퇴각을 엄호하거나 불의의 사태변화에 준비하는 부대로서 병력은 적어도 전체 보병의 1/2규모가 되어야 한다.

기병의 주력은 대개 측방에서 행동하고 나머지 일부는 총예비대에 속하여 다음 명령을 대기하여야 한다.

포병은 적에게 먼저 사격을 개시할 수 있게 준비하여 적의 오는 길, 즉 전진로를 사격하여야 한다.

공병은 본진지의 공사가 끝나면 총예비대에 편입하고 또 필요시는 배후의 교통로를 개설하여야 한다.

수용진지는 반드시 설치하지는 않지만 만일 설치시는 공병이 공사하는 경우가 많다.

진지 전방의 주요한 부분(독립된 언덕과 작은 숲 등)이 아군진지의 유효사거리 안에 있을 때는 본진지의 일부가 되므로 이를 점령하는 것이 무방하지만 멀리 떨어져 있을 때는 이른바 전진초소라 하여 특히 중요한 이유가 있을 경우에만 일부병력으로써 점령한다.

대개 그 초소가 농가, 촌락 그리고 작은 숲 등으로 이루어진 때는 적의 포병화력으로 인하여 삼시간에 격파되거나 적이 포위하기가 쉽고 결국 초병은 커다란 피해를 당하여 퇴각하지 않을 수 없게 된다.

초병이 일단 퇴각하면 적군은 바로 꼬리를 물고 추적하여 본진지로 오게 되는 이익을 얻을 뿐만 아니라, 이렇게 되면 아군으로 하여금 가장 불리한 심적 동요를 일으키게 하는 것이 되며, 만일 또 부대가 출동하여 그 초소를 구출하고자 하면 미리 준비된 유

리한 진지를 버리고 전방의 불리한 지역에서 전투하는 상황에 이르게 되는 것이다.

그러므로 이와 같은 초소를 점령하는 것은 일시적으로 적을 저지하여 아군 본대로 하여금 본진지에 투입하든가 공사를 시행할 여유를 가질 수 있게 할 경우나 그 초병이 전혀 위해가 없이 임시 퇴각할 경우 혹은 적의 포병진지를 아군의 소총 유효사거리 안에서 제압하고자 할 경우 그리고 적에게 전개를 강요하여 그 병력을 탐지하고자 하는 등의 경우에 국한하여야 한다.

방어배치에 필요한 명령은 모든 부대가 집결하면 바로 하달하며 합동명령을 사용하여야 하지만, 부대가 행군중일 때는 개별명령을 사용하지 않으면 안되는 경우가 왕왕 있게 된다.

합동명령은 대개 다음과 같은 사항을 포함한다.

- 적 상황
- 아군의 일반상황 및 목적의 개요
- 방어지구와 배치를 개시하는 시각 및 그 부대
- 포병의 위치 및 사격목표
- 기병의 행동(통상 양익에서)
- 총예비대의 편성 및 위치
- 방어공사, 탄약보충, 위생부대와 야전병원에 관한 사항
- 대행리에 관한 사항
- 지휘관의 위치

포병의 사격개시는 통상 고급지휘관이 명령하는 사항으로 시기적으로 앞선 포격은 효력이 없을 뿐만 아니라 오히려 적으로 하여금 아군진지를 탐지하게 하는 매개체가 된다.

지구방어병력은 각기 방어진역에서 교전하며 총예비대는 결전을 위한 공격을 준비하고 겸하여 상황변화를 방비한다.

이때에 고급지휘관은 결전을 시행하든지 장차의 전투를 이탈할 것인지를 결정하여야 한다. 전투를 이탈하는 것으로 결심하면 먼저 포병의 일부로써 수용진지에 퇴각하여 보병을 수용하도록 하고, 보병에 있어서는 최후의 예비대를 사용하기 전에 퇴각을 개시할 때만 수용진지를 점령할 수 있게 하며 만일 예비대를 이미 사용한 때는 그 형세가 전투를 지속하여 야음을 기다릴 수 없는 경우가 많다.

퇴각시에 고급지휘관은 퇴각목표, 수용진지 그리고 수용을 담당할 부대를 지시하며, 전투지역을 떠나 퇴각하는 부대를 지휘하고 기타 세부사항은 하급지휘관에게 일임하여야 한다.

어떤 때는 수용부대를 다시 수용하는 것이 필요할 때가 있으나 적군과 이격 유지가 지극히 곤란하게 될 염려가 있기 때문에 가능한 한 이를 피하여야 하고 또 공자의 급박한 추격을 면하는데는 수시로 간단하고 맹렬한 역습을 감행하지 않으면 안될 경우도 있는 것이다.

第4節 逆 襲

일반적으로 결전을 하고자 할 때, 방어의 경우 반드시 역습을 감행하지 않으면 안되며, 그 방법은 다음과 같다.

- 방자는 공자가 아군진지 전방에 다다라 돈좌될 때를 기다려 신예의 병력으로써 맹렬과감하게 돌진한다.(궁축출격：窮蹙出擊)

- 방자는 적의 병력을 분할시키고 또 기동을 위한 수세로써 진지를 점령하여 적군이 이러한 계략에 빠질 때는 주력으로써 맹렬하고 과감하게 돌진하여 적군에게 불리한 지역에서 각개격파한다.(수의출격：隨意出擊)

후자의 경우, 방어진지는 방어물로써 엄폐시킨 공격대기진지에 불과하고, 이와 같은 종류의 역습은 교묘히 시행하면 공자를 교란시키고 적의 기도하는 바를 헛되게 만드는 커다란 효과를 얻을 수 있는 것이다.

대체로 역습은 적의 전선의 약점, 즉 측면을 향하여 감행하여야 하지만 적이 만일 아군의 진지를 포위하기 위하여 전선의 측익을 확장함에 따라 중앙이 한쪽으로 치우칠 때는 이를 돌파하는 것이 유리하다.

역습에 가장 중요한 것은 단행하는 시기이다. 실제로 전장에서 적의 공격이 이미 절정에 이르렀든지 방자가 지닌 장점을 이미 모두 발휘하였든지 혹은 잠시 기다릴 것인지의 여부를 일순간에 결정하면 과감히 이를 단행하지 않으면 안된다.

第5章

.....

戰鬥의 經過

공격전투와 방어전투의 요령은 이미 앞의 제2장에서 상세하게 기술하였으므로 여기에서는 공격과 방어전투 전체의 경과를 기술

함으로써 다시 일반적인 상황을 명백하게 하고자 한다.

일반적으로 전투는 목적과 지형에 따라 특별한 현상과 변천이 있기 마련이지만 결전을 목적으로 삼아 시종 관철시키려는 전투에서는 통상 4개 단계를 이루고, 이 단계는 시간대별로 세밀하게 한계를 정하지만 그 경과와 현상은 실제로 다음과 같다.

즉, 제1단계는 전투개시, 제2단계는 전투실행, 제3단계는 결전 그리고 제4단계는 퇴각과 추격이다.

第 1 節 戰鬪開始(緒戰)

이 시기는 공자나 방자나 모두 전선의 병력으로써 전투의 단서를 여는데 불과하므로 모든 병력이 연합된 부대에서는 수색 및 경계를 담당할 부대, 특히 기병의 전투와 원거리에서의 보병 및 포병의 소규모 전투로 이루어진다.

第 2 節 戰鬪實行(酣戰)

근대식 전투는 공수를 막론하고 각기 제대를 구분하여 병력을 점차적으로 사용하기 때문에 일거에 전승(全勝)을 이루기는 매우 어렵다.

먼저 양군의 포병이 서로 전력을 다하여 포격전을 하며, 패할 경우 전투 전체국면의 승패에 영향이 크다.

이 포격전에서 공자의 포병이 방자의 포병을 박멸하고 또 아군의 공격지점을 교란하기에 이르면 바로 보병의 전투실행이 되고 피아의 주력이 전선에 투입되어 전세가 점점 진척되면서 일승일

패에 공수의 두 형세가 서로 자주 바뀌어 피아의 병력이 점점 쇠퇴해지게 된다.

第3節 決 戰

공자는 혹은 포위로써 혹은 돌파로써 방자를 격파시키려 노력하고 또 방자는 화력과 기회를 포착하여 역습에 의하여 아군진지에 침입하고자 하는 적군을 저지하려고 노력하며 아군진지에 침입하였을 때는 총검으로써 격퇴하려고 노력한다.

이와 같이 오랫동안 역전(力戰)하여 피아 어느 일방이 마침내 성과를 얻고 다른 일방은 병력이 결핍하여 그 불리함을 회복할 수 없게 되면 승패가 이미 결정되어 패자는 퇴각하고 공자는 추격을 실행한다.

第4節 退却과 追擊

패자는 최후의 예비대 또는 전투력의 소모가 적은 부대로써 퇴각을 엄호하고, 승자도 또한 신예의 병력을 전진시켜 적의 퇴각에 앞선 돌격으로 적으로 하여금 병력의 전부를 다 사용하지 못하게 할 때는 적을 반드시 완패하게 된다.

퇴각을 위하여 전투를 중지하고자 할 때는 적의 공격이 가장 격렬한 지점에 오랫동안 항거하는 것이 필요하며 그 퇴각은 대개 수용부대의 엄호에 의존하지 않으면 안된다.

일반적으로 추격은 이미 기술한 바와 같이 먼저 사격을 가한 후 과감하게 병력을 전진시키면 성취하게 된다.

그러나 승자도 또한 추격단계에 이르면 병력이 대개 피로하여 부대가 크게 문란해진 상태이므로 이와 같은 추격을 감행할 만한 충분한 예기가 없는 경우가 많다.

추격은 어떠한 경우에도 신예의 보병과 기병 그리고 포병을 동원하여 이를 실행하여야 한다.

第 6 章

.....

戰鬪指揮의 要領

전투지휘는 전투를 위하여 부대를 배치하고 전투중에 이를 통어(統御)하는데 있다.

공격과 방어의 목적에 따라 부대를 배치하는 원리와 배치상의 기본이 되는 명령은 이미 기술하였기 때문에 여기에서는 오직 통어에 관한 사항만을 기술한다.

고급지휘관은 전투통어시 지나치게 간섭하지 않는 것이 필요하므로 친히 모든 업무를 목격하여 처리하기 보다는 차라리 전투가 격렬한 지역을 피하고 전령이 분별하여 알기 쉽고 또 전장의 전체를 파악할 수 있는 지점에 위치하는 것이 중요하며, 한편 하급지휘관은 고급지휘관의 소재를 인지할 의무가 있는 것이다.

전투간의 통어는 다음의 3개 항으로 귀착된다.

- 전투에 종사하는 부대에 그 처리에 관한 명령을 송달하는 경우

- 총예비대를 사용할 경우
- 직접적으로 전투에 간섭할 경우

전투에 종사할 부대의 진퇴와 행동거지는 오직 적의 진퇴와 행동 여하에 따르지 않을 수 없기 때문에 고급지휘관은 하급지휘관에게 임무 범위내에서 독단 진행(專行)의 여지를 가지도록 하여야 한다.

그러므로 부대의 조치에 관한 명령을 송달하는 것은 대개 다음과 같은 시기로 제한된다.

- 전황에 따라 부대의 임무를 부득이하게 변경하지 않을 수 없을 때
- 하나의 임무를 부과한 부대에 대하여 다시 다른 임무를 부과할 때
- 부대의 임무 수행이 온당하지 않을 때

총예비대는 고급지휘관이 전황을 새롭게 만들어 전투의 승패를 좌우하는 하나의 커다란 집단이므로 그 운용방법의 옳고 그름은 오직 전투통어자 본인의 역량 여하에 달려 있는 것이다.

적절한 시기보다 앞서서 사용하거나 오랫동안 확보하고 있다가 시기를 잃어버리는 것은 모두 사용 방법이 적당하지 못한 것이다.

고급지휘관이 직접 전투에 간섭하는 것은 특별히 중요한 시기에만 국한하는데, 그 시간이 매우 짧아서 바로 결전의 시기에 임하여 부하의 사기를 진작하기 위하여 최후의 예비대를 친히 인솔하여 돌진하는 때가 바로 그러한 경우이다.

第 11 篇

局 地 戰

第1章

.....

總 論

전투의 일반원칙은 어떠한 시기와 지형이든지 다를 것이 없으나, 국지(局地) 다시 말해서 지상의 물체(고지, 골짜기, 촌락, 삼림 그리고 애로 등)는 각각 고유의 특성이 있고 그 이용방법에서도 다소의 특성이 있으며, 그 특성에 따른 전투를 일컬어 국지전(局地戰)이라고 한다.

최근의 전투는 광범위하게 토지의 이용을 필요로 하기 때문에 국지는 소규모전투의 발화점이 될 뿐만 아니라 오히려 광야에서 대규모전투의 발화점이 되기도 한다.

일반적으로 국지는 대개 공자의 관측을 제한하는 특성이 있기 때문에 공자는 방자의 병력을 판정하는 것이 크게 곤란하다.

국지전에서 시종 임무를 주로 담당하는 자는 보병뿐이며, 기병은 전투 전후에 국지의 측방에 위치하지 않으면 사용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다.

포병은 국지의 공방전에서 없어서는 안되며 장애물을 파괴 훼손시킬 때에는 특히 그러하고, 공병은 타병과부대의 능력으로 축성하기 어려운 공사를 담당한다.

국지에서의 전법은 연구 편의상 분류 기술하지만 서로 유사한 점이 많다.

第2章

.....

高地戰鬪

第1節 總 論

고지는 감제할 수 있는 주요한 이점이 있고 또 그 능선 뒤에 위치하고 있는 부대를 광범위하게 차폐해 주고, 그 경사면이 완만하고도 평평하면 사계가 넓어서 사격이 편리하고 관측이 용이하며, 공자로서는 이러한 경사지를 등반하는 것은 지극히 어렵다. 이러한 점이 방어진지로 대개 고지를 선택하여 이용하는 까닭인 것이다.

등그런 산 그리고 이와 유사한 독립고지는 오직 포병진지에 적합하고 또 감시초소에 적합할 뿐이다.

第2節 攻 擊

공격은 일반요령을 표준으로 삼아야 한다.

第3節 防 禦

방어선은 대개 산병호로써 하고 또 경사면을 소사(掃射)할 수 있기 때문에 그 선은 산꼭대기 혹은 능선과 하나로 합쳐지지 않

기도 하지만, 만일 전방지역을 충분히 사격하지 못할 부분은 적시에 1개 부대를 파견하지 않으면 안되고, 아군의 가장 중요한 지점에는 순차적으로 개인호를 설치하여 단계적으로 사격을 하는 것이 중요하다.

포병은 전진해 오는 적군을 사격할 뿐만 아니라 오히려 경사면을 소사하고 또 가능한 한 돌출부로부터 측방사격을 시행하여야 한다. 이를 위하여는 최전선에 위치하고 그 엄호는 앞에 진출해 있는 보병에게 담당시켜야 한다.

그밖에 부대의 배치와 사용 방법 등은 진지방어의 통칙에 준하여야 한다.

第3章

.....

溪谷戰鬪

第1節 總 論

계곡의 전투는 피아가 모두 계곡을 사격하는 것처럼 양쪽 계곡의 능선이 근접한 지역에서만 그 특성이 있고 그렇지 않은 지역에서는 앞장(제2장 고지전투)의 고지전이 되며, 양쪽 계곡능선의 고도가 같지 않으면 가장 높은 계곡의 능선을 점령한 자가 유리하므로 아군의 관측은 편리하고 적군의 관측은 불리하게 되는 것이다.

第2節 攻 擊

공자가 계곡을 전진하는 동안에 아군의 계곡 능선으로부터 연속으로 사격하여 그 전진을 지원할 수 있음은 공자의 주요한 이점이 되지만, 다음과 같은 불리한 점이 있다.

- 공자는 대개 적의 관측과 화력하에 놓여 있어 아군 방향의 경사면을 내려가지 않을 수 없다.
- 계곡의 아래에는 통상 물이 흐르고 논과 물렁한 토지 등이 있기 때문에 공자의 전진이 곤란하다.
- 공자는 방자의 가장 유효사거리에서 적방향의 경사면을 오르지 않을 수 없다.

공자가 이러한 불리함을 충분히 보상하는데는 가장 효력이 있는 사격의 준비가 필요하다.

第3節 防 禦

방자는 아군측에 있는 계곡의 끝자락을 점령하는 것이 통상적이다. 고지의 기슭이나 계곡의 아래에 있는 국지를 점령하는 것은 위쪽에서 내려다보며 사격을 할 수 없을 때에 한하며, 대개 이러한 국지는 소위 전진초소에 불과하기 때문에 이에 수반한 폐해(진지방어에서 기술한 바와 같다)가 있으며 이 폐해는 공자에 대하여 편리한 높은 위치를 점령함에 따라 더욱 커진다.

第4章

.....

森林 및 民間人 居住地의 戰鬪

삼림 및 민간인 거주지의 전투는 그 취지가 유사하며, 이는 그 음폐물이라는 본성이 다를 바가 없다. 그러나 특히 우리나라의 민간인 거주지에서는 다른 경우가 있다.

第1節 森林戰鬪

1. 總 論

전투상에 있어서 삼림의 중요성은 삼림의 대소에 따라 다른 점이 다음과 같다.

대림(大林)은 기병 및 포병의 행동을 크게 제한하고 또 방자는 통상 그 끝부분의 일부만 점령할 수 있고 공자는 방자의 점령지역 밖으로부터 침입한다. 그러므로 대림은 고수하기에 적절하지 못하고 잠시 그 가장자리 부분을 점령하여 적군을 저지하는데 적합할 뿐이다.

소림(小林)의 경우 기병 및 포병은 그 인접지역에서 행동할 수 있고, 소림의 수비가 견고할 때에는 대개 전투의 발화점이 된다.

이상의 어떠한 경우를 막론하고, 수풀가는 항상 전투의 주된 선으로 이 부분에서는 방자는 적의 관측 및 화력에 대하여 병력

을 엄호하여 방어하기 때문에 불변의 이익이 있다.

수풀내의 전투에서는 침입하는 공자의 사기가 크게 월등하지만, 방자는 지리를 숙지함으로써 공수의 이해득실이 자연히 균등하고 부대통수면에서는 피아가 공히 전망이 불편하여 매우 어렵다.

그러므로 수풀내의 전투가 오래 지속되면 대오가 쉽게 문란하여 결국은 지휘관의 장악에서 이탈하기에 이르며 잡목이 가지런하지 않고 또 임도(林道)가 드문 곳은 특히 그러하고, 또 삼림이 매우 크면 전망과 방위(方位)에 대한 인식이 더욱 곤란하며 폐해가 더욱 커지므로 이 폐해를 피하려면 가능한 한 오래도록 밀집대형을 유지하고 부대의 일부라도 항상 집결 보유하는 하나의 방법이 있을 뿐이다.

2. 攻 撃

대림에 의탁한 적을 공격하는데는 그 돌출된 부분을 포위하는 것과 방자가 점령하지 않은 부분에 침입하는 것이 유리하다.

소림에 있어서는 공자는 인근의 개활지에서의 결전을 강요함으로써 피해가 많고 또 곤란한 삼림전투를 피하는 것이 필요하다.

공자는 먼저 삼림의 끝자락 1개 지점에 침입하여 고수하는 것이 필요하며, 삼림 안에서는 앞에 기술한 바와 같이 공수의 이해가 동일하다.

적군이 퇴각을 시작할 때는 공자는 이를 추격하여 삼림 안으로 들어가야 하며, 또 가능하다면 곧바로 적 방향의 삼림 어귀에 도달하는 것이 필요하다.

삼림내에 있어서는 도로와 흐르는 물 그리고 오목한 지점 등에

연하고 소림에서는 삼림 어귀에 접하여 전진하여야 한다.

공자가 삼림을 탈취하였더라도 가벼이 적 지역의 삼림 어귀를 지나서 나아가면 안되고, 반드시 먼저 삼림 어귀를 점유하여 적의 회복에 대비하고 또 대오를 정돈하여야 하며 이미 전개한 적군에 대하여 대림으로 나가 공격을 실행함은 매우 어렵고 기병 및 포병이 도로 밖에서 행동이 불가능할 때에는 더욱 그러하다.

그러므로 소림에서는 이들 병과부대는 측방으로부터의 전진을 요한다. 이밖에는 공격 일반요령에 준하여야 한다.

3. 防 禦

삼림도 지구를 나누어 방어하는데, 각 지구에는 보병의 전제부대를 배치하고 그 병력은 일반 방어배치 요령에 따라 삼림 어귀의 방어병력과 지구예비대(地區豫備隊)로 분할한다.

삼림 어귀의 방어병력은 통상 각 지구 방어병력의 절반을 사용하고, 그 일부를 산병으로 하며 기타병력을 증원부대로 편성하여야 한다.

지구예비대는 통상 각 지구의 중앙 후미에 위치하여 가능한 한 전선에 근접하여 배치함으로써 시기를 잃지 않고 전투에 투입할 수 있게 한다.

총예비대는 소림에서는 통상 그 외부에 위치함으로써 적의 측면공격을 방어하거나 적절한 시기에 투입하여 스스로 공격을 감행하고, 대림에서는 통상 삼림내에서 정면의 각 부대를 증원하기 위하여 가능한 한 도로의 교차점에 위치하는 것이 중요하다. 소규모부대에서는 지구예비대와 총예비대를 통합한다.

포병은 소림에서는 그 외부 특히 측방의 후미에 위치하고 대림에서는 분지 혹은 위험성이 없는 측익의 후미에 위치하여야 한다. 이는 대체로 보병화기로부터 피해를 입지 않게 하기 위함이며 이밖에 진출의 편의를 고려하여 도로 부근에 진지를 설치하는 것이 필요하다. 이는 포병의 집중사용원칙을 두 번째로 두지 않을 수 없는 많은 경우 중에 하나이다.

적군이 계곡 끝자락의 일부에 침입할 때는 방자는 집결한 부대로써 총검을 사용하여 격퇴하여야 한다.

적군이 이미 삼림의 끝자락을 탈취하여 견고하게 의탁하고 있을 때에 방자의 행동은 삼림내에서의 장애물 존재 여부에 따라 다르다. 즉, 장애물이 있을 때는 예비대가 점령하여 전방에 있는 부대를 수용하고, 장애물이 없을 때는 부대 전체가 퇴각하여 삼림을 이탈하든지 혹은 삼림내에서 완강하게 지구전을 계속하는 길뿐이다.

퇴각은 아주 교묘하게 실행하지 않으면, 그 실행이 매우 곤란하고 또 그 병력은 적에게 포획당하기가 쉽다.

전투를 계속하고자 할 때는 적군의 대오가 아직 정돈되지 못하여 각처에 분산된 틈을 이용하여 집결한 병력으로써 맹렬히 공세로 이전하여야 한다.

第2節 民間人 居住地 戰鬥

민간인 거주지에서의 전투는 촌락전투(村落戰鬥)와 농촌전투(農村戰鬥) 그리고 시가지전투(市街地戰鬥)로 구분하며, 또 가옥의 구조가 동서양이 크게 취향이 다르기 때문에 그 사용 방법

도 역시 다르다. 여기에서는 오직 유럽의 일반가옥을 표준으로 하여 원칙을 제시하였을 뿐이다. 그러나 우리나라의 가옥도 전투성가(聲價)가 약간은 있다.

1. 村落戰鬪

가. 總 論

촌락 및 이와 같은 작은 시가지는 소림(小林)에 비하면 적의 화력에 대하여 좋은 엄폐물이 된다. 촌락 주변의 담장은 특히 전투의 주된 선으로 촌락내는 삼림내에 비하여 크게 강인한 전투를 실행하는데 적합하고 부대의 통제와 방향의 인식도 더 좋아지나, 전투는 삼림전투와 동등하여 피아가 똑같이 분산되고 혼란스럽기가 쉽고 퇴각시에는 포획하기가 용이하다.

나. 攻 撃

공자가 공격지점을 선정하는데는 일반적인 요령 외에 담장의 돌출부분 혹은 개방된 부분 및 모든 입구 등을 고려하여야 한다.

포병의 사격은 폐쇄한 입구 혹은 담장을 파괴하기 위하여 가장 긴요하지만, 그 효력은 직접적인 파괴보다는 탄환 및 파편과 화기(火氣)로써 적의 사기를 좌절시키는데 있다.

촌락에 침입할 때는 먼저 탈취한 부분을 고수하여 가능한 한 신속하게 그 후방의 담장에 도달하여 점령하려고 노력하여야 한다. 가옥으로부터 가옥으로 전진하는 것은 오히려 시간을 낭비하여 적에게 여유를 주기 때문에 되도록 피할 것이며 적군이 점령한 가옥의 처리는 예비대에 위임하여야 한다. 촌락내에서는 포병

을 사용하지 못하고, 단지 견고한 가옥을 파괴하기 위하여 1, 2문의 포를 준비하는 것이 유리하다.

적 지역의 촌락 어귀로부터 진출하는 것은 특별한 명령이 아니면 결코 실행하면 안된다.

다. 防 禦

방자가 그 촌락을 점령할 목적이 오직 시간적 여유를 얻기 위함이든지 혹은 오랫동안 고수하고자 함이든지 판별이 요구되며, 어떠한 경우든지 반드시 공사(工事)를 실시하여 촌락의 저항력을 증강하여야 한다.

시간의 여유를 얻기 위하여는 오직 담장을 점령하고 가옥내에는 가능한 한 적은 병력을 준비시키는 것이 요구되며, 대개 이것은 병력이 많으면 후에 이 지역을 철수하는데 있어 병력을 이산시킬 위험이 있기 때문이다.

오랫동안 고수하기 위하여는 방자는 담장을 잃은 후에도 촌락 내에서 항전하지 않을 수 없기 때문에 그 안에 있는 구석진 곳이나 트인 곳에서 도로를 감제하고 또 건축방법에 따라 특별한 이익을 주는 가옥을 점령하는 것이 중요하며, 이와 같은 경우에는 가능한 한 대부분의 병력을 집결하여 적시에 투입함으로써 공세로 이전하여야 한다. 방어병력의 배치 및 구분은 삼림방어에 준하여야 한다.

강력한 방어를 실행할 때는 각 지구의 보병은 통상 그 1/2을, 일시적으로 방어에 임할 때는 2/3를 삼림 어귀의 방어에 충당하여 각 부대가 일정한 작은 지구를 점령하고 그 일부를 산병으로써 담장이나 방어에 편리한 각 가옥을 점령하든지 혹은 산병호에

의탁하도록 하고 잔여 병력은 증원부대가 되어 집결하여야 한다.

지구예비대는 촌락 입구의 방어에 있어서는 신속하게 전선을 지원하게 배치하는 것이 요구되므로 이 입구의 근방과 전선으로 통하는 도로의 근방에서 엄폐하여야 하고, 강력한 방어에서는 지구 내부의 견고한 가옥을 이중벽으로 사용하기 위하여 점령하여야 한다.

총예비대(전체병력의 1/3~1/4)는 작은 촌락에서는 통상 그 외부에 위치하고 큰 촌락에서는 내부에 가급적 중앙에서 트인 곳에 위치하는 것이 요구된다.

이중벽은 방자의 최후 거점으로 공자가 촌락을 탈취하고자 하는 것을 저지하고 아군의 회복을 용이하게 하는 것이 목적이기 때문에 가능한 한 후방에 선정하여 촌락의 다른 부분이 모두 적의 수중에 떨어질지라도 독립하여 저항을 지속하는 효력이 있어야 되고 그 방어병력은 총예비대로부터 파견하는 것이 통상이다.

작은 부대에서는 지구예비대와 총예비대를 하나로 하는 점이 삼림방어와 동일하다.

담장이 견고한 촌락에서는 별판에서의 전투에 견디기 어려운 미약한 보병(새로 모집한 병사)이라도 능히 잘 훈련된 부대에 대하여 유효하게 저항하는 경우가 많다.

2. 農村戰鬪

농촌전투는 촌락전투와 같은 요령에 따라 실행하지만, 농가는 관사(官舍) 혹은 별장과 같이 담장과 벽 그리고 도랑으로 둘러싸인 일단의 독립가옥이기 때문에 특히 포병의 집중사격에 견디기

어렵고 또 공자는 쉽게 우회할 수 있다.

그러므로 이를 점령 방어하는 것은 중요한 이유가 있을 때에만 국한하고, 다만 오르기 어려운 담장, 벽 그리고 건너기 어려운 도랑을 갖춘 농가는 보병이 단독으로 공략하기가 매우 어렵다. 독립된 제조시설, 사원 그리고 학교 등은 역시 농가와 그 성질이 동일하다.

3. 市街地戰鬪

시가지전투는 폭도들이 봉기하는 때에 발생하는 경우가 많고, 이때에는 긴요한 공공건물과 무기고 등을 신속하게 수비하지 않으면 안되므로 척후, 특히 기병척후는 부단히 시가를 순찰하면서 작당하여 소요를 일으키는 자가 있으면 결단코 느슨하게 늦추지 말고 곧바로 해산을 명령할 것이며, 만일 그 명령에 따르지 않을 때는 가장 용감하게 병기의 위력을 발휘하여 처리하여야 한다.

이와 같은 경우에 있어 부대가 과단성 있는 결의로써 폭도를 진압하는 때는 소란을 미연에 방지하게 되어 더 이상 확대되지 않게 하는 효과가 있다.

저항하는 세력이 창궐(猖獗)하여 시가지 전체 혹은 그 일부가 이미 폭도들의 수중에 들어갔을 때는 정규의 공격방법을 사용하여야 한다. 이때에 기병은 시가지를 외부로부터 포위하여 폭도들의 증원을 차단하며 폭도들을 저지하고, 보병과 포병 그리고 공병은 직접 시가지전투에 임한다. 이들 병과부대들은 몇 개의 혼성지대로 편성되어 각각 일정한 지역을 분담함으로써 폭도들을 포위하고 수개 장소로부터 동시에 공격하는 것이 중요하다.

일직선 혹은 넓고 긴 가로에서는 포병의 효력이 크지만 길이 막히거나 끊긴 곳에서의 전투에는 이점이 작기 때문에, 적은 통상 굴곡이 진 좁은 가로(街路)에 의탁한다. 그러므로 공자는 먼저 가로의 모서리에 있는 가옥에 들어가서 이 가옥으로부터 가옥 간에 있는 담장을 부수고 전진하여야 한다. 만일 이러한 방법에 따라 교통이 두절된 곳의 건물 뒤쪽에 있는 가옥에 도달할 때는 이 건물은 자연히 함락되고 밀집부대는 가로상으로 계속 행군할 수 있는 것이다.

적의 저항이 매우 격렬하지 않을 때는 대열을 가옥에 밀착시켜 가로상으로 전진하고 밀집부대는 멀리 그 후방에서 계속 행군하여야 하며 만일 이것이 불가능하면 포병을 사용하여야 한다.

적이 의탁하고 있는 지역이 겨우 도시의 일부이거나 가옥 등에 불과할 때는 그 보급로를 끊어서 기갈이 오도록 할 수 있다.

만일 그 가옥의 손실을 피하기 위하여 포격을 할 수 없을 때는 야습을 감행하여 그 근거지를 탈취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第5章

.....

隘路戰鬥

第1節 總 論

애로(산길, 제방길, 교량 등)의 전투시에는 부대가 그 정면을 축소하지 않을 수 없으며, 이 경우에는 규정된 전투대형을 사용

할 수가 없다.

애로를 통과하는 부대는 전력(全力)을 동시에 사용하지 못하며, 이러한 불리함은 애로가 점점 길어지고 또 좁아짐에 따라 더욱 심해진다.

애로가 길든지 또 엄폐물이 있어 양측으로부터 지원사격을 하지 못하든지 또는 그 일부에서만 지원사격이 가능할 경우 이미 전개하여 아군을 기다리는 적 앞에서 진출한다는 것은 아군의 병력이 우세할 때라도 지극히 어려운 일이다.

第 2 節 隘路의 攻守

애로의 공수는 방자가 그 후방, 전방 또는 중간에 진지를 점령함에 따라 그 취지가 다르고 이해(利害) 또한 동일하지가 않다.

1. 隘路 後方의 攻守

가. 防 禦

방자가 애로의 후방에 진지를 점령한 때는 방어상 다음과 같은 이점이 있다.

- 적은 오직 협애한 하나의 통로를 경유하지 않으면 공격하지 못하기 때문에 공자의 주된 이점, 즉 임의로 공격지점을 선정하는 이점이 완전히 소멸된다.
- 방자는 공자의 애로 통과시에 그 정면이 적어짐을 틈타서 우세한 병력을 전개할 수 있고, 공자는 가령 애로를 통과하

여 그 병력을 전개할지라도 오히려 애로를 등지고 전투하는
폐해가 있다.

- 방자의 진지에서 애로의 출구(적의 입구) 및 애로의 중앙
을 사격할 수 있을 때는 그 이점이 매우 크다.

애로 후방에 진지를 점령한 방자가 유리한 점이 이와 같으나,
공세이전과 추격을 실행함에는 곤란하고 불리한 점이 있기 때문
에 이러한 진지점령은 결전보다는 지구전에 적용한다.

방자가 전술상 우세를 확보하는 것은 적이 애로를 통과하여 종
료하는 때에 있기 때문에, 가능한 한 병력을 절약하여 이 기회에
투입하여야 한다.

포병은 적의 포병이 처음 나타날 때 이와 대전하여야 하지만
상대가 만일 우세하면 한동안 포병전을 피하고 결전할 시기에 이
르기까지 음폐하고 있어야 한다.

이 경우에는 공자의 정면은 통상 협소하기 때문에 방자는 제
1선의 병력을 감축하여 강력한 예비대를 준비할 수 있으며, 예비
대의 임무는 대개 다음과 같다.

- 이미 애로를 통과한 적의 보병을 포위하기 위하여 전진하
고, 아직 적이 전개하기 전에 먼저 애로상에서 격퇴한다.
- 아군이 수비하지 않고 있는 지역으로부터 애로의 출구에 도
달하는 적에 대하여 전진한다. 단, 적군의 이러한 거동을 적
시에 탐지하는 것은 기병의 임무이다.

만일 방자가 애로를 폐쇄하기 위하여 방어 자세만을 취하지 않
고 기회를 보아 공격으로 전환하려면 공자의 일부가 애로를 통과

하는 때를 이용하여야 한다. 그러나 이로 인하여 혹은 애로를 잃을 우려가 있기 때문에 방자의 임무가 오직 적군의 애로 통과를 저지하여야 할 때에만 이와 같은 모험적인 방책을 감행하지 않을 수 없는 것이다.

나. 攻 擊

애로를 통과하여 실시하는 공격은 매우 곤란한 일이기 때문에, 먼저 우회하든지 혹은 양공으로써 적으로 하여금 병력을 다른 지역으로 분산시키도록 하는 것이 중요하다.

앞에 기술한 방책에 따르지 않고 직접 애로를 공격하는데는 야간 혹은 농무를 이용하여 급습하지 않으면 목적을 달성하기가 어렵다.

그러나 부득이 노출된 상태에서 실행하지 않을 수 없을 때에는 가능한 한 우세한 포병으로써 준비사격을 실시하도록 하고 또 장애물의 폭이 허락하는 한 보병도 또한 참여하여야 한다.

이러한 종류의 사격으로 적의 포병 전부 혹은 일부를 박멸하고 그 보병을 교란할 수 있으면 효과를 얻은 것이다.

공격을 준비중에 애로의 상황을 정밀하게 정찰하여 파괴된 통과지점을 수리하고 맹렬 과감하게 돌격하여야 하며, 이를 담당한 보병은 가능한 한 애로 근방에 음폐하여 포병의 지원사격을 받아 밀집부대를 편성하여 신속하게 애로를 통과하고 최초에 애로 전방의 출구에 도달하는 부대는 가능한 한 신속히 전개하여야 한다.

기병 및 포병은 아군 보병이 이미 전방의 출구를 확보한 다음에 통과하는 것이 통상이다.

2. 隘路 前方의 攻守

가. 防 禦

애로 전방에 진지를 점령하고 있으면 방어상에 다음과 같은 불리한 점이 있다.

- 오직 하나의 퇴로에 구애받아 부대 사용의 자유를 잃어버리기 쉽다.
- 적에게 포위당하기 쉽다.
- 만일, 부대가 퇴각하는 경우에는 전투로 인하여 전개한 광정면을 다시 감축하지 않을 수 없기 때문에 부대가 문란해지기 쉽다.

이로 미루어 보면, 방자가 애로 전방에 진지를 점령하는 것은 대개 다음에 열거한 특별한 경우에만 실시한다.

- 1개 부대가 그 본대의 애로 진출을 엄호할 경우(전진 이동시의 전위 임무)
- 1개 부대가 그 본대의 애로 퇴각을 수용할 경우(퇴각시의 후위 임무)
- 지형상, 특히 애로 전방에 진지를 점령하는 것이 유리할 경우, 즉 애로 후방에 진지를 점령하면 공자의 사격에 제압당할 우려가 있는 경우 등

애로 전방을 점령한 진지는 통상 반원형으로 그 날개를 장애물에 의탁하여야 하고, 애로의 어귀와의 이격 정도는 부대의 병력

과 특히 임무에 관계된다. 즉, 전위에 있어서는 본대를 위하여 전개할 여지를 가져야 하고 후위에서는 본대가 적군의 방해받지 않고 애로를 통과하도록 하는 등에 관계된다.

애로 어귀의 직접 수비는 특히 1개 부대에 맡겨야 하며, 만일 이 지역 중에 방어에 적합한 지점이나 교두보가 있을 때는 그 이점이 특히 많다.

장애물의 후방에서 애로 전방의 지역을 사격할 때는 포병의 일부로서 담당하도록 하는 경우가 많다.

휴대품 등과 같은 전투에 장애가 되는 것은 모두 애로 후미에 유치하든지 혹은 후방으로 보내야 한다.

퇴각은 일반적인 퇴각방법에 준하여 적의 가장 강력한 지역에 대하여 가장 능력껏 방어하면서 적군의 미약한 지역에 대치하고 있는 부대로부터 퇴각하도록 한다.

이때에 간혹 격렬한 역습을 감행하지 않을 수 없는 경우가 있으며, 여하한 경우에 있어도 최후에 퇴각할 부대는 적의 추격을 저지하기 위하여 애로를 폐쇄한다.

나. 攻 擊

공자는 방자를 격퇴할 기회를 고려하지 않을 수 없기 때문에 사전에 애로의 입구 부근의 유리한 지점에 병력을 집결하고 기회를 포착하여 가장 용감하게 돌진하여야 하며, 그 적군이 단지 일부(가령 전위)에 지나지 않을 때는 공자는 적의 본대가 오기 전에 신속하게 이를 격파하여야 한다.

적군이 패주하면 공자는 이를 추격하여 애로를 통과하여 전단(前端)에 도달하도록 힘쓸 것이며, 그렇게 되면 이 목적을 달성

하지 못하더라도 적군으로 하여금 애로를 막거나 끊어 버릴 여유가 없게 하는 이점이 있다.

3. 隘路 中間의 攻守

애로 중간에서의 공수는 긴 제방 도로 그리고 험준하고 등반이 불가능한 산중을 통하는 지름길이면서 그 중간에 다소간의 전개지역이 있을 때 이루어지나, 그 전투방법은 대개 이미 기술한 애로의 전방이나 후방에서 하는 것을 절충하여 표준을 삼기 때문에 여기에서 기술하는 바는 오직 산길의 측방을 병용하는 산악전 사항뿐이다.

第3節 山 岳 戰

1. 總 論

산악에서, 특히 높은 산은 거주민이 드물고 또 그 땅이 대개는 공간이 협소하여 부대를 휴양할 능력이 부족하고 통로도 또한 희소하며 험악하기 때문에 행군을 비롯한 제반 행동 등에서 모두 노력과 시간을 많이 필요로 한다.

따라서 부대의 행군장경과 시간은 평지보다 2~3배이고 또 노상에 사소한 장애물(가령 커다란 목석이 가로놓인 것)이 있어도 피해서 돌아가지 않을 수 없고, 기타 산악지대는 대오를 유지하는 것이 어렵다. 그러므로 이와 같은 이유들로 산악지대는 대부

대를 기동하는데 적절하지 못하고 대규모 전투를 수행하는 사례가 드물다.

산악지대에서는 사격효과가 충분히 발휘될 수 없는데, 그 이유는 사계가 크게 제한을 받기 쉽고 또 적의 후방부대 등은 아군과 똑같이 쉽게 엄폐물을 이용하고 파편이 퍼지는 포탄의 명중을 기대하기 어려우며 또 산악지대가 험준하면 사각이 커서 집중사격의 유리함이 더욱 감소하게 된다.

그러므로 산악지대에서는 보병은, 특히 정확하고 정숙하며 가치있는 사격을 실시하지 않으면 안되며, 다수의 보병을 준비하는 것보다 가장 숙련된 사수만을 사격선에 사용하여야 한다.

기병은 도로를 벗어나면 거의 효력을 상실하고 또 그렇지 않아도 그 능력이 지극히 미약하기 때문에, 산악지대에서 수색과 경계 그리고 통신 근무를 모두 기병에 맡기는 것은 적절하지 못하다.

포병은 산포(山砲)가 아니면 사용하기 곤란하고, 공병은 공자를 위하여는 통로의 장애를 제거하며, 방자를 위하여는 방어공사에 필요하다.

산악전에서는 양군이 가능한 한 신속하게 먼저 가장 높은 고지를 점령하여 감제의 이점을 획득하려고 노력할 것이며, 때맞추어 각각 기선을 제압하는 행동을 하여 과감하게 돌진, 그 목적을 달성하게 되면 이미 승리에 한발 다가선 것이다.

또한 간혹 정면의 전투를 피하고 단지 행동만으로 적의 진지를 우회하는 것은 능히 적으로 하여금 그 진지를 철수하도록 할 수 있으나 이와 같은 우회행동은 시간을 많이 요하기 때문에 사전에 준비하고 또 시기적절하게 계획하지 않으면 안된다.

산악전에서는 지리를 숙지하고 있는 향도를 사용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

2. 攻 擊

산악지대에서의 공격은 방어에 비하면 그 병력을 집결하여 사용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방자는 그 병력이 매우 약할지라도 때때로 매우 넓은 지역을 점령하는 것이 필요하다.

힘준한 벼랑에 의탁한 적의 사격을 무릅쓰고 정면공격을 감행하는 것은 매우 어렵기 때문에 공자는 그 병력의 전부 혹은 주력으로써 가능한 한 적과 멀리 떨어진 곳에서(방자의 관측 및 사격을 피하기 위하여) 고지로 올라가 산의 배후로 전진하고 보통은 반드시 적을 포위하는 것처럼 행동한다.

산을 오르는데는 대개 길이 없는 산비탈을 올라가야 하므로 피로가 심하고 또 시간을 많이 소비하기 때문에, 공자는 이때에 특히 용맹스러운 기상을 발휘하는 것이 필요하다.

이와 같은 등반은 오로지 공격준비에 불과하지만 그 효력이 큰 것은 이미 공격행동의 절반을 끝냄과 동등하다는 것이다.

공자가 수개의 평행한 행군중대를 편성하여 분할 전진하는 것은 산악지대에서 가장 많이 사용하는 바로써, 이때에 산길(계곡 가운데)을 전진하는 부대는 가까운 고지를 전진하는 타부대의 지원을 받는다.

이때에 공자로 보아서는 방자가 홀연히 모든 부대를 공격하여 각개 격파하는 것이 특히 위험하며, 그 이유는 공자가 수개의 행군중대로써 동시에 예정된 1개 지점에 나아가는 것은 아무리 노

력하여도 거의 불가능하기 때문이다.

이와 같이 공동의 공격지점을 향하여 전진하는 수개의 행군중대는 모두 동일한 임무가 있으므로 각기 전력을 다하여 용감하게 전면의 적을 공격하여 구축하려고 노력하여야 한다.

그러므로 간접적으로는 다른 부대를 지원하여 전진을 용이하게 함으로써 부대 전체의 승리를 거둘 수 있고, 만일 이에 반하여 1개 부대가 다른 부대의 전진을 기다려서 서로 행동하고자 하는 것은 결국에는 각 부대마다 모두 전진을 못하는 불행한 사태에 빠지게 된다.

산악지대에서는 평지처럼 강력한 예비대를 전진시킬 공간이 없고 또 부대 전체를 정돈하여 돌격하는 것도 기대할 수 없기 때문에 각 지구가 똑같이 소규모의 예비대를 준비하여 엄폐물 및 지형을 이용하여 전진하고 불의의 돌격을 감행하는 것이 요구되는데, 이들의 측면에 있는 부대는 사격으로써 이 돌격을 증원하는 것이 필요하다.

공자가 산길로 통하는 계곡으로 행군시 선두가 될 때는 이에 연한 고지에 1개 부대를 차출하여 병진하도록 하여 측방을 엄호하고 또 적과 충돌시에 전개가 편리하도록 하는 것이 필요하다.

공자는 긴요하지 않은 휴대품은 비록 작은 것이라도 상황에 따라서는 휴대할 수 없다는 것을 고려하여야 한다.

3. 防 禦

소규모부대는 산악지대내의 산길로 통하는 계곡에서 방어진지를 찾는 것이 용이하며, 이 진지는 전망이 자유로워 편리한 사계

가 많고 특히 분명한 한계가 있으며 또 병력에 상당한 폭을 필요로 하는 것은 일반 방어진지와 다름이 없다.

산악지대에서는 미리 적의 공격방향을 관측하는 것이 평지에서 보다 더욱 곤란하며 또한 병력 분산의 폐해는 산악지역에서도 교통이 불편함에 따라 최대가 된다.

그러므로 방자는 그 병력을 집결하여 대기진지(통상 봉우리와 봉우리 사이의 우묵한 곳으로, 이는 산길이 서로 교차하는 지점이다.)를 점령하고 소요의 감시병 및 관측초소만을 파견하여 기회를 보다가 미리 정한 방어진지에 투입하든지, 또는 적이 병력을 분산하여 몇 개의 도로로부터 전진하여 오는 것을 기다렸다가 각개 격파하는 등이 긴요하다.

산악지대에서는 지세가 방해되어 적군을 정면으로 사격하지 못하는 사례가 많으며, 이러한 때는 측면사격을 실시함으로써 모든 부대가 상호지원하지 않으면 안된다.

방자의 진지가 적군이 반드시 공격할 곳이 아니든지 또 그 진지가 견고하여 탈취가 불가능한 곳에서는 방자는 적의 전진방향을 명확히 알아서 맹렬과감하게 공격으로 전환하여야 한다.

만일, 공자가 이 진지를 우회하여 가장 높은 고지를 점령하고자 할 때는 방자는 이보다 먼저 다시 그 고지를 점령하여 방어한다.

第 6 章

.....

河 川 戰 鬪

第 1 節 總 論

여울이나 교량이 없는 하천에서의 전투는, 공자는 가교와 배 그리고 뗏목 등으로 대안(對岸)에 도달하고자 하고 방자는 그 공사 및 도하를 방해하고자 하는데 따라 발생한다.

적 화력의 유효사거리내에서 가교 및 도하를 실시하는 것은 지극히 곤란하므로 공자는 적을 기만하여 불의에 출동하여 감행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양공 및 급습은 하천전투에서 공자의 특별한 방책이다.

공자는 가교 또는 배와 뗏목 중에서 어떠한 것을 채택할 것인지는 병력의 규모에 관련되며, 어떤 때는 이 두 가지를 병용한다.

第 2 節 攻 擊

적이 불의에 출현하여 교량을 가설하는 경우는 대개 다음과 같다.

- 가교자재(정식 혹은 응용자재)를 하천 주변(삼림 어귀 혹은 호수 지류의 주변)에 음폐하여 비치한 경우

- 방자가 아군의 도하지점을 오인하든지 혹은 강력하게 실행하는 아군의 양동작전에 적이 그 예비대의 사용을 오판하는 경우

대체로 교량의 설치는 가능한 한 야간에 실행하여 익일 여명이전에 완성하여야 하며, 그 공사는 공병의 주된 임무이고 그 기술에 관한 모든 사항은 축성학교정(築城學教程)에서 상세히 기술한다.

도하의 실행은 여명이 가장 편리하기 때문에 부대는 그 이전에 집결지에 도착하여야 하며, 보병부대가 최초로 도하하고 다른 병과부대는 다음 차례에 이어서 도하하여야 한다.

최초에 적안(敵岸)에 도달한 부대는 신속하게 방자의 감시부대를 격퇴하여 광정면에 걸쳐 전방을 일시적으로 수비할 것이며, 이 사이에 후방부대는 연속적으로 증가병력을 파견하여야 한다.

도하지점을 선정하는대는 적안의 지형이 강력한 방어에 적합하든지 또는 아안(我岸)으로부터 포병으로써 전진부대를 지원하든지 도하의 편리성 여부를 고려하지 않으면 안되며, 도하는 애로전방의 공격방법에 준거하여야 한다.

第3節 防 禦

하천방어에서는 통상 넓은 선상에서 적의 도하를 저지하지 않을 수 없는 폐해가 있으며, 방어할 하천이 점점 넓어짐에 따라 더욱 심해진다.

전사(戰史)에서 살펴보건대, 비록 대하(大河)에 의탁하였어도

실제로 오랫동안 우세한 적을 방어하지 못한 사실이 있었음은 하천방어의 곤란한 이유를 증명하는 것이다.

방자는 도하지점을 파괴(방어만을 할 경우) 혹은 폐쇄하여 도하수단을 모두 탈취하고, 방어할 하천선 전부의 감시는 감시부대에 맡겨야 한다.(하천선이 연장됨에 따라 이러한 독립부대의 수를 증가시킨다.)

이러한 부대는 대개 전초의 방법을 준하여 경계를 실시하여야 하지만, 그 임무는 보통의 전초보다 더 어렵다. 왜냐하면 감시부대는 본대로 하여금 전투준비에 필요한 시간을 얻을 수 있게 하는 것만으로 충분하지 못하고, 적의 도하가 진정인가 장차를 위한 기만인가를 인지하여 그것이 사실일 때는 가교공사를 방해하기 위하여 오히려 공세행동을 스스로 취하지 않을 수 없으며, 이 감시부대의 병력은 보통 전초의 병력보다 많게 하고 적시에 포병도 부가하는 것이 필요하기 때문이다.

감시선상에 사용하지 않는 부대는 모두 예비대가 되어 도로의 편리함을 고려하여 대기진지를 점령함으로써 적의 가교공사를 방해하고 또 그 일부가 이미 도하하면 병력이 증가되기 전에 신속 과감하게 격퇴하여야 한다.

第 12 篇

特別行動

第1章

.....

總 論

여기에서 이른바 특별행동은 통상 본작전과 동시에 소규모부대가 수행하는 각별한 행동으로, 대결전을 피하고 오직 작은 결과를 누적하여 본작전을 보충하고 유익하게 하는 것을 말한다.

이와 같은 행동을 담당하는 부대장은 그 임무 여하를 막론하고 이를 명령하는 책임자로부터 훈령을 받아서 달성하여야 할 목적을 자세히 알고 독단으로써 이에 종사한다.

부대장은 부하들에게 알리되 적 상황과 아군의 목적 그리고 기타사항 등의 기밀에 속하지 않은 사항으로 제한하며, 예하부대장에게는 각기 책임과 전결할 권한을 명시하고 특히 차하급장교(역자주: 부지휘관)는 계획의 모든 사항을 알도록 하는 것이 중요하다.

이와 같은 부대는 적은 병력을 가지고 우세한 병력에 대응하여야 하기 때문에 정정당당한 전투를 피하고 지형의 이점과 기발한 계책으로써 전투력을 보완하여 적의 의표를 찌르는 것이 전투의 본성이 된다.

경계근무 등은 대개 통칙에 준하여야 하지만, 통상적으로 특히 병력을 감소함으로써 기도비닉을 달성하며 적을 기만하기 위하여 대병력인 체하기도 한다.

第2章

.....

奇 襲

第1節 定 義

기습은 적군의 전진과 정지를 구별하지 않고 그 준비가 없음을 틈타서 불의에 쳐들어가는 것을 통틀어 일컬으며, 이를 실행하는 데는 엄격(掩擊)으로써 하거나 혹은 복병(伏兵)으로써 한다.

第2節 掩 擊

엄격은 자진하여 적의 행군과 주군 혹은 진지에 있는 자를 급습하는 것을 말한다. 그러므로 먼저 적의 동정을 탐지하는 것이 긴요하며, 만일 적의 경계 및 준비가 완벽할 때는 성취하기가 어렵다.

야간의 엄습(掩襲)은 분리된 부대를 가지고 협동이 일치된 행동을 하기는 불가능하기 때문에 가능한 한 1개 부대를 편성하여 실행하여야 한다.

만일, 수개의 부대로 편성될 때는 각 부대가 길을 잘못 들거나 혹은 조기에 적과 충돌하여 아군의 의도를 미리 알게 하는 폐해가 있으나, 상황에 따라 구분을 하여야 할 때는 적에게 접근할 때에 실행할 시기를 정하여 동시에 공격을 하여야 한다.

주간에 개활지 혹은 벌판에서 하는 엄습은 기병이 실행하고, 기타의 경우에는 보병으로 선정하여야 하고 포병은 오직 적군을 일깨워서 전투준비를 하도록 할 우려가 있기 때문에 사용하지 않아야 한다.

다만, 다른 병과부대가 엄격하는 동안에 적의 진영을 사격하여 교란시키기 위하여서든지 또는 아군의 퇴각을 엄호하기 위한 경우에는 예외이지만, 사격개시는 늦거나 이르지 않아야 한다.

엄격을 실행하는데는 야간, 특히 폭풍우가 칠 때와 농무시 그리고 여명 이전이어야 하고 이는 실제상으로 적군이 경계를 태만히 하기 쉬운 경우이고, 여명 이전에서는 엄격의 결과를 일출 후에 거둘 수 있는 이점이 있기도 하다.

전진은 은밀하고 신속하게 그리고 정숙하게 하여야 하는데, 적의 전초 및 척후 등은 가급적 피하면서 소망하는 목표를 향하여 계속 행군하여야 한다. 다만, 이들 적군이 아군의 기도를 조기에 알고 경보하고자 하든지 혹은 아군을 저지하고자 할 경우에는 예외이다.

엄격을 감행하는 부대가 기선을 잡기 전에 적에게 발견될 때라도 적을 향하여 반드시 전진하여야 하며, 이와 같이 할 때는 적으로 하여금 낭패하게 만들어 심사숙고하거나 집결하는 행위 등을 못하게 할 수 있는 것이다.

第3節 伏 兵

복병은 한곳에 잠복하여 적이 오기를 기다려 급습을 실행하는 병력을 말한다.

이는 다시 유격(誘擊)과 대복(待伏)으로 세분하는데, 유격은 특별히 1개 부대를 차출하여 적과 교전하도록 하여 복병의 소재지 부근으로 유인하는데 목적이 있고, 대복은 적군의 행군로를 판단하여 복병을 설치하고 적군이 오는 것에 따라 출현하는데 목적이 있다.

대체로 복병은 적의 경계와 주의가 엄밀하지 않은 때, 즉 특히 승리감에 도취하여 마구 전진하면서 추격해 올 경우에 많이 사용되며, 복병을 설치할 장소는 시간의 여유를 가지고 선정하거나 혹은 순간적으로 선정하기도 한다.

복병에 사용하는 병과부대는 지형에 관련지어 결정하지만, 때때로 보병으로써 불의에 급사격을 실시하여 적군을 교란시키는 틈에 기병으로써 습격하도록 하는 것이 통상이다.

복병의 위치는 사전에 적군에게 발견되지 않도록 하는데 가장 주의할 것이며, 복병의 지점과 적군과의 이격 정도는 소총의 유효사거리와 적군의 유효습격거리에 준하여야 한다.

복병은 가장 조심하고 정숙을 기하고 항상 전투준비가 완전하여야 하며, 또 아군의 초병 및 척후 등은 오히려 적군이 아군을 발견하기 쉬운 매개체가 되기 때문에 단지 1, 2개 초병만을 내보내고 지휘관이 스스로 적을 관찰하고 호기를 발견하면 급습의 명령을 내려야 하며, 다만 적의 경계부대와 같은 것은 가급적 통과시키고 아군의 목적인 적군의 본대가 오기를 기다려 출동하는 것이 중요하다.

복병이 급습을 감행하는 방법은 여러 가지로써 전력을 하나로 하여 감행하거나 혹은 분할하여 적 부대의 선두와 후미 또는 측방을 향하여 감행한다.

전력으로써 급습시는 부대 장악에 편리하고 또 위력이 큰 이점이 있는 반면 잠복이 어려운 불리한 점이 있기 때문에 적당한 잠복지역이 없을 때는 사용할 수 없으며, 이에 반하여 병력을 분할하여 급습할 때는 전투력이 분산되고 또 각 부대가 급습의 시기를 다르게 할 우려가 있으나 적의 소규모부대를 섬멸하는데는 가장 유리한 방법이다.

이러한 전투를 어느 정도까지 지속할 것인지는 최초의 결과 및 피아의 병력에 관계되며, 만일 급습이 성공하지 못할 때는 신속하게 전투에서 이탈하여 퇴각하여야 하고 이를 위하여 집결지역을 사전에 정해 두어야 한다.

第3章

.....

背後 交通路의 掩護, 破壞 및 閉鎖

第1節 掩 護

아군 배후 교통로의 엄호는 병참사령관의 임무로서, 이 목적을 위하여 때때로 보병과 기병으로 편성된 부대를 그 직할로 배속시킨다.

토착민들이 봉기하고 또 적의 별동대가 배회하는 지역에서는 아군 배후의 교통로(철도, 도로와 교량 등) 및 전진로에 대한 엄호가 매우 곤란하기 때문에 그 지방의 주민에게 책임을 부담시켜

야 한다.

철도 선로 중에 위험한 지역을 운행하는 긴요한 열차에는 그 지방의 명망있는 인사들을 인질로 탑승시켜야 한다.

병참선의 수비병력은 특히 파괴하기 쉬운 모든 지점(교량과 터널 등)에 소요되는 초병을 배치하고 첩후로써 이러한 모든 초소간 그리고 그 근방의 지역을 계속하여 순찰하도록 하여야 하며, 중요한 초소에는 통신의 신속성을 위하여 전신과 신호 등의 통신 방법과 간혹 간첩을 이용하여 정보를 얻는 것이 가장 긴요하다.

위험이 심할 때는 큰 정거장에 특별한 부대와 열차를 준비함으로써 적군이 어떤 지역에 내습하거나 혹은 어떤 지역을 파괴하고자 할 때에 신속하게 출동하는 것이 중요하다.

지방의 주민들이 소요할 기색이 있든지 또는 무장한 폭도들이 집결할 때에도 출동하여 신속하고 맹렬하게 구축하는 것이 긴요하다.

第2節 破壞 및 閉鎖

적의 배후 교통로를 차단하기 위하여는 철도, 전선 그리고 도로를 파괴하거나 이를 폐쇄하여야 한다.

철도를 파괴하여 그것을 수리하여 다시 사용하는 것이 1주일 이상을 요하는 경우에는 군사령관이나 독립사단장의 지휘에 따라 파괴하며, 이를 위하여 통상 공병을 사용하고 파괴는 교량 및 터널에서 실행하는 것이 편리하다. 그러나 이들에서의 요점은 적군이 항상 점유하여 지키고 있기 때문에 먼저 그 적을 격퇴하지 않으면 안될 경우가 많다는 것이다.

철도의 운행을 폐쇄하였다가 다시 사용하는데 수시간 혹은 1, 2일만을 요할 때는 앞에 기술한 책임자(역자주: 군사령관 또는 독립사단장)보다 하급지휘관이 결행하며, 그 명령 및 실시의 여부는 당해 지휘관의 책임하에 실행하되 부대는 반드시 명확한 명령을 휴대하여야 한다.

이러한 임시폐쇄는 아군의 작전구역내에서 전진시에는 이를 피하고 주둔시에는 이를 허용하며 퇴각시에는 이를 필요로 하는데, 적의 작전구역내에서는 항상 이를 시행하려고 노력하여야 한다.

일시적인 폐쇄는 철도 침목을 제거하는 것으로 충분하지만, 완전히 폐쇄하려면 면화약(綿火藥)을 가지고 주요 지점과 기기를 파괴할 것이며, 기병은 이 두가지 목적을 위하여 장비하고 또한 교련하기 때문에 소규모 척후라도 이 두 가지 방법을 완수하는데 겨우 10분 내지 20분간이 소요될 뿐이다.

적의 부대와 주민 간에 서로 통신을 못하게 하기 위하여 일시적인 전선의 단절은 퇴각시에는 후위가, 전진 및 주둔시에는 독립부대의 지휘관이 명령할 책임이 있으며 기타의 경우에는 오직 군사령관이나 독립사단장의 명령에 따라야 하는 것이다.

매설된 전선은 통상 도로의 1개 측방에 깊이가 약 1m 되는 지하를 통하고 대개 나무 혹은 돌로써 표시하며, 만일 그 위치를 알아내지 못하였을 때는 지방의 관리에게 따져 물어야 한다.

도로의 파괴는 교량을 목표로 하는 것이 편리하며, 울타리와 구덩이(특히 애로에서)는 적을 일시적으로 저지할 수 있으나 오랫동안 저지하지는 못한다.

일반적으로 부대가 시행하는 각종 파괴는 그 지역과 시기 그리고 방법을 기록하여 책임자에게 보고하여야 하며, 만일 아군이

사용하는 철도와 전신을 파괴할 때는 그 파괴명령과 기타 시행방법을 인근의 정거장 및 전신국에 통보하여야 한다.

적지에서의 모든 파괴는 주민의 협력을 바탕으로 하는 것이 편리하며, 이를 위하여는 약간의 위협적인 수단을 사용하지 않을 수 없다.

第 4 章

.....

戰場에서 工事의 掩護

전장에서 공사(보루, 교량 그리고 철도 등의 건축 및 파괴)를 시행함에 있어 적군이 방해할 우려가 있을 때는 엄호부대를 파견하는데, 그 진출거리는 공사현장이 전투구역을 벗어나도록 하고 또 가급적 적포화의 유효사거리 밖에 위치하도록 하는 것이 중요하다.

엄호부대는 적과의 원근에 따라 대기자세를 취하고 또 방어배치를 시행하며, 멀리 척후 및 감시병을 파견하여 시기를 잃지 않고 적의 전진을 탐지하여야 한다.

기술부대가 만일 자력으로써 공사를 시행할 수 있을 때는 보병의 일부 및 공병을 이에 종사하도록 하고, 보병의 잔여병력과 타 병과병력은 엄호를 담당시켜야 한다.

공사를 담당한 보병 및 공병은 배낭은 풀지만 총은 휴대하거나 아니면 신변에서 떨어지지 않게 하여야 한다.

적습시는 엄호부대가 방어를 전담하고 필요시에는 공세를 취하며, 공사부대는 작업을 계속 시행할 수 없을 때에야 비로소 전투에 참여하여야 한다.

第5章

.....

輜重의 護衛 및 攻擊

第1節 護 衛

안전하지 못한 지방으로 수송하는 치중에는 호위로써 특별히 독립적인 작은 부대를 부가하지 않으면 안되는데, 그 병력 및 편제는 치중의 다과와 종류(탄약, 식량, 피복, 전리품, 포로 그리고 부상자 등) 및 위험도에 따르지만 가능한 한 보병과 기병의 2개 병과부대를 병용한다. 다만, 어떠한 경우에도 그 병력은 가급적 절약하는 것이 요구된다.

치중의 호위는 특별행동 중 가장 곤란한 임무 가운데 하나로 그 이유는 다음과 같다.

- 호위대의 지휘는 일반부대의 지휘보다 한층 곤란한 것으로 치중이 커질수록 더욱 심하다.
- 상황에 따라(특히 애로 중에서) 짐을 싣거나 수레를 끄는 말에 명증되는 몇 발의 총탄으로 인하여 전체 치중이 지체

될 염려가 있다.

- 치중은 그 행동이 느리기 때문에 적습을 받으면 대오가 교란되기 쉬우므로 엄호대장은 항시 군기 및 전술상의 수단을 아울러 취하여야 한다.

군기수단(軍紀手段)이라 함은 치중을 몇 개 부분으로 나누어 각 부의 감시는 하사 혹은 상등병 1명과 병사 몇 명에게 맡겨서 각 차량이나 말에 계속 밀착 접근하여 결코 일정한 서열을 문란하지 않게 하는 것이다. 차량이 만일 파손되면 곧바로 옆외로 내보내 수리하여 다시 후미에 접속하도록 하고 수리가 불가능한 차량이거나 병상(病傷)으로 운반에 견디지 못하는 견인마는 그 적재물을 다른 차량이나 말에 옮겨 실어야 한다.

이른바 전술수단(戰術手段)이라 함은 호위대를 2개 부분으로 나누어 그 하나는 직접 치중의 전후에 배치하고 다른 하나는 적습의 우려가 있는 방향에 대하여 전후 호위와 측위의 요령에 따라 엄호를 담당하는 것이고, 가능한 한 멀리 기병을 내보내어 수색하도록 하는 것이 중요하다.

만일, 치중이 여러 방향으로부터 적습을 받아 도피가 불가능함을 인지하고 그 치중이 차량으로 구성된 경우에는 최후의 방어수단으로 차량진지(車陣)를 만드는데, 그 차량들을 밀접시키고 끝채나무를 안쪽으로 돌리고 수레는 풀어서 마부는 진지내에 보유한다.

일반적으로 차량진지를 만드는데는 많은 시간이 소요되지 않기 때문에 기병의 습격에 대하여는 대개 이 방법에 의거하고, 치중이 견인마로 구성된 경우에는 적당한 지형을 구하여 차폐하는 것

이 유일한 방법이기 때문에 이러한 편성의 치중은 행군장경이 길 뿐만 아니라 방어상에도 차량편성에 크게 미치지 못한다.

휴식이 잠시일 때는 호위병력은 행군경계를 지속하는 것만으로 충분하지만, 만일 장시간 휴식이거나 야간에 있어서는 위험한 방향에 대하여 전초의 방법을 취하고 또 모든 방향에 척후를 파견하지 않으면 안된다.

기타 휴식시에는 면밀하게 근방의 촌락과 적군이 잠복해 있을 우려가 있는 곳을 정찰하고 또 군수품을 운반하는 병사와 일꾼 등이 분산되는 것을 엄격히 금지한다.

수로수송에서 경계부대는 수송선의 전후좌우에 위치하거나 육로로 이동하며, 호송병력은 각 수송선에 분승하고 주력은 다른 선박에 탑승하거나 육로로 이동하는데, 육로로 이동시에는 빈 배 몇 척을 준비하였다가 기회를 이용하여 병력을 한쪽 강기슭으로부터 다른 쪽으로 이동시키는데 이용한다.

교량과 갑문(閘門) 등에 적군이 의탁하여 아군의 항로를 장악할 만한 처소에는 호위병력이 적당히 방비함으로써 수송선의 통과에 지장이 없게 하여야 하며, 하천이 고지군에 가까이 연할 때는 호위병력의 주력은 이 고지군을 행군하여야 한다.

포로의 호위를 위하여는 앞에 기술한 통칙 외에 다시 1, 2개의 요건을 고려하지 않으면 안되는데, 대개 포로는 탈출할 기회가 있으면 곧바로 이용하고 심한 자는 스스로 기회를 조작하기 때문에 호위에는 상스럽지 못한 물건이나 순종하는 부상자의 호위보다 특이한 경계심과 조심을 요하므로 그 임무가 한층 어렵다.

호위병력은 포로가 목전에서 총을 장전하든지 혹은 도망을 기도할 때는 곧바로 총살한다는 사실을 알린다.

포로에 대처하기 위해서는 가급적 야영을 피하여 1개 혹은 몇 개의 큰 가옥(사원, 관사 그리고 학교 등)에 가두어서 숙박하도록 하고 또 초병을 준비하여 주변지역을 경계한다.

적습시에는 포로를 엿드리게 하고 적에게 가세하지 못하게 하기 위하여 만일 명령에 복종하지 않으면 곧바로 총살한다고 겁을 먹게 만들고 또 필요하면 실행하여야 한다.

第2節 攻 擊

하나의 작은 독립부대가 적의 치중을 약탈할 때는 치중의 행군을 방해하기 위하여 가능한 한 근접하지 않을 수 없고, 그 공격의 시기는 치중이 삼림, 애로, 도로의 굴곡된 부분 혹은 아주 가파른 언덕을 통과할 때 그리고 충분한 휴식을 취하고 마필의 일부를 물 먹이는 곳에 보내는 등의 시기가 적당하며 공격은 대개 기습 방법에 따른다.

대체로 치중을 습격하는데는 공자의 일부는 호위병력을 분산 교란시키고 기타병력은 치중을 약탈하려고 노력하고, 만일 치중이 차량으로 구성된 때는 그 선두와 후미에 접근하여 차량을 탈취하여 도로에 횡으로 놓음으로써 다른 차량의 진퇴를 가로막아야 한다.

치중의 행군장경이 현저하게 길 때는 동시에 몇 개 위치로부터 습격하여 호위병력을 분산되게 노력하고 약탈한 물건 가운데 운반이 불가능한 것은 불태워 버리는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치중을 습격하는 제1의 중요한 일은 신속하게 마필을 사격하여 적으로 하여금 혼돈과 낭패에 빠지게 하여 결국은 치중의 물품을

버리고 도망가게 하는 것이다.

적의 호위병력이 우세하고 또 이미 아군의 공격에 대응할 준비가 되어 있을 때는 적을 교란시키는 것으로써 충분하다고 할 수 있다. 이를 위하여 멀리에서 그리고 모든 방향으로 치중을 위협하고 또 마필을 저격하여 부분적인 승리를 꾀하고 호위병력이 공격준비가 되면 홀연히 퇴각하여 흔적을 감추고 다른 요처로 우회하여 다시 공격하는 등으로 불시에 숨었다 나타났다 하는 것이 요구되므로 이를 위하여는 특별히 기병을 사용하여야 한다.

수로로 운송하는 치중을 습격하는데는 하안(河岸)의 높은 곳에 혹은 만곡부에 진지를 점령하고 우선 상대방의 호위병력을 곤경에 빠뜨린다.

철도수송을 하는 치중에 대하여는 곡사화력으로 기관차와 차량을 사격하여 열차의 이동을 정지시키는 것이 가장 간편한 방법이다. 만일, 포병이 없으면 철로 침목을 파괴하든지 혹은 침목 위에 무거운 물체(철도레일, 커다란 돌 등)를 쌓아놓는 것이 적당하지만, 열차가 서서히 진행할 때는 각재(角材)와 같은 가벼운 물체는 급박하게 던질지라도 열차를 궤도 밖으로 벗어나게 하는 경우는 없다.

第6章

.....

徵 發

여기에서 기술하는 바는 부대가 스스로 실행하는 이른바 부대 징발(部隊徵發)에 관한 사항뿐이고 또한 적습의 우려가 있는 지역에서만 국한한다.

부대징발에는 각 부대의 보병대대, 기병중대 그리고 포병중대가 각기 징발대를 파견하는 방법이다. 그러나 모든 부대가 동일한 지역에서 징발을 실시할 때는 편의상 징발제대를 통일된 지휘 체제하에 소속시킨다.

징발대의 병력은 소요와 위험의 정도에 따라 다르지만 반드시 장교의 지휘하에 경계하며 행군하고 이미 징발지역에 도달하면 경계부대는 그 지역 밖에서 엄호에 임하고 이때에 멀리 척후 등을 파견하는 것은 오히려 적의 주의를 야기할 우려가 있음을 고려하여야 한다.

이러한 엄호에 따라 징발부대는 그 지역에 나아가 징발을 실행하며, 이때에 주민들이 적과 내통하는 것을 예방할 초병을 징발 지역의 모든 출구에 대비시킨다.

징발을 실시하는데는 지방관리로 하여금 조력하도록 하는 것이 편리하다. 즉, 관리에게 위임하되 일정한 시간내에 징발물건을 일정한 장소에 수집하고 또 운반에 소요되는 차량, 말 그리고 인부도 제공하도록 한다.

만일, 관리가 이를 수궁하지 않든지 주민들이 징발을 거부하든지 주민들이 이미 그곳으로부터 도망갔든지 혹은 시간이 절박한 경우 등에서는 징발대가 직접 징발을 실행하는데 이를 위하여는 상황에 따라서는 강제로 징발하지 않을 수 없다.

이와 같은 경우에는 징발대의 일부는 차량과 말을 수반하여 집집마다 징발물건의 유무를 조사하여 가급적 빨리 실토록 하여야 하고, 다른 일부병력은 토착민의 저항을 처리하기 위하여 가능한 한 징발지역의 중앙에 밀집하는 것이 중요하다.

징발중에 징발대가 직접 징발을 실행할 때는 가장 엄중한 감시를 요하며, 만일 이를 소홀히 하면 군기가 문란하여 각개 병사들이 징발의 제한사항을 초과하여 약탈이나 절취의 범죄를 저지를 우려가 있다.

탑재한 차량과 말은 감시병을 붙여서 적과 반대방향의 출구에 집결시키고 모두 집결되면 운반을 시작하며 엄호는 후위방법에 준하여 계속수행하고 기타의 병력은 징발품을 직접호송하는 병력이 된다.

징발이 종료되기 전에 적군이 내습할 때는 엄호대는 강력히 적을 저지함으로써 징발을 종료하는 동시에 운반할 시간을 주지 않으면 안되고, 또한 적군이 우세하면 아군이 불리한 경우를 고려하여 집결지점을 사전에 정하여 두어야 한다.

第7章

.....

別 動 隊

별동대(일명 유격대)는 적군의 교통을 차단하여 군용 자원에 손해를 주거나 탈취하며 적을 교란시키고 또 적 상황을 수집하는 등의 행동을 많이 하며 적군의 배후와 측면에서 행동한다.

그러나 적의 배후에 오래 머물러 효과를 기대하는 것은 대개 자국(국민의 원조를 얻기 위하여)에 있지 않으면 불가능하다.

별동대는 지형에 따라 보병과 기병을 사용하고 혹은 이 2개 병과부대로 혼합편성을 한다.

별동대는 어려움과 고통 그리고 결핍에 견디고 또 전투에 숙달된 민첩하고 용감한 병력으로 구성됨을 요구하며 그 부대장은 능히 군사에 통달하고 기책(奇策)이 풍부하며 담력이 있지 않으면 안된다.

별동대에는 비정상적인 병력을 사용하면 그 폐해가 크므로 군기에 익숙한 병력, 즉 정규병력을 사용한다.

별동대는 특히 진퇴의 신속함을 요하므로 필수적인 식량과 탄약만을 휴대하도록 하고 가능한 한 가볍게 무장하여야 한다.

별동대의 비결은 나타났다 숨었다 하여 적으로 하여금 아군의 행동을 예측하지 못하게 하는데 있다.

그러므로 별동대는 수시로 거짓말을 퍼뜨리고 또 주민으로 하여금 아군의 이동방향을 오인하게 하여 공공연히 1개 지역을 피

하고 몰래 그 본래의 방향을 취하며, 또 안전한 장소에 은거하여 휴식을 하다가 홀연히 강행군(통상 야간행군)하여 다른 장소로 나아간다.

메마른 지역에서는 기갈을 참고 풍성하고 넉넉한 지역에 이르러 이를 구하며, 우세한 적을 만나면 피하여 홀연히 다른 장소에 출현하여야 한다.

별동대는 쉽게 적에게 발견되지 않기 위하여 또 병력의 피로를 덜기 위하여 기능한 한 경계구역을 감축하고 매우 엄한 전투준비로써 대비하지 않으면 안된다.

적 상황은 주민 또는 간첩으로부터 얻도록 노력하고 공격기도를 실행하는데는 기습방법을 사용하여야 한다.

만일, 별동대가 위험한 지역에 빠질 때는 중요한 이유가 없으면 결코 장시간의 저항을 하지 말고 상황에 따라 물러나고, 적전을 도망한 뒤에는 예정된 지역에 집합하는 등 임기응변의 조치를 태만히 하면 안된다.

譯者後記

.....

역자(譯者)가 대한제국(大韓帝國)의 군사교범에 대하여 관심을 가지게 된 계기는 모교인 육군사관학교(陸軍士官學校) 도서관에서 한국전쟁(韓國戰爭)에 관련된 자료를 수집하던 중, 고서적(古書籍)들을 별도로 정리해 놓은 서가를 접하고서부터이다. 부끄러운 일이지만 역자는 그 이전에 이러한 서적들이 있는지조차 몰랐음을 고백하지 않을 수 없다.

이를 계기로 당시에 발간된 자료들을 수집한 결과 현재 20여 가지의 교범류를 국방군사연구소에 비치하게 되었고 앞으로도 계속하여 자료 발굴에 노력할 것이다. 나아가 제한된 이러한 자료들을 관계기관이나 군부대에 널리 전파할 필요성을 느낀 나머지 감히 이에 대한 번역을 결심하게 되었던 것이다.

그러나 역자의 일천한 지식, 특히 한문에 조예가 깊지 못하여 돌출될 수 있는 오류나 어색한 표현 그리고 내용상의 불비한 점 등은 전적으로 본인의 책임이며, 아울러 독자 여러분의 지도편달을 흔쾌히 받아들여 계속 발간될 교범들은 더욱 완벽을 기할 것을 약속드린다.

이 책이 햇빛을 보도록 조치해 주신 당연구소 소장님 그리고 자료의 수집 및 번역문의 수정보완에 적극 협조해 준 관계 연구원들에게 이 기회를 빌려 다시 한 번 감사의 뜻을 전한다.

戰術學教程(下)

第八編 警戒勤務

第一章 總論

敵의 近傍에 在는 行軍駐軍에 別이 없고 警戒隊를 派遣할 要는 前編에 임의 述한 바와 外 此 部隊의 任務는 全軍의 安全을 不意의 敵龍을 防호하고 本隊로 戰鬪準備를 定하는 時間을 得게 하는 데 在는 바

警戒隊의 兵力은 本隊가 其 戰鬪準備를 整하는 愈難함을 從호하여 더욱 衆多함을 要하나 此 隊는 本隊에 比호하여는 勞力이 常大하고 本隊에 兵力을 減殺

함에 注意하고 實際所要의 兵力을 超過케 하임은 且 此 常에 確守할 原則이니라

警戒隊는 敵의 來호 道路를 遮하느니라 호되려 其 接近을 諸方向에 互 派遣하임이 不可호나 此 各 部隊는 互相間及 本隊와 連絡을 保持하고 敵兵으로 潛入함이 能치 못하게 함이 可호나 但 其 首力은 常에 危險危險方向에 在호 要호느니라

警戒隊가 만일 開豁地에 在호 本隊로 敵砲彈의 害를 被치 만케 하고 저호면 本隊를 距함이 三千米以外地를 警戒하임이 不可호나 其 相距가 過度호

면孤立한야敵의擊破가능호는恐이有함으로此衆
多의兵力을要하고且敵兵이我를迂回한야我外
本隊外中間을切斷한호는危害以合을顧慮함이可
하니라

警戒의疎密은時機及地形等에從한야不一한나
警戒隊는通常敵의附近함에從한야愈小호部隊
에區分하고各部隊는逐次로後方部隊의安寧을
保持하고且其戰鬪準備의裕餘를與함이可하고
又後方部隊는前方部隊를支援함을原則이라하
느니라

第二章 行軍警戒

第一節 通則

第一條 警戒隊의編組及兵力

編組及兵力의諸兵連合의小部隊로敵과衝突의顧
慮가少호時는騎兵만에서行軍警戒隊를編組함이
의하니蓋如此호小縱隊는敵과衝突함이速히戰
鬪展開를하고故로此境遇의警戒隊는持久戰의
由한야本隊의展開를掩護함모양을아아搜索을
速히함을必要함으로此호지니라
거昇砲兵一中隊를有함호는連合枝隊에在한야

는分割하야一二門의砲를警戒隊에附加치안코
출아이本隊中에排置함이可하니如此支隊는
其長經이大치아임으로戰鬪開始에聽하야速
히砲兵을前方에進出케함이可하고且砲兵의戰
術單位를特히分割함은크게不利하니라

諸兵連合의大部隊에在하야는少하야步兵及
騎兵으로써行軍警戒隊가되고所要가잇스면砲
兵警戒隊(前衛側衛又後衛의本隊)에附屬함이可하
니敵을追擊호前衛及敵前에서退却호後衛에在
하야는砲兵의大部가時로全部를前衛或後衛에

附加함이利타하니라

此外호히려所要잇슴은工兵을警戒隊에附加하
고又數多호河川잇는地에行軍호는되호小架橋
縱列을工兵과함이前衛에附加함이可하나退
却에在하야는工兵及小架橋縱列은호장前方(或
烟行程)에進케함이잇하니라

大部隊에서所要가잇스면衛生隊半部를警戒隊
에附屬하하니라

行軍警戒의兵力은我軍目的과敵情과地形及縱
隊의大小에從하야變化가不一하호全隊歩兵의

大約六分一으로 더三分一의比例에准據가야함
 此連制部隊을용함이原則이니라

第二節 前進行的警戒勤務

第一條 前衛

第一款 任務外의兵力及編組

任務C前進行的前衛는警戒隊一般의任務及敵의
 狀報을收集하고且敵의急襲을防支가야本隊의
 戰鬪準備의裕餘를與하고外에호히前衛가特
 別의任務을負고其任務는當路의障礙(敵兵及
 物)를除去가야行進路를開通가야本隊行進는遲滯

케하이고므로前進行的에서本隊目的(進路)에
 適宜한이는대且前衛司令官은本隊의續行을
 호호호敵의小部隊又호호是敵의顧慮함이없고決
 意前進함이可호호라

兵力及編組○前進行的에서前衛步兵의一例를舉호호
 이左外如호호니

師團은

步兵一旅團은

步兵一聯隊은

步兵二大隊은

步兵一聯隊

步兵一乃至二大隊

步兵一大隊

步兵二中隊

步兵一中隊

武三中隊

步兵二中队

步兵一乃至二小隊

步兵一中隊七

步兵一小隊

諸兵連合以團隊以以上揭立前衛步兵以附
加立立所要立他兵種으로附立々々其編組上
第一卷枝隊編成以要領意準據言이可立이과

第二款 區分

前衛止前衛本隊斗前兵과大別古고호히通常前
衛騎兵을加古고니다

前衛本隊○前衛立專司前衛以戰闘任務是負擔是
 是是州前衛步兵以大部及砲兵是是州編成是是
 要是是是是

前衛本隊外本隊의 距離은 專히 縱隊의 大小에 關하
나 此 距離은 一은 縱隊 行進으로 滋滯 中止의 患이
없지 否며 且 本隊은 戰鬪 展開에 必要한 時間과 處
所를 得지 否으로 長遠 丑列하야 又一은 本隊은 時
機를 失치 安否 戰鬪에 加入 否을 爲하야 適宜 距
離은 卽히 長遠치 安을 要하나 此의 相反한 二
個의 要求를 斟酌하야 其 距離을 縱隊의 長短에 應

함은 適當히 定함이 可하나 但 小部隊(步兵隊以下)이 在야는 其距離가 本隊로 有 勑射擊下에 急襲을 受치아함으로 限하지니라

其他 此距離는 我軍의 目的과 敵의 遠近及 地形에 從야 多少 斟酌지아함이 不可하나 只 敵兵이 達隔호든 地形이 開豁호境遇호는 長遠케함이 可호고 攻擊의 爲호야 前進호며 敵兵의 接近호든 地形 險蔽 斷絶호時에는 短縮함이 可하니라

前兵○前兵은 前衛本隊의 前方에 在야 直接히 警戒任務를 負호야 前衛步兵의 四分一 乃 三分一及

必要의 騎兵 工兵으로 編組하느니라

前兵과 前衛本隊의 距離는 前兵이 敵과 衝突호는 音前衛本隊로 戰鬪 展開호 裕餘를 得케호는 뒤起算호나 故로 前衛本隊의 兵力을 從호야 還호나 通常 四百乃至 八百米가 可호고 小部前衛호는 此距離는 前衛本隊가 敵의 有 勑射擊의 下에 急襲을 被치아함으로 限하느니라

大部前兵이 其警戒호는 確實케함을 爲호야 一部隊(中隊)를 前方 三四百米地에 派遣호는 以하나 此는 前兵支隊

라桶을너니라

前兵或前兵의支部는又前兵三四百米地에步兵의尖兵을출고此尖兵前方에言其騎兵의尖兵을출함이잇너니라前兵長과或前兵支部長이直轄에屬을너니라

步兵尖兵○步兵尖兵은若干의抵抗力을備고且前兵의援助를借치만五廣히搜索을노디任함으로此其兵員은一分隊以上의士官이指揮을너니라稍히開豁한地에居는尖兵은所要에應을너나時候派遣함은이나村落과蔭蔽地에居는散開의

姿勢가多을나行進을야前兵과確히連絡을保持을너니森林이繁茂을든지濃霧가掩翳을든지縱隊가대을든지威甚히敵에接近할時天境遇에는其兵力을增加을야드되어一小隊에至함이잇너니라

騎兵尖兵○騎兵尖兵은四騎乃至六騎를士官이指揮에屬을其他通常一騎或二騎를背後連絡에充고騎兵尖兵은路傍高處에登을야近傍을偵視할然後疾步로前進을야此駐止함으로生호遲滯를回復함이可을니라

騎兵尖兵은其舉動이如此함으로步兵의前方에
離隔함이前進黨遠近의度를決定함이能치 못함
나其距離는敵의遠近及前方의地形이陰蔽함과
敞開함과其展望의便함을得고그情況에由함
야急行搜索함은要함이程度를從함이變化함이
可함이엇던境遇에든지在後部隊外連絡의保持
함을要함이니라

結論○前衛가其隊를敵方에對함야漸次少步梯隊
에區分함으로써前進黨隊는逐次其後續部隊를
掩護함은디在함나前進黨運動에由함는小步隊는

大步隊에進退를從함이可함나大步隊는小
步隊에連絡을保持함이可함나但步兵及騎
兵의尖兵에限함야大步隊에連絡을取케함
나此大兵은그前線에在함야敵兵의意思를
注함이大함나其兵員의減少함야運動이輕捷
함을因함야毫도後顧의責任이微함연輕進함야
後續部隊外連絡이全絶함는恐이잇함으로일마
침其自由를制限함야此弊를預防함는例외이아
數縱隊平行道路를前進黨는디當함야各前衛
는디倏로縱隊間의地를搜索함고서通報케함

을要하느니라

微弱호前衛에在하야호前兵을省畧하야步兵及騎兵의大兵으로前衛本隊의前方에行進케함을得하느니다시小部隊가假令一小隊行進호여只古면少하야五一分隊호大兵이되어前衛의任에當하느니라

第三款 前衛戰法

敗走호敵을退却호는時 是는前衛의장顯著호功을奏호는機會小호호강固難호動作이라此時를當하야호소급호敵의休息의裕餘를與

치하이는일에百方努力함이可하니騎兵及砲兵은主要호任務를負擔함이可호호트베힘州衆호用하느니만일情況이許호면此兩種兵은步兵에게미러前進호고步兵은急隨호敵兵의抗抵에當하야호攻撃함이可하니此際에騎兵은敵을繞回호고砲兵은砲擊호야撓亂함을要하느니敵의後衛陣地가極히堅強케하야攻撃에便치아호時호迅速히迂回호야其背路를脅威함이可하니前衛호本隊의援助를待호호호其力이敵에게及지못호時만하느니라

劣勢로 敵의 陣을 遭遇할 時 前衛 寡弱을 敵의 陣을 遇하면 猛烈果敢의 攻擊을 할 可하니 躊躇함이 本隊의 行進을 中止케 함은 決코 不可하니라

優勢로 敵의 止陣을 止者의 陣을 遭遇할 時 此時에 止前衛는 戰鬪에 便利한 地及砲兵陣地에 適한 地를 占領함이 戰을 支持함이 我本隊의 開進及其展開을 掩護하고 且其戰鬪에 參與한 地外時間의 裕餘함을 得게 하니 獨力으로 眞面目의 戰鬪을 交함이 本隊의 來會에 前擊破케 함은 萬事는 不可함이 但時機은 由함이 斷然히 其全力을 展開할 일

이 잇는 나라

優勢로 敵의 攻擊을 受할 時 前衛 優勢로 敵의 攻擊을 受할 時 一時防禦陣地에 據함이 地形의 利을 占하고 靱強히 敵의 陣을 當함이 我本隊의 來着을 待함이 可하니 此陣地는 本隊가 其所望의 應함이 或攻擊或防禦함이 適應함을 要하니라

均勢로 敵의 前進을 遭遇할 時 此境遇에 止展開의 速함에 應함이 利益이 愈大함故로 開進을 省略함이 從코 잇는 나라

結論 本款所說에 由함이 觀하면 前衛의 戰法은 我

目的이 별그敵의 定案及其狀況에 應古야 異古者
라 故로 前衛가 宣번 敵의 會古면 宣州 速히 敵兵
의 衆寡及其狀況을 察知치야 宣이 不可古니 前衛
에 先驅宣마 騎兵은 前衛가 外奇 敵과 衝突치야 宣
지니 므러 敵狀을 報告古고 責任을 有古니 其報告
宣이 常에 반다시 確實完全古者에 이치한 丑且本
隊或 前衛는 宣전이 此騎兵을 有치야 宣이 이니
故로 前衛司令官은 敵線에 廣狹과 線上兵力의 排
備外砲數及其他 見聞宣마 諸件을 參照古야 迅速
正當에 敵狀을 判斷치야 宣이 不可古니 此難事로

陰蔽斷絶의 地에 처는 殊甚古니 能히 此難에 克古
는 되고 크거 治眼을 要古이 可古으므로 平素 防
其眼力을 養成練磨古이 可古니라

第二條 前進行的 側衛

行軍警戒에 是前衛의 各梯隊는 斥候 宣行 進路의 側
方에 出古이 可古으므로 特히 側衛를 設古은 廣古
正面을 警戒할 境遇에 만古且 其派遣古는 時에 現
時의 形勢에 應古야 前兵과 前衛本隊或 本隊로 宣
되古고 나 但 本隊로 宣되古고 是前衛는 是古로
其側面을 庇掩치야 宣이 不可古니라

미리戰鬪를期함이 없고 오직搜索을 주관하여警戒
을側衛는騎兵의 두드러지는 것이나 此外異호
形勢에 是步騎의 兩兵으로 編成하고 其兵力은
前衛로 當은 寡少함이 此에 砲兵을 附加함이 側
衛의 威力이 最大할 時에 限함이 나니

凡側衛는 亦 오직 本隊行進路에 平行함이 道路
를 取함이 其出隊에 準함이 行進함이 亦 所屬隊
를 掩護하고 自己直接의 警戒에 亦 候外部隊을
派遣함이 其他側衛는 一地에 駐止함이 其任을
盡함이 잇스나 法은 次節에 說述함이 나니

二 掩護第一
三 法

第三條 前進行의 後衛

前進行에 是後方에 敵襲을 被함은 恐이 殆無함이 故 且
後衛는 警戒을 爲함이 大라 且 風紀維持를 爲함이 要
함이 多함이 然히 是敵의 騎兵部隊과 伍는 別動
隊로 是者가 出沒함이 時斗或土人이 敵意가 以서
我軍의 背後가 不安할 時에 警戒을 主眼함이 設치
아 呂을 得지 吳함이 其兵力及 編組는 各別이 背
後危險 大少에 關함이 나

第三節 側敵行의 警戒勤務

第一條 側敵行의 側衛

第一款 任務

側敵行은 敵을 我側面에 擁고 行軍을 하는 者인 故本隊는 此敵을 避고 且 外로 遠히 其目的의 地에 達치 外 남이 不可호니 於是에 側衛는 我本隊의 側進을 敵兵의 秘匿을 敵襲에 際호야는 非호야 本隊로 安全의 目的의 地에 到達한 후는 特別任務라 호니 라

此任務는 前進行의 前衛任務로 當은 吳國難호야 優勢의 敵兵이 接近할 時에는 殊然호니 蓋前衛는 本隊의 直接支援이 以서 互側衛에는 不能호야

其勢가 孤호니 라

第二款 兵力과 編組及掩護法

兵力及編組○側敵行의 側衛兵力은 少호야 互前進行前衛의 兵力을 要호고 其編組는 佐호騎兵及砲兵의 多를 要호니 蓋騎兵으로 速히 敵을 發見호야 砲兵으로 則敵을 遠距離에 支호을 爲호이니 라

掩護法○側衛할 時의 形勢는 從호야 或本隊外并進호고 且(第一法)或適當의 陣地를 占領호고(第二法)或陽擎호야 敵兵을 其陣地에 繫留호야(第三法)則本隊의

側進을掩護하느니라

第一法(并進하야掩護하)는側衛는本隊의行進路에併行하느道路를取하야前進行의前衛에외치敵方에對하야其兵을區分하야(大兵側兵)且乍候로써警戒하느고又前衛及本隊外連絡을保持하야要하느니라

此掩護法은本隊의行進을遲緩케하지말고且側衛의疲勞가大치아힘이利하야(五種)不利함이次로如하느니라

一側衛는行進中其側面을敵의對함으로써危

險이大하느고且其數寡를被하느고地形이가명我的에不利하야도其地에展開하야戰하이치 못하느니라

二側進하야敵을警戒함은駐止하야警戒함보담그장困難하느니라

三本縱隊中自己外齊頭列行進하느部隊外는確實히掩護함을得지못하느니라

四側의諸部隊가適宜의間隙을取하야行進을數多의併行路以함은甚稀하느니라

以上所說에依하야觀하면并進掩護의法은敵과速

隔壑時則用壑을得호니但騎兵은成을側衛
는常이此法을擇用호니다

第二法駐止호야掩護호은通常敵의近傍을行進호
例에用호니地勢占據에便호면別上適良호法
이니다

側衛陣地가本隊의行進路로브터遠隔호者는近
接호者보담은오引本隊의行進을掩護호을得호
나遠隔이過度호면敵兵은側衛外本隊中間에侵
入호는恐이있니다

第三法陽擊호야掩護호은甚히危險호故로此法을

用호는境遇는優勢로敵兵이最近호야我側方에
在호야他의掩護法을依호이能치吳호時를限호
니다

以上三法中何를用호는지은前이地形과敵情及
我目的의如何로호야定호는者이니側衛并進
호는時는黨호야行進方向或背後를警戒호고又
其駐止호는時는敵의未來호間은待機의姿勢에
在호고陽擊호時는其戰鬪法에從호이可호니另
各境遇에든지敵의有効射距離內에서側敵行을
호는外本隊는主할거시地形의掩護에依호야

을得지 못하느니라

第二條 側敵行의前衛

此前衛는前進行에只히緊要치아니하느니라
 丑癢함이不可하느니라前進의獲함이側進의는例는
 前衛를變하야側衛가되고新刊前衛를編成함을
 要하느니라

此前衛의任務는專히行進路를候察하야障礙를
 除却하야或道路를修繕하느니라在함이衆多의敵
 에對立顔慮가少할時는아도조소寡少의兵員은
 是州編成하느니라兵騎兵에工兵部隊를附加함은

함이是니라

第三條 側敵行의後衛

側敵行에는行李及車重는通常敵에의反立側方을
 行進함이可하故로側衛의警戒가善至하느니라
 後衛를設치아함이可하느니라敵의騎兵等이우의側
 衛를迂回하야本隊背後를脅威하느니라以는時
 外함이行李等本隊隊의續行할時(但此際는密接
 續行함을要함)에는步兵部隊에若干의騎兵을附
 加하야後衛가됨을可하하느니라

第四節 退却行의警戒勤務

第一條 退却行의 後衛

退却後에 처 後衛特別의 任務는 前進에 처 前衛의 任

務外自異하나니라

夫前進行의 主旨은 進을야 戰鬪를求호는디在호
나退却行에나 敵의 銳鋒을避호는야退호는나故로
退却行에 처 後衛는 勇의 無益의 危險을冒치하
나니아모조호 戰鬪를避호는야本隊로速히敵과遠
隔케호는디在호는나니라

後衛가不得已戰鬪를交호는기에至호는時는디己優
勢의 敵에對호는야且 鞠強의 抵抗을일호는음으로此窮

巧를指揮치아임이不可호는고其戰鬪가久彌호는음에
從호는야本隊와더호는遠隔호는야氣脈이終絶호는는恐
이以호는음으로此其戰鬪는早晚間에中止케호는을得
호는는故로步兵의 近接戰鬪는호는은아모조호는避호는
호는을要호는고且退却行에는軍隊의志氣가스스호는萎
靡호는을의理由가以호는호는음으로此退却行에 처 後衛의
任務는는吳困難호는을其困難의度는或敵에近
호는고且猛烈히逼迫케호는고或敵兵強大호는음에應호는
호는야더호는을增加호는는者호는은敗後의退却에는失則以度
로從호는야더호는을其困難을增加호는는나니라

後衛는前衛보담兵騎兵及砲兵의多寡를要하느
니此騎兵으로州觸接을保하느或敵의前進을知
騷케하느或我側背에出하느敵을支持하느又
砲兵으로州遠距離브터敵을展開케하느일이
장肝要하느다

第三款 兵力과編組及區分

兵力及編組○後衛는獨立하느困難의任務에當하
거스르州하느其兵力은前衛보담強大通常步兵
의大約三分一乃至四分一케하느아모조록新銳
치아임이不可하느다

此外陣地를堅固케하느或障礙物을設置함을爲
하느야工兵을附加하느야佐助緊要하느다

區分○後衛는分하느야後衛本隊後兵이되느通常으
히러後衛騎兵을加하느其部署는前衛에서外前
後의差가있을것이但此各部의兵力은敵에對
하際에甚히微弱지아임을要하느다

第三款 後衛戰法

後衛敵에急迫肉薄케하느지或本隊에退却의餘裕
를與하느例로戰鬪를아이지吳하느되느左의
原則를從하느야動作함이可하느다

開豁호야防禦에適지아인土地에戰鬪隊形되로
힘써速히通過함이可호니라

防禦에利인土地(隘路外高地外村落外林緣等)에
達호면占據호야敵으로展開치吳함이得지吳호
게호고且彼의損害를與호야時間의裕餘를得
케함을求호리니敵이만일本攻을行호는例외에
前進호고我迂回호는時는迅速히後方의陣地에
退却호야障礙物을設置호고橋梁을破壞호고隘
路를閉塞호는等)호모조로敵의前進을妨害함이
可호니라

後衛陣地는其時의形勢上從호야本隊又後衛의
司令官或其他의將校縱隊에先行호야偵察함을
要호호니良好호後衛陣地는遮蔽호退路及正面
을備호호니前面은敵의近接이困難호고且其側
面은通行함이不可호土地에托호야敵은遠히迂
路를取치호아먼來攻함이能치吳호는要호호니
外附每第一卷後衛陣地의條를參看함이可호

後衛의戰鬪호대개守勢에屬호호其敵兵이肉薄
케호야其戰鬪를脫走호호는例上猛烈果敢의逆
襲을行치호는을得지吳호호多호호此動作은甚

히危險을忘함이不可함이타

敵兵有進急迫함이시도後衛는其一部를路傍蔭蔽地에埋伏함이急襲을行함이利함이타

後衛는志氣沮喪함孤軍으로志氣旺盛함故로後衛司令官은者는膽勇巧智함其戰鬪를指揮함現況이其全力를擧함全軍의犧牲이되을邊疑치말지니라

第二條 退却行의側後

退却行이별로優等함敵前에서는敵兵이遠히後衛

를繞回함本隊에迫함恐이있음으로特히一部隊를派遣함側面을襲擊함일이多함其法은前進行의側衛外異함이언함니라

第三條 退却行의前衛

退却行前衛의任務는專히退路의通過를自由케함上에在함故로其兵力은通常工兵部隊或乘車에若干騎兵을附加함이足함又安全치아는地方을退却할時에在함는諸兵種으로小前衛를編成치아함이不可함니라

第五節 側枝隊

側枝隊止本隊의側方을掩護하는일(前進退却의側進의如何에關한側衛의相同함이其異한바가이러左外如하니라

一側衛는本隊外隔離度를制限하고及連絡의密着하게오히러前後衛의本隊에서부터側枝隊止異한바通常本隊外達히서互隔離함을隨함이其連絡의嚴密함을得지못하니此則枝隊(第三卷의詳論)의各樞를取함이獨立任務에服함이아로其長의權限의大함이側衛司令의此함이업느니라

二側衛任務는一部隊가數日間連續함이服務하는것의稀함이側枝隊에서는全히此外反하나다三側衛는駐軍及戰鬪에際함이本隊의復歸한境遇가多함나側枝隊는이러獨立함이駐軍하고戰鬪에서서는스스로一方面敵에當항든지又特異한戰鬪任務에服함이其任務는本隊가進함이敵을攻撃고려함이敵의側面又側背를脅威하고本隊가退함이一陣地를守호列함는이러且側方의要點을占領함只함이是니라

第三章 駐軍警戒(前哨)

第一節 前哨의通則

第一條 任務

前哨의任務는敵의情況을搜索하고休止의軍隊를警戒하고該軍隊로모든境遇에서戰鬪或行進을準備할餘餘를得게하는것이다

凡前哨는任務上警戒할바는戰鬪를試치아니하는것이되나無益한小鬪는全軍의靜肅을妨害하고且此小鬪는드디어前哨의抗拒할기能치아닌大戰을惹起하는것이니然이나敵襲에對하야는前哨는常히完全한戰備를整하고全力을

彈을야抗戰치아름니不可하니又各級의將校는常히其身을犧牲이되여本軍掩護의責任을完全하는事를忘함이不可하니라

第二條 編組外兵力及前哨陣地

第一款 編組及兵力

前條前哨任務中敵의狀況을搜索하는騎兵의主務나一時間의餘餘를得음을爲하야抗戰함은步兵의主務라故로前哨此二兵種을連合하야長短이相補하고搜索警戒相待함을通則이라하고桶을나混成前哨라하니諸兵種이連合의部隊에

工兵을附加함이잇스나野戰에在함이오히려砲兵을附加함은前哨線前의要點(橋梁或其他의隘路)을射擊함을要함時或前哨陣地에서強梗의抵抗을함는時等只호稀有호境遇에서였이나此境遇에서드砲兵은미리其射擊을規定함이아아면夜間은用치아함으로호通常前衛本隊(駐軍)을設치아호써는本隊에退키호는者나타

以上要旨에由호야步騎混成의前哨三호駐軍警戒의常法이되나境遇에由호야步騎의單兵種으로호前哨에充치아함을得지吳호호其境遇는

後에說述코려호노타

前哨의兵力은危險의大少와我軍의穴竅外地形의難易外本隊의距離及本隊의戰備에要함時間等에關호야定함者이나大部隊에前衛(後衛)호호其兵力二分之一乃至四分一을前哨의充호야前衛의他部(前衛(後衛)本隊)前哨本隊의後方에서宿營케함이常이니타

小部隊에在호야호前衛總員으로호前哨에充호故호其前衛本隊호變호야前哨本隊가되호前衛司令官은前哨司令官의任호호만일其

兵力이다시微弱한例는前哨本隊를省畧하느니라

前哨의兵力으로아모조寡少를足할수없는前哨陣地의撰定이不可不得當을지니라

第二款 前哨陣地

附錄第二篇前哨陣地偵察의
圖說并是參看圖의可하니라

前哨陣地는寡少의兵으로이警戒하야得을兵을取
良타하느니라 敵은우의點有在隘路를通過함이
하이때來襲함이能치못하고又我前地는展望自
在함이是니라

前哨陣地는能히本隊를掩護함을爲하야防禦에

適切한若干의要點을設하느니라 內區는아모조各
敵의通視를遮蔽하야前哨의各部隊가是應援
함을要하고兩翼은內方의地形을일위側面과함
이防禦地或步行이能치못함土地에倚據하야此
警戒에確實함을要하느니라

第三條 前哨의排置

前哨排置法에도亦一定의法則을立함이能치못함
나此其排置는後에詳說함이치行軍後에此外
(行軍後의前哨戰鬪準備의隊形과戰鬪의前哨敵
의附近한一地에久駐함과久駐對敵의前哨從함

야變化가나니엇던境遇에든지前哨排置의主眼
이된바는速히敵의近接을知고且其敵襲의際
는야는後防部隊의準備을掩護함을爲야이를
拒支는되在야나故는前哨司令官은모든前哨
의抵抗線을選定야巧히此線을利用함은前哨
哨諸兵을排置함을要함나其抵抗線은前哨中
隊所在地의附近을貫通함이可함나地形의由는
小哨線의곳에選定함이이셔는步哨線의外는
稀查者나兵步哨線의地形이極히抵抗에利하고
其內方의外는是抵抗線으로是恃함地形은是時

에限함이可함나라

前哨의警戒地域이大함나一의前哨司令官이指
揮함이能치못함은지地形이陰蔽斷絶함나交通
이不便함是時는地區에從함나前哨를區分함고各
區에其前哨司令官을置함이法이니라

前哨後衛司令官이行軍中晚함나駐止의命令
을受함나同時는通常本隊並前衛本隊의宿營地
外給養의種類及前衛의處置에就함나命令을受
함是時는通常地圖에의前衛命令을下함나此命
令을下함이二法이잇스나左外如함나라

第一連히警戒線을設置함은爲하야前哨司令官의제目下緊切事項을指示하야其處置를하게함然後一般刊係之地에命令을下하느니라
第二始로브터諸般의事項을含有하命令을下하느니라

此第二法例在하야는軍隊의休憩及警戒의設置를遲緩함은不利가이시고初브터完全하命令을下하느利잇스니完全하前衛命令中에載호事項이여개左外如하느니라
一敵狀의大要(警戒例)에關하야部下의知悉을要함

事吐

二我目的과本隊及前衛本隊의宿營地
三前哨司令官及其指揮에屬하諸隊
前哨司令官의任務及此任務의實施에要함特別
의諭旨(假令前哨의敵襲을受하느니除하야取함處置外特이困守함之地及그監視를嚴刊함地
點等)

此外通常左의諸件을命令하느니라

四 前衛本隊의宿營法

舍營과露營司令官의任命과前衛의警戒大

集合場(樓臺)

時宜에依호야前衛本隊호되出호警戒兵
卅其任務及出호部隊

五給養法(此는示호호得호時)

六前衛司令官의居處호다시命令受領者를出

호時刻

前哨司令官C前哨司令官은前衛命令호基호通常
地圖호就호야호모호尋行軍中호前哨命令호下
호호前衛全部호且호前哨가호호호前衛命令
호下호한호호호前哨命令호下호호호호但現時

의狀況호許호호命令下附호기호호實地를概視
호를便호호호호

前哨命令호호호指示호事項호호호左外호호호

一前衛命令의第一項호準호事

二前衛命令의第二項호準호事

三前哨騎兵警戒線의大要及此騎兵의嚴호警戒

호道路

夜호至호야前哨本隊호退호騎兵호就호規定

又夜間호호騎兵의任務

四前哨中隊의警戒호地의區域及其位置의概畧

傳令騎兵의 分排及步兵隊에 配付한 騎兵部隊
要한 哨查哨을 置한 道路

敵龍을 受한 處에 取한 處에 置

五 前哨本隊의 宿營及此處에 要한 處에 前哨本隊
는 此處에 警戒兵의 指定

要한 戰備緩嚴의 度及道路 閉塞等은 特別
의 處에 置

六 前哨司令官의 所在地

第二節 混成前哨

第一條 通則

混成前哨는 大別한 前哨本隊 前哨中隊及前哨騎
兵의 三部에

前哨本隊及前哨中隊는 若干의 抵抗力을 要한
은 步兵兵으로 充한 前哨騎兵은 晝間은 步兵에
最前線에 使用한 外에 敵과 接觸을 保持한 又時宜
로 因한 外에 遠히 前方에 在한 地點을 占領한 外에
詳說한 前哨本隊는 前哨中隊를 出한 前哨中
隊는 夜間이 或晝間에 在한 小哨或獨立下士哨
를 出한 或短한 外에 兩哨를 出한 外에 警戒한 外에
要한 前哨本隊或前衛本隊에 在한 其前

方과側方에小哨或獨立下士哨를出고獨立下士哨는步哨를出고야警戒한다니라

以上前哨各部는命令을受호後必要한警戒法을設호야捷路로由호야其哨所에赴호는者니라

第二條 前哨本隊細件은要務令第百十四及五項에讓호

前哨本隊는前哨中隊의後援이호且前哨의總預備로故호前哨大半의兵力으로호充호을要호는其位置는通常主要호道路의近傍이니抗戰의適宜要點의後方急襲의逢호야호機를失치안호

此點를占領호을限호에在호을可타호는니라

前哨本隊는前哨司令官의直轄이니同官은常에此處로호고常位置가되호는此에占領호면前哨에全體를終始監視호야諸報告를受理호고且命令을下附호이便利호는니라

前哨本隊의取호戰術에緩急은一般의形勢가敵外狀況을因호야定호는거시니라

前哨本隊는靜肅及風紀를維持호호호風紀衛兵을備호고又需要에應호야外衛兵를備호는니라前哨本隊外後方團隊外距離는一定호者가아니

나地形의助가없스면大約千乃至千二百米로써
標準을지키可하니라

第三條 前哨中隊(細件은要務令第百十六乃至第
百二十二項의讓호)

第一款 通則

前哨中隊는主要警戒線을設置하고敵을抗拒하
야州後方部隊의戰備를주는時間을得게케하는
例任하고又前哨騎兵第一의後援이되느니라
敵襲의際에는前哨中隊는小哨及獨立下士哨
를増援하고收容하고敵兵이假令優勢하고且其攻

擊이猛烈하고야別命이없스면힘써히拒支하
야前哨本隊의戰備를整하고는裕餘를得케하임이
不可하느니라

前哨中隊의前哨本隊의距離五伍一定호者가
한나나地形의助가없스면大約六百米로써標準
함이可하느니라

前哨中隊의員數는地形道路에關係는從호는者
니通常首要道路上과其近傍에一個의前哨中
隊를排置호는것장적界限호느니라

前哨中隊가警戒例문取호方法은中隊長의職

權內에在고又敵襲에際하야中隊의常에반드
시戰備를缺치아인일에就하야는身으로其責
에任함이可하니라

第二款 小哨及獨立

小哨其他諸種의哨兵
(細件은要務令第百二十三乃至百四十二項에
詳함)

小哨凡小哨는切要道路及要點의警備의任하
고步哨外下士哨를出하야敵襲의當하야는支援
하고第一抗拒者なり其兵員은아모조尋小隊又
半個小隊나士官或適任으로하下士州其長이되
리하느니라

小哨外前哨中隊의距離五伍一定함者가아니
나地形에助가없스면大約三百乃至六百米로써
標準함이可하느니라

混成前哨에在하야晝間前哨中隊의前方에前哨
騎兵을排布하느니라는步兵小哨를省略하야得하
나地形이蔭蔽하고且敵兵과接近하야그潛入의
恐이잇는時는步兵及騎兵의小哨를並用하고又
夜間은호우步兵小哨만用하느니라

步兵小哨에騎兵의一部를附하느境界遇하야는騎
兵은斥候의任務를擔當하고步兵은哨兵及戰鬪

의仕務를擔當함이常이니라

小哨의位置는左의諸項에適合함으로서擇定함을要함

一敵에對하야陰蔽한地

二敵에通한道路의近傍

三步哨線의中央後又抗戰에適切함은지或緊要한地點以後方

獨立下士哨○獨立下士哨는小哨의連絡及側面의警戒를補하고有時은又小哨에代用함은者니複哨交代兵外에오히려나候에充함者若干名으로

成함은나蓋小哨의小者이오其動作은小哨外同一의原則을從하고併로速히步哨線前에出하야騎兵을支援하고又夜間敵의運動을監視함은한境遇에는其兵員의稍히多함을要함은나라

下士哨○步哨線上에의別로緊要함은지又危險한地點과暴露한側面과小哨로브러遠隔한地步哨를置함은其交代의多時를要함은나查及查哨에는下士哨를用함은나다

下士哨는通常六名으로編成하고下士或上等兵으로서其長이외고步哨의殘餘는其近傍로遠

蔽物에休止할수나時宜로因할야所要의方向을
時々巡視할것은例로이오히터二三名の兵卒을
增加함이잇나라

步哨○第一線의步哨는이러復哨라其一名은靜止
展望하고一名은眼力又脚力을藉할야比隣步哨
外連絡하고且時々其近傍冠蔭蔽地外斷絶地를
搜索할수나但暴露할야步哨線上은徘徊할수고
은敵兵이우리位置를察知할媒助가되나고로
避함을要할수나라

小哨로되터交代를復哨는其小哨를距함이三四

百米되는通法이라其距離가遠隔할時는步哨의
交代에多時를要하고且其支援機에後할恐이잇
고近接할時는敵兵이우의哨兵를驅逐할야其哨
兵에侵入할恐이잇나라

步哨에排置할것은特히左의諸件의注意함이可
할나라

一道路○敵方에通할道路橋梁其他의隘路를監
視할事但如此重要點은夜間에少할나復哨는
州占領할것은必要라함이多할나라

二自己의位置○凡步哨는遠히諸方에別로敵方

을展望宮을得고且야모조로敵의通視를遮蔽할事

三側方連絡○步哨가처트連絡이容易한事但敵과接近호야오면一地의駐호야一連不斷의步哨線을成形할것을要할時外는반드시其線을連續刊宮을要치안코敵方의通호道路를警備호호으로州足호야호호호其間隙只宮은所要에從호야乍候의規定에依호야監視할事

四後方連絡○步哨常에二所屬哨所外確實刊連絡할事

步哨에셔는一般及特別의官則이잇느니라

一般의守則은무슨境遇遇든지普通호守則이니概左如호니라

步哨는絶치안코敵方을監視호야疑호徵候에深히注意호고敵狀을察知호면速히報告호고危急호際는射擊호므로警報宮이可호니命令이아이면蹲踞호고伏卧호야手銃을放호이不可호고又上官이來호야도호호其間에對호야姿勢를正호고答호호이호警禮을要치아이는니是는監視를中止케아니는例문이니라

晝間步哨線에出入을許함이是我軍의將校가密
集部隊外斥候及傳令使等이是라其以外者(軍使
及降參人을含有함)는도모지查哨所에到케하
니만일其查哨의方向에行치안코오히터步哨線
을通過코저는者及其命함바에從함者는射擊
함이可하나타

何人 問치말고夜間步哨의近호者가잇스면銃
을構하야立고誰나함이可하나만일二次를呼
호야도立치아니면射擊함이可하고凡其他의處
置는晝間과異함이잇나타

特別守則이란거는現時에位置及狀況의關호者
나小哨長이몸소搜고步哨는交代할際에上番
兵에게傳告하나其守則은左의諸項에關하나
라

甲步哨는前身에나아가左件을了知치아함이不
可하나라

一監視함地方及敵狀

二前身에在함我兵의位置(前身의騎兵及拂立下哨等의
在是時)

三目에觸함村落과河川과神社外佛閣等의名稱

及道路의 方向

乙側方에 關한者가 左外如하나타

一隣步哨의 位置及其號數外查哨의 位置

二著明한 地物의 名稱

丙自己에 關한者가 左外如하나타

其步哨의 號數及其動作의 特別規定

丁後方에 關한者가 左外如하나타

所屬哨所의 位置及其位置에 至한 捷路

步哨는 二時마다 交代하나타 但決丑一定한者가 하
나오小哨長이 適宜한 規定을 得하나타 交代際

의 步哨隊 下士或上等兵은 步哨의 其外則을 確實
히 傳告하고 하남은 監督함이 可하나타
凡哨兵의 交代는 互相 遮蔽하고 且靜肅함을 要하
는나타

查哨○查哨라는 것은 哨兵線에 通行人을 勸查하는
何문이 特히 指定케하고 道路上에 派遣하는 下
士哨(或獨立下士哨가 兼함)의 謂니 我軍의 所屬함이
無疑한者에 限하나타 其通行을 許치아니는者
는 護衛兵을 附하야 所屬哨所에 送致하타니 敵의
軍使(線內에 入한時는 其服을 脫縛함)及 降參人을

處置을 互亦同하되 但決코 談話함이 不可하나니 旣前哨 密集部隊을 有하 哨所에 直接警戒의 所 且 旣前의 卑哨 掩蔽下 等에 在하야는 複哨를 設置하나니 其位地는 晝間은 前方及 比隣의 哨兵과 目擊에 由하야 連絡하야 容易히 事變의 通報에 接得하 處를 可하하나니 矣

地形이 甚히 陰蔽한 境遇에는 數個의 卑哨를 出하야 卽諸方을 警戒할 所이 屢코 하나니 矣

展望哨 展望哨라 是거슨 展望의 便利한 高處(山頂 塔樓 外樹梢 及 屋蓋上 等)에 排置하 哨兵의 提桶이

나니 矣

此哨兵의 排置가 得宜할 時는 一步哨로 卽數步哨의 用을 兼함이 可하 故로 晝間은 必히 排置하야 步哨의 勞를 省함이 要하나니 特히 緊要하 哨所에서는 前哨中隊 又 前哨本隊로 必히 一名의 將校(精良한 望遠鏡及 地圖를 携함)를 出하야 任함이 可하나니 矣

展望哨는 敵과 近接하야 一地에 久駐할 時外 要塞前의 前哨에서는 必히 緊要하 者나니 矣 (附錄第三卷 美的前哨 德軍前哨)

展望哨所의 下方에서 通信者(이 도조를 騎兵)를
準備하야 置을 要하느니라

第三款 斥候 要務令第四百十一項乃至四十三項을

參看함

凡 哨兵은 대개 靜止에 姿勢의 在함으로 視域外의
敵兵을 發見함이 能치 吳호故로 斥候를 遊動케 하
야 達하야 廣호 地面을 搜索케 하야 得지 吳하
니 是로 爲하야 夜間이라 地形을 許하야 限함은
騎兵斥候를 派遣함을 要하느니 步兵에 適호 距離에
在함은 지 地形의 騎兵의 運動에 便치 安튼지 又

彼我의 步兵이 密히 接觸호 等時 機에서 步兵斥
候를 使用함이 可하느니라 但하 敵을 發見치 吳호 且
騎兵을 有하야 等境 遇에 是例로 遠케 步兵斥
候를 出하느니라

凡 斥候를 派遣호는 度數가 愈多호 搜索의 愈
密호 且 斥候警戒하 愈嚴호 利가 잇스나 但호 斥候
兵卒의 疲勞호 亦大함을 顧慮치 外함은 不可하느
니라

斥候는 耶要에 應하야 前哨 諸部隊로 부터 出함이
最多하느니라 其 巡候함 行程을 時機外 地形에 從하

야規定호고且此勤務에適當호는者를精選호을肝
要호호니其兵員은其長을併호야三名이니라
凡斥候는晝는我哨兵의觀域外의地를跋渉호고
夜는專히敵方의通호道路를搜索호이可호니其
道路并歸還의時刻은任命者가概호호을設호이니決
코確定호야其動作을箱束호고호일호以호이不可
호니라

斥候에任務호는아모조록多歧에渉호이不可호니
是는斥候를惶惑호이업고能히其任務를盡케호
리호이니라

러호이니라

斥候는能히地形을諳識호이可호니此地形에서
說明호고및必要에際호야는嚮導가됨을為호이
라其歸路는往路外異호야호敵에게退路를中斷
호호危害를避호고其廣히搜索을為호이可호니
其射擊은警報호는時外는安用호이不可호니라

第四款 巡察

巡察은所要의應호야前哨諸部隊로브터出호者가
最多호니以호境遇에는지其任務호는時호步哨線
內를巡視호고步哨의勤怠를監視호고步哨를備

치아닌土地를巡候하고 敵을야 比隣哨所外連絡을通하는디 在호니 其兵員은 其長과 二名으로 成호니니다

巡察은 哨兵線에 地形이 何로 通視의 便치아닌 何外 或夜間 又濃霧時에 是할土 緊要호는者니 其巡視는 步哨交代時間外 宿營可타호니니 交代의 時는 自然이 步哨를 監視호는 是호니니다

巡察은 時의 需要로 應호야 或將校 或下士로 卽其長이 치고 監視巡檢의 要호는 程度에 應호야 回數의 多少를 定호니니다

第四條 前哨騎兵의 細件은 要令 第四百四十七項 乃至 第四百六十三項의 該호는

前哨騎兵長은 主要호는 任務가 敵軍과 接觸을 失치아는디 在호니 其敵과 距離호는 猶遠호는 時에 是廣遠호는 土地를 視察호는 要호니니 騎兵은 其運動이 輕捷호는 是호니니 步兵은 一定의 配置及其形狀을 固執호는 要호니니 敵開호는 地에 在호는 故其兵을 集團호는 陰蔽호는 地에 在호는 數處의 分割치아임을 得지 吳호는 故로 前哨騎兵의 部署法은 其時의 形勢로 從호는 一호니 一個或數個의 控兵을 備호는

야一個或數個의小哨又獨立下士哨을出호고或此兩哨을出호는거시다騎兵長의權內에在호니

前哨騎兵行軍後에서는通常前衛騎兵이오又稀호되는搜索騎兵의一部或全部로成호는行軍後임의前方線에在호者나敵狀及前方의地形을概知호는故로晝間은第一線에川兵警戒에任호여行軍예료에瘦勞케호고步兵을掩護호야休慫호고且喫食케호야後에夜間勤務예료에步兵과交代호야前哨本隊에退호고其時의形勢가許호면近

傍村落에宿營호나夜間이나敵과觸接을保持호예료이나又遠隔重要點의占領必要호時는호히터騎兵에一部를前方의用호을可타호나

前哨騎兵의排布는時機과地形에從호야或前哨中隊의前方整然호區分法(控兵과小哨騎哨)을取호야或控兵을設치호고兵騎兵小哨을排布호나니又合境遇의든지前哨騎兵은背後의步兵隊外衛호지안호連絡을保持호이可호나別호其小哨獨立下士哨는敵近의步兵隊에直接到緊要호通

報を為さるる要なり

前哨騎兵長은敵兵來龍을伺迅速히報告하고後
方部隊은此에應호는時間을得게하는일에就호
야는身으로써其責에任케하임이不可호니라

控兵○控兵은 오히려步兵에서前哨中隊又其位
置는情況에從호야定호는者니만일遠히前方에
派遣호을要치아니는例는前哨中隊의一에接호
야位置호이잇스니其隊亦直接刊警戒例는徒步
의銃前單哨을備호고時宜로因호야一個或數個
의徒步複哨을備호느니라

騎兵小哨○騎兵小哨는 뒤키控兵으로 브터遠距離
에獨立部隊의在함을必要할時設置할者나將校
의指揮에屬하고其兵力은大約一小隊라其位置
는決코圍牆內에함이不可하니蓋諸方向에進出
이容易키고又其運動自在함을欲함이라敵方
의地는特히敵開함을要함此敵開地는往々騎銃의射
界가되나라其警戒區域은時機外地形의應호야
變化함으로卽一定함이能치 못하니其幅員은二
千米以下가常이니라

此外小哨直接警戒川上銃前哨를 備置이 可

하니라

小哨長은敵襲에時其報告를迅速하게하고後方部
隊가特히歩兵으로應호餘裕를得게하는일에就
하야는身으로其責에任치아임이不可하니라
獨立下士哨○此哨兵은모든歩兵例로의述은原則
에從하고其動作은次에示호下士哨外畧同하
나但時宜로由호아速히乍候를派遣함이잇는니라
下士哨○下士哨_{下士人及兵卒三以上}는通常下馬하고
혼이其二人으로監視에任하니라_{東馬或下馬}
호境遇는後에說호此哨兵의用兵은머개歩兵과

同하니라

查哨○查哨도亦同하게下士哨又獨立下士哨되는
일이歩兵에크고騎兵이이를置호면前哨命令中
에置호道路를指示케호는時호且通常晝間을限
하느니라

騎哨○騎哨는二人乃至三人이니二人되여는호거
馬上에在호이可하고三人되는예는時宜馬上監
視의便이잇는時兵耕作物을越호야遠望호예를
은除호에因호하馬하고其二人은便利호地點
에位置호야監視호고第三의騎兵은二人의馬를

保持을 하나니 但複騎哨或三騎哨을 用을 境遇 無小
哨長의 獨斷에 任을 하나니 라

騎哨互相의 間隔及小哨의 距離는 時機外 地形에
應을 야 變化함이 可함을 卽에 一定을 得지 못함이
騎哨는 其小哨의 前方 大約 千米의 곳에 占位함이
各騎哨互相의 間隔은 約히 八百米로 卽에 最大 限을
이 可함이 라

騎哨의 普通及特別의 守則은 概步兵에 同함이 라
斥候○ 前方 土地가 蔭蔽 甚함의 應을 야 더 注意
를 需함은 야 斥候를 用함을 要함이 나 如此 立時는

此斥候로 前方 土地의 長히 滯留함을 이 하나니 그
런 處는 其監視를 中絶치 아니 하고 且 馬方을 勞케 한 이
는 利가 잇나니 라

小哨로 보터 派出함 斥候의 任務는 敵과 近히 觸接
할 時에 在함이 나 通常 敵의 前哨에 近지 達함은 者
나 是로 卽에 深入함이 야 搜索함은 일은 前哨 騎兵 長
과 前哨 司令官 或 高級 指揮官의 指定할 時에 設이
나 但 特異한 徵候를 認함을 當함이 나 小哨長이 獨
斷으로 卽에 命令함을 得함이 나니 라

騎兵은 其形勢의 如何에 關치 안 且 夜間에 나 斥候

에因古步敵과觸接을失치아임을要古나如此
코저古는例正補ニ大ニ兵員의作進將校又下士
를前線哨外의派出古步一定在地に駐止케아나
丑敵의運動을追隨케古을利ナ古ナナ

巡察○歩兵에게外異古을이알古나

第五條 前哨의散開의法

騎兵○前哨最外線의在る騎兵은通常敵의騎兵과
對峙古으로則敵의歩兵의急襲을防ナ騎兵의急
襲을期치아임의事古나其敵의兵種의如何에
拘치말고히어永히非古ナ古最後の時機에至古

야는아모조後方部隊의戰線正面을避古步退
却古이可古나但此際에步敵과觸接은決丑失古
은不可古나

歩兵 歩兵線又比隣小哨에게銳聲이起古면小哨
長은兵下士에게指揮의屬古亦候通常의時候日古
人員이多古을要古를其地에差遣古古는是事
宗을深究古且侵入古는敵을一時非支케古步
小哨長이스古其處置을일立餘裕을得古을爲
古이니라

小哨長이이를알면스古迅速히事情을察驗古且

敵兵이寡少한例는小哨의兵力으로擊退한五
 其報告함이可하니蓋其報告를忽케하면前哨中
 隊及前哨本隊는無益의戰鬪準備을하는恐이있
 누니此際特히斥候를出하야其敵을追躡케하고
 嗣後狀況을確認함을要하누니라

호구監視例로設置하는小哨이且優勢의敵에
 對立時止短時間劇히射擊하야彼로其兵을展開
 치하남을得치吳호後速히前哨中隊에退却함이
 可하고敵襲이오장急表의出하며且前哨中隊의
 戰鬪準備을호止時間을與함이必要된時間에만

斷然히抗戰함이可하니라

報告한일時機에後되는恐이있는例는急劇호一
 齊射擊을行하야警報함이可하니라

小哨長이其位置를固守호任務를有호時는形勢
 의如何에係치안코인제선지其地에止하야前哨
 中隊의來援을俟함이可하야夜間의在하야는豈
 土銃劍의使用을忘함이不可하니라

前哨線中の警報의는例는前哨諸隊는其戰鬪準
 備함을可하니라

敵襲에際하야前哨司令官은常히其執鞭을持久

함이 가능하니本隊가 만일戰鬪에應코져하면此間
其準備을整고進호야前哨抵抗線의至함이可
하니라

伍戰鬪의當初前哨의引退는我軍의志氣를沮
喪호고本隊의進出은振起코호는거실苟本隊는
前哨陣地에서其戰鬪陣地가됨이多호니前哨가
退호야本隊에合호고함은地形外狀況을要호時
에만호느니라

第六條 前哨의交代及收集

滯留호時에在호야는前哨의交代는本隊外前衛司

令官으로브터受호는時刻에호느니라

軍隊가다시前進코디호는時는前哨로아즉其位
置에在호고其掩護에賴호야新히編成호前兵을
進出케호後其前哨를收集함을通法이라호나我
軍이敵과相距함이尙遠호時外又我部隊가小호
時를要호면片頃가掩護로由호야前哨를撤호고
只行軍警戒隊가되는일이잇느니라

小哨及獨立下士哨의交代時刻은滯留호時에在
호야는拂曉가可호나其他의境遇에는其時刻景
況을因호야定호느니라又各境遇에든지其交代는

敵眼에隱호야靜肅히호되或特히警戒法을用호
이可호니타

第七條 行軍後의前哨

軍隊가且行且駐호時止一은其宿營地에著호일이
概違호且人馬는累已疲勞호且翌日上途의
便을顧慮호이可호호트호正히前哨를排備호을
得호吳호호又一은此境遇호별호夜間에在호야
는敵의大兵은宗際道路의便을任호안호咀來襲
호이能호吳호호트호特히敵地에通호道路를守
備호이足호니만호시一連不斷의前哨線을正히

設備호을要호아호니意外에도敵兵이道路外
에罅隙을得호야竊入호든지만호시小兵되故호
거前哨의靜肅을疎호는되過호吳호호決호我
本隊에危險을及호이能호吳호호리니但前哨의各
部는常호休호호連絡호야前哨本隊는本道又
其附近의要地에占호호大部隊에는前衛(後衛)
本隊호호시後方에서宿營호을要호호니타

第八條 戰鬪의前隊(戰鬪準備의隊形)

敵에가近接호야決戰의期가已迫호든지或戰鬪호
호즉日暮호호止호호明朝호시繼續호호호호

此敵의 附近接호고 且 時間이 久彌호야 攻擊漸々
 步進호에 從호야 디 호 觸接호 迫호는 例 且 屢
 二 銃砲火를 被호고 且 常以 急襲의 衝호 當호호로
 此 前哨의 特色이 라는 바는 連接團 統호 哨兵線을
 布호고 又 攻擊(防禦) 正面에 向호야는 前哨諸部隊
 가 外 且 左右前後에 密호고 且 掩護例 且 十分其地
 에 工事를 施호야 强梗호 抗戰及 自在호 連絡을 要
 호는 地 在호야 라
 全般의 攻擊(防禦) 線호 地區에 從호야 區分호고 各

區의 前哨은 其 區 守備步兵의 約 三分一을 領호야
 各 區에 前哨司令官을 有호야 나 타
 高級指揮官은 暗黑中의 認識의 要호 暗호를 預授
 호이 可호야 나 타
 形勢에 無妨호 時는 前哨는 背囊을 宿營에 留置
 호호나 然호나 糧食과 十分의 彈藥은 常에 携帶호
 이 可호야 나 타
 前哨各線의 區分等은 他의 前哨나 同要領에 從호
 고 但 前哨騎兵의 効用은 彼我愈近호 觸接호 愈從
 호야 디 호 減少호호나 나 타

純然攻城塞戰의前哨에關한바오히여說述한者
가多호나本教程은野戰을主한는故로此他는다
要務令에讓호나니다

第三節 獨立步兵의前哨

敵과甚히近接호는지地形이險難호는지前哨騎兵
이업는等에由호는步兵만前哨가되호는傳
令騎兵만屬호는境遇에在호는步前節混成前哨의
步兵과同法호는部署호는同一의原則에按호
는排置호는나니다

此前哨의는前哨騎兵의備가업호는호는晝間에

터小哨와步哨等을排置호는아임이不可호는만일
前哨中隊에十分傳令騎兵有호는時는이로晝夜
斥候의勤務에充호는든지其騎兵若干을小哨에排
備호는든지又호는三三四騎를前哨本隊에만附호는고
自餘의騎兵호는斥候에充호는되호는專히現時
의形勢를按호는나니다

步兵前哨에傳令騎兵五箇지아임호는例外의境
遇에在호는步兵斥候로狹少호는範圍內의搜索에
함이可호는나다

第四節 獨立騎兵의前哨

騎兵速히我軍에前驅하고又速히敵의運動에追隨
할等에由호야我軍과隔絶호時에警戒는概前
前哨騎兵에示호方法을適用함이可호其
警戒는在後部隊에示호안호專히自己의安全
을顧慮함을異타호니타

如此獨立호騎兵隊에在호야호兵力을節約케호
는例외에히則寡少의人負호確案케警戒備케호
이可호지타故호口장警戒에便호地를占領호且
屢々速히乍候를派遣함이利타호니故호其前
哨陣地는敵兵의來襲이困難호地(河川水田等後

方且我騎兵의運動을妨치아니호處를良타호니
타

敵騎의急襲을防호호도로道路上에單簡호開塞을
設호고호히터火兵으로防禦호면假令敵騎優
勢임도阻止함을得호호니但此開塞을設호는此
方호야는我兵의通過를妨치안호事에注意함이
可호니타

敵地의村落內에宿營호는土人의抵抗心を
鎮壓호호호或家屋의出入을禁호고或人質
을取호는等호호特別에處置를爲호호必要호타

其他當為意對作以細作其要第一該部隊長
外沈着勇敵意二詭計以富意作能計時機以適應
其意是期意是計在言其計

第九篇 行軍

第一章 總論

作戰間軍隊以三川困難其意是言是行軍이니오때
戰役에기은行軍예로이生호人馬의減耗는戰鬪
例문에受호마死傷보담호還多호者마故호行軍
術는無他호能호軍隊를愛惜호人馬給養及衛生의
注意호는等호호其力를養호호機에臨호호卓絶
의効用을顯케호호는뒤在호호호其軍隊가時機를
失호호호要호호地에到着호호其戰鬪의整頓호
호아함호호호勝敗를已決호호호往호有호호호

行軍에當하야軍隊를愛惜함과同時로戰備를完全케함이甚難하니二者가은전이反對의性質을有함이라故로敵과衝突을虞가없지예는軍隊의愛惜을主하고衝突의虞가有하예는戰備를主하느니라

其愛惜을主하는者는旅次行軍을謂함이오戰備을主하는者는戰鬪行軍을謂함이니旅次行軍은漸次敵에接近함의從하야徐々히戰鬪行軍に移하는者니라

以上二種行軍의實施上の相異點과가잇合스

니라

一警戒○旅次行軍의는搜索及警戒의勤務는不要하야戰鬪行軍에는此로爲하야軍隊의疲勞가大하니라

二編合○旅次行軍의는各兵種의行軍速度를制限치안丑各兵種各團의히예小部隊에區分(行陣의困難과滯滯를避하)는例是하고아모조尋便宜의道路를取하야行軍하느니假令騎兵은迂路라도軟質의道路로步兵은良好의直捷路로砲兵은堅實의大道를取함스하니라

戰鬪行軍에 있어는 戰鬪準備에 背反함이 諸般의 顧慮
는 一切放棄함이 必히 不可함이니 이에 各敎隊는 하
로 正導大直部隊에 編成하고 且 諸兵種을 連合하
야 敵과 衝突의 際 戰術上의 要需 各兵種을 要하
順序의 戰鬪에 加列하고 又 聚結함 兵力을 企圖
할 時 外處에 使用함이 許치 不得에 應함은 只 道路外 行軍
序列及 出發을 規正함을 要함이니 다

三日程○旅次行軍州三日二日程을 합치면均一
 日五戰闊行軍의는其行程은諸般의狀況에應
 對日二甚直長短의以行勞逸이平等치 아니

科

四行李○旅次行軍에 있어는 諸行李는 步砲兵은 聯隊立騎工兵은 大隊마다 集合하여 隨從케 하며 戰鬪行軍에 있어는 令割하여 戰鬪에 必要한 者(小行李)는 通常는 其軍隊外에 別行進케 하며 其他(大行李)는 通常大距離를 取하여 本隊의 後方에 跟隨하고 前進行或其前方에 行進하고 退却行或危險치 아니한 一側에 縱隊에 伴行(側敵行)케 하는 것과
二種行軍에 性質이 如此하고 以下所說은 專히 戰鬪行軍의 實例이니라

第二章 行軍의 速度에 關한 素質

第一節 諸兵種 行進의 速度

各兵種 固有의 行進 速度가 左와 如하나라

步兵及砲兵의 步兵의 行進 速度는 通常 五十分時에 大約 四吉米이니라

一吉米 量 行하느니라 小部隊이 且 良好의 景況(其兵은 行軍에 精熟하느니라 且 好天氣로 道路 善良하느니라)에 在할 時는 十分時 足하느니라 大部隊이 同一 景況에 在하느니라 三十分時 量하느니라

行軍에 砲兵의 行進 速度는 步兵에 準하느니라

騎兵 ○ 騎兵 步兵과 同하되 行進하느니라 步兵의 速度에 準하되 步을 得지 못하느니라 是는 馬匹의 天性에 依하느니라 其 瘦弱을 果하느니라 蓋이 보담 其 容이 穉하느니라 故로 他의 故障이 없스런 騎兵은 獨立하느니라 行進하느니라 且 其 速度는 騎兵 隊長으로 規定케 함이 可하느니라 其 規定에 是 左件을 顧慮함이 可하느니라

騎兵이 一旦 急速 行하느니라 且 遠距離를 通하느니라 馬匹이 忽然 瘦弱하느니라 復用하느니라 難하느니라 至하느니라 常歩로 用하느니라 馬匹의 天性이 悖하느니라 又 騎者는 倦怠하느니라 不齊의 姿勢를 取하느니라 馬匹이 傷을 受하느니라

宿營地에達할時間을徒費하고馬匹의休憩時間은減却하니故로常步外遠步를互交相用함이原則이나步度混交의此例은道路의良否外馬匹의強弱等에從호야一定함이能치吳호나但斜坡의登降及出發直前外到着直前에在호야는常步를取함이可호고又馬匹의愛惜上도顧慮호되速步二吉米(約十分時)보다常步一吉米(十分時)을混用함이可호나然則五十分時에約七吉米를行進호호니라

第二節 休止

數程後若干分時後에假令四十五分時後被服과裝具等에改裝及人事의必需에要호小時間에休憩를行호고其他行程의遠近과天氣의善惡에應호야一回或數回의休止를爲호야軍隊의疲勞를回復케호되休止가만일一回되는例은路程에過半를經過호後에호고數回되는例은每二時에함이適當호나其休憩는專히喫食例에屬호는者(大休止)는二十分乃至五十分時호其他(小休止)는約十分乃至二十分時가可호나蓋호되든지一定함이안호니라

만일時機州妨碍업고且道路를閉塞호患이無호
時는路傍州에서야速히休懸에移케호이可호니
라

嚴寒又烈風時는蔽障의는地(林内外谷中或山腹)에서
休懸호고炎暑의時는日影外且近傍에서飲水를
得호處耶에서호리니騎兵外野砲兵은時間外現
時形勢州妨이업스면常의下馬호야休懸호이可
호니라

戰鬪行軍에서는村落内別로隘路内에서休懸호
은危險호으므로此를通過호後州호고但行李는

其通過前에서停止호이可호니라

時宜에서호아는미리騎馬將校를派遣호야休止
의處耶를偵察케호이可호니라

大部隊에서서는前方部隊는後方部隊의出發前
임의長大道路程을經過호으므로全隊同一時刻
에서休懸호을得지吳호고後方諸部隊는前方諸部
隊의뒤의다시發進호는지當호야順次同一地에서
休懸호호니별로旅次行軍에서그리호니라

第三節 道路

附錄第二篇道路의偵察州關호事를參
看호이可호

總論○行軍은常에만도시道路上에서호아호이호아不

可호니兵團으로卽原野를橫過호호호는戰場上
이든지又短少호距離에서만호는故로道路의行
軍에關係를有호일의極大호을知호미可호나라
種質의路質이柔軟호는泥濘일時는足傷의患이
少호나人馬의行進과車輛의滾轉이다容易호吳
호야行軍를滯滯호호此를反호야路質이過度
이硬固호者(歇后道外如호)及砂礫이多호者도足
傷의患이잇호나별호新砂礫道는行進滾轉이다
容易호吳호야後軍를滯滯호호此外冬期結氷
滑走호기易호道路는馬匹이大困難호는者라行

軍의期望호는道路는柔軟호안호硬호아호호야足
傷의患이잇호且行軍의快疾을致호는者가是이
라

廣狹의路幅이더욱廣濶호면縱隊의正面을廣濶호
호고列伍를疎開케호을得호호호호호兵의疲勞를
減殺호야行軍를容易迅速케호나路幅이狹窄호
면行進이甚이困難호야호縱隊를延伸호호나
別호隘路의部其前後의路幅모담狹窄호者에出
會호는時는行軍正面을減却호호아호을得호호吳호
야行進이滯滯호호故로行軍隊形은호천이行

程의路幅이窄狹호는者에應호는正面으로終始行
進호는者를可타호는나타

傾斜○行道路上登降의傾斜地가愈多호고其傾度
가더욱急峻호를從호는야行進의速度더욱減縮호
는나故호는山地는平地에比호는면二三倍의經過時
間을要호는나山地行軍에는아도조득小部隊의
數縱隊를編成刊호는지아임이不可호는나타

第四節 天候

暴風과暴雨와飛雪과嚴寒과酷暑等은行軍兵의患
호는나바나酷暑가크장大患나타별호는困難을感호는

은徒步이너지步隊에僅少호는時間에數호는호列兵
을減호는호잇나맛當이深히注意호는호可호는호其
預防法에크장効驗잇는者는行軍中規定에從호는
야適宜의飲水刊호는호是나타

第五節 志氣及體力

志氣旺盛호고體力의強健호는軍隊는能히行軍의勞
苦에耐호는야빠速히速達호는得호는나타

時호는호志氣의壯이빠體力의弱을補호는호잇스나
호는호體力의強健호는호志氣의壯호는호旺盛者나
體力의強弱은專히被服과裝具와靴의適否와糧

食의多寡良否並宿營法의如何에關한나라
故로진실노兵에長官者는部下에體力을强健케
하구且其志氣를振起케하는事에就하야는常에
意를用함이可하니만일이를忽케호예는兵行軍
力이萎靡하기에至하느니라

第六節 縱隊의大小

行軍縱隊의長短이愈大하면其行進速度가더욱減
滯하야其頭及後尾의發程時間의差遠增大하구
後尾部隊의着營이遲延하구且後方部隊의遮止
急止는縱隊의大함을應하야蓋甚하者라故로大

호團隊는道路의許限하야數道를取하야併進함이
便하나라縱隊가愈小호時는行進이愈易且
速하야現時形勢가許치만이면아모조호小縱
隊且數道를行進케함이利라하느니是則行軍
에는分進의原則을有호所이라然히나戰鬪에際
하야常에合擊의原則을顧慮함이可하느니라

第七節 行軍軍紀

行軍軍紀는一般軍紀를包含하호는者나行軍力을
保持하구且增加하야其他現貨의減耗를預防하
호는디又効力이호는者나其節制는概次外知하야

라

一個人定位○各人은常に其定位가잇스니一兵이라드許可를得지 못호고隊列을離호고又姿히水流并泉에駐호며或人家에入호이不可호니라二服裝○各人이姿히服裝을素히하임이可호나이를許호야便호일은其時機를誤치달고全隊에令호이可호니라

三歩度○縱隊中各部隊先頭의歩度는部隊長이常に規定호야各部隊가不同치안케호호니라四路幅의利用○道路가廣道時는常に其一側을

空虛케호고他隊의通過를供호이可호며狹窄道路에서五單獨騎兵에通過를妨碍치하임을要호호니道路가險惡호든지或炎熱호時에는行軍縱隊를道路兩側의分호야中央을空虛케호이可호니라

五隊間距離○後方部隊의還止或急進은隊伍를紊亂호고且延伸를增加호호므로此害을預防호고且縱隊中에서砂塵을流過케호며隊伍의伸縮을容易히平均케호호도諸部隊間의一定호距離兵步兵工兵中隊後에八米와步兵大隊或騎兵中

隊後에 二十米外步兵聯隊或砲兵中隊後에 三十米外砲兵大隊後에 四十米外旅團後에 六十米外距離를 存意者나 但斷히 말고 此距離를 遵守하리니 廢絶하고 或短縮함은 다 許치아니는바니라

第八節 出發의 準備

凡行軍의 事를 規定하는 行軍命令이니 其出發을 準備함은 佐官이 此命令으로 基準함나 故로 이 時日을 爲하야 行軍命令을 下하는 境遇가 있지는 前日과 前夜에 發布함이 可하리라
行軍命令中에 攀登條項은 概左外如하리라

一 敵狀의 大要

二 我目的 前令敵의 後狀이 何스런가를 知得함

三 搜索騎兵의 關係件

四 前衛의 出發時刻과 地點此를 要하면 前哨收束의 件進路나 特히 搜索함 地點의 方向이 나라

五 側衛의 關係件

六 本隊集合의 處所并 其時刻又 出發時刻或本隊前衛의 跟隨距離

七 大行李의 集合地外 出發時刻或本隊의 距離
八 輜重梯隊의 出發時刻及 出發地

九行陣間指揮官の所在

其他此를要호면軍隊區分을舉示함이可하니라
步兵大隊及諸兵種으로成호小枝隊에在호야는當
夜翌日의係호要項만命令호고其他는翌日集合
호後口達호호함이多호니玆特別任務에服호部
隊長에는前夜부터其任務를示호야地圖에就호
야미의研究호裕餘를與호미可호다호하니라
如此호小枝隊에一般豫令호要項이대개左外如
호니라

一二項以上文命令項에 準宮

三前哨撤收關文件

四 本隊集合以處所及時刻

五
大
行
李
叫
關
立
件

其他軍隊區分及騎兵開立等事。則預令

第九節 出發時刻

出發時刻은 縱隊의 大小와 軍隊 勞苦及 寒暑等을 酌
量하고 且 兎上 戰術上을 顧慮하고 定호는 然히
나 現時 形勢에 無妨호는 時에 最初 出發호는 兵이라 호는
拂曉以前에 出發호는 功이 不可호는 且 乘馬 兵은 馬
를 淨拭호는 鉢飲호는 上을 用호는 是에 起床後 二時 開호는

要함으로 때별노拂曉後(아모조부一時後)에 出發
케 함이 可함니 但炎暑의 候外休養生의 顧慮로 브
터 日中에 行軍을 避丑利함는 等時는 此限에 의지
하이 함니 라

佐行軍中은 身體의 疲勞가 甚함으로 때 回復 睡眠
眠(通常八時間)은 寢員의 人馬에 반드시 欠함이 不可
함者니 라

然이나 又 遙利 出發함는 例로 夜에 入함이 아
니 면 著宿함이 能치 吳함은 境遇에 是 其警戒外
投宿及食餌分排에 不便함이 甚多함지라 故로 出

發은 過早함는 지 過遲함는 不宜함니 熟地로
브터 拂曉前에 出發함면 日沒後 生地에 到着함이
優함나 함니 라

第十節 集合

戰鬪行軍 出發例로 軍隊를 集合함는 方法은 戰術
上의 顧慮外 其部隊의 大小로 因함는 不一함니 佐
軍隊가 다 一地에 集合함는 例는 高級指揮官이 諸
隊를 掌握함는 일을 得함고 臨機 行進 方向을 自由
케 選擇함고 又 現地에 射躬으로 行軍 序列을 命함
는 利가 있스나 大호部隊에 射는 其兵으로 行軍 序

列에就고는例로써오리集合場에停止케고나徒
勞를免치못고는故로大호部隊가如此호集合法
을用함은그장敵의附近接近境遇에서만고는니
라

진실노時의形勢無妨호는一部團隊다다集合場
을定호야배行軍序列의適應케함이可호니假令
師團에在호야는前衛를一團이되호本隊先頭의
聯隊及砲兵호트배一團이되호殘餘의團隊호트배
又一團이되호各一個에集合場을定호호호니이
一團을일호호호호部隊에서는行軍縱隊가되호路

上에集合함도無妨호는라但此時에호별호行李
의集合은軍隊의運動을阻碍케호호호호호호호호
조특各部隊宿營地를去호後에함이可호호退却
行에在호야는行李는本隊의發程前數時에서集
合出發케함이可호호호

駐軍警戒隊에屬호大行李는은列該司令官호호
示定케호는集合場에集合호然後本隊司令官호
호命令호位置에서本隊大行李에集合함이可호호
호

地圖에據호야大集合場의位置를判然指示함이

能치吳立時止미現地를標示함을要하니라

第一章 各兵種의行軍隊形

第一節 通側

行軍에서는兵의疲勞를省하느니라列伍의疎開를要하느니라縱隊의長徑를顧慮치아함이不可하느니라長徑이愈大호면는戰鬪展開에要호時間도 伍씩과大함이니라

行軍隊形으로道路幅에準제호고又其長徑으로戰鬪展開의時間을費함이不少호을顧慮하야徒步兵은四列面側이호騎兵은二伍四伍縱隊호砲

兵은砲車縱隊호行軍의隊形을일어나니라凡一縱隊其先頭에展開호야終호時間을計算호는되는데其一分時의行程假令步兵이在호야五十分時의四吉米을行進호게호는되는데一分時間의行程은十米호르며縱隊의長徑假令小行李를從치아니호는步兵一大隊의四列面縱隊의長徑을除호면此를得호고步兵大隊에서는以下專胡要務令에基호兵員이充足호諸隊의行軍長徑을示호列호하느니라

第一條 步兵의行軍隊形

步兵四列의 側面行進에 서는 其長徑이 左外如右
나라

中隊約九十米

大隊約四百米

小行李約百米 合計約五百米

鼓手喇叭手位置는 大隊長이 定호나 其中一人은 大
隊或獨立中隊의 後尾에 行進케 호고 所要의 號音
을 吹奏호나 引任호나 나라

行軍中은 下士外 兵伍의 兵卒과 看護手等도 皆四
人으로 此一列을 作호이 可호나 나라

中隊長은 行軍中 其中中隊를 監察호는 引適호 位置
에 在호이 可호나 小隊長은 其小隊를 從호나 其位
置를 定호치 아 이 호고 一將校은 中隊의 後尾에 在호
나 行進호이 可호나 平步로 此行進호는 例는 小隊
長下士等은 다 操典에 定호 位置를 占호고 中隊長
은 其先頭에 在호이 可호나 나라

만일 步兵聯隊의 長徑을 知호되 호면 其諸大隊의
長徑에 加호에 各大隊間의 定距離(三十米)로 聯隊長
及副官行列의 長(約十米)로 此호이 可호나 나라
道路幅에 制케 호나 行軍縱隊의 正面을 三列과 二

列耳或一列外橫過호는時止長徑의隨호는展開호호는遲緩호는不利가잇는니此에反호는廣濶호는道路或原野를行進호는當호는其正面을廣濶호는得호는二長徑을減호는展開가愈速호는利가잇는니라

第二條 騎兵의行軍隊形

騎兵의行軍隊形은二伍或四伍의縱隊라二伍縱隊는行進에便호는其長徑이大호는不利가잇는니此를反호는四伍縱隊는長徑이大호는利가잇는니能호는此隊形을取호는道路는極稀호는且騎

兵은必要호는隊호는速호는展開호는步兵에게又利其長徑에注意호는要호는故호는二伍縱隊호는州行軍普通의隊形이되호는中隊의長徑은百九十米이니라

中隊長及小隊長은其中隊外小隊를監호는便利호는位置에在호는又步兵과同一의目的으로鼓手喇叭手各一名이中隊後尾에行進호는可호는

第三條 砲兵의行軍隊形

砲車縱隊에서野砲兵中隊의長徑이左와如호는

斗

戰砲隊

〔砲車隊約百五十米〕 計約二百八十米

第二段列

約百六十米 合計約四百十米

同山砲兵中隊의 長徑의 左外如스니다

戰砲兵

〔砲車隊約百四十米〕 計約二百八十米

第二段列

合計約四百十米

中隊長은 반스니定位를在을要치안스小隊長
互에休息을令이잇스其小隊中適宜位置
에在을外行進스고砲車長及其他諸長은車馬의
前後에在을外行進을得스스니다

中隊長은砲手互砲前或砲側에行進스고又警戒
上無妨스咀中隊先頭에進을外行進케을得스
스니中隊의後尾에는步兵과同一의目的스고
敲手喇叭手各一名을置을可스니다

山野兩砲兵의別이없고砲兵大隊의長徑은二中
隊의長徑에中隊間定距離三十米及大隊部員의
長을加스는者外同스니다

第四條

步兵과小架橋縱列及衛生隊의行軍隊形

步兵○步兵과同司四列側面으로行軍隊形이되
고中隊의長徑은約百六十米니다

小架橋縱列 徒歩兵은四列의오東馬主者는一列
或二列의오駄馬는一列로行進하나其長徑
은約三百三十米니라

衛生隊○衛生隊長及擔架中隊長은一列의오徒歩
兵은四列의오醫官은二列의오駄馬는一列로
行進하나其長徑은約二百五十米니라

第二節 行軍序列

軍隊區分은모든行軍團體를區分하고行軍序列은
모든各部隊의行進次序를規定하나니라
行軍序列의第一要義는開戰時際하야軍隊를使

用하는次序에適合케하는데在하고其序列은警
戒隊에在하야는其司令官의오本隊에在하야는
縱隊의司令官의規定하나니라
騎兵은搜索에必須의兵種임으로地形及時機
의許限은아모조특其大部를敵의對하야最近方
位에用함이可하나니라

砲兵은戰鬪開始必須의兵種임으로敵과衝突
의虞가있는時는힘써敵의接近方位에在하
야行進케함이可하나小架橋隊의前進行에在
縱隊의後尾에置하야도無妨하나是는戰鬪開始

에當古야前方에進出古는지費古는時間의古
 니라但砲兵은防禦力이弱合으로바반드시步兵
 若干部隊後方에位置케古야直接의敵襲을預防
 케古야砲兵何處에步兵의團結을破치못할일드
 佐立顧慮古이可古니라

本隊先頭에在古步兵兵은前衛의步兵과同單位의
 部隊됨을要古々니라

前進行에在古야는工兵小架橋縱列으로는通常
 前衛에屬古야通路의開達及修理에任古々니라
 時에形勢是由古야行軍序列中의後者前者를超

古야進出古는지際古야는前者는後者에對し通
 路를得케古는義務가있느니라

大小行李를分割할境邊에在古야는既述古고치
 小行李는所屬隊에隨從古고大行李는通常一縱
 隊에者를集古야一團이되其縱隊의後方若干
 距離退却行의在古야는縱隊의前方遠大인距離
 에在古야後進케古々니라

大行李의行進順序는戰鬪序列에從古야함州變
 更치아呂을要古々이는는命令의繁雜을避古고
 且各人으로서常에其位置及順序를諸記케古야

發達之際混雜이 없게 하느니라

砲兵에 第一段列은 野砲中隊直後에 跟隨하고 第二段列은 大隊과 다集하고 各編合部隊 前衛又本隊等의 最後尾에 從列하느니라 但特別形勢에 際하야는 第二段列의 一部又州 第一段列의 增加하느니라

小架橋縱列을 前衛에 附하고 又大架橋縱列은 本隊에 附함이 可함은 縱隊의 司令官이 定하느니라 但은 前이 須要함는 時에는 小架橋縱列은 大行李에 合하고 或兩者를 다 輜重諸隊에 合列하느니라

衛生隊는 所要의 應하고 或全部本隊直後에 進하고 或其半部를 前衛에 附하느니라

輜重과 彈藥과 糧食과 大架橋縱列과 野戰病院及馬廠은 相合하고 又通常二梯隊가 되느니라 第一梯隊는 大行李로 드터하고 第二梯隊는 第一梯隊로 드터適當距離를 取하고 跟隨하느니라 時宜로 因하고 所要하든 掩護兵을 附하느니라

團隊長은 前進時에는 其部下團隊의 先頭退却의 時止其後尾에 在함을 通則이라 하느니라

以上記하바는 前進行例에 序列을 規定하大要

此退却行에 在 言 是 此序列을 그 뒤로 背面에 向
 言 者에 同 言 是 但退却行時에 是 大行李并輜重梯
 隊外本隊外距離는 前進에 外 모 答은 大 則 言 且 又
 側敵行時에 是 大行李并輜重梯隊는 敵에 對 遠 空
 側方에 並進 則 言을 異 外 言 是 是 言
 行進序列은 諸般의 時機에 適應 言이 可 言 一定 不
 變 言 是 其 標準을 示 言 是 何 言 是 附圖 是
 此 言 是 蓋 此序列을 推究 言 時 是 師團 以下 單
 位의 行軍序列에 適用 言 是 佐 言 非 難 言 是 可 言
 是 言

第四章 行軍의 種類

行軍은 行進 方向을 從 言 是 三 種의 分 言 是 前進 行 及
 退却 行 及 側敵 行 是 是 言 是 二 辭 釋은 字 義 是 足 言 且
 又 其 行程 及 速度 及 地勢 及 方法에 異 言 言 是 從 言 是 言
 是 言 是 六 種의 分 言 是 言 是 行軍 及 意 行軍 及 強 行軍 及 夜
 行軍 及 山地 行軍 及 輸送 行軍 是 是 言 是 言
 常 行軍 是 此 行軍 行程은 軍 隊의 大小 外 天候의 適 否
 外 道路의 善惡에 因 言 是 約 五 十 里 乃 至 七 十 里 半
 是 且 卽 一 日의 行程의 是 且 通 常 第 四 日 上 卽 休 憩
 日에 充 言 是 慰 勞 言 且 武 器 外 裝 具 及 被 服을 整

理는 예표이니라

急行軍 ○此行軍은常行軍에比하야休憩日이없고
又其一日行程은增大하야概三十乃至四十五吉
米에及함을異하야하나故로常行軍又호連日永
續하야行는時는體力의減耗에堪치 못하기에
至하야니라

強行軍 ○此行軍은或距離로는極히急速이行進하
는時用하는거시니一日의行程을定함이能치 못
하나晝夜急行하야目的의點에到着함이可하나此
行軍은疲勞가最甚함으로때假令戰場까지有一

二日行程이遠隔한軍隊가戰鬪에參與코저하든
지又或地點까지一時急速의退却을要함이境
遇에만하고잇는境遇에든지兵隊의行軍力이能
히堪함을證치 못하면호로其力을減失함을忘함이
不可하니라

此行軍에서는數回休憩를行하야此間喫食飼食
又時宜에依하야睡眠하게하야니라

急行軍及強行軍에關한注意 ○小部隊로行李輜重
等을具치아는者는行進이口장容易하나故로急
強行軍에노힘때縱隊를數部에區分하야各部隊

間에 大距離를 存하고 行李 輜重은 必히 必
 者만 隨行하고 且 이를 能치 못하면 各兵의 背
 囊은 別로 運送하고 步兵一中隊의 背囊을 運送하
 는 되는 駝馬가 約三十頭를 要하고 且 食量을 增加하
 이 可하니 다

夜行軍(○) 此行軍은 晝夜의 炎熱을 避하는 目的으로
 此는 外는 다 戰術上의 要求에 起因하니 다
 夜行軍은 體力 恢復에 必要한 睡眠을 缺하고 夜間
 은 行進이 困難 暗黒과 睡魔 伺見에 心目의 誤가 生
 고 別로 路面의 一小凹凸이라 容易히 蹉跌하고

踟躕하고 且 疲勞가 甚하야 特히 隊伍의 紊亂
 과 行進의 滯外距離 延遲等 同見에 縱隊는 時々
 로 斷續不整하고 後隊不繼하고 又 失路하기 易호
 害가 生하니 此害를 預防하는 일에 注意할 用意하
 이 深하야 到底 白日行軍은 可호는 得지 못하니 다

故로 夜行軍은 亦도 注意할 用意하더니 其可用할
 時는 各部隊長은 特히 注意周到치 外임이 不可하
 고 戰術上의 要需에 由하야 行營境邊가 概左外如
 하니 다

一、欺餘外軍應外敵外調接台服五月高中價勢見敵外攻擊意避丑列台亡時

二拂曉에敵을攻擊코되야고戰鬪參與되야
夜間某距離를行進할時若半夜에夜行軍을
境遇에在야는을이拂曉에近호半夜를用호이
利神氣爽快을覺호利호하야

山地行軍()山地는道路가狹小하고且險峻함이
此極히狹長히行軍隊形을取치아힘을得지 못하
니(路幅一米五十以下)는時는人馬가다一列
이아니면行進함이能치 못함又野砲兵은은천이

難用호일의잇스니各人馬及各部隊의行進速度
齊一됨을得지 못함으로其互相의距離는스스
로大키아음을得지 못함이니此等의理由가잇슴
으로此山地의斜縱長은平地에斜보답고廣增大
하고故라大縱隊를用함이困難함이다

輸送行軍○鐵道外船舶或車輛으로 州軍을 行함을
輸送行軍이라 함이니

車輜輸送步兵兵械工兵外一部互騎兵外同行刊
宮天立特殊以境遇州州用宮笠以以此法州據宮
一一中隊是輸送宮至所二頭曳外馬車二十五輛

을要하면歐洲에서宗論을바다故로我國에서도
難한거시쉽스리라

鐵道及船舶의輸送은我國에於屢히用호者々然호이此種의行軍은他의行軍과는크게異호호의是則章造分호야說述호호다

第五章 鐵道輸送

附錄二 篇 交通路綫
是 卷 著 者 以 可 口

輓近 鉄道は一國武力の要素라 佐鉄道の利用以
來로 戰爭이 一變否냐 運動이 迅速否를 示로 戰爭
의 勢力이 強盛否기 에 至否냐 라

凡鐵道亡有事日在鄉兵預備後備及歸休兵等外

召集를速히 하고 勳章軍旅를速히 連絡 聚中地
에致하고 其搬送에要한 時間은 鐵道線路가愈多
함을 尤차 더우 短小함이 本邦의 鐵道는 漸次增
加함이 라 且 軌道는 概單線으로 하여 且 狹軌外
車輛의 數는 目下 充分이 되지 吳하고 機關車에 微
力과 斜坡에 急用과 曲度の 至小等인 故로 州軍
事上의 外卒 完全 區域에 達케 하지 라 且 行程 過近
이 되지 吳하는 時는 此를 因하고야 利가 有다 하고 此
로 因호 時는 人馬의 疲勞 減耗함이 업고 兵器 被服
等의 損害가 업고 且 速히 目的地에 到着함을 得호

나但鐵道에因하야는人馬로徒步行軍의勞動에習俗이能치吳하는不利가잇슴은免치吳하는바니라

其外鐵道는出征軍에人馬材料及糧食等을進送하고又出征軍으로더傷者外病者外俘虜並戰利等을還送하기에便速하니故로鐵道는兵站線이主要되니宗로用兵의命脉이니라

徒步行은他兵種에比하면容積을要함이最少함이안나타乘車下車도容積을要하되迅速하나他兵種에在하야는乘下함이少特이階梯를要하

고且크게時間을要하는故로遠大치아는距離에서鐵道輸送과徒步行軍을混用할時는徒步行은乘車可하되他兵種을步行或騎行可함이可하나

戰鬪直接의目的으로戰場又其附近의在空鐵道를利用함은廣互한陣地(河京山脉)及海岸의防禦或要塞戰外援兵의送達又迅速의退却等稀少한境遇에서만하나

此外는다要務令第十二條第一章에讓하나

第六章 船隻輸送

我國은三面海를繞호니海外出師호면만호시船隻을資호터이호又西南海에는島嶼가多호且遠近이不一호니故로船隻輸送의事호專心研究호지니라

軍隊의海運은或海軍의船隻으로由호호或徵發호는船隻에由호호或雇用호는船隻에由호호야行호는者이敵艦의處에서地에航行호는되는特이軍艦으로州設衛호는니라

上陸에當호야最初要用호는材料호는軍後에搭載호이可호호又搭載호際에軍隊及物品의附屬物

件은同時로搭載호는되注意호이可호니假令騎兵에는반다시鞍을添호호挽馬에는挽具를附호호其他諸物에는其附屬品을添호호는호是니라同種品은數艘의分호호호이可호니是는難般其他事變의際호야同種品호는失호이업게호는호是이니라

此外는要務令第十二篇에讓호호以下호는敵兵有無의地에서上陸에方法를概示호호이니라

第一節 敵이업는地에서上陸

各兵種上陸의順序는嗣後全圖에從호야本艦과兵

棧橋에接着宮을得宮은上陸하기에至便하니라
各隊長은部下에문쳐上陸하야其隊의整頓宮地
를選定하리니하어물에는後續部隊의整頓에耶
要의餘地를存宮尺치海岸으로브러達隔호일에
注意宮이可하리라

砲兵의上陸砲軍外前車及其馬匹을先제하야次
로彈藥車及預備品車에及宮이可하리라

上陸에際하야馬匹을載호端艇이缺호時는馬
匹의特性을利用하야游泳케하나그러나此法은
馬匹衛生에害가있음으로州不得已호時만可하

니라

上陸에要호時間은本艇으로브러海岸에至호距
離外天候의關係外端艇의多少外岸邊의景況等
에關하리라

上陸에對호顧慮호要件은海水의淺과海岸의景
況과潮流外風雨等의是하리라大運送艇에航行에
는淺의三尋을要하호其錨定에는少하야호淺의
四尋을要하호投錨點은아모조尋海岸에接近宮
을可하호니라

上陸海岸은아모조尋延長하야碇泊艇은各自隨

意則該回함을要함이니 이러므로船長이三倍外
間隔을存치아함을得지 못함이니 만일海岸의景
況에因함이運送船을二乃至三段에破泊케하지
아함을得지 못함은各段의混雜을避함이에適
當宜距離를存함을要함이니라

扁底船及艇船은水深이五十乃至六十珊知米의
곳까지進行함을得고棧橋의工事는船夫에게
任하고工兵으로補助함을便宜라함이니라

第二節 敵의는地에의上陸(敵前上陸)

此上陸은困難함이敵의隔阻는地點을選함이上陸

함은第一要義나凡上陸할地點은海岸上으로
限이되고其地點은敵兵이미리守備함을엇지하
리오故로敵地에上陸하는時는敵의意表에출치
하이면大害를被할안나리오此에上陸에志를
能히達치 못함이然이나敵意表에出하는되는
濃霧只直天候를利用함든지其他白日에海岸某
點에船隻를集合함이敵兵牽制하고미리選定한
上陸處에向함이夜間가단히進航함이나모조
로神速히衆多兵을上陸케함을要함이만일敵의
艦隊가有備함이유미航路를扼함이例는은列強

折치아임이不可하니假令彼의艦隊의備가無다
 ㅎ야도彼는海岸望樓外監視哨及電信等에藉
 ㅎ我舉를早覺을고우디보담은列上陸點에其兵
 力을集合을노일이이수니此則敵前上陸를困難
 타는所이니라

上陸을強行을는境遇에는護衛艦艇은猛烈호砲
 擊으로배我兵의上陸을阻礙을고且援助치아
 ㅎ니不可하니라

此砲擊의力에由을야諸隊가速히艇艇을乘을고
 上陸을하니이때는陸戰隊海軍兵은列上陸을

야要地를占領을고其其掩護에由을야陸軍兵
 은다시其掩護隊를出을야陸戰隊을代을야本隊
 의上陸을掩護을하니故로上陸海岸에는適當
 호掩護陣地의布置을妥當嗣後動作은一般의戰法
 에則을는者니라

上陸地는敵의有無에關치안고은것은一時의上
 陸의用을止을하나其上陸軍의根據地가될만
 호일의잇스나其如何는專히戰畧上에關함으로
 此에贅치아는所나

第七篇 駐軍(要務全第六回을參照함이可함)

第一章 要領

野戰에 對軍隊의 宿營法은 大別하여 三種이니 曰舍

營 曰露營 曰村落露營이니라

舍營은 戰鬪의 準備容易하지 못하여 風雨를 障蔽
하지 且 需用品을 補充 調達하고 裝具를 被服 修理하
는 事 便함이 州休養上으로 言하면 舍營의 極히
惡한 者도 露營의 極히 優善한 者인 故로 진실로 戰
術上에 妨이 無하면 舍營도 宿營의 最良한 者이라
舍營은 宿營時間의 長短를 從하여 다시 分하여

軍舍營 概二夜例로 하여 是意로 駐留舍營 數日에
宜한 者이라 略하여 略

露營은 온전히 戰術上에 要求는 應함이 布置함이
可하고 又 戰鬪準備하고 裝確索하여 軍隊는 風雨
에 暴露함으로 卽休養上에 在하여 是甚한 者이니
引此 宿營法을 用하는 時는 軍隊를 疲勞하여 疾病
을 醸하고 甚히 減弱하기 에 主하는 故로 敵과 觸接
하여 戰術上의 顧慮는 要한 時 戒僻地로 舍營을 村
落에 之하고 다른 方法이 없는 時만 此를 爲함이 可
함이라

分營이三種이되니廣舍營과狹舍營及警急舍營
이是니라

廣舍營○조금도敵과觸接을虞가업는時는人馬를
休養을供給에顧慮함이로써緊要다함나니이
런곳에軍隊이아모조廣한地面에서寬裕케舍
營을고敵과遠隔할時의駐營舍營에서는별노그
러함나如此한舍營을總稱함이廣舍營이라함
니라

狹舍營○敵과近히觸接할時에서는戰術上의顧慮
를主함고狹小의地에衆多한兵을集結함이此戰

鬪準備의完全함을欲고저함나然則이를補
함야狹舍營이라謂함나니라

警急舍營○此舍營은寂寂한戰鬪準備을保持할時
에用함는者나거의狹舍營에類似함나호其異
한바는小隊外中隊等의建制部隊를適當한大
兵學校外社寺外農廬等에集結함고諸兵은服裝
을整함고且歩兵은銃과背囊을身邊에置함고騎
兵은鞍을卸치안함砲兵은鞍具를脫치안함各家
屋에는燈火을點함야哨兵을備함나니라
一村洛中警急舍營에適當한屋舍가甚히不敷함

로써此舍營만用호는嚴禁함이狹舍營과混用함이常이다然則緊急舍營의兵은狹舍營의安全을保護하기어호는나니라

第二節 宿營命令

凡宿營에事를規定함은宿營命令으로써基準함이니此命令은아모조奉行軍中에下附호야宿營準備을일우는餘裕를得게함고各隊休整에轉호際에無蓋에駐立호는일이無게함을要함나니라
此命令에載호는條項이러하외如호는나니라
一敵狀

二目的의大要

此를要호는時한

三警戒隊(搜索騎兵과前衛或前哨外側衛等)이要호면項을分호의地位外任務、警戒호地區外特이搜索호方向或地點及點領호地)

四本隊의宿營法及宿營地外緊急大集合場과舍營又露營司令官의任命과施호工事等

五給養의種類、官憲徵發給養入倉庫及縱列給養의在호야는兼호야는糧秣을分排호地點及時刻를示호고部隊徵發給養에호는徵發區域을示호)

附錄第一篇給養의條를參看함이可호)

六輜重梯隊의宿营地

七指揮官의所在地及翌日에係立命令下附의時刻

以上命令外輜重梯隊에는特別命令을下하느니라

第三節 舍營의勤務員

此이舍營의勤務員이아梯하느者가左外如하느니라

舍營司令官

舍營日直將校

部隊日直將校下士

巡察將校

風紀衛兵

外衛兵

舍營司令官○高級指揮官으로부터特이舍營司令官을命치아니는時는各舍營地에서高級古參將校는兵舍營司令官됨이可하느니라

將官及聯隊長은次級者로써舍營司令官되는權이잇느니라

舍營司令官은各兵種의舍營을分排하되其他内外警戒勤務의方法及戰備의程度를規定하느니라

任하느니라

舍營日直將校○各舍營地에日直將校一名(通常正尉外大部隊에在하야는領官)을置고舍營日直將校는各舍營司令官의刊報告고舍營内外의警戒勤務에지指示를受고이可하니此將校는風紀衛兵及外衛兵의長官으로哨兵을排布하야守則을與고且晝夜監視責에任하느니라

部隊日直將校下士○步騎外砲斗工兵大隊는各將校(副參尉)一名을各獨立中隊或其一部隊는各下士一名으로此部隊日直이되느니라

此日直將校下士는此任命을受호면各舍營日直將校의刊報告고舍營内의警戒勤務에就하야必要에命令을受고且其舍營區内의靜肅及風紀에注意고且其隊長及舍營司令官의命令을察施하느니라

巡察將校○巡察將校는時宜에因하야指定호部隊互旦더出直者나其人負는現時의要需에從하야不一하니其任務는内外警戒勤務上의巡視監督하야舍營日直將校를補佐하는用在하느니라

注意○一舍營地에兵員이寡少호으로別호一部隊

駐宿營時는 별호舍營의勤務員을宣知한五軍隊가平常의內務의兼行케하느니라

風紀衛兵○風紀衛兵의任務는各舍營地에靜肅及風紀를維持하느니라在하느니라其人員은哨所數(軍旗威隊長砲廠及行李等)에應하야定하느니라一名에擊喇叭手를屬하느니라

各兵種이混同하야一地에舍營할時 하나一의風紀衛兵을置하느니라其人員은步兵으로배主하야他兵種으로보더各自의哨兵을用하야出立卅人員을加하느니라乘馬兵에在하야도此勤務에服하느니라

徒步하느니라又風紀衛兵은各自에設置하느니라行軍舍營의在하야는風紀衛兵의人員을아모조로寡少케하느니라特別이風紀上의에顧慮를要하야哨兵을置하느니라位置가多하느니라或居民의舉動이疑以는例는風紀衛兵의人員을強大케하느니라又所要가잇스면其個數를增加함이可하느니라

警戒에際하야別命이업스면風紀衛兵은軍隊의遺棄材料를監視하느니라或突然이出發하느時는其材料運搬의準備가整하後卅로五軍隊에跟隨함이可하느니라(此項은露營에三適應함)

外衛兵○外衛兵은舍營地の直接掩護에仕하는者
 니假令前哨의掩護가있셔도此를設置함이緊要
 하니此衛兵의仕하는바가左外如하니라
 一敵의急襲을警戒하고且抵抗하는事
 二前哨及此隣의舍營地와連絡을保持하는事
 三許可없이舍營地外의出하는者를制止하고又
 疑竇人の舍營地内에入함을制止하는事
 此衛兵은通常舍營地의出口나地形等의顧慮로
 브터하고或稍速히排置함이있으니其人員은舍
 營地危殆의大小로應하고威諸方面의出口又邊

線의諸點을守備함이可하고호戰에對호方面
 의諸出口外此方面中主要한出口만守備하는디
 應함이不一하니라
 外衛兵은小哨의要領에從하야口장首安地點
 의近傍에占位하고前示의諸點에下士哨外複哨
 를派遣하고又호下士哨外複哨를其近傍에以
 는部隊로브터出刊함으로써足하하하니라
 諸兵混同의舍營에在하야도外衛兵은徒步으로
 브터出하야斥候又通信等에騎兵若干名의附
 加함이있는니누구든지前哨勤務의規則을從함

이可함으로만 일騎兵으로衛兵에充하는例는
通常騎乘을되트服務하느니라

警報의除하야는다시命令을下하거지其位置
를固守하고又殊死하야敵을擊退함을要하느니
라(此項은露營의通應호)

注意○小部隊에在하야는風紀衛兵으로外衛兵을
兼하는事를得고又外衛兵의力이能히敵龍을
支치못하느이以는時는步兵의一部隊(中隊或小隊)
로警急舍營과露營을일위배特이戰備를保持케
하야外衛兵의後援이됨을可하느니라

久駐할舍營에서는諸勤務를衛戍地에在호지
規定하느니라

第四節 舍營의設備

舍營의設備는通常設營隊의任호바니其人員은各
隊各部로되터出호바有階者와所要의兵員으로
成호者나團隊의大小에應하야不一하느니라

舍營은時의形勢의許限하야미리準備함이可하
니其準備의到否는크게休養의便否를致하느者
라是以호야成함을限하야設營隊를先發케하
야必要에境遇에는步兵隊五伍호乘馬將校를先

發케 하고 地方吏와 協議하여 準備에 從事케 함을
可타 함이니라

以上은 旅次行軍과 敵에 逢호境遇에 適用함이니
라

敵에게 近接함든지 或居民의 敵意잇는處는 設營
隊는 前衛의 後方에 行進하여 其掩護를 受치아임
을 得지 못함이니 凡如此境遇其他 時間에 餘裕
업고 미리 其準備을 하지 못함은 境遇에서 其處
置를 簡畧히 함을 要함이니 此時에 처는 通常地圖
에 就함야 地區(街衢河川等)에 從함야 速히 各隊에

舍營區를 指定하고 各隊는 다시 小街衢外家屋에
從함야 各小部隊에 分排함이니 道路街衢等은
判然이 一의 舍營區에 含有함야 二區에 分屬케
함을 말지니라

舍營區를 定함는 勿는 無益인 軍隊의 建制를 分割
치아 임을 要함이니 又 敵과 近接호時는 舍營全體
의 形狀은 戰鬪排備에 應함은 其橫方向보다 縱에
狹히 排置함이 可함니 橫의 廣히 排置함는 例는 集
合에 當함야 側面行進을 爲치아 임이 不可호 不利
가 잇는니 故로 舍營區는 아모 正方形에 近호

으로 州最宜타 ㅎ ㅎ 니라

敵軍과 遠隔호 卬는 軍隊의 集團은 主要치 아니 故
로 戰時行軍에 드 舍營의 縱深으로 行軍長徑에 適
應케 호고 軍隊區分과 行軍序列에 從호야 各隊에
舍營을 配賦호야 望靑行軍을 始호는 卬는 無益
케 彼此來往호야 簡易히 行軍縱隊를 編組호
스치 호을 最宜타 호 ㅎ 니 此方法으로 卬호면 諸隊
는 家屋에 宿營호을 得호야 行進路外에 散宿호는
不利를 免호 ㅎ 니라

各家屋에 諸兵을 排備호는 此例는 호 其戰況에 關

호니 其嚴히 戰備를 要치 아니 卬時 廣舍營는 步兵
의 宿舍호 村落中에 만히 馬匹을 有호兵種을 排備
호야 厩舍를 十分利用호을 便利타 호 ㅎ 니 村落
에 처는 平均一戶에 三人三馬를 算호고 市町에 처
는 一戶平均의 人員을 增호고 馬數을 減호 此에 反
호야 嚴히 戰備를 要호時 狹舍營과 警急舍營과 又
後에 揭直村落露營는 強大호步兵의 部隊를 最前
線의 村落에 置호고 騎兵砲兵은 村落의 後部에 처
危殆하 少호마에 置치아 임이 不可호니 其搜索或
警戒의 勤務에 用치아니 卬騎兵部隊는 步兵의 側

後立砲兵은 아모조류本道の傍側에列敷方에反
 立村落의部分에舍營케함이可하니如何境遇
 에든지砲兵은獨立하야舍營케함이업고步兵과
 함이在케하든지又其掩護를受케함을原則이라
 하느니라

各司令部는只敵襲를受하야立場處에舍營함이
 不可하니모든命令의下達報告의受領又其進退
 에多時를費치아니는예로아모조류舍營地의中
 央으로道路의集合點에占位함을通則이라하
 니各司令部是一處又近處에置得함이는最便호

且常川電信及道路交通의便를顧慮함이可하
 又各司令部及舍營司令官의位置는晝間은旗又
 束藁오夜間은燈火를用하야識認에便케함이可
 하느니라

第五節 警急集合場

警急集合場은軍隊警報에際하야神速히其兵을整
 頓하느地를謂함이라

各部隊(步外騎外工兵大隊外獨立部隊)는各々其
 警急集合場를有하니만일大隊가分하야兩村에
 舍營할時又하면各村의整列場를定하야諸兵이

은저此處에서其兵을整頓하고後의大隊에警急
集合場에赴함을便하게 하니 다步外工兵隊의警
急集合場은通常舍營地の前面과其側方に定하
고騎兵砲兵의警急集合場은後方に定함이便하
나但砲兵은砲廠、通常後方に在함의所在은充
함을要하니 다蓋如此하면騎兵과砲兵은戰備를
整함이最速한步兵의掩護를受함을得함

此外警急集合場을撰定하는되는特히其集合場
에至할時各小部隊의彼此에서妨礙함이없고且
더거其隊의占領을預定位置外警急大集合場(後

에示함)에速히到하는일에注意하리니이때各
隊에其取路道路를示하여置함이肝要하니라
時宜로由야一地又諸地에舍營하는全兵力을
一地點에集合함때문에又聯隊과旅團과師團等
에集合하는때문에警急集合場에集하고各部隊
는別命을待치안코其警急大集合場에赴케하
나

第六節 警急報

警急報의時는高級古參將校或舍營司令官은非常号
音을吹奏케하고만일突然의敵襲에際하여躊躇

宮은 大空 危害의 陷宮에 是 各衛兵 及 將校 是 身으로 其責에 任하야 速히 此號音을 吹奏케 하느義務를 有하니 又一地區마다 速히 整備하느 是 各隊 號音을 用치안 且 靜密의 警報를 行宮이 以나니 是

警報의 是 時는 步外 工兵의 各部隊는 武裝을 整完하고 速히 其警急 集合場에 集合하느 是 各隊가 速히 미리 指示케 하느 地點을 守備하느 騎兵도 別命이 업스면 武裝乘馬하야 其警急 集合場에 集合하느 又 砲兵은 區合에 從하야 速히 其砲廠과

廠에 集하야 繫駕 或 駄戰하야 武裝을 整備하느 是

行李等은 警報의 是 時에 舍營司令官으로 부터 發하느 特別의 規定에 從하느 是

敵兵이 急히 舍營地內에 侵襲하야 警急 集合場에 到宮이 能치 못하 部隊又 兵員은 各自 現在의 處에서 是 協力하야 防禦宮이 可하느 是

第三章 露營

附錄 露營地 指定 規則

第一節 露營의 設備

凡 露營地를 撰하느 是 其兵員과 一地의 規定케 하

는箔束의寡少에從하야地形에適應刊호는便을
得호이蓋大言者타此에反하야同一露營地에集
合호兵의衆多호에隨하야地形에適應刊호顧慮
는더욱減少호거시라故로大兵이一地에露營호
境遇에서는各隊露營의境界를判然劃定하야強
히土地의適否外障蔽外風向等에顧慮호일이업
고露營의設備只又銃線과休宿地外牧事場과廁
園等의位置를設備刊하남이不可하니라(要務令
露營圖를參看호이可호)

凡戰鬪準備는만드시衆多의兵員을同一露營地

에集合호으므로此確實타호이不可하니蓋不意의
敵襲殊히暗夜에서을受호에當하야其隊를整頓
호는困難은兵員의衆多호를隨하야蓋甚호니라
故로大部隊는形勢의許限으로數部에區分하야
露營刊호를便하타호호니數部의區分호는뒤警
戒兵前衛等을除호外는다戰鬪序列에準호이可
호나但砲兵의獨立호야露營호는일은甚히危殆
호으므로此常에他兵과連合케호이可호니라

만일大部隊를一의露營地에集合호는土地에許
限하야十合間隔을存하야其最小限은步兵聯隊

中의各大隊間에十米오步兵騎隊間과砲兵中隊間或各兵種部隊間에二十米라며露營內의整肅及暗夜의辨識을容易케함이可하니만일地形上狹長한露營의設置를要하는例는厠園에顧慮함이十分의距離를存하고或側方의設置함이可하니라

露營準備五伍五宿營命令으로트며基準하느니라
나露營에在함야는舍營準備치煩雜치안丑
通常露營司令官이先行함야露營에要需를顧慮하고偵察撰定함으로트며足하느니만드시設營隊를

先發함을要치아이는니라

第二節 露營의勤務員

此에露營의勤務員이라稱하는者는左와如하니라

露營司令官

露營日直將校

部隊日直將校下士

巡察將校

露營司令官○各露營地에外高級古參의將校는只
露營司令官함이通則이니特이次級者에命함天
함은稀有한境界에나타

露營司令官은 口장 認識을 行易宜地에 宿營하야
 (高等司令部는 邊傍에 舍營함이 可함) 諸衛兵及傳
 令使等의 其位置를 知함기 便케 함이 可함나 此官
 은 露營外部의 警戒法과 又 所要에 從하야 露營의
 閉塞法 壕를 掘고 橋梁을 設고 無用의 道路를
 閉塞하느는等을 規定하고 各隊의 露營地를 排備하
 면 及 露營特別의 規定(飲水及 飲馬場을 處所 或時
 間에 役하야 各隊에 排備하느는等을 設하느니라
 露營司令官은 아도 조북일씩 兵卒을 體懸케 하고
 及 風雨의 障蔽를 與하느는 補助方法 掩蔽及 炊事에

用을 木材外 蒿外 薪等에 調達을 行하느는 紀律을
 誤치 말고 且 迅速함을 行하야 其責에 任하느는者
 니라

露營日直將校 ○露營司令官을 補佐하느는 例도 露
 營日直將校一名을 置고 大露營에 在하야는
 領官 其任務는 舍營日直將校에 對하야 說하느는者 外 同
 하니라

部隊日直將校下士 ○步騎外 砲外 工兵大隊도 但러
 副參尉一名 獨立中隊或 彈藥縱列과 輜車의 露營
 內에 在하느는者도 但러 下士一人으로 部隊日直이 되

고 其露營日直將校에 刊報告고 内外의 警戒勤
務의 關호야 須要호 命令을 受호야 我隊長에 刊申
告호고 隊長의 補助가 되여 其命令及 其他隊長의
規定호 事件을 案施호고 風紀衛兵을 配置호야 守
則을 與호고 且晝夜監視호는 責에 任케호고니라
巡察將校○巡察將校는 所要의 時에 單置호고 其任
務는 舍營에 者外 畧同호고니라

風紀衛兵○舍營에 처 畧同호 目的으로 州常에 設置
호고니 이 때 畧에 各陪隊 步外騎外 二兵大隊外 砲
兵中隊로 보터 其隊長의 命令으로 所要의 兵員을

派出호고니 其兵員은 所要의 哨兵數(軍旗外 隊長
及車輛等)에 從호야 不一호고니라

警戒報에 際호 處置는 舍營에 처 外 異호 畧이 업호고니라
外衛兵○外衛兵은 敵과 近接호야 特이 警戒을 嚴케
할 時에 設置호는 者니 時宜에 因호야 外方에 通호 道
路를 閉塞호고니 此衛兵은 舍營外 衛兵의 規則을
通用호 畧이 可호고니라

第三節 警戒報及出發

警戒報호는 卽步兵은 各自 速히 背囊을 負호고 又 銃
의 側에 至호 畧이 可호고니 但 命令이 아니면 銃을 解호

이不可하니라

騎兵에在하야는速히馬에鞍하고武裝을整하야
乘하고中隊는集合場에集함이可하니라

砲兵(第一第二隊列并)은鞍을裝하고背囊을負하고다
시命令이無하야드野砲兵에在하야는繫駕하고
山砲兵에在하야는駄載外繫駕함이可하니라
凡行李駄馬는裝具하야駄載의準備를일음이可
하니라

出發時刻은미리命令함이例니此境遇에서는出
發時刻前十五分에다火를滅하고衛兵散에게對

하야須要한警戒兵을除함은各其隊에復歸하야
軍隊는出發의準備를하느니라

第三章 村落露營

各兵種으로브터成호大部隊로村落露營을일으는
時는各隊를서로隣接호數村落에分排하느니라其
方法은舍營原則에從하느니라各隊에서何隊를
家屋內에宿케하고何隊를庭內外其附近의田地
或原野의露營케할지는其隊의便宜에任함이可
하나如何境遇遇에在하느니라街道에는決코露營
케함이不可하니라

凡村落内に宿營する處に其警戒方法及内部の勤務は舍營に準じ야規定す以近郊村落外に露營할部隊は露營に定む方法に従ふ可なり
村落露營は大兵集合に當るは時間家屋内に잇는部隊の舍營法に依り야多少の差が잇스
僅少の利が잇스나互に相半の害を免ぢ 못하
니故로露營司令官은 힘써此害を預防함에注意함이可なり
其害란 거스暗黒에際하야村落内に狹舍營을 일우나니軍隊의混亂과兵卒의擅히人民의物品을濫用함과水에困難함과其他凡大兵

의輻輳로브터生하는混雜等事가是니라
各兵種으로成立大部隊의混亂을生치안코村落露營을 일우고저하는디는軍隊의村落에入하기前宿營에必要된諸件을規定하는디在하
니故로其時の形勢가이를일우면露營司令官은各部隊의將校를率하고먼저宿營地에急行하야各隊로遲滯없이宿營에就함을圖리함이可하
니라

戰術學教程卷之三

目錄

第十一篇 戰闘

第一章 總論

第一節 戰闘の要義及目的

第二節 戰闘の勝敗

第二章 戰闘の攻守

第三章 攻撃の要領

第一節 攻撃点の擇定

第二節 攻撃の諸方法

第三節 攻撃兵の用法

第四章 攻撃排備及追撃

防禦の要領

第一節 防禦陣地の要件

第二節 待機陣地

第三節 防禦排備及退却

第四節 逆襲

第五章 戰闘の經過

第六章 戰闘指揮の要領

第十二篇 局地戰

第一章 總論

第二章 高地の戰闘

第三章 谷地の戰闘

第四章 森林及住民地の戰闘

第一節 森林の戰闘

第二節 住民地の戰闘

第五章 隘路의 戰鬪

第一節 總論

第二節 隘路의 攻守

第三節 山戰

第六章 河川의 戰鬪

第十三篇 特別動作

第一章 總論

第二章 奇襲

第一節 通義

第二節 掩擊

第三節 伏兵

第三章 背後交通路의 掩護及破壞

第四章 戰場에서 工事의 掩護

第五章 輜重의 護衛及攻擊

第一節 護衛

第二節 攻擊

第六章 徵發

第七章 別動隊

戰術學教程卷之三引用書冊

佛國聖西爾兵學校戰術學教程

基本戰術(日本國陸軍大學校讀本)

德國戰術學教程

德國戰畧學

德國陸軍士官學校戰術學教程

帥兵術(日本國陸軍大學校用)

澳國陸軍士官學校戰術學教程

戰術學教程卷之二

第十一篇 戰團

第一章 總論

第一節 戰團의 要義及目的

戰團은 戰爭의 軍事目的을 達하는 直接手段이니 其 一般目的은 敵을 壓倒 殲滅하는 데 在하니라 此戰團의 一般目的을 達하기 爲하야 全軍과 其大部가 決戰에 參與할 時는 其本戰이 되나 一戰爭中 每戰에 만다시 如此치 안코 本戰의 前後或 本戰中에서 搜索과 警戒와 掩護砲兵과 架橋와 戰場工事와 輜重과 徵發等의 掩護及其他 陽戰과 如하 戰團特別의 目的을 達할 境遇가 多할 時는 此에 任하 部隊는 其目的에 應하야 戰을 挑할 有하고 避할 有하고 攻擊할 有하고

有하고 防禦할 有하니 其本性이 決戰이 아니요 持續戰에 屬하니라 但該部隊을 並하야 戰團의 一般目的을 達할 境遇에는 진실로 決戰을 成하나 不然할 境遇에서는 비록 敗退의 危險에 陷할 지라도 常에 其特別目的을 達함으로써 主眼함이 可하니라

決戰은 攻戰과 切密한 關係가 有하나 守戰에 在하야 도 守決戰을 行치아 님을 得지 못하느니라 好機에 投하야 逆襲으로써 敵을 擊破코져 함이 是니라 持續戰의 目的은 決戰에 在치안코 守勢에 屬하나 도 攻勢를 取함이 有하니 假令 敵情을 候察하든지 或 敵으로 運動케 하든지 或 其他에 繫留코져하든 等時가 是니라

第二節 戰團의 勝敗

敵을 다殲滅하는지否하는지壓到하는後來의鬪志를絶케하는時는戰勝이我에在하니此는能히戰鬪의一般目的을達하고戰爭의局을結함에足하니一戰에如此한全勝을制할은極히難하니大概數度の戰勝을積한後에能하니라

戰鬪의勝敗는專히兵力의多寡와地形의難易와軍隊의精粗와指揮의巧拙과天候及時刻의適否와其他不意의機變如何에關하니라

彼我兵力의比例는戰鬪勝敗에影響을與함이大하니라故로決戰點에는衆多한兵力을備함이戰鬪指揮의要訣이니라

地形은兩敵中에一로戰勝을得하기容易케하고他로困難케하는者니라

天氣中에特히濃霧는攻守에利害를致함이오且戰鬪開始하는時刻의遲速도生한戰機의完否를致하는者니라

然이능히敵을制하고勝을得함은第一로軍隊精銳과指揮의妙에在하니古來良將도精兵으로써優勢한敵軍에當하여能히勝을制할例가不少하니라

戰鬪中은不意의機變이百出하니能히此變에處하여好機에接하여勝을制함은機敏과敢爲와膽勇에依치아니면得지못하니라

由此觀之戰鬪의勝敗는小한團隊의安危存亡이오大한國家의盛衰榮辱에關하니故로戰爭의事가如何多岐하는지珍히戰勝의一大成功에期着함이可하니라

第二章 戰鬪의 攻守攻擊及防禦

戰鬪初에는 攻守의 區別이 判然호나 戰鬪經過호는 間에는 彼此가 서로 變更호나니라

攻擊의 主利되호는 左와 如호니라

一 攻者는 自進호야 戰鬪를 求호호므로 志氣가 大振호나니 其攻擊의 疾速호과 敵의 意表에 出호과 我勢力의 猛烈호에 應호호야 愈然호니라

二 攻者는 陽戰에 依호호야 敵의 兵力을 分割호호야 我의 欲호호는 地와 時에서 我의 欲호호는 兵力으로 夙本攻을 施호호면 所謂先制의 利를 占호호나니라

三 決勝의 大成績은 攻擊에 依호호아니면 能히 得

지 못호호나니라

防禦의 主利된바는 左와 如호호니라

一 守者는 地形을 利用호호고 且 工事을 起호호야 我火力을 發揚호호고 敵火를 遮蔽호호을 得호호호니라

二 守者는 靜止호호으므로 夙疲勞가 少호호고 其火力은 運動호호는 攻者보담 優烈호호고 且 彈藥의 補充이 容易호호호니라

三 守者는 戰場의 地形을 詳知호호야 米里敵에 對호호호 諸準備를 得호호호나니라

此를 觀호호면 守者는 天成人爲의 險隘에 據호호호야 如意호호호 銃砲를 利用호호호고 逸호호호 勞를 待호호호며 寡가 能호호호 衆을 拒호호호는 進取의 氣가 富호호호고 且 先制의 勢를 逞호호호은

獨히攻者の게全在함이是則攻撃의利는無形上에屬하고防禦의利는有形上に存함所以니決勝의成功을得코저함는防禦에在함이早晩攻撃에轉치아남을得지못함니라

然이나攻守兩戰의得失如何에至함는一般狀況과企圖와特이地形에關함으로써반다시其利害를論定함이能치못함나오작兵力優勢된者와敵보담몬저其兵을集合함者는攻勢를取하고狀況이不然함者及來援을待함者는守勢를取함야地形을利用함야其不利를償함이可함니라

分離함敵兵에對함야는我兵力이비록敵의全力보담劣함지라도我는一方面的優勢로써敵을各個로攻撃함야制勝함을得함니라但敵兵은其甲部隊의

戰鬪間에乙部隊가應援함이能치못함게分隔함時를云함이니라

指揮官의天性도또함攻守의撰定에大關關係가有함니만일現時의形勢된攻守兩戰中에如何케든지得爲함만함時는반다시攻撃함이可함니是는臨守함原則이니라

第三章 攻撃의要領

第一節 攻擊點(本攻點)의撰定

攻擊點을撰定함는되는데大體左의要義를從함이可함니라

- 一 攻擊點은敵眼及敵火를遮蔽하고接近함을要함니一은敵의意表에출하고一은我兵의損傷을減함이니라

二

攻擊點은 衆多호兵力을 聚用호기爲호야諸
方向으로부터接近호는되便호을要호는니
故로敵陣의突出部及兩翼點은自然攻擊點
이되나니라

三

陣地의薄弱部(地形及排備의欠點)도호至
便호攻擊點이니라但此에對호야는能히砲
火의効力을顯得호을要호는니라

四

攻擊點은敵의預備隊의位置로부터遠隔호
을要호는故로預備隊가在호아는側面은有
利호攻擊點이되호는時가多호니라

五

陣地의要點(要害)은敵陣全部의占領에關
호으로써特히有利호攻擊點됨이多호니라
其他敵兵의姓質과種類와慣習及衆寡等을推思치

아님이不可호故로攻擊點을撰定호기에當호야諸
般狀態를適當히判斷호고巧히取捨호야其方法
을誤치아님은호호及指揮人의能力에在호니라

第二節 攻擊의諸方法

攻擊의諸方法은左와如호니라

正面攻擊 此攻擊은敵의正面에對호야行호는故
로團隊를集結호을得호야指揮가容易호는守者는
其正面의火力을舉호야我에聚注호을이可호고我는
此에對호야射擊의優勢를期호이難호고且敵의退
路를脅威호을得지못호나我軍의退路는호호安全
호니라

側面攻擊 此攻擊은敵의側面(脆弱部)에對호호으
로我의被害가小호호되其攻擊功을奏호기에

當하야敵의退路를威脅을得하느니但此攻擊은
我退路도生할危殆하니라

敵兵이遠히我側面攻擊의企圖를察하면此攻擊方
面에對하야正面變換을行함이可함으로其陣地
를移轉케하느니라利가有하느니我的企圖는側面攻擊
은맛춤너變하야正面攻擊이되느니故로巧히側面
攻擊을行하느니는敵의意表에出함이아니면能치
못하느니라

結論 以上所說을由하면兩種의攻擊이다各各利
害가有하느니故로한가一種의攻擊法을用함은方今
稀有한事요此二法을併用하야長短價補치아님이
不可하느니但二法中무어사本攻이되고助攻이되느
지는現時의狀況과地形等에由하야不一하느니라

最多用하느는者를概示하느니라

正面助攻을並用하느는側面本攻 此境遇에서正面
助攻의目的은敵兵中其預備隊를牽制하느니在하
니是以로或持續戰을行함이足하느니라尋常境遇
에서는死를決하야動作지아님이不可하느니但此攻
擊은兼하야我軍의退路를掩護함을得하느니라
側面本攻의目的은決戰을實行하느니在하느니라此攻
擊은或射擊의優勢를由하고或敵의退路를威脅하
느니由하야其功을奏하느니라其効力은敵兵이其背
後를顧慮하느는事가愈深함을從하야愈大함者니라
戰況에由하야助攻이도로하本攻이되고又本攻이
其功을奏하든지或對向한敵兵이退却을始하느는時
는助攻도生할變하야決戰攻擊함이有하느니라

包圍 包圍는側面攻擊의結果니 敵의翼側에 透
出하야 包擊하느니 在하지라 步兵操典에 所謂攻擊
의成果를 得하기爲하야 優烈한 射擊을 行하느니는
包圍運動에 由함으로써 容易하느니라는 處
한 包圍의 有利함 所以를 知함에 足하느니라
兩側面攻擊은 左右兩翼을 張하야 行하느니 包圍는 我
兵力이 敵보담 尙 優勢된 時에 만 行함을 得하느니
優勢되지 못하면 中央이 스스로 披靡하야 突貫케 하
는 處가 有하느니라

凡如此한 包圍는 遭遇戰에서 諸道를 取하느니 諸隊가
戰場에 進向하느니 時等에 發生하느니 者니 步兵操典에
所謂 包圍를 行하느니는 諸種의 方向으로 接近함을
要함이 是니라 此攻擊을 繼續하야 間斷이 無하면

맛춤니 團狀을 成하야 敵을 壓迫하야 其全滅을 見하
기에 至하느니 者니라

迂回 迂回를 行하느니는 團隊가 其高級指揮官의
掌裡를 脫出하야 一枝隊가 되어 敵의 側背에 動作하
아 남이 不可하느니 其目的의 되는 處는 敵을 攻擊보담
其退路를 脅威하야 彼로 後部의 處를 抱하야 畢竟其
陣地를 棄쳐 아님을 得지 못하느니 在하느니라 然이나 凡
迂回를 行함은 我兵力이 敵보담 優勢을 信하느니 時或
我退却에 危難을 致함이 無하고 敵의 退路를 脅威함
時가 아니면 其目的을 達함에 難하느니라

一小部の 兵力으로써 하느니 迂回의 目的은 敵의 退路
를 脅威하야 我本攻을 容易케 하느니 在하느니라 如此한
回를 行함은 部隊는 我首力과 各其 無破를 受하느니 處가

有호故로此를行호는事가甚稀호니大槩山戰等에
서行호는니라

突貫 敵線을突貫호야其功을奏호는時는敵의兵
力을離斷호야統一호指揮를妨害호고其各部를各
個로擊破호는利가有호니라然이는此攻擊을行호
은敵兵이過大호戰鬪正面을占호時가아니면其功
을奏호기難호고生攻者는我側面을包圍호는危殆
에合호는事가多호故로強大호預備隊를擁치아닐
이不可호니라

第三節 攻擊兵의用法

巧히攻擊을行호는術은攻擊點의撰定及兵力의用
法이其宜를得호에在호니本攻에는首力을要호으
로써助兵은敵의逆襲을拒支호을限호야其兵力

을節減치아닐이不可호고又突擊을行호고或機變
에備호기爲호야豫備隊를擁호이最要호니是等の
顧慮가有호으로攻擊兵은힘써其建制를保持호고
大槩左의比例를準호야部分호이可호니라

本攻兵

全步兵의二分一

助兵

同 四分一

豫備隊

同 四分一

(最大限)
(最小限)

砲兵은本攻을準備호고騎兵은通常一翼에在호야
敵의側面에向호야運動호고又遠히我兩側의地를
搜索警戒호이可호니라

包圍攻戰에는通常前衛로正面을攻擊케호고本隊
는힘써敵眼을遮蔽호야前進호고敵의翼側에對호
야本攻을行호는니라

正面攻擊에는 먼저 一部의 兵을 敵의 翼側에 進케 하고 首力은 前衛와 相合하여 正面으로 本攻을 行함이 법이니라

第四節 攻擊排備及追擊

攻擊排備 攻擊排備는 遭遇戰과 防禦排備를 行할 敵陣을 攻擊하는 時從하여 스스로 區別하니라
 遭遇戰에서 戰鬪開始는 前衛의 任務과 故로 前衛는 本隊로 하여금 開進할 時間과 處所를 確切히 得케 하
 님이 不可하니 此를 爲하여 其所屬 砲兵의 使用이 가장 緊要하니라

前衛司令官은 오직 全軍의 一部를 統率할 緣인 故로 時機를 辨치 吳하고 輕舉하는 時는 忽然이 全軍의 奏 効를 妨害하고 且 本隊가 아즉 來着하기 前에 擊破하

는 危殆에 會하는 지라 是以로 前衛가 獨力으로 攻擊을 行함은 其所得 利益이 所失 不利를 償하기 有餘할 時만 限함이 可하니 其境遇는 大槩 다음과 如하니라

一 前衛가 敗走하는 敵을 追擊하는 時及 寡弱할

敵을 遭遇할 時(第二卷 前衛戰法에 詳하니라)

二 前衛가 敵에 先하여 隘路를 占領할 時

三 前衛가 隘路內에서 敵의 衝突하고 猛烈前

進하여 速히 彼方 出口에 達코 저하는 時或 緊 要한 地點을 容易케 畧取할 時

是로 由하여 豫하면 遭遇戰에서 는 開進 命令及 戰鬪 命令을 아모조록 同時에 發함이 緊要함으로 卽 高級 指揮官은 我兵이 敵兵과 衝突됨을 認하면 其前方에 疾驅함을 要하니라

騎兵은 敵의 正面에 沿호야 速히 搜索을 行호고 特이 其 側面을 호야 進軍中에 在호 敵의 縱隊를 通視호을 勉호을 이호호니라

砲兵은 速히 運動호야 是처 射擊을 開始호고 아모 尋常 砲의 利를 占호야 敵을 壓倒호고 攻擊實行의 便을 計호을 이호호니라 此際에 前衛步兵은 決戰攻擊을 避호고 專히 其 砲兵을 掩護호을 이호호니라

高級指揮官이 임의 攻擊方法을 決定호면 開進中에 在호 軍隊에 對호야 速히 任務를 頒與호을 要호호니라 副官等의 中間者로 호야 命令을 傳達호는 時는 誤謬를 招호가 易호으로 써 아모 專直接호야 命令호을 要호호니라

各部隊에 諸種任務를 包含호바 合同호攻擊命令을

與호은 遭遇戰에 在호야는 甚稀호니 通常 逐次로 得호바 報告에 準據호야 逐次로 各隊에 命令을 附與호아 님이 不可호호니라

步兵의 本攻은 我 砲兵射擊의 優勢로 敵의 砲兵을 壓倒호고 且 我 攻擊點에 對호야 準備射擊을 行호後에 호호니 此目的을 達호저호는 得호는 아모 專 砲兵을 聚用호아 님이 不可호고 又 騎兵은 戰鬪開始後는 大 槩 側面에 動作호고 又 豫備隊에 編入호호호니라

防禦排備을 行호 敵陣를 攻擊호는 得호는 高級指揮官은 最初부터 其 攻擊을 充分計畫호아 님이 不可호호니 敵兵이 地利를 占有호을 이호多호을 隨호야 더욱然호지라 是로 爲호야 戰鬪前에 本隊開進을 命호고 此間에 前方部隊로 敵에 近호陣地를 占領호야 敵狀을 察호

고我運動을庇掩케한後에合同한攻擊命令을下
하느니此命令中에含有한要項이左와如하니라

一 敵狀

二 我軍一般의狀況及我目的의大要

三 砲兵의位置及射擊目標

四 助攻及主攻에任한部隊道路와攻擊目標

五 騎兵의動作(通常兩翼에서)

六 總預備隊의編組와繼續한距離或位置

七 工事와衛生隊의開設及野戰病院의招致,其

他彈藥駄馬及彈藥縱列에關한件

八 大行李에關한件

九 指揮官에所在

敵의接近하기爲하야暗夜를利用할時는拂曉前

에其撰定한陣地에進하야拂曉를乘하야步隊兩兵

으로射擊을開始함을要하느니라

進擊 第一次追擊은射擊으로써法하느니此目的

을達하기爲하야步兵은其畧取한陣地에止하야射

擊하고砲兵은迅速한步度로써其陣地에到하야

同히射擊으로써追擊하야敵으로停止或集合의餘

裕가無케함을要하느니數多한縱隊로써前進追擊

을行함은第二次에屬하느니라

戰勝을得을後에最初로부터前進追擊을行함은敵

兵이其戰敗奔潰하야다사抵抗함이能치吳할時에

만行함을得하느니如此한境遇에는俘虜及諸種의

材料는다勝者의所有에歸함을得하되但此種의追

擊은左의理由가有함으로써行할機會가稀하느니라

其一 夜暗 凡戰鬪는 혼이延하야夜에主는故로
敗者는夜暗을利用하야追擊을進흥을求하느니라
其二 戰勞 勝者도進흥을戰鬪의後는疲勞가大
하야거의追擊을銳氣가無하느니라
戰場上의追擊後는特이騎兵으로싸敵兵의接觸接
촉하야其狀況을識得는事에努力쳐아넘이不可
하느니라

第四章 防禦의要領

專守防禦는元來一地를固守하느디越쳐吳하느니決
코敵을殲滅함이能치吳하고又戰鬪에貴重함先制
의利는敵兵의專有함비라我志氣는沮喪함故로後
衛와掩護隊等의戰鬪에는不得已此法을川하되其
他境遇에는常에반다시攻勢防禦를撰用함이可하

니攻勢防禦라는거슨戰鬪上或地形上에一時防禦
姿勢를取하야機를見하고攻擊에轉함을謂함이니
라

防禦力의強弱은專히陣地의良否及諸兵의排備如
何에關하느니라

第一節

防禦陣地의要件(附錄第一卷防禦
陣地偵察의條를參看)

專守防禦에는陣地의前地及側面은我有効射擊距
離內에斷絶物等이有하야敵兵의近接함을要쳐아
니하느攻勢防禦에在하야는出擊의便을顧慮치아
남이不可하느其地는稱하야攻戰地라하느니라
攻戰地는防禦地防禦地區를云호로부러行하느射
擊에依하야掩護함을要하느니攻戰地에有利한位

置는通常防戰地兩側에在호者가是니라
戰鬪上防禦에適當호陣地의要件이大概左와如호
니라

陣地一般의位置에서는左件을要호이라

射界가有호高地니且其位置는敵兵이반다시攻擊
치아님이不可호고彼가此에接近호는되는大損害
를被호地가可호니라

陣地의正面에는左件을要호이라

正面의幅廣은兵力에相當호을要호고其兩翼은後
方에屈折호야形을成호이可호고又防禦의支撐
點獨立部와小林等及良好호砲兵陣地가有호과特
이攻勢防禦에는時機에應호야前進호는되支障이
無호지니라

陣地의前地에는左件을要호이라

敵方에緩傾斜를成호야我陣地의瞰制를受호고且
充分호射界가有호지니라

陣地의側面及側地에는左件을要호이라

專守防禦에는側面은通過호기難호地에依托호이
最良호나攻勢防禦에在호야는攻勢에轉호기便호
고且廣直호射界가有호호兵陣地가有호지오側地
도充分호攻兵의近이困難호든지(專守防禦或充分
호射界가有호지니라(攻勢防禦)

陣地의內區에는左件을要호이라

能히數眼及砲臺를設호고且防禦의支撐點이有
호야運動이自在호고交通이便易호야各部兵이自
로應援호고豫計에는時機에倏치안호交戰호을要

하느니故로陣地를遮斷호는障礙物이有호은大不利호니라

陣地의後地與陣地後에서는左件을要호이라

安全호退路及適當호收容陣地가有호지니但退路는陣地의中央後로正面에直又호者가收利호고收容陣地는戰場을距호이遠치안호退路에距호보담其側方에在호야가장抵抗力이有호야能히退却을保護호을得호이有利호고且收容陣地도左호良好호退路가有호아님이不可호니凡後地에隘路가有호은危險호야我兵이失敗호면大潰亂에至호느니此에호야波狀地或疎樹의大林과通路間達호森林等은退却에甚히便易호니라

防禦陣地의要件이前示와如호는常에반다시此要

件을完備호陣地를撰定호야得호이易치吳호으로充分치吳호陣地로써滿足치아님이不可호事가往往이有호니然則軍隊의排備法에由호야陣地不良의欠點을價補호야價値가有호호을要호느니라

守者는敵軍의進路에跨호야陣地를占호이可호나

有時로敵의取호道路의側方에서平行호陣地를占

호이有호니所謂側面陣地가是니라此陣地에서敵

이반다시取호行軍路를我有効射距離內에扼호을

得호면守者가火力으로直接호敵의行進을妨害

호을得호고此와相反호境遇에서는其行進을續行

호거든守者는進호야其側面或背後交通路를脅威

호을得호느니如是호면守者는左의利益이有호니

라

一 敵兵으로其側背를顧慮함으로彼가不得已
 하야此陣地를攻擊치아니치 못하느니라
 二 敵兵이此를攻擊하느디는其方向을變換하
 야側面에展開를行치아니치 못함難事가有
 함니라
 三 敵兵으로假令勝利를得케하야도오히려其
 行進을遲緩하고且其行進目標을倚靠케하
 는利가有하느니라
 然이느如此함側面陣地는左의要需를充치아님이
 不可하느니라

一 側面이特히敵의게接近하면跋涉이不可함
 障礙物으로써庇護케하든지或堅固한支撐點
 과有利한砲兵陣地가有함을要하느니是는

其側面이如此함時는攻者가其正面으로써
 容易케我側面을攻陷치 못하느니라
 二 我軍의退路는側面陣地에直히함을要하느
 니라
 三 出擊이容易함을要하느니라(特히敵背에對
 함야)

第二節 行機陣地(附錄第一卷待機陣地偵
 察의條를參看) 二

防禦에는先制의利가敵에게專有함으로써彼가無
 何함方以으로써攻擊함는지豫知함이不可하느니守
 者는其敵에對하야常에만다시抵抗함을준備치
 아님이不可하리라故로敵의攻擊方向이아주確實
 치못함을因하야我의準備法을決定함이能치 못함

時는은저待機陣地를占하야其兵을集合하고所要의兵員(兵令監戰兵團)을占하야配置할이可하니라
騎兵은아모조로遠方에占하야敵의來하는方向을搜索하야適히狀을求得할을要하느니라
砲兵은敵의行進方向과其將取코저하는砲兵陣地를願하야占位할이可하나其陣地가敵兵의動作이如何할을不拘하고一定不變할을得하면最初부터其陣地를占領하고於列陣地の後方에서遮蔽하야時機를待할지니凡砲兵陣地는所要에隨하야一方面或數方面에對하야工事를施하야堅固케할이可하니라

首要文據點은最初부터步兵으로써占할이可하
나其兵員은過大치말고且此點所在의地區를占領

할部隊와同一單位됨이可하니라
步兵의首力은預定할防禦陣地の背後에在하야아모조로交通이便利할道路의附近에在할이可하니라

工事은所要에應하야陣地築設에從事하느니蓋是等工事는現今의步兵과砲兵火에對하야顯著할價值가有하야實로缺함이不可호事라然이나過早히工事を施하는時는指揮及運動을防碍하는慮가有할을顧慮할지니라

步兵과砲兵도生할所要의器具가有함으로써應分の工事는스스로從事할이可하니라

第三節 防禦排備及退却

防禦陣地の排備는敵의攻擊方向이明確할後에實

施할지니其陣地는 임의第一卷에說할것치通常數
區에分하고其地區는地形에從야스사로廣狹의
差가有하나各地區에備할兵은형제建制部部로써
하고防禦陣地中의要點及道路는判然이某地區中
에含有케하는事に注意할지니라

防禦兵特히步兵은大槩二部에分하니各地區에
서抗拒兵及地區의後方側方或翼後에서抱預備隊
가是러甲은純粹한防禦를擔任하者니每區에其援
隊及預備隊를有하고乙은抗拒兵을赴援야攻勢
에移轉하고退却을掩護하고或不慮의事變에備하
는者니其兵員은少하야드全步兵의半數됨을要하
느니라

騎兵의大部는大槩側方에動作하고其小部는總預

備隊에在하야使命을授케함을要하느니라

敵兵은敵의계은저射擊을開始할것치準備하야敵
의要害及前路를掃射함을要하느니라

工兵은本陣地의工事が終하면抱預備隊에入하고
又所要가有하면背後交通路를開設함을要하느니
라

收容陣地는常에必設하는者가아니나만일設하는
時는工兵은오히려其工事に任함이有하느니라

陣地前의要點獨立邱와小林等이我陣地의有効射
距離內에在할時는本陣地의一部가됨으로此를占
領함은無妨하느다시遠隔할時는稱하야前進할所
라하느니特히重要할理由가有할時에만一部로써
占케하느니蓋其哨所가農家와村落과小林等으로

時는敵의砲兵火를因하야忽然이擊破하고或敵이包圍하거易하고其砲兵은맞춤니大害를受하야退却하야닐을得지못하느니砲兵이一度退却하면敵兵은其尾追하야本陣地에進하노便을得호련아니라此를爲하야我軍隊로하야금가장不利호感動을起케하노者요만일我軍隊가出하야其哨所를救援코자하면미리準備호有利陣地를指하고前方不利호地에戰하거에至하느니故로如此호哨所를占호은一時敵을支하야我本隊로하야금本陣地에就호든지或工事를施하노餘裕를得케호時或其哨兵이全히危害업시隨時退却호時或敵의砲兵陣地를我小銃의有効射距離內에壓制코저호時或敵을展開케하야其兵力을探知코저하노等時를限호이可호

니라

防禦排備에要호命令은諸軍隊가集合하면곳下附호는者니合同命令을用호이可호는軍隊가行進中에在호時는各別命令을用처하닐을得지호호이往來이有호니라

合同命令은大體左件을含有호니라

一 敵狀

二 我軍一般의狀況及我目的의大要

三 防禦地區와排備을始하노時刻及其軍隊

四 砲兵의位置射擊目標

五 騎兵의動作(通常兩翼에서)

六 總預備隊의編組位置

七 防禦工事와彈藥補充과衛生隊及野戰病院

에關호件

八 大行李에關호件

九 指揮官의所在

砲兵의射擊開始는通常高級指揮官이命하는者니
期에先호바砲擊은効力이無호뿐아니라오히려敵
으로호야급我陣地를察知케호는媒助가되느니라
地區抗拒兵은各其守地에在호야交戰호고摠預備
隊는決戰攻擊을準備호고兼호야機變을防備호느
니라

於是에高級指揮官은決戰을行호는지장戰鬪를
脫호이可호지를決처아남이不可호니其戰을脫호
에決心호면몬저砲兵의一部로收容陣地에退却호
야써步兵을收容케호고步兵에在호야는最後의預

備隊를使用처아닌前에退却을始호는時만收容陣
地를占호을得호고만일임의使用호時는形勢가戰
鬪를持續호야暗夜를待처아남을得지못호境遇가
多호니라

退却에際호야高級指揮官은退却目標及收容陣地
와收容에任호軍隊를示호고戰鬪地를離호야退却
호는軍隊를指揮호고其他의細事는下級指揮官의
게一任호이可호니有時로收容軍隊를다시收容호
이必要호時가有호나敵兵과離隔호이極히困難호
되至호는慮가有호으로써힘써避호을要호느니又
攻者의急迫를免호는되는時時單簡猛烈호逆襲을
行처아남이不可호事도有호니라

第四節 逆襲

凡戰을決코저는바防禦에在하야는반다시逆襲을行치아님이不可하니其方法이左와如하니라

一 守者는攻者가我陣地前에迫하야挫折하느時를待하야新銳兵으로써猛烈果敢케突進할지니라(第貳出擊)

二 守者는敵으로하야其兵力을分割케하고且運動하기만爲하야守勢를取하야陣地를占領하고敵兵이此術中에陷을時는首力으로써猛烈果敢케突進하야敵兵의不利된地에서各別各個로擊破할지니라(隨意出擊)

第二境遇의防禦陣地는防禦物로써掩蔽할바攻擊者를擾亂하고且企圖를空하기에至케하느大功을

奏할을得함이有하니라

凡逆襲은敵線의弱點處側面에向하야行함이可하느彼가만일我陣地를包圍하기爲하야其線翼을張함을因하야中央이疲弊할時는突貫함이有利하니라

逆襲에가장重要함은斷行의時機가是라實際戰場에立하야敵의攻擊이임의酣極에至하느지守者가固有의利益이임의다發現케되든지오히러暫時를待할지一瞬間에此를決하면且斷行치아님이不可하니라

第五章 戰鬪의經過

攻守戰鬪의要領은임의前二章에各別히縷述하엿스니今에攻守戰鬪全體의經過를說하야써다시一

般狀勢를明瞭하노라

凡戰鬪는 目的과 地形에從하야特別히 現象과 變遷이有하者는 決戰의 目的으로 終始貫徹하야 戰鬪에서는 通常四大段落을 成하느니 此段落은 時로 細密히 限界를 立하느니 其經過의 現象은 實際가 次와 如하니라

第一 戰鬪開始

第二 戰鬪實行

第三 決戰

第四 退却과 追擊

第一 戰鬪開始緒戰

此期는 攻者守者가 다 其前線兵으로 終戰鬪의 端緒를 開하느니 過치 못하느니 諸兵이 連合호 團隊에서는

搜索及警戒에 任호 部隊特히 騎兵의 戰鬪과 遠距離에서 步兵及砲兵의 小戰으로 成호 者니라

第二 戰鬪實行(酣戰)

近世의 戰鬪는 攻守를 勿論하고 各其梯隊區分을 成하야 其兵力을 漸次使用함으로 一舉에 全勝을 制함은 殆難하니라

은 저兩軍의 砲兵이 다 全力을 盡하야 砲戰하느니 其餘는 戰鬪全局의 勝敗에 影響함이 大하니라 此砲戰에서 攻者의 砲兵이 守者의 砲兵을 撲滅하고 且我攻擊點을 擾亂하기에 至하면 步兵의 戰鬪實行이 되느니라 此時를 當하야는 彼我의 首力이 戰線에 加入하야 戰勢가 漸進步하야 一勝一敗에 攻守兩勢가 서로 屢屢變更하야 彼我의 兵力이 漸漸衰頹

에至하느니라

第三 決戰

攻者는或包圍에由호고或突貫에由호야守者를擊
破을勉호고守者는火力과投機의逆襲을依호
야我陣地에侵入호저호는敵兵을拒支을勉호며
我陣地에侵入호는時는統帥으로써驅逐을勉호
야如此호외力戰호야彼我의一方이맛츄니成果
를得호고他의一方은兵力이欠乏호야其不利를恢
復을能치못호기에至호면勝敗가既決호야敗者
는退却호고攻者는追擊을行호느니라

第四 退却과追擊

敗者는其最後의預備隊或戰勢가少호部隊로써退
却을掩護호고勝者도또新銳兵을前進호야敵의

退却에몬저突擊호야彼로其兵力의全部를盡用치
못호게호는時는彼必全敗호느니라

退却을爲호야戰鬪를中止호저호는時는敵의攻擊
이가장激烈호點에오리抗拒을要호느니其退却
은大槩收容隊의掩護를依치아닐을得지못호느니
라

凡追擊은既說을갓치몬저射擊으로써호고其次에
果敢히兵을進호면其功을奏호느然호는勝者도또
追擊의期에至호면其兵이大概疲勞호야其隊가크
게紊亂을호로써다사如此호追擊을行호는時十分
銳氣가無호이多호니如何호境遇든지追擊은新銳
호步兵과騎兵及砲兵을擧호야此를行을要호느
니라

第六章 戰鬪指揮의 要領

戰鬪의 指揮은 戰鬪를 爲하야 軍隊를 配備하고 戰鬪
間에 此를 統御하느니 在하니라

攻守의 目的을 由하야 軍隊를 排備하느니 原則과 其排
備의 基本된 命令은 此說言으로 써 玆에 오작 統御의
事를 說할뿐이니라

高級指揮官은 戰鬪統御上에 甚히 干涉치아님을 要
하느니 故로 親히 諸事를 目擊하야 區域을 把握출아리
戰鬪熱鬪의 地를 避하야 使者의 辨識이 容易하고 且
戰鬪의 全體를 通說할 地點에 占位함을 要하느니라
下
級指揮官은 見聞에 由하야 高級指揮官의 所在를 認
知하느니 義務가 有하니라

戰鬪間의 統御는 左의 三項에 歸着하느니라

一 戰鬪에 從事할 軍隊에 其處置에 關한 命令을

送達할 境遇

二 總預備隊를 使用할 境遇

三 直接하야 戰鬪에 干涉할 境遇

戰鬪에 從事할 軍隊의 進退動止는 專히 敵의 進退動
止에 伴치아님이 不可함으로 써 高級指揮官은 下級
指揮官으로 其任務範圍內에서 獨斷專行의 餘地가
有케함이 可하니라

是故로 軍隊의 處置에 關한 命令을 送達함은 大概 左
의 時를 限하느니라

一 戰況에 由하야 軍隊의 任務를 不得已變更치
아님을 得지 不할 時

二 一任務를 課할 軍隊에 對하야 다시 他任務를

課令時

三 軍隊가 其任務를 乖戾할 時

忽預行隊는 高級指揮官이 視을一新케 할 時
 勝敗를 左右할 一大機關이니 其運用法의 當否는
 專히 戰鬪統御者가 其人의 伎倆如何에 存蓄이 然
 이 時機에 은저 使用할 과오 利害存할 時機를 失
 할 과는 다 使用法이 得當치 吳호 者니라

高級指揮官이 直接히 戰鬪에 干涉할 時 司重要
 時機에 干限할 者니라 其時間이 極短할 時 決戰
 期에 應히야 部下의 志氣를 作興할 爲히야 最後預
 備隊를 親率히야 蔣進할 時가 是니라

第十二篇 局地戰

第一章 總論

夫戰鬪一般의 原則은 如何할 時機와 地形이 是지 無
 異할 局地戰에 地上의 物體(高地와 谷地와 村落과 森
 林과 隘路等)는 各各固有의 特性이 有하고 其利用할
 法이 다시 多小의 特性이 無치아니 하니 其特性에
 應히 戰鬪를 稱히야 局地戰이라 할 니라

輓近의 戰鬪는 廣히 土地의 利用을 要함으로 卽局地
 戰의 燒點의 燒點이 될뿐아니라 오히려 曠野에도 大戰
 의 燒點됨이 有하니라

凡局地는 大槩攻者의 通親를 制限할 特性이 有하
 故로 攻者는 守者의 兵力을 判定함이 크게 困難者
 니라

局地戰에서 終始其主將에 任할 者는 步兵兵뿐이요
 騎兵은 戰鬪前後에 는 局地의 側方에 在치아니면 使

用치 못함이 많으니라

砲兵은 局地 攻守에 서는 無함이 不可하니 障礙物을 破毀할 때에는 特別히 然하고 工兵은 他兵種의 力이 能히 築設하기 難한 工事에 任함이니라

局地 戰法은 研究의 方便을 計하여 分類하여 說述함이 彼此서로 類似함이 많으니라

第二章 高地의 戰鬪

總論 高地는 瞰制함이 主利가 有하고 且 其 綫端後에 占位한 團隊를 遮蔽함이 많으니 其 斜面이 緩慢하고 且 敵開火者는 射界가 廣大하여 射擊이 便利하고 觀測이 容易하며 攻者가 此 斜坡를 攀登함은 至難하니 是는 防禦陣地에 是 大興 高地를 擇用함이 所以니라

球形山과 此에 類한 獨立高地는 오직 砲兵陣地에 適하고 且 監視哨所에 適함뿐이니라

攻擊 攻擊은 一般要領에 準據함이 可하니라

防禦 防禦線은 大體 掩堡로 써하고 且 斜面을 掃射함을 得하니 故로 其線은 頂頂或 緣端과 合一치아 남이 有한 지라 만일 前地를 十分 射擊지 못할 部分은 有時로 一部隊를 派遣치아 남이 不可하고 我의 攻要點에 是 遞次로 掩堡를 設하여 階段 射擊을 行함을 要함이니라

砲兵은 前進하여 來함은 敵兵을 射擊함뿐아니라 오 히려 前線을 掃射하고 且 其 凸出部로 부러 側 防火를 行함을 要함이니 是를 爲하여 是 攻前線에 位置하고 其 掩護는 前出한 步兵의 任함이 可하니라

其外軍隊의排備及用法等은陣地防禦의通則에準
함이可하니라

第三章 谷地の戰鬪(附錄第三卷參看)

總論 谷地の戰鬪는彼我が多谷地를射擊할것치
兩谷의鐵端이接近할地에서만特性이有하고相反
直地에서는前章高地戰이되느니라兩谷緣의比高가
同치아니면其取高谷緣을占할者가有利하니我의
通視는便하고敵의通視는不便함이니라

攻擊 攻者가谷地를前進하는間에我谷緣으로부
터連續히射擊하야其前進를援助할을得함은攻者
의主利된바라然하느左의不利가有하니라
一 攻者는大概敵眼及敵火下에在하야我方의
斜面을下치아님을得지못하느니라

二

谷底에는通常水流와水田과軟土地等이有
함故로攻者의前進이困難하니라

三

攻者는守者의取有効射距離에서敵方の斜
面을上치아님을得지못하느니라

攻者가能히此不利를償補하느는効力이尠有하
射擊의準備가必要하니라

防禦 守者는我方에在함谷緣을占領함이法이니
라

高地麓或谷底에在함局地를占領함은上方으로瞰
射하지못할時限하느니蓋此局地는所謂前進哨
所에過치아니故로此에伴함弊害(陣地防禦의所說
가有함)이其弊害는攻者에對하야便利함高位置를
占함에從하야益大하느니라

第四章

森林及住民地の戰鬪附錄第一卷森

林住民地の偵察의部를參看)

森林及住民地の戰鬪는其趣가略同하니是는其蔭蔽物된本性이無異하바라然하나特히本邦住民地에서는不然함이有하니라

第一節 森林의戰鬪

總論 戰鬪上森林의重要는森林大小에由하야不一함이左와如하니라

大林은크게騎兵及砲兵의動作을制限하고且守者는通常其緣端一部份에는占領함이能치못함으로攻者는守者의占領地域外로부터侵入하느니故로大林은固守하기에適지못하고暫時緣端을占領하야敵兵을扼支함에適함뿐이니라

小林에在하야는騎兵及砲兵은其比隣地에서動作함을得고小林은其守備堅固할時에는大槩戰鬪의燒点이되느니라

以上境遇의如何를勿論하고林緣은常に戰鬪의主線이라此部에在하야는守者는敵의通視及火力에對하야其兵을掩蔽하야其備는지라故로眞利益이有하니라

林內戰鬪에在하야는侵入하는攻者의志氣가크게優越하느니守者는地理를熟知함으로其攻守의利害가스스로平均하고軍隊統御에도또는彼我が共히展望이不便함을因하야至難한지라故로林內의戰鬪가久彌하면隊伍가혼어紊亂하야맛춤니指揮官의掌裡를脫하느니至하느니雜木이參差하고且林

道가極稀호되니殊然호고又森林이愈大호면展望及方位의認定이더욱困難호고獎害가愈大호니能히此害를退코저호면아모조尋久히密集隊大를保持호야軍隊의一部는恒常集團케호는一法이有호

뿐이니라

攻隊 大林에據호敵을攻擊호는되니其凸出部를包圍호과守者의占領처아닌部分에侵入호는利가有호니라

小林에在호야는攻者는比隣의開豁地에서決戰을行호을勉호야써損害가多호고且困難호林戰을避호을要호는니라

攻者는몬저林緣一點에侵入호야固守호이必要호는니林內에서는前說호및攻守의利害는相同호

니라

敵兵이退却을始호는時는攻者는此를迫호야林內에入호이可호고生能호면另彼方林緣에達호을要호는니林內에在호야는道路外水流外平地等에沿호고小林에서는林緣에接호야前進호이可호니라攻者가森林을罔取호았슬지라도輕舉히彼方林緣을超호야進出호이不可호니반다시몬저林緣을占호야敵의恢復에備호고且隊伍를整頓호이可호고임의展開호敵兵에對호야大林으로出호야攻守을行호을至難호니騎兵及砲兵이路外에運動이能커吳호時에는殊然호故로小林에在호야는是等兵種은側方으로부더前進호을要호는니라此外는攻擊一般要領에準호이可호니라

防禦 森林도 所在 地區를 分하여 防禦하는 各 地區에 是 步兵의 建制 部隊를 排 備하고 其 兵은 一般 防禦 排 備의 要領을 從하여 分하니 林 緣 守 兵과 地區 預 備 隊가 是니라

林 緣 守 兵은 通常 各 區 守 兵의 一半을 用하고 其 一部를 散 兵이 되게 하고 其他의 兵을 援 隊가 되게 할 수 있다

地區 預 備 隊는 通常 各 地區의 中央 後에 在하여 附近 前線에 接近 可排 備하여 時 機를 失치 안코 戰 鬪에 加入 할 能하느니라

總 預 備 隊는 小 林에서는 通常 其 外部에 位置하여 敵의 側面 攻擊을 防 備하며 或 時 機에 投하여 正 面 各 攻擊을 行하고 大 林에서는 通常 森林 內에서 正 面 各

部에 赴 援하기 爲하여 交通 道路 交叉 點에 位置할 要하느니라

小 部 隊에 在하여는 地區 預 備 隊와 總 預 備 隊를 合一케 하느니라

砲兵은 小 林에서는 其 外部 特 히 側 方 後에 位置하고 大 林에 在하여는 凹 角 或 危險의 處가 無할 翼 後에 位置할 수 있나니 是 皆 步 兵의 火를 被 쳐 안케하기 爲함이라 此外 其 進 出의 便 宜를 慮하여 道路 附近에 其 陣地를 設함을 要하느니라 此 境遇에서는 砲兵 聚 用의 原則을 第二 義에 置치아 得지 不함이 多하느니라

步兵의 用 法은 一般의 防禦와 異함이 無하느니라 敵 兵이 總 一部에 侵入하는 時는 守 者는 集 結 守 隊 員로써 銃 劍을 使用하여 退 却을 要하느니라

敵兵이 임의林緣을奪하야堅據할時에守者의動作은林內地障의存否를由하야有異하니 又地障이存할時는預備隊가占領하야前方에在한軍隊를收容하고地障이無할時는全隊가退却하야林內를脫하든지或林內에서頑久한戰鬪를續行할뿐이니라

退却은最巧케行치아니던其實行이甚히困難하고

且其兵은敵의게捕獲함이易하니라

戰鬪를續行코저할時는敵兵의隊伍가아즉整頓치못하야各處에分離함을乘하야集結한兵力으로殊猛烈히攻勢에轉함이可하니라

第二節 住民地の戰鬪

住民地の戰鬪에는村落戰과農圃戰及市街戰의別이有하고又家屋의製造가東西洋이크게其趣가異

함으로써其用法도亦不同하니 今唯歐洲一般家屋을標準하야原則을示할뿐이니라 但我國家屋도戰鬪聲價가稍有하니라

第一 村落戰

總論 村落及此外同한小市는小林에比한敵火에對하야善良한掩蔽物이라 村緣의圍牆은特히戰鬪의主線이니 村內는林內에比하면크게勉強한戰鬪를行함에適하고軍隊의統制와方位의認定도또한稍好할지라 然한軍隊는林戰과等하야彼我가同히分裂散亂하기易하고退却에際하야는捕獲하기易하니라

攻擊 攻者가攻擊點을擇定하노던는一般要領外에圍牆의凸出部或開放部及諸入口等을顧慮함이

可하니라

砲兵의射擊은閉鎖한入口或圍塙을破壞하기爲하야가장緊要하니然하니砲兵의効力은直接하야破壞를計할보담爆發하니彈丸及烈火로써敵의志氣를挫折하느디在하니라

村落에侵入할時는은저畧取部分을固守하야아모조급迅速히其後方의圍塙에達하고占據함을勉함이可하니家屋으로부터家屋에前進함은도로허時間을費하야敵의剩餘裕를與함으로써힘써避함을要하하니敵兵이占領한家屋의措置는豫備隊에委任함이可하니村落內에서는砲兵을使用함이能치못하고但堅牢한家屋을破壞하기爲하야一二의砲를備함이有利하니라

彼方의村緣을起하야進出함은特別한命令이아니면決코行함이不可하니라

防禦 守者가其村落을占領함目的이오작時間의餘裕를得함을爲함이지或長久히固守코저함이든지判別함을要하하니如何한境遇든지반다시工

事로써村落의抵抗力을增加함이可하니라

時間의餘裕를得하기爲하야는한圍塙을占領하고家屋內에는아모조급寡少한兵員을備함을要하하니蓋此는兵員이衆多하면後에此地를撤去하느디當하야兵力을離斷케하느危險이有하이니라

長久히固守하기爲하야는守者는圍塙을失한後에도村落內에서抗戰치아님이不可함으로써村內의隅角或閒豁한處所에서道路를瞰制하고且建築法

에 出 亨야 特別 亨利 益을 呈 亨는 家屋을 占領 亨을 要 亨는 니 如此 亨境 遇에서 는 아모조로 大部의 兵을 集 團 亨야 機에 投 亨고 此로써 攻勢에 轉 亨이 可 亨니 라 守 兵의 排備 及其 區分은 森林 防禦에 準 亨이 可 亨니 라

強 梗 亨防禦를 行 亨時는 各地 區의 步兵은 通常 其 二 分 之一 이 오 暫時 防禦에 在 亨야는 三 分 之 二 를 村 緣 守 兵에 充 亨야 各隊가 一定 亨小 地 區를 占領 亨고 其 兵의 一部로써 散兵이 되야 圍牆 或 防禦에 便 亨고 其 屋을 占領 亨든지 或 掩堡에 據 亨고 其 殘餘는 援隊 가 되여 密集 亨이 可 亨니 라

地 區 預備隊는 村 落 入口의 防禦에 在 亨야는 速히 前 線을 助 援 亨게 排備 亨을 要 亨는 니 故로 此 人口의 近

傍 村 緣線에 通 亨道路의 近傍에서 掩蔽 亨이 可 亨고 強 梗 亨防禦에서 는 地 區 預備隊는 地 區 內 部에 堅 半 亨家屋을 復 郭으로 用 亨기 爲 亨야 占 亨이 可 亨니 라 總 預備隊(全 步 兵의 三 四 分 一)는 小 村 落에 在 亨야는 通常 其 外 部에 位置 亨고 大 村 落에 在 亨야는 內 部에 아모조로 中央에서 開 豁 亨處에 位置 亨을 要 亨는 니 라

復 郭은 守者가 最 後의 據 點이 니 攻者가 村 落을 領 取 코저 亨을 防 支 亨야 我 恢復을 容 易케 亨이 目的이라 故로 힘써 後 方에 擇 定 亨야 村 落의 他 部가 다 敵 手에 陷 亨지 라도 獨 立 亨야 抵抗을 持 久 亨는 効 力이 無 亨이 不 可 亨니 其 守 兵은 總 預備隊로 부터 派 遣 亨이 常 이 니 라

小部隊에在하야는地區預備隊와摠預備隊를合一케함이森林防禦와同하니라

國境이堅固한村落에서는原野의戰鬪에堪키難하야微弱한步兵新募兵이라도能히精練한軍隊에對하야有効한抵抗을行함이多하니라

第二 農屋戰

農屋戰은村落戰과同要領에從하나農屋는官舍別庄과同한牆壁과溝壕로써包圍한一團의獨立家屋이라故로特히砲兵의發射에難堪하고且攻者는容易케繞回함을得는故로此를占守함은重要한理由가有할時에만限하느니라但豈하기難한牆壁과鎗臺기難한壕渠를備한農屋는步兵의獨力으로攻陷함이頗難하니라

獨立한製造所와寺院과學校等은亦農屋와其性質이同하니라

第三 市街戰

市街戰은暴徒蜂起하는時에發生하는事가多하나此時에는緊要한公共建築物과武庫等은速히守備처아남이不可하나斥候와特히騎兵斥候는間斷이無케市街를巡回하야結黨騷擾하는者가有하면決코宣假처말고兵部散을命할지니만일其命令을遵치아니는時는가장勇敢히兵器의力을舉하야處置함이可하나如斯한境遇에際하야軍隊가果斷決意하야暴徒를鎮壓하는時는擾亂을未萌에防하야大事に至치안케하는効가有하니라

抵抗하는勢力이猖獗하야全市街或其一部가임의

暴徒의 手中에 歸할 時는 正規의 攻擊法을 用치 아니
이 不可하니라

此際에 騎兵은 市街를 其外部로부터 包圍하야 暴徒
의 增援을 遮斷하며 其逃走를 防支하고 步兵 砲兵及
工兵은 直接하야 市街戰에 任하느니라 此等의 兵種은
數團의 混成隊가 되야 各其一定地를 分擔하야
싸움을 起하고 數所로부터 同時에 攻擊함을 要하
느니라

一直線或廣長한 街路에서는 砲兵의 効力이 大하고
阻絶戰鬪의 利가 少한 故로 敵은 通常 屈曲한 狹街路
에 據하느니라 然則 攻者는 丁字街路의 角端에 在한 家
屋에 侵入하야 此家屋으로 부터 家屋間에 在한 牆壁
을 破하고 前進함이 可하느니라 此方法에 由하야 阻

絶物의 後部에 在한 家屋에 達하는 時는 阻絶物은 스
스로 陷落하고 密集部隊는 街路上으로 續行함을 得
하느니라

敵의 抵抗이 甚히 激烈치 아니 時는 列伍를 家屋에 密
接하야 街路上으로 前進하고 密集部隊는 遠히 其後
方に 續行함이 可하느니라 此가 能치 못하면 砲兵을
用함이 可하느니라

敵의 據守地가 거우 都市의 一局部或大한 宇廈等에
不過할 時는 其糧道を 絶하야 飢渴이 迫케 함을 得하
느니라 만일 其家屋의 損害를 避하야 爲하야 砲擊을 行
함이 能치 못할 時는 夜襲을 行하야 其據地를 畧取함을
勉함이 可하느니라

第五章 隘路의 戰鬪(附錄第一編 隘路偵察의

條參看

第一節 總論

隘路(山徑과堤道와橋梁等)의戰鬪에際하야는軍隊가其正面을收縮치아남이不可하니此에는規正한戰鬪隊形을用함이能치못하니라
 隘路를通過하는軍隊는其全力을同時에使用함이能치못하니此不利는隘路가愈長하고且狹小함을從하야尤甚하와隘路가長하든지且掩蔽物이有하야兩側으로부디援助射擊을行함이能치못하든지又其一部에서만行함을得함에不過當時에當하야는展開하야를待하는敵前에서隘路를進出함은我兵力이優勢當時라도極히難事니라

第二節 隘路의攻守

隘路의攻守는守者가其後方과前方과中間에占陣함에從하야其趣가異하고且其利害가不一하니라

第一 隘路後의攻守

防禦 守者가隘路後에占陣當時는防禦上에左의利가有하니라

一 敵은오작狹隘한一通路에由치아니면來攻

함이能치못하故로攻者의主利가隨意로攻擊點을擇定하는利가全히消滅하느니라

二

守者는攻者의隘路通過에際하야其正面이滅殺함을乘하야優勢한兵力을展開함을得하고攻者는假令隘路를通過하야其兵을展開할지라도오히려隘路를背하야戰하는害가有하니라

三 守者の陣地에서隘路의出口(敵의入口)及隘路中을射撃할을得할時는其利가殊大하니

隘路後에占陣할守者の利가有함이如此하니攻勢에轉할과追撃을行함에困難을不利가有하니故로此占陣은決戰보담持續戰에連하니라
守者가戰術上의優勢를得함은敵이隘路를通過할야終る는時에在하니故로아도조록其兵力을節用할야此機에投치아남이不可하니砲兵은敵의砲兵이始初現出함에當할야此와對戰할이可하니彼至할기까지隱蔽할야在함이可하니라
此境遇에서는攻者の正面은通常狹小함으로써守

者는第一線의兵力을減할야強大을預備隊를備할을得하니其預備隊의任務가大概左와如하니라

一 임의隘路를通過할敵의歩兵을包圍할야前進하고敵이아즉展開하기前에몬저隘路中에擊退할지니라

二 我兵의守備처아난地로부터隘路의出口에達할敵에對할야前進하니但敵兵의此舉를適時에認知함은騎兵의任務니라

守者가만일隘路를閉塞할야專守의姿勢를取함이無하고機를見할야攻擊에轉코저함은攻者의一部가隘路를通過하는際에乘함이可한는是로爲할야或隘路를失할慮가有함으로써守者の任務됨이할것敵兵의隘路通過를防支할時에만如此할것

의策을行치아님이不可호니라

攻擊 隘路를通過호야行호는攻擊은極히困難호
事이라故로돈저迂回호든지或陽攻으로써敵으로

其兵力을他處에分割케함을要호니라

前示策에由치안코直接호야隘路를攻擊호는되
는暗夜或濃霧를乘호야急襲호지아니면其目的을
達호기難호는不得已顯然이行치吳함을得지吳호
時에는아모조록優勢호砲兵으로써准備射擊을行
케호고又障礙物의幅이許함을限호야步兵도佐호
參與함이可호니此種의射擊을由호야敵의砲兵全
部或一部를撲滅호고其步兵을擾亂함을得호면奏
効를得期호는니라

攻擊准備中隘路의狀況을精密히偵察호야破壞호

通過點을修理호고猛烈果敢케突擊을行함이可호
니此에任호步兵은아모조록隘路近傍에隱蔽호야
砲兵의援助射擊을藉호야密集部隊로써速히隘路
를通過호고索初에隘路前方의出口에達호는部隊
는아모조록迅速히展開함이可호니騎兵及砲兵은
我步兵이임의前方의出口를確守호後에通過함이
常이니라

第二 隘路前의攻守

防禦 隘路前의占陣에在호야는防禦上에左의不
利가有호니라

- 一 오작一條의退路에拘碍호야軍隊使用의自
由를失호기易호니라
- 二 敵의包圍를被호기易호니라

三 軍隊가 만일 退却함에當하야는 戰鬪를因하야 展開한 廣正面을 다스 減縮지아 님을得지 못하는故로 隊伍가 紊亂하거 易하니라

是로 由하야 觀하면 守者가 隘路前에 占陣함은 大槩 次에 揭한 特別境遇에 만行할지니라

一 一部隊가 其本隊의 隘路出進을 掩護한境遇 (前進行의 前衛任務)

二 一部隊가 其本隊의 隘路退却을 收容한境遇 (退却行의 後衛任務)

三 地形上에 特別隘路前方에 占陣함이 有利한境遇 又 隘路後에 占陣하면 攻者의 射擊에 制壓을 受한處가 有한境遇等

隘路前의 占陣은 通常半圓形이니 其翼을 障礙物에

倚托함이 可하고 其隘路口를 距한度는 部隊의 兵力과 特別任務에 關하니 又 前衛에 在하야는 本隊를爲하야 展開한餘地를 存함이 可하고 後衛에서는 其本隊가 敵兵의 妨害를 受치안코 隘路를 通過케하는等에 關하니라

隘路口直接의 守備는 特別一部隊에 任함이 可하니 만일 此處中防禦에 適한 地点及 橋頭堡가 有할時는 其利가 殊大하니라

障礙物의 後方에서 隘路前의 地를 射擊할時는 砲兵의 一部로써 任하는 事가 多하니라

行李等가 戰鬪의 障礙되는데는 다 隘路後方에 留置하든지 或後方에 送還함이 可하니라

退却은 一般退却法에 準하야 敵의 가장 強大한處所

에對하야 가장能히防備하고敵兵의寡弱을地에對
 應部隊로부터退却케하느니此際에或激烈한逆襲
 을行치아님을得지못하느니時가有하느니如何한境遇
 에在하든지敵後에退却할部隊는敵의追擊을防支
 하기爲하야隘路를閉塞하느니라

攻擊 攻者는守者를擊退할機會를顧慮치아님이
 不可한故로미리隘路의入口附近有利한地點에其
 兵을聚集하고機에投하야가장勇敢케突進함이可
 하느니其敵兵이오작一部(假令前衛)된時는攻者는敵
 의本隊가來會하기前에速히擊破함이可하느니라
 敵兵이敗走하면攻者는此에追하야隘路를通過하
 야前線에達함을勉할지니然則此目的을達함이能
 치못할지라도오히려敵兵으로其隘路를阻絶하느

餘裕가無케하느니利가有하느니라

第三 隘路中の攻守

隘路中の攻守는長한堤道와險峻하야攀함이不可
 한山中을通할徑路요其中間에多小한展開地域이
 有할時에生하느니其戰法은大槩旣說한隘路前後에
 서하느는者를折衷하야准據함으로써今에所說은專
 히山徑의側方을并用하느니山地戰鬪의事뿐이니라

第三節 山戰

總論 山地에特히高山은居民이稀疎하고且其地
 가大槩豐饒치못하야軍隊를休養할資力이乏하고
 通路도乏하고稀少하고且險惡함으로써行進과運動
 等이多勞力과時間을要함이大하지라故로縱隊의
 長徑及行進時間은平地보담二三倍오且路上에些

少을 障礙物假令大木石의 橫호것(이有호야도 回避
치아님을 得지 못호고 其他山地는 隊伍를 保持함이
難호지라 此等의 理由가 有호으므로 山地는 大兵을
動호에 適지 못호고 大戰호는 事가 稀호니라
山地에서는 射擊効力을 十分發揚함이 不能호니 何
故오 射界가 크게 制限을 易受호고 又 敵의 後方部隊
等은 我와 同히 容易히 掩蔽物을 利用호고 跳彈의 命
中이 期키 難호고 且 山地가 險峻호면 死角이 大호으
로 羅射의 利가 더욱 減少함이니 是以로 山地에서는
步兵은 特히 精確肅靜케호야 價値가 有호 射擊을 行
치아님이 不可호니 然則多數의 散兵을 備함보담가
장熟練호 射手만 火線에 用함이 可호니라
騎兵은 路外에 出호면 거의 効力을 失호고 且 不然호

야도 其力이 極히 微弱호지라 是以로 山地에서 搜索
과 警戒及 通信의 勤務는 다 騎兵에 委함을 得지 못호
니라
砲兵은 山砲가 아니면 使用호기 困難호고 工兵은 攻
者를 爲호야는 通路의 障礙를 除去호고 守者를 爲호
야는 防禦工事에 必要호니라
山戰에 在호야는 兩軍이 이모조로 遠히 屯駐高處
를 占領호야 瞰制의 利를 得함을 勉호지니 於是에 各
其爭先호는 運動을 行호야 勇敢奮進호야 其目的을
達호는 者는 임의 一步의 勝을 制함이오 又 或正面戰
鬪를 避호고 오작 運動에 由호야 敵의 陣地를 迂回호
는 者는 能히 敵으로 其陣地를 撤去케함이 可호니 如
此호 迂回를 行호는 時間을 多要함으로 必히 準備

고요且時機에適合호계計畫치아님이不可호니라
山戰에在호야는地理를熟諳호는鄉導를用함이가
장緊要호니라

攻擊 山地에서攻擊은防禦에比호면其兵力을聚
用함이多호니何故호守者는其兵力이寡弱호지라
도往往히額大호土地의占領함을要함이니라
峻崖에據호敵의射擊을당호야正面攻擊을行함은
殆難호니是故호攻者는其兵力의全部或大部로써
아모조록敵과遠隔호地에서(守者의通視及射擊을
避호기爲호야)高處에登호야山背로前進호고常에
반다서敵을包圍함갓치運動호호니其登호는되호는
大槩無徑의山坡를攀치아님이不可호니疲勞가隨
大호고且時間을多費호는故호攻者는此際에特히

敢爲호氣象을發揮함을要호호니라

此攀登은오작攻擊準備에不擊호호其効力의大함
은임의攻擊動作이其半을終함과同等호호니라

攻者가數個의平行호縱隊를成호야分進함은山地
에서가장多用호는바라此際에山徑(谿谷中)을前進
호는縱隊는此에接近호高處를前進호는他縱隊의

庇援을受호호는호니라

此際에攻者를爲호야特히危險함은守者가忽然이
諸縱隊를攻擊호야各個로擊破함이是라何故호攻
者가數縱隊로써同時에預定호一地點에出會호는

事는百方으로힘써도거의得지못함이니라

如此호共同攻擊點에向호야前進호는바數縱隊는
다同一호任務가有호호는各其全力을奮호야勇敢

히其前面的敵을攻擊하야驅逐함을勉勵지니然則
間接으로他縱隊를支援하야其前進을易容케하야
써全軍의勝을制함을得호니만일此에反하야一
縱隊가他縱隊의前進을待하야서로動作코저함은
맛츠니各縱隊가다前進함이能치못함不幸에陷호
느니라

山地에서는平地와차치強大호預備隊를前進케함餘
地가無호고又其全隊를整頓하야突擊을望이無호
故로各地區가同히小預備隊를備하야掩蔽物及地
形을利用하야前進호고不意의突擊을行함을要호
느니此側面에在호部隊는其射擊으로써此突擊을
援助함을要호느니라
攻者가山徑에通호豁谷으로써行進首路가되는데時

는此에沿호바高處에一部隊를出호야并進케하야
써側方을掩護호고且敵과衝突할際에展開함이便
케함을要호느니라

攻者는不緊호行李호비록小行李라도狀況에由호
야拂行이能치못함을顧慮함이可호느니라

防禦 小部隊는山地中山徑에通호豁谷에서防禦
陣地를求함이容易호니此陣地는展望이自在호야
便宜호射界가有호며特히劃然호限界가有호고且
兵員에相當호廣을要함은一般防禦陣地와無異호
니라

山地에서는미리敵의攻擊方向을察함이平地에서
보담가장困難호고且兵力分離의害는山地에서交
通이不便함을因호야最大호느니라

故로守者는몬저其兵力을集合하야待機陣地通常
鞍部니是는山徑의輻輳点이니라물占하고所要의
監視兵及展望哨만派遣하야機를見하고미리定하
防禦陣地에就하든지又敵이其兵力을分하야數道
로부터前進하야來하는者를邀하야各個로擊破하
는等事가緊要하니라

山地에서는地勢에妨碍하야敵兵을正面으로射擊
함이能치吳호事가多하니然호時는側面射擊을行
하야써諸部隊가서로援助처아님이不可하니라
守者의陣地가敵兵이必攻호바가아니든지又其陣
地가堅強하야拔함이能치吳호地에는守者는敵의
前進方向을瞭知호後에猛烈果敢케攻擊에轉함이
可하니攻者가만일此陣地를迂回하야最高處를占

領코저하는時는守者는몬저다시最高處를占하야
써防備호지니라

第六章 河川の戰鬪(教程附錄第一卷河川偵

察の條를參看)

總論 淺灘及橋梁이有치아닌河川の戰鬪는攻者
는架橋와舟筏等을因하야前岸에達코저하고守者
는其工事及渡過를妨害코저하는되由하야發生하
는니라

敵火의有効射距離內에서架橋及渡過를行함은極
難함으로써攻者는敵을欺騙하야其不意에出하야
行하는境遇가多호故로陽攻及急襲은河川戰鬪에
서攻者의特策이니라

攻者는架橋舟筏에何物을採用호는지는兵力衆寡

에關하야有時로此二者를并用하느니라
 攻擊 敵의不意에出하야架橋할境遇는大槩左와
 如하니라

一 架橋材料(定式或應用材料)를河邊(林端或潮

水枝流의邊)에蔭蔽하야備置할境遇

二 守者가我渡過點을誤認하든지或强盛케行
 하느我陽渡에依하야敵이其預備隊의使用
 을誤하느境遇

凡架橋는아모조尋夜間에行하야翌日拂曉前에完
 成할을要하느니其工事는工兵의主任이오其技術

에關한諸件은築城學教程에詳하느니라
 渡過의實行은拂曉가가장便利한故로軍隊는其以
 前에集合地에到할이可하느步兵이最初에渡過하

고他兵種이其次에陸續渡過할이可하느니라
 最初에敵岸에達한部隊는速히守者의監視部隊를
 擊退하야廣히前地를畧守할지니此間에後方部隊

는連續히增加兵을送遣할이可하느니라

渡過點을擇定하느되는敵岸의地形이强硬한防禦
 에適하든지又我岸으로부터砲兵으로써前進部隊
 를援助하든지渡過의便否等을顧慮치아남이不可
 하느니渡過는隘路前의攻擊法에據할이可하느니라

防禦 河川防禦에서는通常廣亘한線에서敵의渡
 過를防支치아남이不可한害가有하느니防禦할河川
 이더욱廣亘할을從하야尤甚한지라戰史에徵하건
 디비록大河에據하야실지라도久히優勢할敵을防
 禦할이能치吳하다하느니河川防禦의困難한所以를

誼함이니라(教程附錄第三卷露土戰)

守者는 다渡過點을破壞專守防禦의境遇或閉塞하야渡過手段을다奪取하고防禦을河線全部의監視는監視部隊에任함이可하니(河線의延長을從하야此獨立部隊의數를增加할지니라)此部隊는大槪前哨의方法을準하야警戒함이可하니其任務는普通의前哨보다가장困難하니何故오監視部隊는本隊로戰鬪準備에必要할時問을得케할爲으로써足하도못하니敵의渡過가眞面目인지장차詭惑을인지此를認知하야其眞面目되는時는其架橋工事를妨害하기爲하야도로허攻勢動作을自爲치아닌을得지못하니是監視隊의兵力은普通前哨의兵力보담衆多케하고有時로砲兵도附加함을要하는所

以니라

監視線에使用치안는部隊는다預備隊가되야道路의便利을顧慮하야待機陣地를占하야써敵의架橋工事를妨害하고又其一部가임의渡過하면아주增加兵을得하기前에神速果敢히擊退함이可하니라

第十三篇 特別動作

第一章 總論

此所謂特別動作이라하는것은通常本作戰과同時에小部隊의行하는各別한動作이니大決戰을避하고오작小結果를積하야本作戰을裨益하는者가是니라

如此한動作에任하는隊長은其任務如何를勿論하고其命하는長官의게訓令을受하야그達함目的을

詳知하고獨斷하여所事에從하느니라
隊長은部下에告하되敵狀과我目的과其他機密에
涉지아닌要件으로써하고部隊長에는各其責任과
專斷의權限을明示하고特히次級將校에는其計畫
된諸事를知케함을要하느니라

如此한軍隊는寡少한兵으로써優勢한兵을當함이
可하故로正堂堂戰을避하고地利와奇計로써
其力을補하여敵의意表에出乎으로써戰鬪의本性
이되느니其警戒勤務等은大槩通則에準함이可하
는通常特히兵員을減少케하여其企圖를秘匿함
을爲함이니然이는敵을欺騙하기爲하여大兵을粧
成書도有하느니라

第二章 奇襲

第一節 通義

奇襲이란거슨敵兵의進止를無別하고그無備함을
乘하여其不意를襲하는統稱이라此를行하노되는
或掩擊으로써하고或伏兵으로써하느니라

第二節 掩擊

掩擊이란거슨自進하여敵의行軍과駐軍或陣地에
在함者를急襲함을謂함인故로몬저敵의靜動을察
知함이緊要하니만일敵의警戒及準備가周到할時
는其功을奏함이難하느니라

夜間의掩襲은分離한部隊로써協同一致한動作을
行함이能치吳하故로아모조異一縱隊로써함을要
하느니만일數縱隊된時는各隊가或道を誤하고或
時機에몬저敵의衝突하야我의意圖를早知케하

는害가有하느니라狀況에由하야區分을要하느
時는敵의게接近할時에行期를定하야共同히攻擊
을施行함이可하니라

費開에敵開地或原野에서하느掩擊은騎兵이오其
他의境遇에서는步兵을採用함이可하느砲兵은도
로히敵兵을警醒하야戰鬪準備를行케하느慮가有
함으로써用치아님이可하느但他兵種이掩擊하느
間에敵營을射擊하야擾亂을致케하기爲하든지又
我退却을掩護케하느境遇에는此限에在치아니하
느其射擊開始는過早치아님이可하느니라

掩擊을實行하느다는時夜特히暴風雨의夜와濃霧
의時와拂曉前이可하느是는實際上敵兵이其警戒
를怠하기易하境遇오拂曉前에서는掩擊의結果를

日出後에收하느利가有함이니라

前進은秘密하고迅速하고且靜肅케함이可하느敵
의前哨及斥候等은아모조尋獲하고所望의目標에
向하야續行함이可하느但是等의敵兵이我企圖를
早知하야警報하고저하든지或我를當코저하느境
遇에는此限에在치아니하느니라

掩擊隊가機에몬저敵兵의게發見할時라도生하此
에向하야決意前進함이可하느如此하느時는敵
으로狼狽하야熟思集合等이及저못함을得하느니
라

第三節 伏兵

伏兵이란거슨一地에潛伏하야敵이來호기를俟하
야行하느急襲의謂니誘擊과待伏의二小別이有하

지라誘擊은特히一部隊를出호야敵과戰鬪호야伏兵所在地附近에誘引호야오乙은敵兵의行進路를判斷호야伏兵을置호고敵兵이來호기를乘호야現出호으로睨目的이되호니라

凡伏兵은敵의戒愼이嚴密처아닌時곳特히乘勝호야暴進追擊호야來호호境遇에川호이多호니其伏兵을置호處所를擇定호호는是時間을存호도有호고或呐嗟間에서도有호니라

伏兵에用호호兵種은地形에關호야定호호往往이步兵으로不意에急射擊을호개호야敵兵의擾亂을乘호야騎兵으로襲擊케호호常이니라

伏兵의位置에就호호는미리敵兵의개發見케호호지안는디가장注意호호지니其伏兵地와敵兵과遠隔의

度는小銃의有効射距離와敵兵의有効襲擊距離에准호호可호니라

伏兵은가장戒愼을加호야靜謐을保호고常에戰鬪準備가完全호호를要호고且我哨兵及斥候等은도로敵兵이我를發見호호易호媒助가됨으로써호호一二哨兵만出호고指揮官이自己로敵을視察호호好機를見호호急襲의令을下호호可호호但敵의警戒部隊가來호호는아모조尋行過疎호호我目的된敵兵과本隊의來호호를待호호現出호호를要호호니각伏兵이急襲을行호호法이不一호호或全力을相合호호야行호호或相分호호야敵兵의隊頭와隊尾或隊側에向호호야行호호니其全力으로써호호者는掌握에便호호且威力이大호호가有호호潛匿에便처아닌不

利가有富으로써適當한潛匿地가有할時가아니면
用富이能치못하고此에反하여其兵을分行하는者
는勢力을分離하고且各隊가急襲의時期를異케할
慮가有하는敵의小部隊를殲滅하는디는가장有利
한方法이니라

此戰鬪는如何한程度까지持續할지는最初의結果
及彼我的兵力에關한니만일急襲이功을奏치吳
할時速히戰鬪를脫하고退却할을要하는니是로爲
하여集合點을預定하여置富이可하니라

第三章

背後交通路의掩護及破壞(阻絶)

掩護 我背後의交通路를掩護富은兵站司令官의
任務나此目的을爲하여往往이步兵及騎兵으로成
한軍隊를其直轄에屬하는니라

上民이蜂起하고又敵의別動隊가徘徊하는地에서
는我背後의交通路鐵道와道路와橋梁等及電信線
을掩護富이極히困難하니故로其地方人民으로擔
負의責을任케富이可하니라

鐵道線路中에危殆한地를運行하는緊要한列車에
는該地方의名望家를人質하여乘載富이可하니라
兵站守備兵은特別破壞하기易한諸點橋梁과隧道
等에所要한哨兵을排置하고斥候로써此諸哨所間
及其近傍의地를間斷해서巡行케富이可하니重要
한哨所에는迅速히交通하기爲하여電信과記號等
의通信法과或間諜을用하여狀報를得富이가장緊
要하니라

危殆가甚할時는大空停車場에特別支隊와列車

를備考야찌敵兵이某地에來襲하든지或某地를破壞코저하든디際하야迅速히出兵을要하느니라
地方의人民이騷擾한色이有하든지又武備를暴徒가賭集할時에도生출出兵하야迅速猛烈히驅逐함이緊要하느니라

破壞及阻絶 敵의背後交通路를遮斷하기爲하야鐵道電線及道路를破壞하고或阻絶하느니라鐵道를破壞하야其修繕再用이一週日以上을要하느는者는軍司令官과獨立師團長의指揮를從하야破壞하느니是로爲하야通常工兵을使用하고其破壞는橋梁及隧道에서함이便하느니라然하나는等의要點은敵兵이恒常占守함으로써몬저其敵을擊攘치아닐을得지못함이多하느니라

鐵道の運行을阻絶하야다시使用하느는數時間或一二日를要할뿐되는데前項에揭한長官보답下該指揮官의責任에屬하야行하고軍隊는반다시明確한命令을帶함을要하느니此臨時의阻絶은我軍의作戰區域內에서前進에는此를避하고駐軍에는此를許하고退軍에는此를要하느니敵의作戰區域內에서는常에此를施함을勉함이可하느니라
一時의阻絶은帆鐵을除함이足하느眞實로阻絶코저하면綿火藥으로써要點과要器를破壞할지니騎兵은此兩目的을爲하야裝備하고且教練함으로써小斥候라도此兩方法을完成하느디겨우十分乃至二十分時를要할뿐이니라

敵의軍隊及敵地의人民이서로通信을絶케하
爲하야一時電線을斷함은退却할時에는後衛로前
進及駐軍할時에는獨立部隊의指揮官이命하느
任이有하고其他境遇에서全히電信의交通을斷하
는事는軍司令官과獨立師團長의命令을從하느니
라

地中電線은通常街路의一側에서深이約一米突의
地中에通하야大槩木石으로所標示하고만일其位
置가密치못할時는地方官吏의詰問을受하느니라
道路의破壞는橋梁으로함이便하니鹿柴及鑿上(特
히隘路에서)는敵을一時防支함을得하느니決코久支
함은得지못하느니라
凡軍隊의施行하느各破壞는其地와時와方法을記

하야其長官의報告함이可하니만일我軍에用하
는鐵道及電信을破壞하느時는其破壞의命令及其
施行法을其近傍停車場及電信局에通報함이可하
니라

敵地에서諸種의破壞는住民의協力을藉함이便하
니是로爲하야는多少恐嚇手段을用쳐야함을得지
못하느니라

第四章 戰場에서工事の掩護

戰場에서工事(堡壘와橋梁과鐵道等의建築及破壞)
를施行하느디當하야敵兵이妨害할慮가有할時는
掩護隊을派遣하느니其進出距離는工場으로戰鬪
의區域內에在케하지안코且아모조록敵砲의有効
射距離外에在케함을要하느니掩護隊는敵의遠近

에應하야待機의姿勢를取하고又防禦排備을行하고遠히斥候及監視兵을派遣하야時機를失치안코敵의前進을探知함이可하니라

技隊가만일自力工事を施行함이可할時는步兵의一部及工兵을此에從事케하고步兵의殘餘及他兵種으로써其掩護에任함이可하니라

工事に任하步兵及工兵은背囊을卸하나銃은攜帶하든지或不然하야도身邊을離함이不可하니라敵襲에當하야는掩護隊가專히防支하고所要가有하면攻勢를取하고工事는其作業을續行함이能치못하되至하야비로소戰鬪에參與함이可하니라

第五章 輜重의護衛及攻擊

第一節 護衛

安全치못할地方에輸送하는輜重에는其護衛로特別히枝隊를附치아남이不可하니其兵力及編組는輜重의多寡와種類彈藥과糧食과被服과戰利品과俘虜와傷者等及危險의程度에從하나아모조로步騎二兵을併用하느니但如何한境遇에든지其兵員은일체節約함을要하느니라

輜重護衛는特別動作中가장困難한任務의一이라其理由가左와如하니라

一 護衛隊의指揮는軍隊의指揮보다一層困難한者니輜重의愈大할수록尤甚하니라

二 狀況에由하야(特히隘路中)駕馭馬에命中한數彈을因하야全輜重의滯留되는慮가有하니라

三

輜重은其運動이遲緩함으로써敵襲을遇하면列伍가潰亂하기易하니護衛隊長은미양風紀及戰術上的兩手段을取함이可하니라其風紀手段은輜重을數部에分하여各部의監視는下士或上等兵一名兵卒數名에任하여各車馬로密接繼續하여決코一定한列序를紊亂치안케함이可하니車隊이만일破損하면列外에出으면修理를加하고다시列後에接續케하고其修理함이能치 못하者或病傷하여運搬에不堪한駄馬는其擔載物을他車馬에轉載함을要하니라所謂戰術手段은護衛隊를二部에分하여其一部는直接하여輜重의前後에排置하고一部는敵襲의慮가有한方向에對하여前後護衛와側衛의要領을從

하여掩護에任하고아모조록遠히騎兵을出하여搜索케함을要하니라

輜重이만일諸方向으로부터敵襲을受하여逃避함이可함을察知하고其輜重이車輛으로成할時는取後의防禦手段으로車陣을作할지니其車輛은密接하여輜木을內方에轉向하고駕馬는解脫하여取者가車陣內에保持하니凡車陣을作하는디는多時를要치안는故로騎兵의襲擊에對하여는大槩此法을依치아니치못하리니輜重이만일駄馬로成할時는適當한地形을求하여遮蔽하는一法이有할뿐인故로駄馬編成의輜重은縱長이大할뿐아니라防禦上에도坐한車輛編成에及치못함이遠하니라休止가暫時間되는時는護衛兵은行軍警戒을保持

호련이足호는 만일長時間이든지或夜間에在호야
는危殆호方向에對호야前哨의方法을取호고且諸
方向에斥候를派遣치아님이不可호니其他休止에
際호야는綿密히近傍의村落과敵兵이潛匿호慮가
有호地를候察호고且船卒役夫等の離散호을嚴禁
호지니라

水路輸送에는警戒部隊는輸送船의前後左右에在
호야或陸行호고或舟行호는니護送兵은分호야各
輪送船에乘호고其首力은他船에乘호든지或陸行
호는니其陸行에는空船數艘를準備호야機를應호
고其兵을一岸으로부터他岸에轉移호는되用호는
니라

橋梁과關門等에敵兵이據호야我航路를阻호處

所에는護衛兵이適當에防備호야我輸送船의通過
에支障이無케호이可호니河川이近히高地脈에沿
호時는護衛兵의大部는其高處를行進호이可호니
라

俘虜의護衛를爲호야는前示호通則外에다一
要件을顧慮치아님이不可호니大槩俘虜는脫逸호
機會가有호면其乘호고其甚호者는스스로其機
會를作爲호는故로其護衛가不難호物件과從順호는
傷者의護衛보담特異호戒愼을要호으로其任務가
一層困難호니라

護衛兵은俘虜가目前에其銃을裝填호든지或遁逃
를企호는時는其銃殺호事를告知호지니라

俘虜를爲호야는아모조露營을避호야一團或數

個大塚(寺院과 官舍와 學校等)에 鎗鎗을 야宿止케 하고 日哨兵을 備하여 周圍의 地를 警戒케 하니라
敵營에 當하여는 卒營을 伏臥케 하고 敵의 加勢치 못하게 하기 위하여야 한일 命을 從치 아니면 統殺함으로 써 防衛하고 且有 妄하면 實行함이 可하니라

第二節 攻擊

一 攻隊가 敵의 輜重을 掠奪할 때는 輜重의 行進을 防害하기 위하여야 아모 近接치 아니하고 不可하니 其攻擊의時機는 輜重이 森林과 隘路와 道路의 屈曲部或 峻坂을 通過할 때와 大休止를 行하고 其馬匹의 一部를 飲馬場에 送을 等時가 可하니 其攻擊은 大槩奇襲法에 由하니라
凡 輜重을襲하는 것은 攻者의 一部는 護衛兵을 散亂

케 하고 其他는 輜重을 掠奪함을 勉하고 만일 其輜重이 車輜으로 成할 때는 其先頭及 後尾에 迫하여 其車輜을 奪取하여 道路에 橫置하여 其他車輜의 進退를 阻碍함이 可하니라

輜重의 縱長이 著大할 때는 同時에 數處로 부터襲하여 其護衛兵을 支分케 함을 勉하고 掠奪한 物件中에 運搬이 不便한 者는 燒棄하는 등의 處置를 行함이 可하니라

輜重을襲하는 第一要件은 速히 馬匹을 射擊하여 敵으로 昏頭狼狽하여 맛춤 輜重物品을 委棄하고 遁逃케 함이 可하니라

敵의 護衛兵이 優勢하고 且 己의 我攻擊에 應當准備가 成할 때는 敵을 擾亂케 함으로 써 足하다 하니 是

를爲하야遠方及諸方向으로輜重을移成하고且馬
匹을阻擊하야一部의戰勝을計하고其護衛兵이攻
擊准備가成하면忽然이退去하야其跡을晦하고他
要處에迂回하야다시攻擊하는等으로隱顯出沒이
無常함을要하느니此를爲하야騎兵을特用함이可
하니라

水運의輜重을裝하는디는河岸의高處或灣曲部에
占陣하야싸몬져護衛兵을困折케할지니라
鐵道輸送의輜重에對하야는榴彈으로滾開車와車
輜을射擊하야其行進을停止케함이가장簡便한法
이라만일砲兵이無하면軌鐵을破壞하는지或軌鐵
上에重한物體軌鐵과大石等을置함이可하니角材
等の輕한物體는列車의進行이遲緩할時는忽然投

擲하야列車가軌道外에逸脫함이無하니라

第六章 徵發附錄第一卷徵發의條를參看

本章所說은軍法가스스로實行하는所謂部隊徵發
의事뿐이오且專히防禦의慮가有한地에서限하느
니라

部隊徵發에는各部隊步兵大隊와騎兵砲兵中隊가
各其徵發隊를派遣하는법이然이나諸部隊가同
一한地에서徵發을行할時는便宜上으로其徵發諸
隊를統一의指揮에屬케하느니라

徵發隊의兵員은所要와危殆의度를從하야不一하
나常에만다시將校의指揮에屬하야警戒하야行進
하고임의徵發地에達하면警戒部隊는其地區外에
서掩護에任하느니此際에遠히斥候等을派遣함은

도로 허敵의 注意를 惹起하는 慮가 有함을 顧慮하지
니라

此掩護에 由하야 徵發部隊는 其地에 就하야 徵發을
行하느니라 此際에 住民이 敵의 게 通知함을 預防할 吩

兵을 徵發地 諸出口에 備할지니라

徵發을 行하느디는 地方官吏로 助力케 함이 便하니
又官吏의 게 委하되 某時限內에 徵發物件을 某處에
收集하되 且 其運搬에 要함 車馬人夫도 供給하라 함
지니 官吏가 만일 不肯하든 지 人民이 徵發을 拒하든
지 人民이 임의 其地로 부터 遁逃하든 지 時間이 切迫
함等 境遇에서는 軍隊가 스스로 徵發을 行하느니라 此
를 爲하야는 時宜를 由하야 武力徵發을 不得不行이
니 是等 境遇에서는 徵發隊의 一部는 車馬를 伴하야

每戶에 徵發物件의 有無를 調査하며 아모 조속히
搭載케 함이 可하고 他一部隊는 住民의 抵抗을 處置
함으로써 아모 조속 徵發地 中央에 密集함을 要하느
니라

部隊 徵發中에 軍隊가 스스로 徵集을 行할 時는 가장
嚴重한 監視를 要하느니라 만일 怠忽케 하면 軍紀가 紊
亂하야 各兵이 徵發의 制限을 越하고 掠奪竊取의 罪
를 犯하느 慮가 有하느니라

搭載함 車馬는 監視兵을 附하야 敵의 게 反對함 出口
에 集하고 其車馬가 全集하면 運行을 始하고 掩護는
後衛方法에 準하야 續行하고 其他의 兵은 徵發品의
直接護送兵이 되느니라

徵發이 終하기 前에 敵兵이 來襲할 時는 掩護隊는 堅

強히敵兵을防支하여州郡을移徙하고且運去의
時間을與치아함이不可하고又敵兵이優勢하면我
가不利한境遇를預慮하여集台點을預定하여置함
이可하니라

第七章 別動隊

別動隊一名遊擊隊는敵軍의交通을遮斷하여其軍
資를損害하고或畧取하여敵을擾亂케하고且敵狀
을收集하는等이多하면敵軍의背後와側面에서動
作하는者나然하나敵의背後에久駐하여奏効의望
이有함은大槩自國國民의援助를得을기爲함이
在치아니면能치 못하니라
別動隊는地形을應하여步兵과騎兵을用하고或此
二兵種을併用하여編成하는니라

別動隊는艱苦缺乏에耐하고且戰鬪에熟達한敏捷
勇敢의兵을要하고其隊長은能히軍事에通曉하고
奇策에富하고且膽力이有치아함이不可하니라
別動隊에不法의兵을用하면弊害가多하故로軍紀
에習熟한兵天正規兵을用할지니라

別動隊는特히進退의快捷을要함으로必需의糧
食及彈藥만携帶케하고아모조尋輕裝케함이可하
니라

別動隊의隱匿은隱顯出沒함이數으로我對作을端
倪치 못하게하는지在함니是以로時時虛說을流布
하고且人民으로我行進方向을誤認케하여陽히一
地를遊하고陰히其本來의方向을取하며又安全한
處所에潛居休息함이다가忽然強行(常에夜行軍)함이

他處所에赴는니凋殘한地에서는饑渴을忍하고
殷富한地에至는야醫하며優勢한敵을逢하면避는
야忽然他處에現出함이可는니라
別動隊는容易히敵의게發見치안케하기爲고且
其兵의疲勞를減하기爲야아모조尋其警戒區域
을減縮하고至嚴한戰鬪準備로써價補치아님이
可는니敵狀은住民又間諜으로得함을勉하고其攻
擊의企圖를實施는디는奇襲을用함이可는니라
別動隊가만일危地에陷은時는重要한理由가無
면決코長時間의抵抗을爲치말고時宜에由는야離
散하고敵前을逃은後에預定한地에集合는는等隨
機應變의處置를怠함이不可는니라

張數	行數	誤	正
四	四	徵	徵
四十一	一	時	時
四十六	九	且	爻
五十八	十二	호이	호니
八十八	二	不擊	不過
八十九	二	易容	容易
一百三	八	호時	호時

□ 譯者紹介

學歷 및 經歷

서울中・高等學校 卒業(10회)
陸軍士官學校 卒業(19기)
東國大學校 經營大學院 修了
國防軍史研究所 責任研究員 歷任

主要 論著

韓國戰爭, 休戰史(국방부 전사편찬위원회, 1989)
韓國戰爭戰鬪史, 白石山戰鬪(국방부 전사편찬위원회, 1990)
韓國戰爭戰鬪史, 蘆田坪戰鬪(국방군사연구소, 1992)
韓國戰爭被害統計集(국방군사연구소, 1996)
大韓帝國軍事敎範集, 步兵操典(국방군사연구소, 1998)
6·25戰爭의 休戰協商과 그 敎訓(「國防」 7, 8월호, 1990)
韓國戰爭 休戰의 歷史的 再照明(「軍史」 제26호, 1993)

戰術學敎程(下) 大韓帝國軍事敎範集 ③

1999年 9月 1日 印刷

1999年 9月 4日 發行

서울特別市 龍山區 龍山洞1街 8番地
發行處 國防軍史研究所
發行人 朴 淳 贊
印刷處  옥산인쇄주식회사

〈非賣品〉

본 저작물의 복제, 복사 또는 인용시에
국방군사연구소장의 승인을 득할 것